yearly *Fund Review 2001*

2002. 1

국내편

---

yearly ***Fund Review***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초에 발간됩니다. 그러나 yearly ***Fund Review***의 어떤 내용도 특정 증권이나 펀드의 매입·매도 추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성 책임자: 연구위원 고광수 ☎ (02)3771-0633
내용 문의: 연 구 원 박기홍 ☎ (02)3771-0635
기타 문의: 연구조원 황은미 ✉ em425@ksri.org
한국증권연구원 홈페이지: *www.ksri.org*

서 언

저희 증권연구원은 2001년 1월부터 전자 매체를 통해 월간으로 발행하던 ***Fund Review***를 2001년 6월 4일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6월호부터는 인쇄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 ***Fund Review***는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 경과되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Fund Review***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하면서, 증권연구원은 향후에도 신속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아 ***Fund Review***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1년의 ***Fund Review*** 발행 과정에서 수집되었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 yearly ***Fund Review 2001***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의 펀드산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그래프와 제도 변경 사항, 월간 자료에서 누락되었던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부득이 국내편과 해외편으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국내편을, 2월에는 해외편을 발간합니다. 펀드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연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독자들에게 본 자료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의 작성 책임을 맡았던 본원의 고광수 박사, 매일 매일의 작성 업무에 심혈을 기울였던 박기홍 연구원, 도안 및 편집에 정성을 다하였던 황은미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Fund Review*** 도안과 초창기 편집을 담당하였던 김혜성씨, 최근의 해외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준 강창윤 연구원, 신속한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실 및 세종아트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02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목 차

Ⅰ 수탁고 동향

수탁고 동향 목차

수탁고 동향 요약

1. 금융권별 규모의 장기추이 Ⅰ-1
2. 2001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Ⅰ-2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Ⅰ-3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Ⅰ-4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Ⅰ-5
6. 규모별 설정잔고 Ⅰ-7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Ⅰ-9
8. 신탁형 저축 추이 Ⅰ-9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Ⅰ-10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Ⅰ-11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Ⅰ-12

Ⅱ 제도 동향

제도 동향 목차

제도 동향 요약

1.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관련 규정 Ⅱ-1
2. 증권투자회사법 및 관련 규정 Ⅱ-10
3. 투신협회 규정 Ⅱ-13

4.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II-14
5. 근로자복지기본법령 II-16
6. 조세특례제한법령 II-18
7. 법인세법령 II-23
8. 소득세법령 II-25
9. 기타 펀드 관련 제도 II-26

III 펀드산업 현황

펀드산업 현황 목차

1. 1월 III-1
2. 2월 III-35
3. 3월 III-77
4. 4월 III-117
5. 5월 III-161
6. 6월 III-203
7. 7월 III-241
8. 8월 III-285
9. 9월 III-331
10. 10월 III-377
11. 11월 III-425
12. 12월 III-473

IV 해외 수탁고 현황

해외편 별권 발간

V 해외 펀드산업 현황

해외편 별권 발간

Ⅰ 수탁고 동향

수탁고 동향 목차

수탁고 동향 요약

1. 금융권별 규모의 장기 추이 I-1

2. 2001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I-2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I-3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I-4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I-5

6. 규모별 설정잔고 I-7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I-9

8. 신탁형 저축 추이 I-9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I-10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I-11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I-12

수탁고 동향 요약

○ 투자신탁 전체 수탁고는 1999년 한 때 은행예금 수준에 필적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하락하여 지금은 147조원 수준의 안정세를 보임

- 성격이 비슷한 은행신탁은 1997년까지는 투신 수탁고를 크게 압도하였으나, 2001년 말 현재는 78조원 수준에 불과함

○ 2001년에 전체 수탁고는 약 14조3,640억원 증가되었으나, MMF 규모의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음 (상관계수=93.76%)

- 실적배당 상품의 성격이 제일 약한 MMF가 전체 수탁고 수준을 흔든다는 것은 업계의 안정성을 위해 과히 바람직하지는 못함

○ 펀드 수는 7,831개에서 6,525개로 감소하고 펀드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평균 펀드 규모는 168억원에서 23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의 합계가 20조4,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부실자산 처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음

○ 투신사 고객별 자산 규모를 보면,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은 71%에서 76%로 증가하였지만 개인은 29%에서 24%로 감소하였음

- 개인 비중의 감소는 수탁고의 안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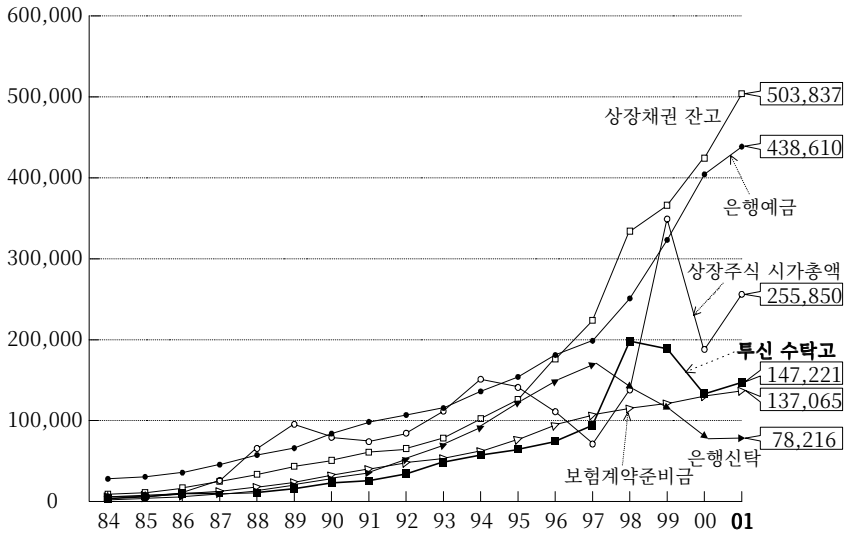
○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는 2조1,360억원에서 5조4,64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새로 도입된 뮤추얼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채권혼합형을 중심으로 2조6,930억원 수준을 달성하였음

- 폐쇄형의 급격한 감소와 뮤추얼펀드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됨

1. 금융권별 규모의 장기 추이

금융권별 규모의 장기 추이 (연 말 기준)

(단위: 10억원)



※ 보험계약준비금은 생보와 손보의 합계이고, 2001년 자료는 9월 현재임

※ 은행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합계임

자료: www.kitca.or.kr, '주식' 각호, '증권시장' 각호, '금융통계월보' 최근호, '보험통계연감' 각호, '조사통계월보' 각호, www.bok.or.kr

○ 은행, 증권 및 보험권 규모

- 은행: 은행예금과 은행신탁이 1997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은행예금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신탁은 계속 감소하여 명암이 엇갈림
- 증권: 상장채권 잔고는 국채 발행 증가에 힘입어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가장 등락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
- 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은 경제 상황과 큰 관계없이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함

○ 투자신탁 수탁고

- 1997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수탁고가 1998년의 급등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2001년 말 현재에는 147조2,210억원 기록 (신탁형 제외)
  - 대우사태가 시작되던 1999년 7월 22일에는 설정잔고가 255조원에 이르렀으며, 순자산가치는 270조원을 상회했음
  - 대우사태 이후 약 2년간 하락하던 수탁고는 투신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현금흐름의 증가로 현재 안정세 돌입
- 성격이 비슷한 은행신탁은 1998년부터 투신권으로의 자금 이탈 이후 꾸준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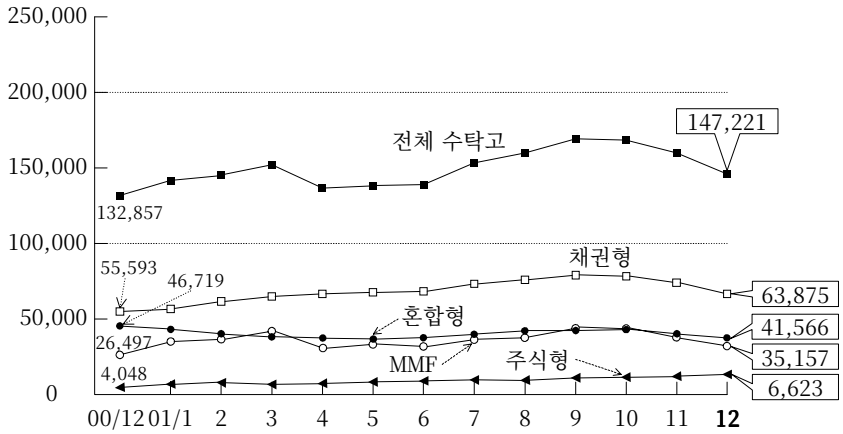
2. 2001년 수익증권 수탁고 추이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2001년 말 현재 전체 수탁고는 147조2,210억원 (신탁형 제외)으로 14조3,640억원 증가

- 주식형, 채권형, MMF의 경우 각각 2조5,750억원, 8조2,820억원, 8조6,600억원씩 증가
- 반면, 혼합형은 5조1,540억원 감소

(단위: 10억원)



자료: www.kitc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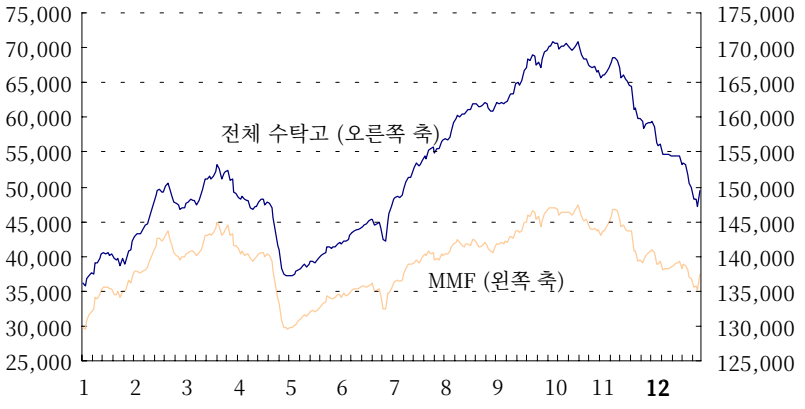
전체 수탁고와 MMF 수탁고 추이 비교

○ 전체 수탁고는 초단기 투신 상품인 MMF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할 투신권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됨

-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 수탁고와 MMF 수탁고의 변화 형태가 유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수탁고가 MMF 수탁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전체 수탁고 변화율에 대한 각 펀드 유형별 수탁고 변화율의 상관계수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장기채권형	단기채권형	MMF
-5.19%	11.27%	12.42%	34.89%	32.89%	**93.76%**

(단위: 10억원)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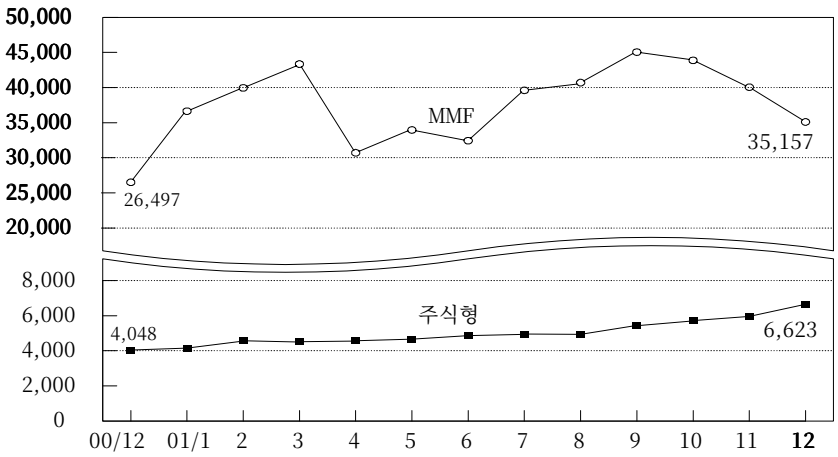


자료: www.kitca.co.kr

3.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주식형 및 MMF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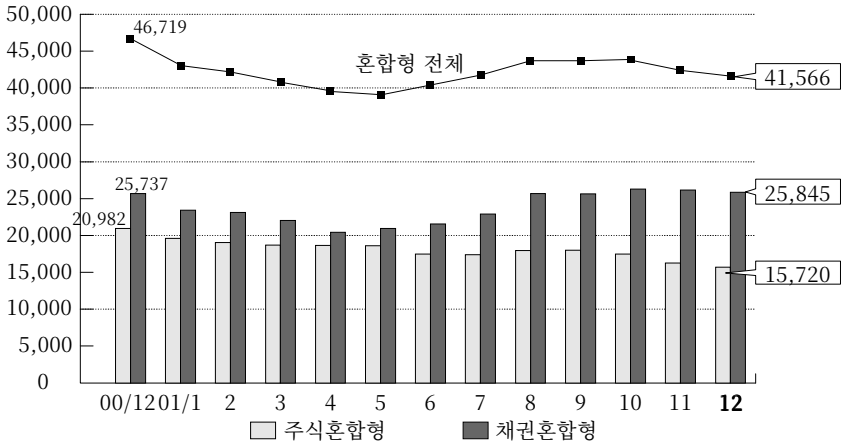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 www.kitca.co.kr

혼합형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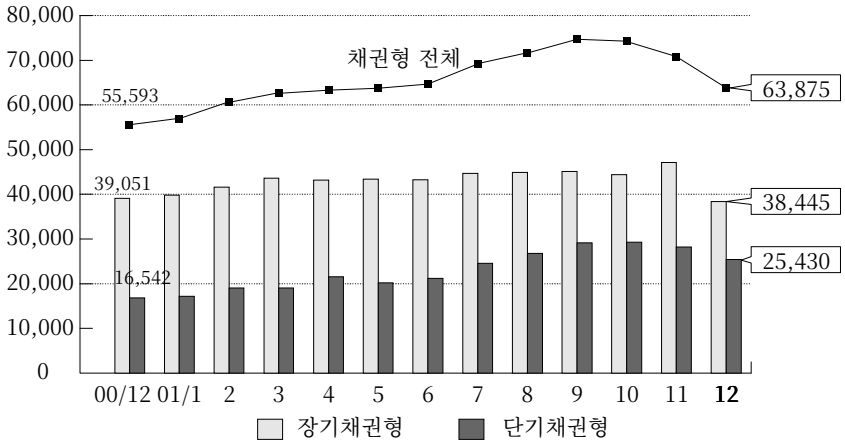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 www.kitca.co.kr

채권형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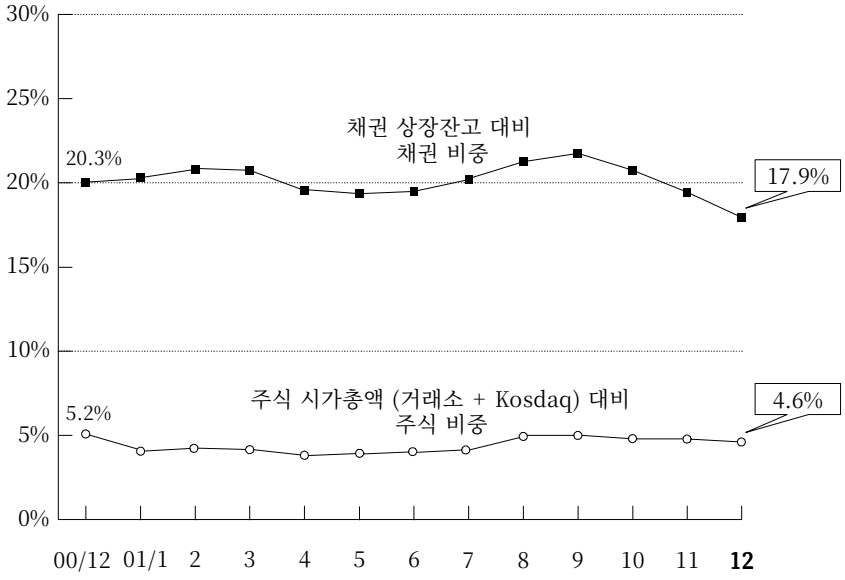


자료: www.kitca.co.kr

4. 채권 및 주식의 편입 현황

투신 채권 및 주식의 편입 비중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채권 및 주식 편입 비중이 각각 -2.3%, -0.5%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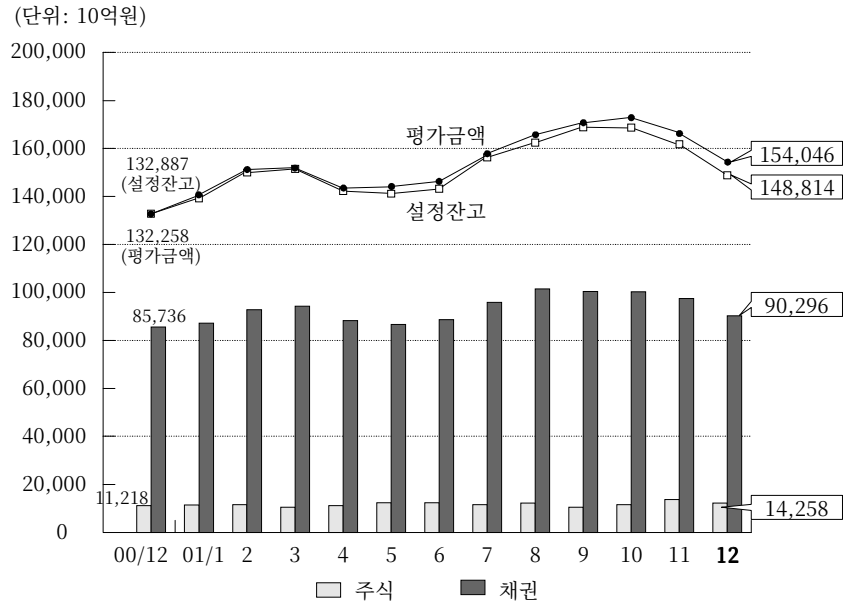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증권시장」각호, www.kosdaq.or.kr

투신 채권 및 주식의 편입 규모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투신권에 편입된 주식 및 채권의 평가금액이 각각 3조400억원, 4조5,600억원씩 증가

–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채권의 변동성이 전체 평가금액 및 설정잔고에 그대로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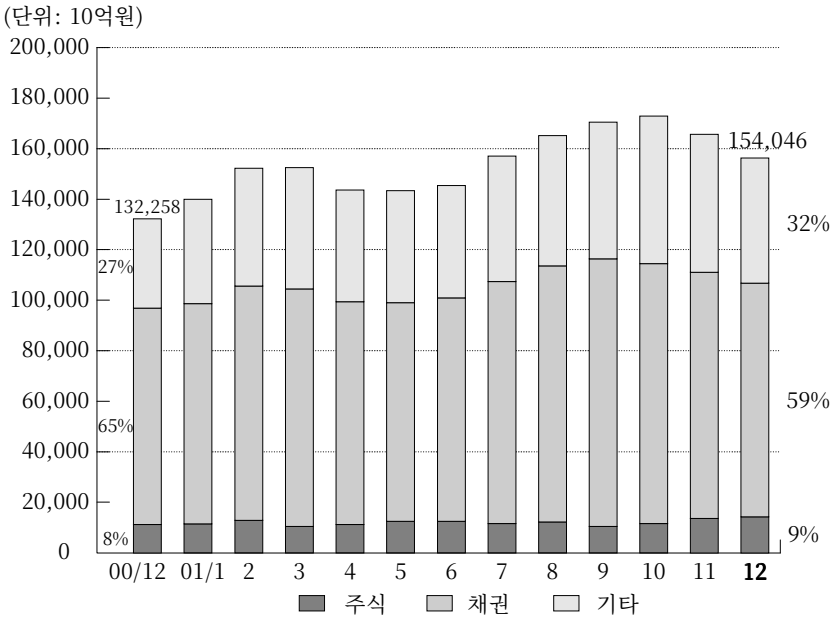
※ 주식 및 채권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www.kosdaq.or.kr

5. 신탁재산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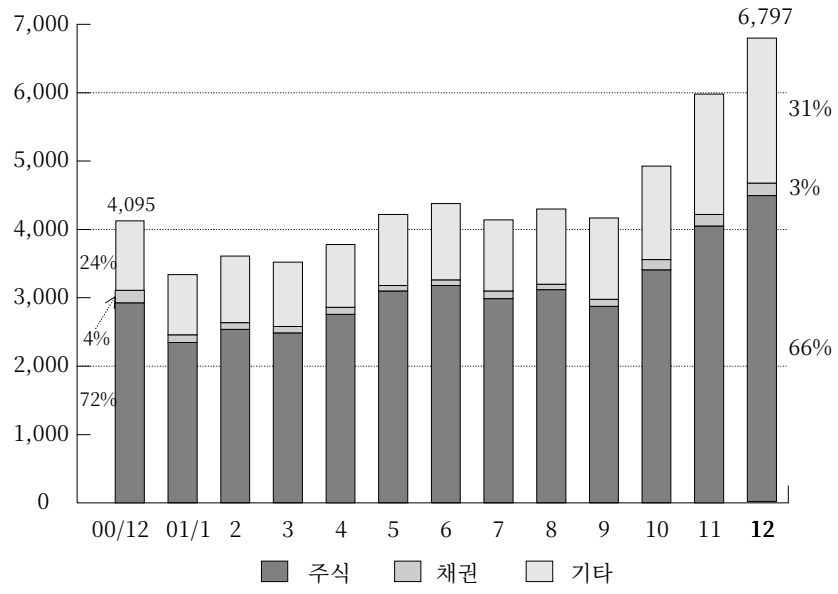
전체 신탁재산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전체 신탁재산은 주식이 1% 증가한 반면 채권이 6% 감소하여, 채권 59%, 주식 9%, 기타 32%로 구성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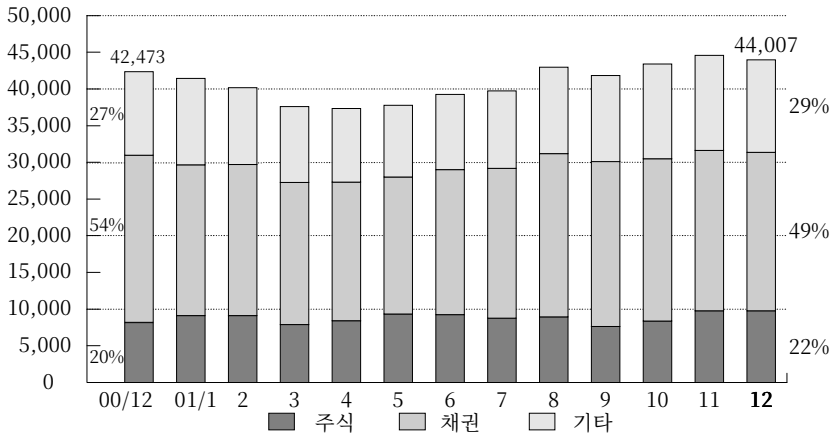
주식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혼합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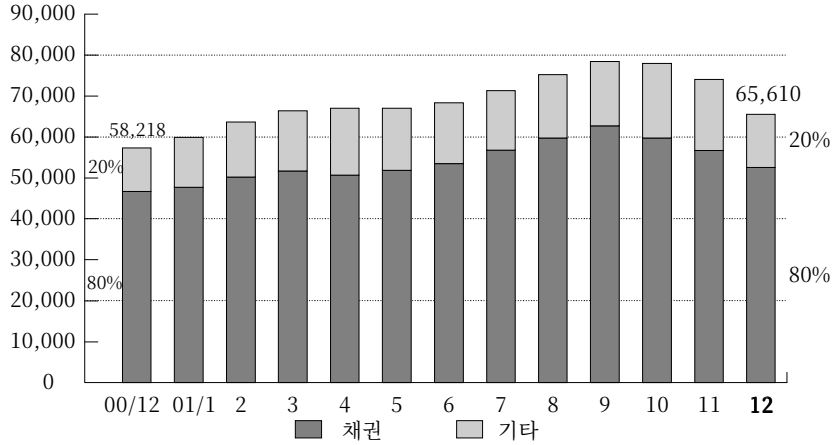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채권형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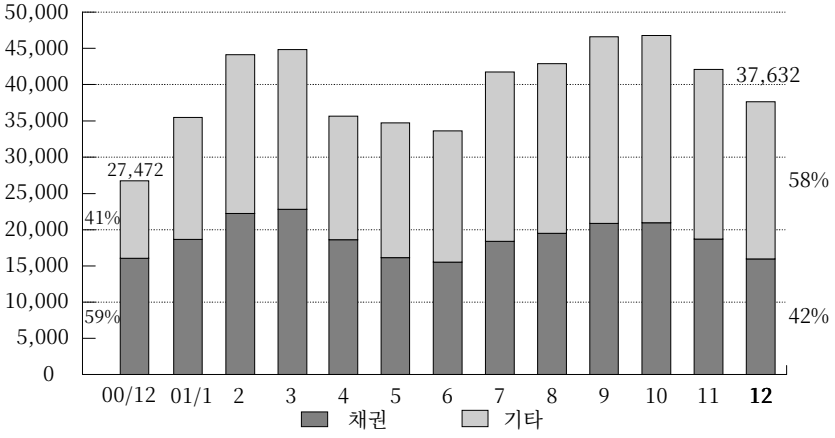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MMF 운용 현황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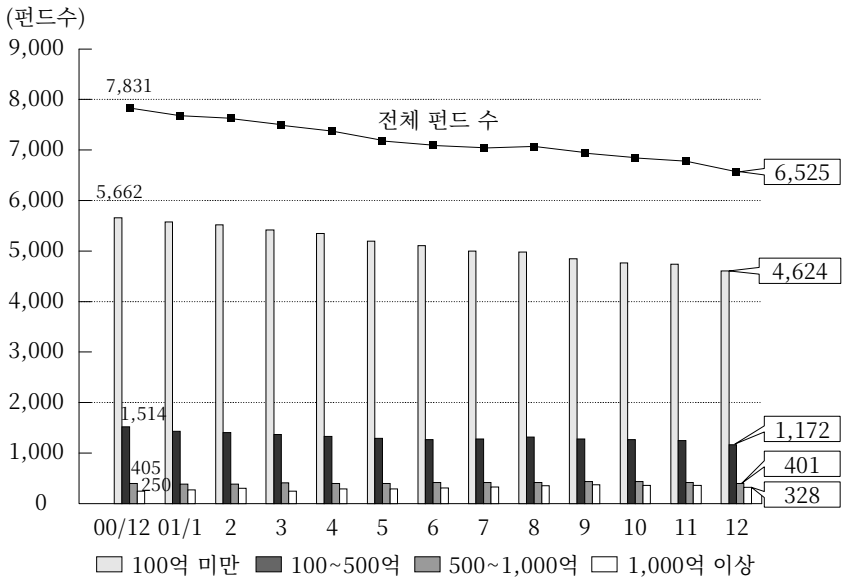
※ 위 자료는 평가금액 기준임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6. 규모별 설정잔고

규모별 펀드 수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펀드 통폐합 작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500~1,000억원의 펀드는 각각 1,038개, 342개, 4개씩 감소

– 반면 1,000억원 이상 펀드는 78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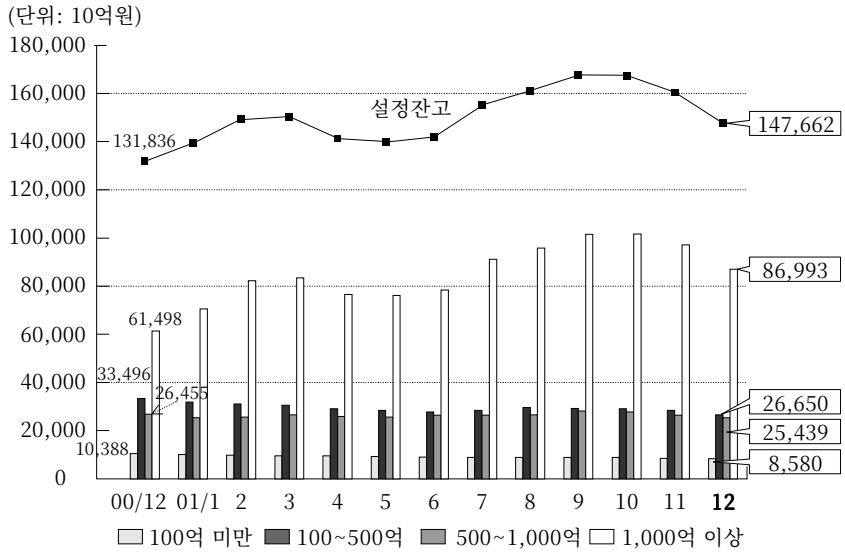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규모별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500~1,000억원의 펀드는 각각 1조8,080억원, 6조8,460억원, 1조160억원씩 감소

– 반면 1,000억원 이상 펀드는 25조4,950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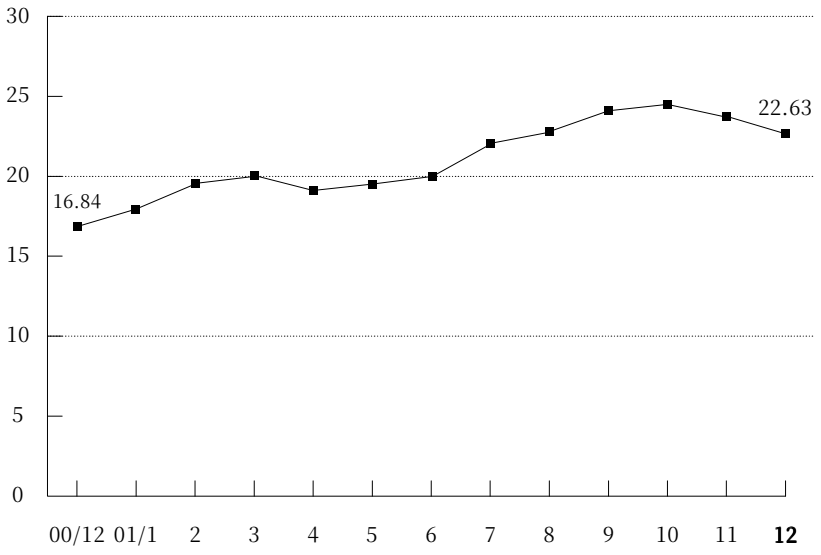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전체 신탁재산의 평균 펀드 규모는 58억원이 증가한 226억4,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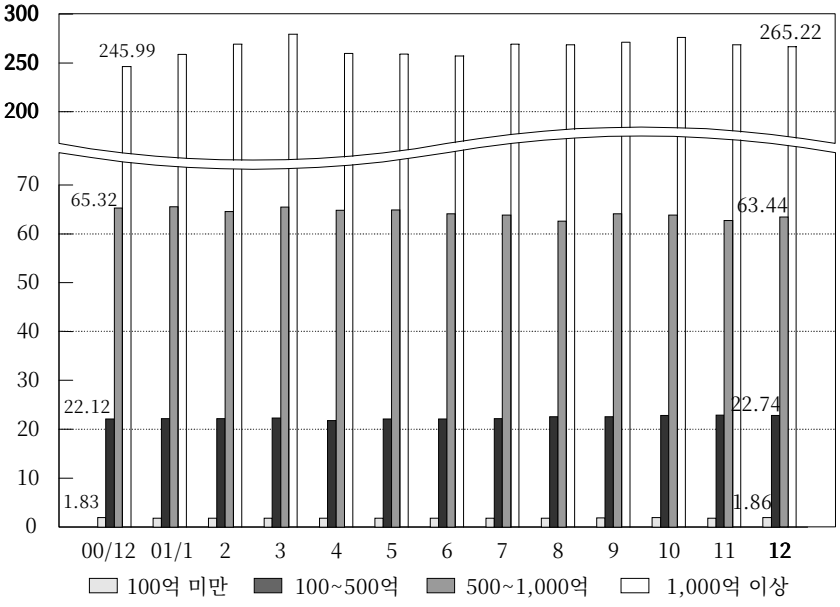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규모별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단위: 10억원)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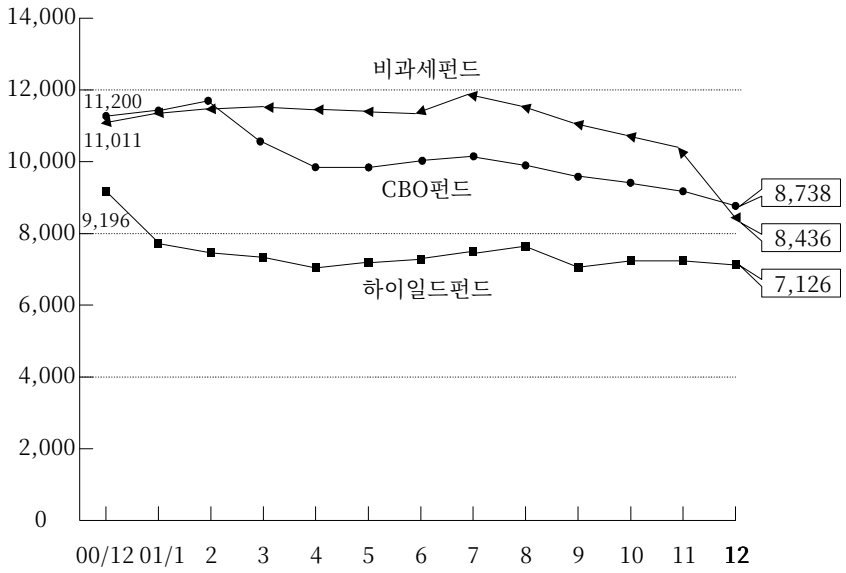
7.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고수익 및 비과세 펀드 추이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비과세펀드가 각각 2조4,630억원, 2조700억원, 2조5,750억원이 감소

– 2001년 12월 31일 현재 비과세 고수익펀드 및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는 각각 706억원, 2조7,405억원 기록

(단위: 10억원)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한국펀드평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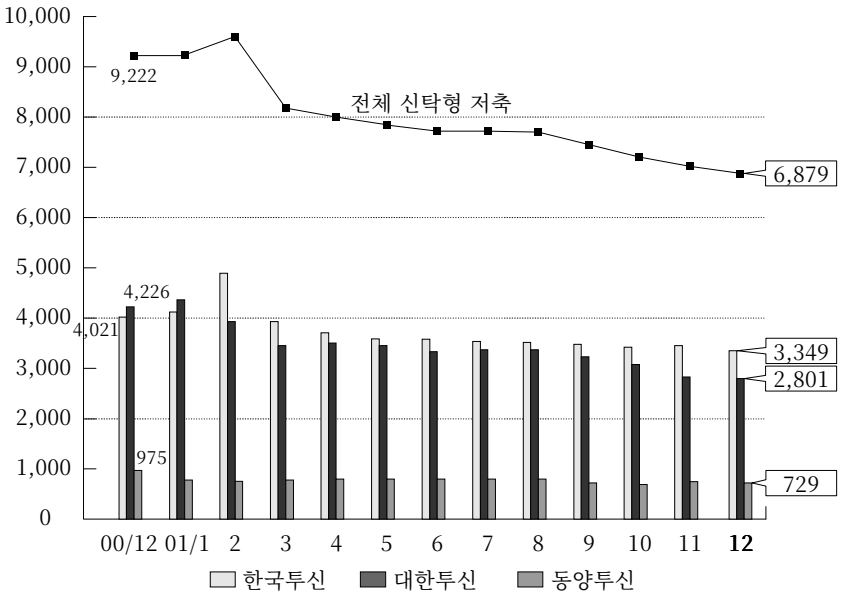
8. 신탁형 저축 추이

신탁형 저축 추이 (월 말 기준)

○ 전체 신탁형 저축은 2조3,430억원 감소하여 6조8,790억원 기록

– 한국투신, 대한투신, 동양투신 각각 6,710억원, 1조4,250억원, 2,460억원 감소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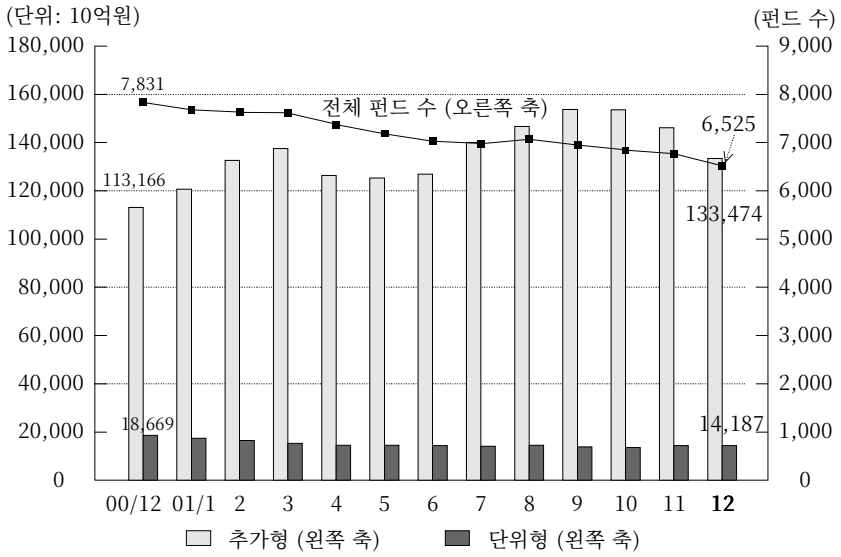
자료: www.kitca.or.kr

9.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 추이

추가형 및 단위형 설정잔고와 총 펀드 수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추가형 및 단위형 전체 펀드 수는 1,306개가 감소한 반면, 전체 설정잔고는 15조8,270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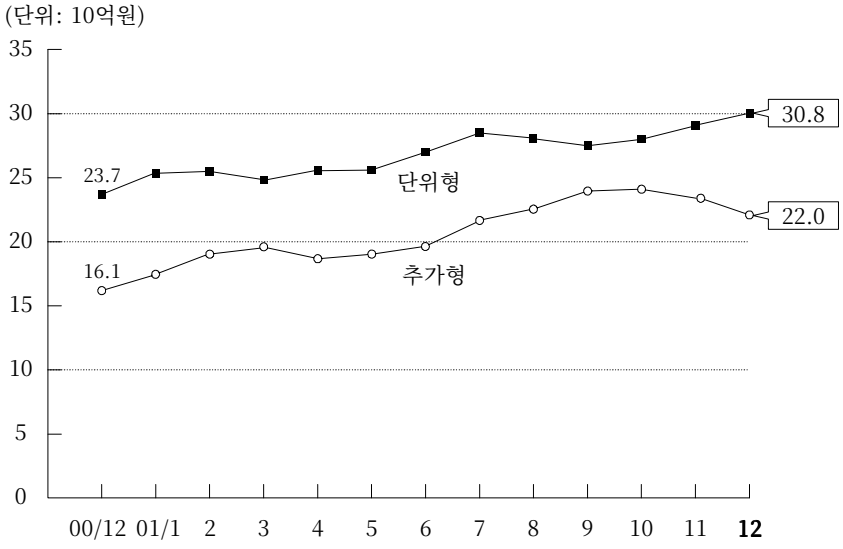
– 추가형 펀드의 경우 20조3,080억원이 증가한 반면, 단위형의 경우 4조4,820억원 감소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추가형 및 단위형 평균 펀드 규모 (각 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

○ 추가형 및 단위형 펀드의 평균 펀드 규모가 각각 59억4,000만원, 70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220억원, 308억원 기록



자료:「투자신탁 가격정보」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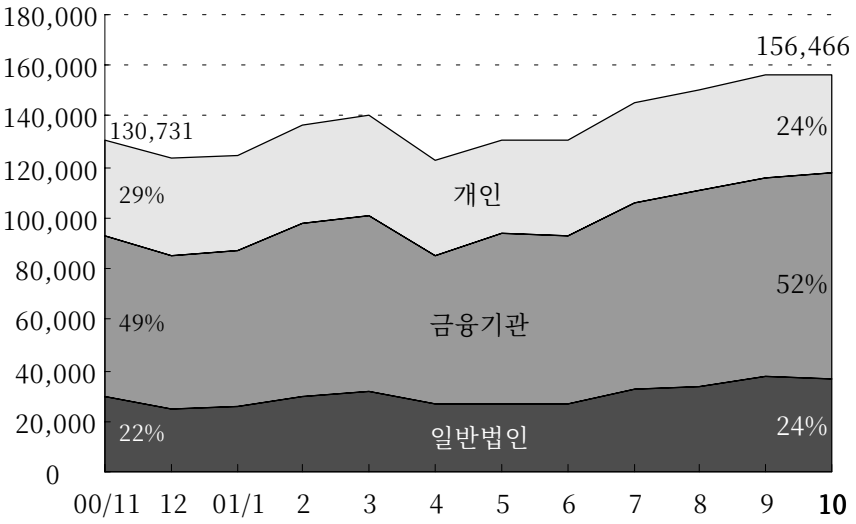
10. 고객 유형별 수탁고 추이

고객 유형별 전체 수탁고 (월 말 기준)

○ 전체 신탁재산은 25조7,340억좌가 증가하여 156조4,660억좌 기록

– 개인이 5%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 일반법인이 각각 3%, 2% 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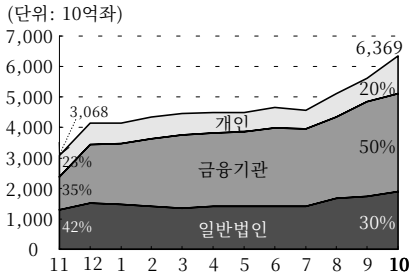
(단위: 10억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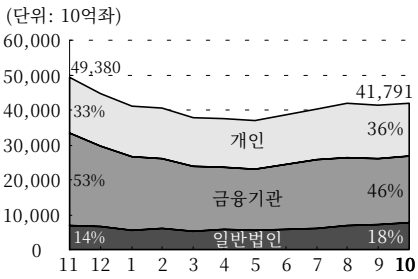
자료:「투신」각호

고객 유형별 각 펀드에 따른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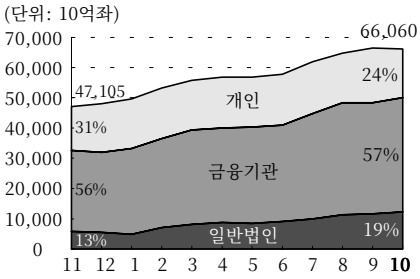


혼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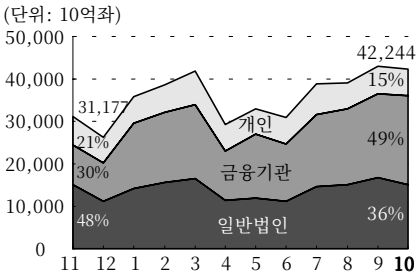


자료:「투신」각호

채권형



MMF



자료:「투신」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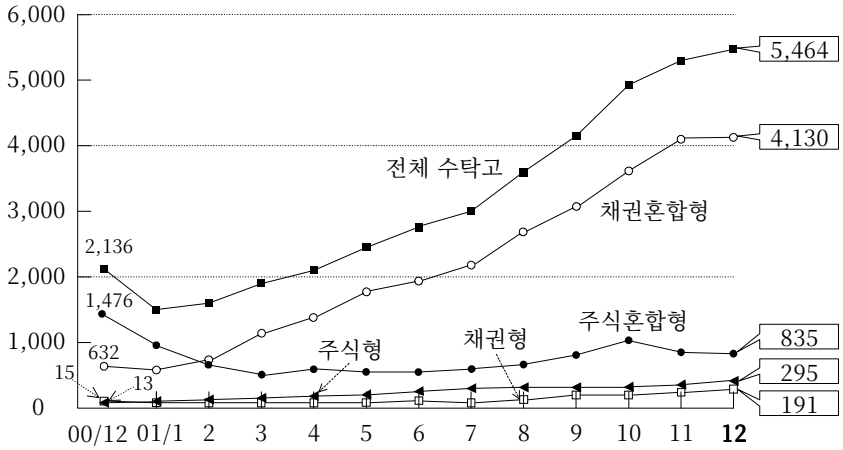
11.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증권투자회사 전체 수탁고는 3조3,140억원이 증가하여 5조4,500억원 기록

- 채권형과 채권혼합형의 경우 각각 1,760억원, 3조4,980억원이 증가하여 1,910억원, 4조1,300억원 기록
- 주식형의 경우 2,820억원 증가한 반면 주식혼합형의 경우 6,41억원 감소하여 각각 2,950억원, 8,350억원 기록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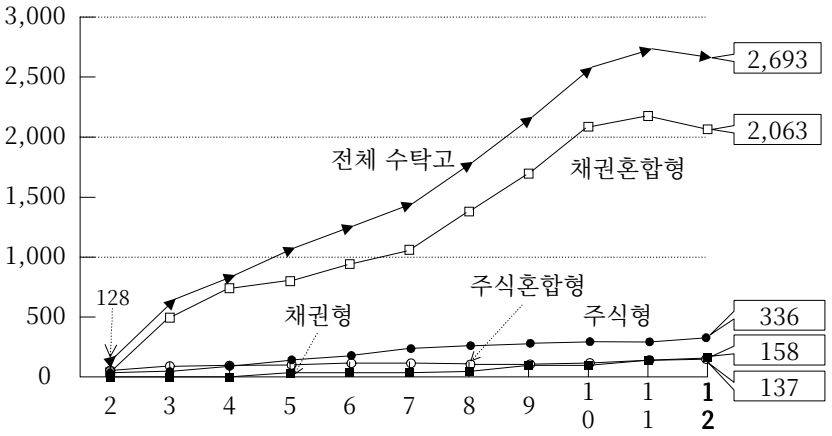
※ 위 수탁고 자료는 설정잔고의 개념으로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4개의 구조조정기금 자료가 제외되었음

자료: www.kitca.or.kr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추이 (월 말 기준)

○ 2001년 2월부터 발매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는 2001년 12월 말 현재 2조6,930억원 기록

(단위: 10억원)



※ 개방형으로 전환된 폐쇄형 및 준개방형은 자료 분류의 어려움으로 전환되기 이전 시점에서도 개방형 자료에 포함되었음

자료: 한국펀드평가(주)

II 제도 동향

제도 동향 목차

제도 동향 요약

1.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II-1

2.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II-10

3. 투신협회 규정 II-13

4. 보험업법령 관련 규정 II-14

5. 근로자복지기본법령 II-16

6. 조세특례제한법령 II-18

7. 법인세법령 II-23

8. 소득세법령 II-25

9. 기타 펀드 관련 제도 II-26

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세부 시행 방안 II-26

나. 한·미 사회보장협정 체결 II-27

다. 사모 M&A 펀드 세부 운영 방안 II-28

라. 증권업협회 규정 II-29

마. 상장지수펀드 도입 방안 II-30

바.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 방안 중 펀드 관련 사항 II-32

제도 동향 요약

○ 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 비율 한도를 7%에서 10%로 확대

– MMF 운용 제한 제도의 개선 및 MMF 증금어음 의무 편입 비율을 6%로 개선

– 신탁재산 유가증권 등의 대여 기준 명시 및 성과보수제 도입

– 비상장 채권의 평가 방법 개선

○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 M&A 목적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완화

– M&A 전용 펀드의 운영 방법 규정

○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

–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변액보험 도입 관련 규정 개정 및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령

–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기회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우리사주 제도에 추가적인 제도 도입 (증권거래법상의 제도와 별도로 제정)

• 장기 보유 유도, 환금성 지원 및 조합 관리 엄격화

○ 조세특례제한법령

– 개인연금 제도의 신설 및 계약 이전의 허용

• 계약 이전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해소로 개인연금 제도 활성화

–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신설

○ 기타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제도, 사모 M&A 펀드, 상장지수펀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1.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준법감시인제도 강화 (제1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 및 자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 완화 (제14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개정, 3/28 공포 및 시행)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지분율이 0.25%에서 0.025%로 변경됐으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이상인 위탁회사의 경우 기존의 0.125%에서 0.0125%로 변경됨

- 회계장부 열람권 지분율은 0.5%에서 0.05%로 변경됐으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이상인 위탁회사의 경우 기존의 0.25%에서 0.025%로 변경됨

신탁약관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변경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개정, 3/28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감위원회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여 위탁회사 상품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정, 3/28 공포 및 시행)

○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를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것임

- 동일종목 투자 한도에 관한 법 조항의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 등의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된 위탁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제34조의3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연대 손해배상 책임자에 추가함으로써 감사와의 형평성을 도모

- 관련 이사, 감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위탁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시행령

환매 기준가격 산정 (제4조 제2항 개정, 4/24 공포 및 시행)

○ 종전에는 환매시 수익자가 환매 청구를 한 날의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가격을 산정함

– 다만, 신탁약관에서 주식을 운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의 전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이러한 개정은 환매일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조치임

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 (제8조 제2항 제1호 개정, 4/24 공포 및 시행)

○ 앞으로는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증권 관계기관 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유가증권 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투자신탁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과 동일

금리스왑 거래 허용 (제10조 제1항 제1호의3 신설, 4/24 공포 및 시행)

○ 각 신탁재산이 지급받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약정된 이자를 계약 만기시까지 약정된 시기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인 금리스왑 거래를 허용함

– 신탁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판매 권유광고 내용 변경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4/24 공포 및 시행)

○ 변경 내용

– 변경 전: 투자 원금의 감소 가능성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 변경 후: 투자신탁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변경과 동일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신탁재산의 투자 한도 확대 (제16조 제6항 제2호 변경, 9/29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가 자기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에 신탁재산의 투자 비율 한도를 7%에서 10%로 확대

–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탁재산의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감독규정

종금사 위탁회사 적용 배제 (제2조 제4호 개정, 2001/12/19 개정 및 시행)

○ 동법상의 제2장 인허가 및 제3장 경영건전성 감독규정 적용시 종금사를 위탁회사로 간주하지 않음

신용평가 전문기관 규정 개정 (제2조 제20호 개정, 2001/12/19 개정 및 시행)

○ 신용평가 전문기관을 "증권업 감독규정 제7-29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합병 인가시 심사 기준에 주요 출자자 요건 삽입 (제14조 8호 신설, 5/16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의 합병 및 전환에 대한 인가시 별지 11호에 있는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심사 기준에 삽입하도록 함

영업 양수도, 전환, 영업 확장시 14조 준용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5/16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의 영업 양수도, 전환, 영업 확장시 14조의 심사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근거 조항 마련

위탁회사의 정기보고서 서식 재 규정 (제19조 및 시행세칙 제3조 개정, 시행세칙 제5조 및 제7조의3 삭제, 2001/12/19 개정 및 시행)

○ 위탁회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을 위한 자료 징구를 위하여 정기보고서 서식을 정하고, 기존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보고서 및 자산 건전성 분류표를 정기보고서 서식에 통합

위탁회사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엄격한 제한 (제41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투신사 소유 유가증권으로 투자신탁 설정시 및 금감원장의 승인시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편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킴

- 신탁재산 5% 이상 환매 청구의 경우나 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시 허용되었던 위탁회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매매거래 조항을 삭제
- 운용사와 펀드간 이해가 상충됨을 방지하여 신탁재산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며 투신운용사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임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자전거래의 제한 (제43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주식의 자전거래 사유를 한정하고 자전거래 시기 제한을 폐지함 – 주식의 자전거래 사유 • 투자 한도 준수 및 신탁재산 일부 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및 금감원장의 승인시 – 종전에는 채권의 자전거래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식의 자전거래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 – 자전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1월내 자전거래 매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폐지함
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 변경 (제45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되 3개월 이내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는 평가를 면제함 (종전 6개월 이내) – 단, 투자등급 (BBB 이상)에서 투기등급 (BB 이하)으로 하락 후 발행된 경우는 제외
신탁재산 운용지시의 제한 (제46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의 계열사, 위탁회사의 주요출자자, 위탁회사 발행 수익증권의 20% 이상 판매사 (이하 판매사)의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콜론을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 단, 위탁회사와 그 최대 주주, 주요 주주 및 판매사에게는 콜론이 금지됨 ○ 위탁회사의 주요출자자, 판매사 및 그 계열사는 금융기관의 예치 및 기타 유동성 거래가 각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제한됨
사모사채의 투자 제한 완화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사모펀드 혹은 벤처기업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투자 한도제 폐지 및 신용등급 요건에 대한 적용 배제 –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 지금까지 일반 펀드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가 A등급 이상이며 종목당 신탁재산의 3%로 편입비율이 제한되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률상 종목별 한도인 10%는 적용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MMF 운용제한 (제49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MMF 편입 대상 유가증권은 회사채 BBB- 등급 이상, CP A3- 이상이며, 2 이상의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그 최하위 등급이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MMF 운용 제한 제도의 개선 (제49조 제3항 제2호 중 단서 조항 삭제, 동조 제5항 개정, 부칙 제2조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MMF에 편입되는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 기간 축소 및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줄여 MMF 운용 제한 제도를 개선

- 만기 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MMF에 편입될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 만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는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 만기를 1년 6월로 제한하고 동 시행일 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으로 단축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1%에서 0.5%로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함
  -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는 괴리율을 0.75%로 하여 완충 기간을 둠
-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위 요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6월이 경과한 이후도 동일하게 적용됨

유가증권 등의 대여 (제50조 개정, 2000/12/19 공포 및 시행)

○ 신탁재산의 유가증권 대여 조건

-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공시
- 언제든지 대여 유가증권의 상환 요구가 가능할 것
- 언제든지 대여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
- 신탁재산 순자산 이상의 담보 유지
- 대여 수익의 신탁재산 귀속
- 관계인에 대한 대여 금지
- 증권사, 종금사, 예탁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일 것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서 관련 개정 내용 (제53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2/19 개정 및 시행)

○ 제53조의 제목을 "영업보고서"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서"로 개정하였으며,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의 4가지로 구분·작성하여 각 신탁회계 기간 말일 또는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금감원장 및 투신협회에 제출해야 함
  - 투자신탁 대차대조표, 투자신탁 손익계산서, 수익증권 기준가격 계산서, 외부감사보고서
-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투신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제한의 완화 (제58조의2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위탁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의 범위는 과거 1월 이전 자료로써 신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임
-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정보를 투자신탁협회가 지정하는 투자신탁 평가전문회사 (펀드평가회사)에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성과보수제 도입 근거 마련 (제58조의3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사모펀드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운용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 및 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수익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 방법 및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와 그 비교 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 성과보수 지급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보수는 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선관의무 소홀 등의 부작용 소지가 있음

비상장 채권의 평가 방법 개선 (제62조 제1항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증권업협회를 배제한 2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비상장 채권가격을 평가

- 투자·투기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CB, BW, FRN 등도 평가대상 채권에 포함되며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기존 펀드의 경우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 펀드는 모든 채권에 적용됨
- 지금까지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가격정보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만을 이용
  - 이에 따라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음

외국 위탁회사의 요건 적용 (제76조 개정, 12/19 개정 및 시행)

○ 외국 위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업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를 기준으로 외국 위탁회사 요건을 적용함

- 외국 위탁회사 요건이 명시돼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의 내용
  - 운용 자산 규모가 금감위가 정하는 규모 (5조원) 이상일 것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금액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것
  -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벌금 및 영업 정지 이상의 처분이 없을 것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기관투자가 대상 외국 수익증권의 적격 기준 적용 면제 (제86조 및 시행세칙 제32조 제2항 개정, 12/19 개정 및 시행)

○ 외국 위탁회사가 국내에서 자기보호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가만을 대상으로 외국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외국 수익증권의 적격 기준 및 매매거래 방법의 적용을 면제함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77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 외국 수익증권의 적격 기준 내용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80% 이상 판매될 것
- 외화증권에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투자·운용될 것
-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환매가 가능하여 외국 수익증권을 발행한 나라의 법령이 국내법에 비추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
-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외국 수익증권의 매매거래는 외국 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약관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기관투자가 대상 외국 수익증권의 경우 이를 면제함

현투운용의 연계대출금 축소 시한을 3월 말까지 연장
(부칙 (2001.9.29) 신설, 9/29 개정, 10/1시행)

○ 올해 9월 말까지 연계대출금을 1998년 6월 30일 현재 잔액의 31%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부칙 규정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조의2 신설, 7/9 공포 및 시행)

○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

-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은 감독규정 통폐합이 실시되기 전인 2000년 6월 9일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의 제64조 제7항의 내용과 동일
- 금감원장은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채권가격 평가기관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채권가격 정보 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문서의 한글화 (42조 및 제43조 신설, 12/21 개정 및 시행)

○ 위탁회사는 금감위 및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한글 번역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함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어음 (별지 9, 10, 11호 각 20조 변경, 11/23 공포 및 시행)

○ 부실채권의 이연변제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펀드 편입 증권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음

-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편입되는 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에서 위탁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관련 규정〉

MMF 환매 연기 제도 개선 (별지 제12호 MMF 표준신탁약관 제16조 개정, 12/21 개정 및 시행)

○ 유가증권의 매각 지연 등 사유 발생시 환매대금 지급 유예 조치 없이 환매 연기 조치로 일원화

– 현행 제도에서는 매각 지연시 수익자 통보 후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유예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신탁재산 일부 해지를 통해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매 연기 조치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음

– 환매 연기 절차 및 방법 개선

• 판매회사의 일부 해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위탁회사는 일부 해지 불가 사유 및 향후 일부 해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 통보 의무화

• 판매회사는 환매 연기 사유 및 향후 환매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익자에 서면 통보

• 이 조항은 투자신탁 상품의 표준신탁약관에 모두 적용됨

MMF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 개선 (별지 제12호 MMF 표준신탁약관 제20조 개정, 12/21 개정 및 시행)

○ MMF의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을 신탁재산의 10%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 범위 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MMF 수탁고 변동에 따른 투신안정기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MMF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치임

• 2001년 12월 1일 현재 증금어음으로 조달된 3조8,305억원 중 투신 지원금 1조2,179억원을 제외한 2조6,129억원이 여유 자금으로 남아 있음

– 금감원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의무 편입비율을 6% 이상으로 시행하되, 2002년 1월 31일까지 기존의 의무 편입비율인 10%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음

2.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회사의 보유 유가증권 대여 허용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가증권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권투자회사는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동일종목 투자 한도에 관한 법 조항의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 등의 투자 및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투자 및 취득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준법감시인제도 강화 (제35조의3 제3항, 제4항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준법감시인의 임면 절차 및 자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 공정성 강화 (제42조 제1항, 3/28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배당 허용 (제55조 제2항 제2호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발생한 이익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재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8조 제3항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의무화 (제60조 제4항 및 제88조 제9호의2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 현황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M&A 목적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완화 (제79조 제2항 제3항 신설, 3/28 공포 및 시행)	○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의결권 행사 가능 – 일반 증권투자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 (shadow voting)를 하여야 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시행령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자산운용 대상에 포함 (제11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4/24 공포 및 시행)

○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의 인가를 받은 증권투자회사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동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자산운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외국에서의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제15조 삭제, 4/24 공포 및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할 경우 금감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미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요건 확대 (제22조의2 제1항 신설, 4/24 공포 및 시행)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 요건이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수협중앙회로 확대함

–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 제2항 제1호의 변경으로 적용됨

M&A 전용펀드의 운영 방법 규정 (제36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 4/24 공포 및 시행)

○ M&A 전용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 (Green Mail)를 방지하기 위하여 M&A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각을 금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M&A 전용펀드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 전용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금융기관 기업은 총액출자 한도제로 타회사 출자가 규제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증권투자회사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시행규칙

유가증권 등의 대여 범위 (제4조 신설, 4/24 공포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여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의 범위를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등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

–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 (지난 3월)으로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등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동법 감독규정

성과보수제 도입 근거 마련 (제15조 제3항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신설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58조의3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됨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제17조의2 신설, 7/3 공포 및 시행)

○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신설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47조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됨

투신협회에 자료 제공 요구권 부여 (제22조 개정, 12/19 개정 및 시행)

○ 투신협회는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 비교 공시를 위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 각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주당 순자산가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자산운용회사 등에 요청 가능

– 현행 제도에서는 보고 주기가 매분기 및 매년 단위인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돼 있어 비교 공시를 위한 활용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57조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음

동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자산운용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제정 (제21조, 제22조 및 별지 제19호, 제20호 신설, 감독규정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2/21 개정 및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별지 제19호와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각각 규정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3. 투신협회 규정

〈투신협회 규정〉

투신협회 규정

투자신탁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8/20 공포 및 시행)

○ 투자신탁 정보의 범위를 질적으로 분류하여 투자신탁 자료, 투자신탁 운용정보, 기타 정보로 분류하여 투자신탁 정보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

○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제58조의2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신탁 평가전문회사의 요건을 지정 (제10조 신설)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닐 것
- 납입자본금, 출자금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
  - 위 두 조항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임원 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 적정한 투자신탁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다음 각 항목의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 상의 검사 대상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용전문인력,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검사 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투자신탁 평가전문회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업무 수행 원칙 및 정보 차단벽을 정함 (제13조 신설)

※ 투자신탁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신탁 자료 제공에 관한 기준을 투자신탁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으며 대폭적인 내용이 신설 및 개정됨

4.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

보험업법

변액보험 상품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19조의2 개정, 12/21 국회 본회의 의결)

○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허용

- 보험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래의 특별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 및 비율, 재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재산운용 실적의 비교 및 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가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동법 감독규정

변액보험 도입 관련 개정 내용 (5/3 공포 및 시행)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의 각 특별계정별 매일 기준가격, 수익률, 전월 말 기준의 자산 구성 내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52조 제2항 제5호 신설)

○ 특별계정의 대상 보험계약에서 생보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포함 (제53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단서 신설)

-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 포함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 기준가격으로 함 (제91조 제3항 제2호 신설)

○ 특별계정의 초기 투자 자금 운용 방법 (제92조의2 신설)

- 초기 투자 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 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함
-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 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기 투자 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
- 초기 투자 자금의 이체 및 상환은 현금으로 함

〈보험업법령 및 관련 규정〉

동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액보험 도입 관련 개정 내용 (5/8 공포 및 시행)

○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만기 보험금, 해약 환급금이 변동하고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의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약관에 기재해야 함 (제32조의2 신설)

-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과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반드시 명기
- 보험사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저 보장 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와 별도로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특별계정 운용설명서에는 운용 대상 자산, 운용 비율 등의 자산운용 방법과 최근 3년간의 운용 실적을 기재해야 함 (제57조 제3항 신설)

○ 변액보험 계약시 보험계약 관리 내용에 보험 금액 변동과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제59조 제2항 신설)

5. 근로자복지기본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조합 운영의 민주성,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제30조, 제37조,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사항, 조합 대표자 등의 직접 선출 원칙 등을 법안에 명시

– 조합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수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31조, 시행령 제17조,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주총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해야 함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제32조 제2항,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우선 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장기업이 주주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상법 제418조 규정 적용 배제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40조,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미국 ESOP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사주 출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익 출연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사주 취득 기회 확대

– 국가에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사업주 등의 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주식 환금성 보장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의해 실시되던 기존의 우리사주제도는 유상증자 등의 경우 우선 배정분이 20%로 한정됨으로써 자사주 취득 기회가 제한되었음

•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 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재산적 손실 위험이 높고, 장기 보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본래 목적에 미달성했다는 지적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장기보유 유도 (제33조 제2항, 제34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기업의 출연, 조합의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함 –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에 의해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상환된 부분에 한하여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 •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규정된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의무 예탁 –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구입한 자사주는 근로자에게 즉시 배정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설치 (제36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설치 – 회사의 자금 조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써 기대
자사주 환금성 지원 (제38조,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해 기업에서 환매수 준비금 적립을 허용 –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 규정 (상법 제341조)의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회사에서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조합 관리 엄격화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2항, 2001/8/14 신설, 2002/1/1 시행)	○ 재산 관계에 대한 분쟁 예방 및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강행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 (100만원 이하 과태료) 마련 –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감독·사정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관리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동법 시행령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제15조 제2항, 2001/12/27 신설,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함
조합 기금의 사용 (제22조, 2001/12/27 신설,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조성한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함

6. 조세특례제한법령

〈조세특례제한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74조 제3항 신설, 5/24 공포 및 시행)

○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 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인연금제도의 신설 및 계약 이전의 허용 (제86조 개정 및 제86조의2 신설,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종전 개인연금투자신탁 상품의 신규 매각 중지 (2001년 1월 1일부터) 및 증권투자회사의 개인연금저축 참여 허용

– 당해 연도 24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종전 가입 계좌 계속 불입 인정

○ 특정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 (생보사, 은행 투신사 등)으로 동 개인연금저축을 옮기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게 됨

– 계약 이전에 따른 해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지로 보지 않음으로써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 계약 이전의 법률 관계는 해지 및 신규계약이므로 금융기관의 실무 처리는 예전과 동일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 신설, 8/14 공포 및 시행)

○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200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식, 은행신탁 등의 형태로 허용됨

– 1인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까지 비과세 혜택

• 다만, 수익자가 3년 이상 예치할 경우 3년 이후 소득 발생분은 일반 세율을 적용

※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의 경우 농어촌특례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해당함으로 자동적으로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령〉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제87조의3 신설, 11/21 공포 및 시행)

○ 장기적인 주식투자 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 신설

–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장기증권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거래소 상장 주식 및 협회 등록 주식을 70% 이상 보유시 세제 혜택 부여

- 당해 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되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주식에 대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허용되며, 간접투자의 경우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됨
- 매매회전율은 400% 이내이어야 함

– 주식 보유 비율 70%는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 설정 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 주식 평가액의 비율이며, 아래 사항은 이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저축금 불입일 또는 저축 설정일부터 2월간
- 주식 보유 비율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저축 설정 총액의 평가액이 저축 설정 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시한 연장 (제88조 개정,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종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가입 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령〉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88조의4 및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개정2001/12/29 개정,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사항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운용수익 소득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정받을 경우 소득세 비과세
  - 배정받은 자사주가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배정 후 3년 이내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3년 이후 인출시는 소득세 최저세율인 9%로 분리과세 적용
- 다음 사항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인 경우
  - 보유한 자사주가 배당 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경우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
(제88조의6 신설,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저축제도로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의 내용
  - 1인 1통장에 한하며, 투자금액의 5% 소득세 공제 (2회에 한함)
  -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최장 3년)
  - 직접투자인 경우 30%의 주식 투자비율 유지
  - 간접투자인 경우 펀드의 50% 주식 투자비율 유지
- 2000년 12월 가입분도 세제혜택 인정

〈조세특례제한법령〉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 실시 (제89조, 1999/12/28 개정, 2001/1/1 시행)	○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로 인해 10% 저율과세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됨 – 10% 저율과세저축이란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을 지칭 – 종전의 10% 저율과세저축 9개 상품이 별도의 한도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실시로 모든 금융기관 저율과세저축 상품이 통합됨 • 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됨 • 단,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적용 – 저축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함
과세표준액 합산 (제91조의2 제1항 개정,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보전을 위한 의도로 상장·등록 채권의 매매평가 차익에 대한 과표 합산 – 단,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차익은 과표에서 제외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허용에 따른 환매시 소득구분 확정 (제91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증권투자회사 주주의 환매 청구를 배당소득으로 간주 –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자본소득 부분은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님 ○ 환매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환매로 인한 주식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117조 제1항 제18호 신설, 5/24 공포 및 시행)	○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 (제117조 제2항 개정, 2000/12/29 개정 및 2001/1/1 시행)	○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 재산에서 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 면제 비영리법인 범위 명시 (제70조 제4항 신설, 6/21 공포 및 시행)	○ 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함 –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 중에서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의 편입비율 (제81조의2 신설, 8/14 공포 및 시행)	○ 저축 설정일로부터 3개월마다 평잔 기준으로 고수익고위험 채권(B-~BB+ 등급) 및 CP (B-~B+)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의 가입시한 만료 (부칙 제17조 개정, 2000/12/29 및 2001/1/1 공포 및 시행)	○ 세제혜택이 있는 비과세펀드 및 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 가입시한이 2000년12월31일까지만 가입 가능

7. 법인세법령

〈법인세법령〉

법인세법

사모 증권투자회사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조항 신설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종전에는 공모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만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모증권투자회사에 확대 적용

증권투자회사와 증권투자신탁의 형평성 제고 (제63조 제1항 개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 인정 법인에 증권투자회사 추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6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증권투자회사가 중간예납 대상 법인으로 적용

동법 시행령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개정, 2001/12/31 개정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취득 주식 및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 산정시 영으로 계산하여 이중과세 방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및 금품 비용 처리 (제19조 제16호 신설, 2001/12/31 개정 및 시행)

○ 기업이 산하 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및 금품에 대해서 비용 처리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중 이 조항만 2002년 1월 1일 시행

증권투자회사의 미실현수익 세무회계에 반영 (제70조 제4항 신설, 부칙 제10조 제2항의 개정, 2001/12/31 개정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시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

– 미실현수익을 세무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펀드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일치시켜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투자 분배를 실현함

• 이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시 시가법 적용 (제75조 제1항 개정, 부칙 제12조 개정, 2001/12/31 개정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시가법 적용

– 이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령〉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 (제86조의2 제1항 개정, 2001/12/31 개정 및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켜 증권투자회사의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일치시킴

증권투자회사 이자소득세 매월 환급 (제112조 제3항 개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채권 등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액 매월 환급 처리

– 종전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결산 이후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뒤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게 돼 있어 환급액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선이자 지급 방식의 채권 중도 매도시 매도 법인이 잔여이자 관련 세액 원천징수 (제113조 제11항 신설, 2001/12/31 개정 및 시행)

○ 선이자 지급 방식의 채권 (CP 등)을 이자 계산 기간 중 매도시 매도 법인이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으로부터 잔여이자 관련 세액 원천징수

8. 소득세법령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배당소득 중 배당소득 예외 인정 (제14조 제4항 제2호 개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다만,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적용을 받음

소액 부징수 관련 개정 내용 (제86조 제1호 및 제4호 개정, 2001/12/31 개정, 2002/1/1 시행)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소액 부징수 적용 배제

○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까지 적용되던 소액 부징수 범위가 20만원까지로 확대

※ 위 조항들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 비과세 (제23조 제3항 개정, 동조 제5항 삭제, 2001/12/31 개정, 2002/1/1 시행)

○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 중에서 거래소 및 협회등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에 의해 발생한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1항의 개정 (2001/12/29 개정 및 2002/1/1 시행)으로 증권투자회사도 동일하게 적용됨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기부금 소득공제 (제80조 제5호 신설, 2001/12/31 개정, 2002/1/1 시행)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의 10%까지 소득공제

9. 기타 펀드 관련 제도

〈기타 펀드 관련 제도〉

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세부시행 방안 (2/8, 금감원 보도자료)

○ 금감원은 2월부터 발매될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위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 발기인 (주로 자산운용사, 판매사) 인수 주식의 3월간 환매 제한

- 출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타 펀드출자 방지 (펀드 남설 방지) 및 펀드 운용의 충실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실물 발행에 따른 보완 조치

- 신주 발행 및 감자 (환매) 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권 불발행을 원칙으로 함
- 실물에 의한 환매 요청시에는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15일 이내에 주주의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공시

– 증권투자회사의 유동성 확보 비율 의무화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율 제한: 펀드 자산의 15% 이내
- 현금성 자산 확보 의무화: 펀드 자산의 10% 이상
- 일시 대량 환매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RP 거래 허용

–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폭 확대 및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선취, 후취, 기간배분 방식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업계 자율에 맡김

- 90일 이내 환매 청구시 이익금의 70%를 조기 환매수수료로 징구하고 이를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에 편입 (계약형과 동일)

–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환매를 의무화함

- 판매사가 증권투자회사 주주의 환매 청구를 위해 자기계산으로 우선 응하고 미매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사가 자기계산으로 증권투자회사 주주의 환매 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환매 청구를 의무화함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나. 한·미 사회보장협정 체결 (4/1 발효)

○ 2000년 3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대표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서명을 하고,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음

-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에 왕래하며 근로하는 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그리고, 두 나라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 이 협정으로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미국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미국의 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게 됨
  - 이러한 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청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됨
- 해당 연금은 한국 또는 미국의 어느 기관에나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됨

〈증권투자회사법 및 관련 규정〉

다. 사모 M&A 펀드 세부 운영 방안 마련
(5/7, 금감원 보도자료)

○ 금감원은 3월과 4월에 개정된 증권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상의 사모 M&A 펀드와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밝힘

- 상품의 형태는 폐쇄형으로 최소 펀드 존속 기간은 1년이고, 펀드 이사회가 선정한 운영이사가 직접 운용 가능함
  - 투자일임사,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에 한해서 위탁운용 가능
  - 개인 또는 투자일임 자격이 없는 법인이 펀드 설립에 참여할 경우와 개인의 경우는 당해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이사로 참여 의무화
-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관련 편입 유가증권에 대해 5% 이상 보유시 및 5% 초과 1% 변동시 보고 의무화
  -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균등한 M&A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식관련 편입 유가증권 5% 보고 시점에서 단순 투자 목적과 M&A 목적으로 구분하고 M&A 목적 주식의 경우 취득 후 6월 이내 매도 금지
  - 투자 대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유동자산으로 운용 가능
- 판매 위탁을 의무화했으며, 판매사에서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한정했음
  - 이후 주식 장외 양도 등을 통해 펀드 내 투자자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확인을 통해 100인 미만으로 관리를 의무화했음
  - 소수의 출자자에서 출발한다는 점 및 고위험 고수익 추구 성향을 감안하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자율 결정에 맡겼음
- M&A 목적 달성 또는 실패시 펀드 청산의 원활화 및 시장 교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산시 현금 또는 현물 지급 가능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라. 증권업협회 규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8/13 공포 및 시행)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등에 포함 (제2조 제11항 제5호 신설)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비롯하여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를 편입하는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이 현행보다 5% 증가 (제24조 제1항 제2호 개정)

– 공모주 배정 비율 개정안

구 분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기관	개인 청약	우리 사주
기업공개 (거래소 상장)	45% (기존 40%)	15% (기존 20%)	20%	20%
코스닥 공모	55% (기존 50%)	10% (기존 15%)	35%	

* 코스닥 공모시 개인 청약과 우리 사주의 통합 배정 부분 중 우리 사주에 20%까지 배정 가능함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 청약배정 비율 변경 (제24조 제2항 제3호 개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우선 배정 후 잔여분 및 실권주 배정

- 고수익증권 투자신탁 등 : 65% (기존 60%)
- 일반 청약자 : 35% (기존 40%)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마. 상장지수펀드 (ETF) 관련 도입 방안 마련
(재경부 보도자료 (9/17), 증권거래소 보도자료 (11/13))

○ 지난 6월 8일 재경부는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 상품인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 Exchange-Traded Fund)를 도입키로 한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9월 17일 최종 방안을 마련했음

–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도 도입되는 ETF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11월 13일 마련했음

– ETF 도입 기본 운영사항

- ETF증권은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의 형태를 허용하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의무화
- 주식 실물 바스켓을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환매시에도 실물로 교부하되 시장 유동성 제공과 순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지정증권사 (Authorized Participant) 제도를 도입
- ETF는 기존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시장과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된 시장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ETF 대상이 되는 지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
- ETF의 공매도시 직전 체결가격 이하의 주문 (down-tick)을 허용하며, 시장거래에 필요한 NAV, 추적 대상 지수 등 공시사항은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실시간 30초 단위로 제공

– ETF 거래소 주요 상장 기준

구 분	ETF 주요 상장 기준 내용
규 모	○자본금 100억원 이상, 수익증권 10만좌 이상 (펀드운용의 경제적 측면 및 ETF 난립 방지)
유동성	○AP가 2사 이상 (시장 조성자 기능을 통한 유동성 및 분산 촉진)
지수 구성	○특정 종목에 의한 ETF 가격 및 지수 왜곡 방지 · 지수 구성 종목 수: 10종목 이상 · 지수 구성 종목 비중 (단일 종목: 30%이하, 상위 5사 비중: 60% 이하) · 하위 1/4종목 1월간 평균거래대금이 100억원이상 ○거래소, 코스닥 종목일 것 ○상장 주식 시가총액 합이 50% 이상
신탁재산의 구성	○지수 추적 오차를 줄임으로써 펀드의 자의적 운용 방지 및 투자자 보호 · 시가총액 기준으로 특정 지수의 95% 이상 편입 · 펀드 구성 종목 수가 지수 구성 종목의 50% 이상
공시 내역	○주가지수 연동 ○신탁계약 기간 불 명시 ○Creation Unit 단위로만 설정·해지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

〈기타 펀드 관련 제도〉

– ETF 거래소 상장 폐지 주요 기준

구 분	ETF 주요 상장 폐지 기준 내용
규모	○ 자본금 50억원 미만이면서 3개월간 지속되거나 수익증권 5만좌(증권투자회사 주권 5만주) 미만이면서 3개월간 지속될 경우 · 경쟁력 없는 ETF를 조기 퇴출시켜 시장건전성 도모
유동성	○ 상장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사업년도 말 현재의 주주 수가 100명 이내일 경우 ○ 월 평균 거래량이 상장 증권 수의 10% 미만일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	○ 지수 구성 종목 편입율이 95% 미만인 상태가 1주일 지속될 경우 · ETF 지수 추적 오차를 줄임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타 펀드 관련 제도〉

바. 제 2단계 금융규제 정비 방안 중 펀드 관련 사항 (9/27, 금감원 보도자료)

○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 1단계 규제 정비에 이어 제 2단계 금융규제 정비 방안 마련

- ETF 및 Fund of Funds 설립 허용
  - ETF의 도입을 위해 인덱스 투자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종목 및 계열사 투자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현물출자 및 현물환매 허용
  - Fund of Funds의 도입을 위해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현행 5% 투자 한도 규정을 확대할 방침
-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권투자회사에게도 금리스왑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 사모 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
-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운용사의 자금부담 요인이 되는 현행 등록 자본금 요건 (최소 4억원 이상)을 완화
- 투신사 표준 신탁약관 재·개정 업무의 투신협회 이관
  - 현행 제도에서 위탁회사의 표준 신탁약관은 금감위가 제정하고,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 제정시 금감위에 보고
-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 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가 있는 바 이를 협회등록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협회등록 주식에 투자 가능
- 판매권유 광고의 기준 마련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
-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 목적의 선물 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

※ 이상은 법령 개정 후 시행할 방침임

- 창구지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우선 등록 허용 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 5대 계열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

※ 이상은 즉시 시행토록 할 방침임

III 펀드산업 현황

펀드산업 현황 목차

1.	1월	III-1
2.	2월	III-35
3.	3월	III-77
4.	4월	III-117
5.	5월	III-161
6.	6월	III-203
7.	7월	III-241
8.	8월	III-285
9.	9월	III-331
10.	10월	III-377
11.	11월	III-425
12.	12월	III-473

1월 January

10대 주요 기사

1. 정부에 공동출자 제의한 AIG
   (2일, 17일, 18일, 27일)
2. 산업은행 투신사 설립 무산 위기
   (2일, 12일)
3. 예보 한아름 종금 CP 사모채권으로 대지급 결정
   (3일, 9일, 17일, 22일, 29일, 30일)
4. 크게 늘어난 시가평가 펀드
   (4일)
5. 외국계 투신사의 국내 진출
   (4일)
6. 투신업계 M&A 사모 증권투자회사 준비
   (15일)
7. 모든 자산운용사의 개방형 증권투자 회사 직판 허용
   (26일)
8. 확정 갹출형 기업연금 도입 추진
   (29일)
9. 제일투신 외자유치 본 계약
   (31일)
10. 변액보험 빠르면 3월 도입
    (31일)

◈ 1월 목차 (1/1-1/10)

1/1 (월)	신 정
1/2 (화)	○ 금감원 현대투신-AIG 협상 불발에 대비 컨틴젼시 플랜 마련 ○ 금감위 산은투신 인가 보류 ○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처리 기간 연장 안된다
1/3 (수)	○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 CP 1조6,761억원 이달 예보 대지급 ○ 투신 MMF 6조원 이탈
1/4 (목)	○ 외국계 투신사의 국내 진출 점차 활발 ○ 크게 늘어난 시가평가 펀드
1/5 (금)	○ 하반기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 적용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판매 늦어질 듯 ○ 1분기 투신권 환매대책 마련 분주
1/6 (토)	○ 퇴직신탁 시장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투신권 ○ 사채 강제할당 파문 ○ 미래에셋 전 계열사 복수대표 체제 도입
1/7 (일)	
1/8 (월)	○ 금감원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억제 논란 ○ 펀드수익률 산정 싸고 투신사와 펀드평가사간 신경전 ○ 해외펀드 관심 고조
1/9 (화)	○ 투신 1분기 유동성 호전될 전망 ○ 한아름종금 허위 무담보 CP 예보-금융권 대지급 신경전
1/10 (수)	○ 리스사 투신보유 CB (전환사채) 주식 전환 요구 ○ 투신사 재무건전성 기준 올 4월부터 적용 ○ 투신권 SPC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대규모 손실 발생

◈ 1월 목차 (1/11-1/20)

1/11 (목)	○ 6개 투신사 삼성차 보증채관련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소송 제기 ○ 한국투신증권 "셀프프리컷" 주식형펀드 발매 계획 ○ 세금우대형 상품의 세제 인정 문제가 펀드 통폐합 작업에 걸림돌
1/12 (금)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 제도 3월 실시 ○ 산은 투신운용사 설립에 비상임 금감위원 반대 ○ 한투 "로스컷 펀드" 50일만에 10% 수익내고 상환
1/13 (토)	○ 투신 단기자금 수신 거부 사태 발생 ○ 올해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실시
1/14 (일)	
1/15 (월)	○ 투신업계 M&A 사모 증권투자회사 준비 ○ "한경KIS 채권지수" 개발 ○ 굿모닝투신 19일 예비인가 예정
1/16 (화)	○ 투신권 주식형펀드 다양화 ○ 현대 계열사 신규 금융업 제한
1/17 (수)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직접판매 허용 ○ 한아름종금 CP 예보 대지급 방안 투신권 반발 ○ 정부 AIG와 직접 협상 ○ 회사채 수요 확대 ○ 투신·증권·보험도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전망
1/18 (목)	○ 수익증권 환매 분쟁 장기화 조짐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명의개서 논란 ○ 투신협회 부적격 광고 작년 116건 적발 ○ AIG에 현대증권의 경영권 이전으로 협상이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 ○ 투신사 펀드내역 공개 거부 움직임
1/19 (금)	○ 준법감시실 및 팀제도가 펀드 운용에 신축적이지 못하다고 반발
1/20 (토)	○ 환매수수료 없는 주식형 펀드 추진 ○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의 투신운용업 본허가 ○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조치 ○ 회사채 전용펀드 인기

◈ 1월 목차 (1/21-1/31)

1/21 (일)	
1/22 (월)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첫 선 ○ 투신권 예보에 한아름종금 CP 현실적인 지급 방안 촉구 ○ 투신권 대우자판 추가 담보 요구
1/23 (화)	구 정 연 휴
1/24 (수)	구 정
1/25 (목)	구 정 연 휴
1/26 (금)	○ 모든 자산운용사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직판 허용 ○ 투신운용사 사장단 1년만에 3분의 1 교체 ○ 증권투자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면제
1/27 (토)	○ 다음 달부터 새 연금저축 발매 개시 ○ 계열사 주식 출자 전환키로 한 현대투신
1/28 (일)	
1/29 (월)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도입 추진 ○ 현대투신 투신안정기금 및 증권금융채권 연장을 통한 우회지원 ○ 투신권 예보채 공모발행 요구 ○ 대기업계열 투신사 투자한도 완화 요구
1/30 (화)	○ 증권투자회사 수수료 회사별 천차만별 ○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1조2,000억원
1/31 (수)	○ 예보 한아름종금 어음 사모채권으로 대지급 결정 ○ 제일투신 외자유치 본계약 ○ 자산운용사 생존 위기 ○ 변액보험 빠르면 3월 도입 예정

♣ 2001년 1월 2일 화요일

○ 금감원 현대투신-AIG 협상 불발에 대비 컨틴젼시 플랜 마련

- AIG의 현대 금융계열사 (증권, 투신증권, 투신운용) 인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 금감원이 비상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 시장에서는 이를 현대 금융계열사의 매각 작업이 실패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 컨틴젼시 플랜의 내용
  - 현대투신의 자산과 부채는 대한투신에 이전 (P&A)하고 껍데기만 남은 현대투신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 진행
  - 대한투신이 여력 부족으로 현대투신을 떠안지 못할 경우 정부가 3~5조원의 공적 자금을 현대투신에 직접 투입
- 한편 최근 AIG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직접 현대투신에 출자토록 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 산은투신 인가 보류

-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에서 산은투신의 인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간담회의 특성상 몇몇 위원의 반대가 있자 산은투신 인가가 보류됐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산은투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려던 산업은행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됨
- 서울투신의 부실을 조기 해소하려던 대우증권의 전략수정도 불가피하게 됐으며, 서울투신도 대외 신인도 제고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

○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처리 기간 연장 안된다

- 금감원이 개정을 추진 중인 증권투자회사법 감독규정 중 증권투자회사 등록 및 처리 변경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자산운용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투신상품의 경우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변경됐는데도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7일에서 20일로 대폭 연장시켜 상품의 적시성 및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
-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근거 법률이 다른데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운용 임원에 대한 법적 결격사유 조회 등 펀드를 투명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2001년 1월 3일 수요일

○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 CP 1조6,761억원 이달 예보 대지급

- 진념 재경부장관은 2일 증권업계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대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실종금 CP와 관련 1조8,000억원을 투신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힘
  - 한아름종금 CP는 3년째 원금·이자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콜금리 (5.5%) 수준의 극히 낮은 이자율에서 만기 연장되고 있어 펀드수익률 저하의 주요 원인
  - 차입을 해서라도 투신사 고유재산으로 한아름종금 CP를 되사줘야 했던 투신사들도 상환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 해소
- 그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한아름종금 CP를 한아름금고로 이전하고 이 자산을 기초로 ABS를 발행해 우선 상환한 뒤 부족분은 예보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온 상태

○ 투신 MMF 6조원 이탈

-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투신 MMF에서 총 5조9,091억원의 자금이 이탈했으며, 이는 29일 투신사 MMF 잔액 (26조 2,086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
  - 국민·주택은행 파업으로인한 연말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
- 투신사들이 유동성이 좋은 통안채 등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채권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통안채 금리가 급등하는 금리왜곡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음

♣ 2001년 1월 4일 목요일 (1)

○ **외국계 투신사의 국내 진출 점차 활발**

– 외국 유수의 투신사를 비롯하여 외국 금융기관들이 선진 운용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투신사와 합작 및 단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1월 4일 현재 외국계 지분이 들어 온 투신사는 자산운용사와 합쳐 10개사로 총 20조6,710억원의 설정잔고를 기록해 전체 자산운용사 및 투신사 설정잔고의 14.8% 차지
- 지난 해 11월 100% 출자한 스커더캠퍼사와 하나은행과 합작 (50% 씩)한 알리안츠 그룹이 예비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들어 슈로더투신이 독자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을 한 상태

– 외국계 투신사 국내 현황 (1월 4일 기준)

투신 및 자산운용사 (1월 4일 기준)	외국업체	지분 (%)	설정잔고 (단위: 10억좌)
다임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프림아시아 (홍콩)	24.3	35.4
리젠트자산운용	리젠트증권 (홍콩)	100	1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Lotos Asset Management (홍콩)	7.10	419.7
세이에셋자산운용	SEI Global Investment (미국)	52.34	296.6
대신투신운용	스미토모생명 (일본)	20.0	2,906.0
동원BNP투신운용	Banque National Paris (프랑스)	30.0	2,318.7
외환코메르츠 투신운용	코메르츠은행 (독일)	45.0	1,143.8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템플턴 (미국)	100	2,049.5
주은투신운용	ING (네덜란드)	20.0	9,299.6
한화투신운용	Alliance Capital (미국)	20.0	2,138.1
총 계			20,671

– 국내 투신사들의 고질적인 문제

- 국내 투신사들은 경영전략상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해 운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 타금융권 (은행, 보험사 등)이나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이 아직도 미흡
- 직접 판매나 사이버 판매와 같은 판매 방법의 개선에도 적극적이지 못함
- 고객들의 불신이 잔재해 있음
- 상품의 구성 및 판매방법의 낙후, 판매 이후의 관리 미흡 등
- 대우사태 이후 일부 투신사들은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펀드에서 차입한 연계콜 역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투신사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점

♣ 2001년 1월 4일 목요일 (2)

– 향후 국내 투신사의 대응 전략

- 펀드의 투명성을 이루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과 개념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내에 정착돼야 함
- 경쟁력을 갖기 위해 펀드 수를 줄이고 펀드의 수명을 장기화하는 작업으로 소수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장기 육성하는 전략 필요
- 내부 인프라 구축, 펀드의 투명성, 벤치마크 수익률,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설비투자 본격화 필요

○ 크게 늘어난 시가평가 펀드

– 투신협회는 작년 12월 말 현재 투신사 수탁고 (MMF 및 신탁형 제외) 105조3,428억원 중 83.6%인 88조866억원이 시가평가 펀드로 집계됐다고 발표

- 장부가평가 펀드 수탁고는 17조2,562억원으로 전체의 16.4%

– 시가평가 펀드 수탁고는 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6월 말 (67조4,272억원)보다 30.6% 증가한 반면 장부가평가 펀드의 경우 작년 6월 말 (42조7,102억원)보다 59.6% 감소

– 시가·장부가 펀드 현황

구분	시 가 펀 드				장 부 가 펀 드			
	채권형	주식형	계	증감 (%)	채권형	주식형	계	증감 (%)
2000. 6	12,541	54,886	67,427		32,542	10,169	42,710	
2000.12	45,290	42,796	88,087	30.6	10,786	6,470	17,256	59.6

♣ 2001년 1월 5일 금요일

○ 하반기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 적용

– 금감원은 오는 4월 투신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를 도입한 뒤, 하반기에 이 제도를 자산운용회사에도 적용할 계획

– 이달부터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증권사처럼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적용될 전망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판매 늦어질 듯

– 자산운용사들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판매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은 우선 시장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

• 운용회사 입장에서 환매자금을 항상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500 초반의 지수 대에서 상품을 내놓았을 때 운용에 충분한 자금 모집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임

○ 1분기 투신권 환매대책 마련 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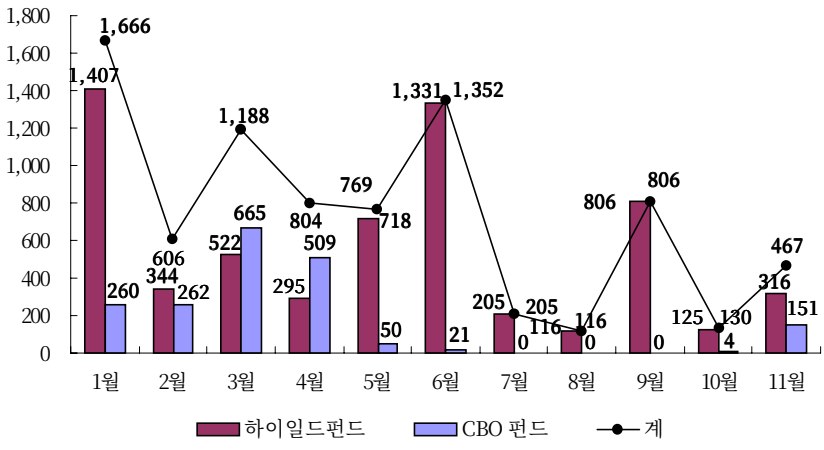
– 올해 1분기 하이일드·CBO펀드 만기 물량이 7조5,000억원에 달해 투신권이 환매 몸살을 앓을 전망

• 1분기 CBO펀드 만기 물량은 단위형과 추가형을 합쳐 5조2,509억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총 만기 물량 (6조7,940억원)의 77.2%에 해당

• 하이일드펀드의 경우도 올해 총 만기 물량 6조6,369억원의 34.1%인 2조2,731억원이 1분기 중 만기 도래할 예정

– 지난 해 11~12월 만기 연장된 하이일드펀드도 언제든지 환매 요구가 가능해 전체 하이일드·CBO펀드의 만기 물량은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단위: 10억원)



자료: 한국펀드평가(주)

♣ 2001년 1월 6일 토요일

○ 퇴직신탁 시장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투신권

– 퇴직신탁 상품은 지난 해 11월 투신권에 허용되면서 펀드의 장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까지 판매액은 미미한 형편

- 기업들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신운용사보다는 보험이나 은행을 선호
- 퇴직신탁 계약과 은행 및 보험사의 기업 대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된 이유

– 운용사별 퇴직신탁 판매 현황 (단위: 10억원)

운용사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한국	Smile-Again퇴직국공채A-1	2000.12.29	0.10
현대	정석퇴직국공채SL-1	2000.11.01	6.71
동원BNP	동원BNP퇴직채권1	2000.12.30	8.04
한일	한일SAT퇴직국공채D-1	2000.12.29	0.10
계	–	–	14.95

○ 사채 강제할당 파문

–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시키려던 정부 계획이 채권 금융기관간 이견으로 일단 무산됨

- 채권단이 인수키로 한 현대전자 2천억원은 인수 무산으로 일단 연기된 상태

– 외국계가 대주주인 제일은행은 5일 정부가 요청한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거부 표명

-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정부의 회사채 강제할당은 잘못된 것으로 은행의 자율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제일은행 몫인 40억원의 인수 거부 의사 표명

– 이에 강기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일은행 수익의 원천이 국내시장에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인수 거부된 기업이 잘못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 미래에셋 전 계열사 복수대표 체제 도입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계열사들이 관리부문과 운용부문을 분리해 전 계열사에 대해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

- 기업 경영과 자산 운용을 분리하여 전반적인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 2001년 1월 8일 월요일

○ 금감원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억제 논란

– 금감원은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세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펀드의 남발 방지 및 펀드 대형화를 위해 유형별로 1개만을 허용한 상태임

- 이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상품을 시리즈 형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

– 그러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수익증권과 달리 환매가 들어올 경우 환매분 만큼 감자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감자로 인해 최저 순자산액이 2억원을 하회할 경우 펀드의 청산 (결산일 이후)이 이루어게 됨

- 이에 비해 수익증권은 환매가 들어오더라도 미매각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해 계속 모집이 가능함으로써 증권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펀드수익률 산정 싸고 투신사와 펀드평가사간 신경전

– 4일 펀드평가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투신협회 회의에서 일부 투신사들은 펀드평가사가 발표하는 펀드수익률의 신뢰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

- 펀드평가사들의 펀드수익률 평가 결과는 연·기금 등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개별 투신사의 위상과 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 투신사들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수익률, 편입종목 등 펀드운용 내역이 각사별로 제각각 다르고 너무 방만하다며 표준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외국 사례를 참조해 새로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해외펀드 관심 고조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펀드의 잇점

- 최근처럼 환율이 급변할 때 환차익을 낼 수 있으며,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국내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분산투자의 효과 가능
- 펀드 전환시 환매수수료가 없음

– 해외펀드의 판매회사 및 종류: 한국투신증권 (피델리티펀드), 대한투신증권 (슈로더펀드), 현대투신증권 (템플턴펀드), 제일투신증권 (피델리티펀드), LG투자증권 (메릴린치펀드)

♣ 2001년 1월 9일 화요일

○ 투신 1분기 유동성 호전될 전망

– 정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 2조여원에 대해서 1분기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아름종금이 투신사에 지급하지 않은 1조8천억원을 예보를 통해 이달 중 11개 투신사에 상환할 계획과 더불어 1분기에 총 3조8천여억이 투신권으로 자금이 수혈될 것으로 보임

○ 한아름종금 허위 무담보 CP 예보-금융권 대지급 신경전

– 8일 투신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아름종금이 투신권과 은행권에 대지급해야 하는 5조6,000억원 가운데 6,400억원 규모가 허위 무담보 CP인 것으로 드러남

  • 허위 무담보 CP는 지난 98년 종금사 퇴출 당시 일부 종금사들이 자발어음을 발행하면서 일반 우량기업 어음으로 속여 매출한 어음

–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퇴출 종금사들이 허위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대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

– 이달 중으로 투신권이 상환받게 돼 있는 한아름종금 1조7,000억원 가운데 400억원어치가 포함돼 있으나 예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지급을 유보한 상태

♣ 2001년 1월 10일 수요일

○ 리스사 투신보유 CB (전환사채) 주식 전환 요구

- 지난 해 11월말 금감원은 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기업개선작업이 추진 중인 일부 리스사에 경영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상태
- 이에 따라 실질 자기자본비율 7%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리스사들이 투신권이 보유중인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 CB를 주식으로 전환시켜 부족한 실질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
- 그러나 투신권이 보유 중인 리스사 발행 채권은 대부분 SPC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일반 펀드에 편입된 상태여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투신권의 입장에선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추가 리스사 퇴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유 중인 채권을 추가로 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사의 전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

○ 투신사 재무건전성 기준 올 4월부터 적용

-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순자산비율 시안이 확정돼 올 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금감위 규정으로 입법화 될 예정
- 새로 마련되는 감독기준은 은행의 BIS와 비슷한 것으로 투신사의 부실 여부를 분기별로 판단, 퇴출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며 투신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
- 투신사들은 수시로 경영평가를 받아 부실 투신사로 판정되면 퇴출되거나 증자 및 매각·합병 등의 자구노력을 할 수 밖에 없어 투신사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투신권 SPC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대규모 손실 발생

- 지난 해 1월 설립해 9월 제 1기 사업연도 결산을 맞은 1차 SPC들이 정상채권과 보증채를 제외한 부실채권들의 부실 정도가 심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게 돼 있어 당장은 이자가 나가지 않지만 기간 경과분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간 불일치로 인한 손실이 포함된 상태
- SPC에 양도한 채권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투신사가 이들 채권을 되사는 옵션이 결려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 2001년 1월 11일 목요일

○ 6개 투신사 삼성차 보증채 관련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소송 제기

– 지난 해 11월 말 삼성상용차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이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권에 대한 이자 대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관련 투신사들이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 서울보증보험은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자와 원금의 대지급 책임을 삼성측에 전가하고 있는 상태

  • 투신권이 지난 해 12월 받지 못한 이자만 28억8,840만원에 이름

– 투신사별 보유 삼성상용차 보증채권 규모 (단위: 10억원)

투신사	한일	대신	대한	현대	한국	신한	동원	삼성	S K
규모	44.4	10.0	25.0	12.0	20.0	12.3	4.0	10.0	18.0

○ 한국투신증권 "셀프프리컷" 주식형펀드 발매 계획

– 한국투신증권은 수익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셀프프리컷" 주식형펀드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판매할 계획

– 혼합형과 주식형 두가지로 혼합형의 경우 -8% 이하 8% 이상, 주식형의 경우 -10% 이하 10% 이상 범위에서 수익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해약 가능

○ 세금우대형 상품의 세제 인정 문제가 펀드 통폐합 작업에 걸림돌

– 세금우대형 상품은 통합시 설정 시점을 통합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초 가입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세금우대형 상품은 상품이 나온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데다 펀드 수가 많고 펀드가 존속하는 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들이 쉽게 통합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

♣ 2001년 1월 12일 금요일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 제도 3월 실시

- 200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의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금융기관간 계좌 이전이 허용되었으며, 전산상 시스템 구축 이후인 3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같은 금융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보험·투신 등 다른 업종간의 계약이전도 가능해 짐에 따라 금융기관간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
-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뿐 계약 이전은 해지 및 신규계약의 독립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금융기관의 실무처리는 동 절차를 거쳐야 함
- 한편, 새로운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 신협 등이 추가됨

○ 산은 투신운용사 설립에 비상임 금감위원 반대

- 증선위 논의를 거쳐 금감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인허가 사항인 산은투신운용사 설립 문제가 금감위 비상임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
- 반대 이유
  -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상 최근 5년간 문책기관 경고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주요 출자자는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산은은 97년 2월 한보사태와 관련해 경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공정경쟁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 신설 투신사 사장을 산은 퇴임이사로 내정한 점 등은 산은측이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신사를 신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있음을 제기

○ 한투 "로스컷 펀드" 50일만에 10% 수익내고 상환

- 한국투신증권의 로스컷 펀드 1,2,3호가 50여일 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해지돼 주목
  - 각 100억원씩 총 300억원이 설정된 로스컷 펀드는 목표수익률 달성시 수수료없이 상환되는 스팟펀드의 일종으로 지난 해 11월 20일 설정된 지 두 달만에 목표달성 (10%) 후 상환 (당시 종합주가지수 537.4)
- 이는 이 기간 중 주가상승률 (4.3%)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익률로 연환산 70% 대에 이르는 높은 수준

♣ 2001년 1월 13일 토요일

○ 투신 단기자금 수신 거부 사태 발생

– 투신사들은 최근 밀려드는 MMF 자금을 운용할 투자수단을 찾지 못해 수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

- MMF 수탁고는 이달 들어 4조2,000억원 정도 증가해 34조200억원 (11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 말 결산을 앞두고 투신권에 맡겨둔 단기자금을 대거 환매했다가 이달 들어 다시 예탁하고 있기 때문
- MMF는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과 은행권 CD (양도성예금증서), 우량기업 CP (발행어음) 등을 편입하는 단기성 금융상품

– 최근 국공채 금리가 연 5% 대로 떨어지는 등 역마진이 우려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권은 CD 발행을 거의 않고 있으며, 우량기업의 경우 연말 결산 이후 자금이 풍부해 CP 발행을 않고 있어 대체 투자수단의 부족 현상 심화

○ 올해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 실시

– 지난 99년 12월 28일 개정되어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로 인해 10% 저율과세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됨

- 10% 저율과세저축이란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 등 고수익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을 지칭

– 종전의 10% 저율과세저축 9개 상품이 별도의 한도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의 실시로 모든 금융기관 저율과세저축 상품이 통합돼 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됨

- 단,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적용

– 저축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함

♣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 투신업계 M&A 사모 증권투자회사 준비

– 지난 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한 M&A 사모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준비작업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임

– 동일종목 동일회사의 투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의결권 제한 (Shadow voting)을 배제함으로써 M&A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난 해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사모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동일회사의 투자 제한은 없으나 동일종목에 대해서 50%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의결권이 제한됨
- 지난 12월 말 세법의 개정으로 사모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 기타 개정될 법령 사항

- 그린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M&A 목적의 주식 취득 후 3개월 동안 매각 금지
- 30대 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M&A 펀드에 10% 이상 출자 제한 및 M&A 펀드에 투자한 이후 5년내 매각 금지
- 펀드의 건전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외부 차입은 금지되나 환매를 대비해서 자산 10%의 외부 차입을 허용할 방침

○ "한경KIS 채권지수" 개발

– 한국경제신문사와 KIS 채권평가는 연세대 재무연구센타와 공동으로 "한경KIS 채권지수"를 개발해 15일부터 발표

–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지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현재 채권시장이 수익률 위주로 파악되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각종 펀드의 벤치마킹 지수로 활용돼 투신사, 은행, 연기금 등 펀드매니저 평가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굿모닝투신 19일 예비인가 예정

– 굿모닝투신은 인가 기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 19일경 금감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영업에 들어간다는 방침

- 대주주인 굿모닝 증권이 100% 출자한 상황이지만 대주주측 인사들이 전혀 투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데다 회사명도 굳이 굿모닝을 고집하지 않는 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시할 방침

♣ 2001년 1월 16일 화요일

○ 투신권 주식형 펀드 다양화

- 증시 회복에 맞춰 투신사별로 투자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펀드의 개발이 이루어짐
- 대한투자신탁증권
  - 손실률을 10%로 제한하는 Loss Cut 형태의 "인베스트 디펜스 펀드"
  -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중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인베스트 타겟 혼합펀드"
  - 1개월 10%, 2개월 12%, 3개월 15%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스팟펀드인 "윈윈 스파트업 20호" 등을 15일부터 판매
- 한국투자신탁증권
  - 투자자가 목표수익률을 지정하는 "셀프 프리컷 펀드"를 지난 11일부터 판매
- 제일투신증권
  - MMF, 성장혼합형, 안정혼합형 등 시장상황에 따라 1년에 12까지 투자자가 펀드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CJ 비전 체인지업 펀드"를 10일부터 판매

○ 현대 계열사 신규 금융업 제한

- 금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주요 주주에 대해 금감위에서 인허가를 받는 새로운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책임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힘
- 현대증권이 1월 말부터 허용되는 코스닥 선물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등 현대 계열사들이 앞으로 신규 금융업 진출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현대투신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제재를 받을 전망

♣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1)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직접판매 허용

-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판매할 때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
- 금감원은 16일 미래에셋, 마이다스, 유리, SEI 등 4개 자산운용사가 준비 중에 있으며 이들 회사의 판매 준비가 완료되는 다음달에 자산운용사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해 줄 예정임
  - 금감원은 미래에셋의 경우 상품을 판매해 줄 계열 증권사가 있지만 마이다스, 유리, SEI 등은 계열 증권사가 없어 이들에 대한 직접판매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 한아름종금 CP 예보 대지급 방안 투신권 반발

- 예보가 투신권에 대지급해야 하는 한아름종금 자발어음 1조6,761억원 가운데 허위 무담보 CP 460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예보채 5년물로 대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투신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특히, 연 5.5%로 발행할 예정인 예보채 5년물은 채권시장에서 연 6.25%로 거래되는 등 금리가 0.75%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신권이 이 대안을 수용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될 입장
  - 여기에다 투신권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지급 받은 예보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경우 예보채 물량이 늘어나 실세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음
- 투신 관계자는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않은 예보채 대지급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투신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 AIG와 직접 협상

- 1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은 현대측과 AIG그룹 사이에서만 진행됐으나 현대측만의 노력으로는 협상 타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최근 방침을 바꿨다고 밝힘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별기업의 외자유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풀이됨
- 정부는 최근 현대측으로부터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권을 넘겨받은데 이어 AIG측에는 현대투신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서둘러 제출해 줄 것도 공식 요청한 상태

♣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2)

○ 회사채 수요 확대

– 안전자산으로만 움직이던 시중자금이 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회사채 매수세가 BBB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투신·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회사채 전용펀드 설정에 나서는 등 기업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배경은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올 들어 보름여만에 0.7% 포인트 이상 급락하여 유통수익률이 5%선대로 주저 앉았으며 절대수익률 및 기대수익률이 동반하락하여 금리변동 위험에도 노출된 탓

– 이는 기업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투신·증권·보험도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전망

– 재경부는 16일 은행과 종금사만이 외환시장에 딜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고쳐 투신과 증권·보험사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이는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판단됨

♣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1)

○ 수익증권 환매 분쟁 장기화 조짐

- 상당수 금융기관이 금감원의 합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정소송의 길을 택하고 있어 대우사태로 빚어진 금융기관과 증권·투신운용사간의 수익증권 환매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
-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증권 환매 분쟁을 조정한 결과 1조 6,571억좌의 손실 가운데 63%인 1조433억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힘
  - 금감원은 조정대상 44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 (2,390억좌)은 판매·운용사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9개사 (3,748억좌)에 달한다고 밝힘
- 총 1조6,571억좌, 298개 펀드의 분쟁 유형으로는 장부가 환매 요구, 대우채 과다 편입, 부당한 상각 불만, 보장수익률 미달, 일반법인에 준한 환매 요구 등으로 나뉨
- 고객 금융사 (은행·보험사 등)과 투신사 수익증권 손실분담 합의내용
  - 채권평가 실시 이전인 2000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손실은 대우무담보채권 처리원칙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채권 종류	1조6,571억좌 중 비율	채권 시가평가 이전	채권 시가평가 이후
부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채권	50%	손실분에 대해서 고객 금융사가 모두 책임	손실분에 대해서 고객:판매사:운용사가 33.3%:46.7%:20.0% 비율로 책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	30%	서울보증보험이 모두 책임지고 지불	
연계콜	15%	상각분에 대해서 고객 금융사가 모두 책임	상각분에 대해서 판매사:운용사가 70%:30% 비율로 책임
투신사가 불법 운용한 채권	5%	불법 행위 드러나면 100% 투신사 책임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명의개서 논란

- 투신권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명의개서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예탁원에 맡기지 않고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예탁 지정기관인 예탁원과 갈등을 빚고 있음
- 개방형은 비상장 증권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예탁원에 예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주장
  - 주총 의결수 충족을 위해 불참 주주에 대한 권리의 대리행사 제도인 shadow voting이 필요해 한때 예탁원에 예탁할 것을 검토했으나, 주식의 매입 및 환매시 자금결제가 예탁원을 통해 이루어지면 번거롭다는 설명
- 투신업계는 shadow voting 문제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예탁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2)

○ 투신협회 부적격 광고 작년 116건 적발

– 투신협회는 17일 지난 한해 동안 1,145건의 광고물을 심사해 10%에 해당하는 116건의 부적격 광고물을 적발했다고 밝힘

-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크기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익률 등 증빙자료 미비 24건, 예상수익률 표시 19건 등임
- 투신증권, 투신운용, 자산운용 등 운용회사가 720건으로 62.9%를 차지했으며, 은행, 증권, 종금 등 판매사가 425건으로 37.1%의 비중을 차지

– 투신협회는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건은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규제토록 했음

○ AIG에 현대증권의 경영권 이전으로 협상이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

– 현대측은 최근 AIG와 현대투신증권, 현대투신운용에 이어 현대증권의 경영권까지 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AIG와 정부간 협상마저 타결될 경우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은 AIG 단독 또는 AIG와 정부 공동출자 형태로 운영될 예정
-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AIG측이 3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여 제1대 주주가 되는 동시에 CEO 및 이사회 구성원 절반 선임권을 갖게 될 전망

○ 투신사 펀드 내역 공개 거부 움직임

– 최근들어 투신운용사들이 그동안 판매사에 제공해 왔던 펀드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 투신사 준법감시인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펀드내역서 공개로 운용사의 노하우가 외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가입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

– 이에 반해 판매회사 관계자들은 해당 가입자들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펀드의 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반박

♣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 **준법감시실 및 팀 제도가 펀드 운용에 신축적이지 못하다고 함**

- 투신사들은 지난해 본격 도입한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팀 운용 체제가 연초 급등장세에서 신축적인 펀드 운용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 한투, 대투의 경우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 이후 증권사와 운용사로 분리되면서 운용팀, 투자전략팀, 컴플라이언스실 등 수개의 부서가 펀드 운용을 공조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했음
  - 펀드매니저의 독단적인 펀드 운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철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매매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
- 그러나 이같은 펀드 운용사 조직 내부의 변화는 증시 사정이 급변하는 시기를 맞아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발빠르게 시황 대비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음

♣ 2001년 1월 20일 토요일

○ 환매수수료 없는 주식형펀드 추진

– 투신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시중자금의 투신권 유입이 부진함에 따라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주식형 펀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

- 그 동안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감안해 고객이 주식형 편드에 가입한 뒤 90일 안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 이상을 수수료로 물어 고객의 단기간 내 해약을 억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매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금감원은 환매수수료 부담을 없앨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가인 투신사들이 단타매매에 집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의 투신운용업 본허가

– 금감위는 22일자로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주)의 투신운용업 본허가와 (가칭) 굿모닝투신운용 및 (가칭) 슈로더투신운용의 투자신탁운용업 예비허가를 의결하였음

– 하나알리안츠는 자본금 300억원 중 50%인 150억원을 독일계 금융그룹 알리안츠 그룹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예비허가를 받은 굿모닝, 슈로더는 각각 150억원, 10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갖춤

○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조치

– 19일 금감위는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 등 4개사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각사의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음

–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가 한아름종금에 계약 이전되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인가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을 취소한다고 밝힘

○ 회사채 전용펀드 인기

– 국고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조흥, 동양오리온, 미래에셋 등 몇몇 투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채 전용펀드의 편입대상 채권이 모자라 추가설정을 미뤄야 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이들 투신사들은 A등급 회사채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대상에 편입될 BBB 등급 회사채에 주로 운용하는데다 상대적 부도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만기가 6개월 미만인 회사채를 주로 편입하고 있음

–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BBB 등급 회사채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채권으로 간주돼 일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집중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첫 선

– 증시 회복을 발판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내달 초 발매 예정인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설정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음

– 개방형 주식형 증권투자회사 판매 계획

회사명	상품명	주식편입비율	판매예정일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	60% 이상	1월 말 ~ 2월 초
	인디펜던스 혼합형 (준개방형)	20~60%	1월 말 ~ 2월 초 (개방형 전환 예정)
마이에셋	징기스칸2호	60% 이상	2월 초
KTB	KTB혼합형 (가칭)	60% 이상	2월
마이다스	마이다스액티브 성장형 (가칭)	60% 이상	2월
유리에셋	유리코스피200인덱스	90% 이상	2월

○ 투신권 예보에 한아름종금 CP 현실적인 지급 방안 촉구

– 투신사는 지난 18일 모임에서 전액 현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원리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예보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을 예보에 전달한 상태

• 이에 대해 예보는 예보채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의 문제 등 투신권이 요구한 지원 방안이 쉽지만은 않아 이달 말까지 투신 요구사항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임

– 5.5%의 금리를 적용한 5년 만기 예보채로 지원한다는 예보의 지원 방안에 투신권은 유동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우선적으로 현금 지원을 예보에 촉구했었음

○ 투신권 대우자판 추가 담보 요구

– 채권자인 투신권이 지난해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대우자판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대우자판에 차환 발행의 조건으로 담보 설정을 요구했으나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번 투신권에 설정된 담보인 15만평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용 토지가 하치장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 공시지가가 떨어질 우려 때문임

– 이에 투신권은 전체 원리금 2,000억원 중 30%인 600억원은 자체 상환받고, 20%인 400억원은 서울보증이 대지급하여 나머지 50%만 차환 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보증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 대지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 모든 자산운용사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직판 허용

–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직접판매를 계열증권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자산운용사에게 허용할 방침

- 금감원 당국자는 당초 계열증권사가 없는 자산운용사의 직판만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부작용이 많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 자산운용사가 직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고 밝힘
- 계열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과 리젠트운용 등은 투자자 위주 관점에서 계열증권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자산운용사가 직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음

○ 투신운용사 사장단 1년만에 3분의 1 교체

–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1년 동안 투신협회에 가입해 있는 국내 27개 투신운용사 가운데 9개사가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한국투신운용을 비롯해 동원BNP, 한일, 프랭클린템플턴, 미래에셋, 동양, 동부등이 지난해 사령탑을 새로 영입한데 이어 올해 들어 유병덕 SK투신운용 사장이 대열에 합류

– 지난 1년간 진행된 이같은 물갈이성 인사의 최대 특징은 최고경영자 층이 40~50대로 젊어졌다는 점임

-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서구적인 경영을 탄력적으로 적용, 새로운 경영환경을 구축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됨
- 특히 이들 경영자 교체는 과거 정기주총에서 간헐적으로 교체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임시주총을 거쳐 전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 차이점임

○ 증권투자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면제

–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증시에서의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이 펀드에 대해서는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매집하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할 방침

-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비밀리에 집중 매집하는 방식의 M&A가 가능해짐

–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올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 다음 달부터 새 연금저축 발매 개시

–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은행권이 2월 1일부터 공동상품으로 새 연금저축의 발매에 들어가는데 이어 투신이나 보험권도 2월 초에 새 연금삼품을 내놓을 예정

- 새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과는 완전히 별도의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 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액이 큰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불입하는 기간 중 발생한 이자와 소득공제 총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내거나 종합소득 과세 대상임

– 기존 개인연금 상품과 새 연금저축 비교

항 목	기존 개인연금 상품	새 연금저축
가입연령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액 한도	분기당 3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	불입액 40%내에서 72만원 한도	불입액 전액에 대해 240만원 한도
과세 방식	전액 비과세	연금 수령시 이자와 소득공제액에 대해 10% 소득세 부과
중도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 5년 미만시 소득공제분 환수	이자와 소득공제액에 대해 20% 기타소득세 부과, 5년 미만시 5% 가산세 부과
판매기관	은행, 보험, 투신, 농·수협 단위조합	증권투자회사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
비고	1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금지	2월부터 판매 시작

– 금융기관별 상품 특징

은행	· 원금 보전형 · 채권형, 혼합형 중 안정형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운용으로 적정수익 보장
보험	· 확정 금리형 상품도 판매 · 연금지급 기간 다양화 (종신형 가능)
투신	· 실적 배당형 · 주식형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등 고수익형도 판매 · 예금자 보호대상 제외

○ 계열사 주식 출자 전환키로 한 현대투신

– 현대전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 계열 3사가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

- 계열 3사가 지난 해 6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현대정보기술 11,158,000주, 현대택배 817,000주, 현대오토넷 7,774,000주

– 제공 당시 총 1조7천억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증시 침체로 인해 현재 2,500억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음

♣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1)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도입 추진

–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제도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우선 은행·보험·투신 등에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노사가 협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정부는 기업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돈만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공제해줄 방침

– 기업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은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증권투자회사 등을 통해 금융자산에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증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

○ 현대투신 투신안정기금 및 증권금융채권 연장을 통한 우회지원

– AIG측은 현투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투자하기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만기 도래 증금채 만기 연장과 투신안정기금 등을 통한 우회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

  • 정부는 또 AIG컨소시엄이 현대투신에 정부와 공동투자하면 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경영개선 명령 유예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음

– 지난 연말 현대투신 인수 관련 AIG의 요구

  • 만기가 2003년인 증금채 (2조5,000억원 규모)를 2008년으로 연장
  • 금리를 연 6.6%에서 3%대로 인하
  • 1조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

– 한편 현대투신은 현재 AIG와의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며 정부와 AIG 양자간 협상, 현대투신의 대주주인 현대 본사측 대리인과 정부, AIG 3자간 협상이 물밑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투신권 예보채 공모발행 요구

– 투신사들이 한아름종금 CP 대지급을 위해 지급받는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를 기존 사모 발행에서 공모 발행으로 해 줄 것을 예보에 요구하고 있음

  • 예보의 입장에선 사모로 발행하는 것이 비용문제에서 부담을 덜 수 있으나 투신권 입장에선 실세금리와 차이가 벌어지고 손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모 발행을 통한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결국 투신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절반은 현금으로 받되 절반은 공모 발행을 통한 예보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임

♣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2)

○ **대기업계열 투신사 투자한도 완화 요구**

–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종목당 한도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자산 운용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도 완화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건의할 예정임

- 보통 종목당 한도는 10%로 맞춰져 있지만 동일그룹 계열 회사에 투자할 때는 7%로 투자 한도가 줄어들어 타 투신사에 비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상 제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

– 가령 주식시장에서 그룹 비중이 큰 삼성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투신은 이 같은 한도의 규정으로 삼성주를 충분히 편입하지 못해 운용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 증권투자회사 수수료 회사별 천차만별

– 29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를 운용하는 회사의 보수율은 최저 0.55%에서 최고 2.9%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증권투자회사의 보수 합계는 운용사가 떼는 운용 보수, 판매사가 받는 판매 보수, 기타 수탁 보수 및 일반사무 보수를 합친 수수료임
- 일반적으로 원금손실이 크고 손이 많이 가는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가 채권형 펀드보다 높음

– 주요 증권투자회사 보수 현황 (단위: %)

회사	펀드명	운용 보수	보수 합계	상환일
국은 투신	바이킹성장형1호	1.00	2.75	2001.3.21
다임인베스트먼트	다임채권형1호	0.65	1.41	2001.5.1
리젠트자산운용	코스닥30전환형	1.17	2.90	2001.4.3
마이다스에셋	30전환형드림1호	1.17	2.90	2001.3.28
마이다스에셋	국공채혼합형	0.44	0.55	2001.11.29
맥쿼리-아이엠엠	플러스알파주식	1.00	1.21	2001.11.13
미래에셋	주식혼합형1호	0.75	1.96	2001.7.5
미래에셋	실크로드성장형1호	1.19	2.85	2001.3.22
그린에셋	그린1호자산배분형	1.00	2.85	2001.5.16
SEI에셋	한가족성장형	1.00	2.65	2001.2.17
서울투신	플래티넘성장2호	0.25	1.30	2001.5.8
유리자산운용	오로라혼합형	0.50	1.73	2001.10.22
KTB자산운용	코스닥드림1	1.20	2.90	2001.3.23

○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1조2,000억원

–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은 27일 현재 1조 2,0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 주식저축 계좌의 경우 7만3,768계좌에 1조1,133억원, 수익증권의 경우 7,647계좌에 958억원이 유입되어 발매된 지난 달에 비해 전체적으로 4천여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 편입비와 편입시기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올해들어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 예보 한아름종금 어음 사모채권으로 대지급 결정

– 예금보험공사는 11개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발행 기업어음 1조6,700억원을 5년 만기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대지급하기로 했음

- 사모채를 발행한 뒤 5개월 후부터 투신사가 해당 채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 금리도 당초 제시했던 5.5%보다 높은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29일 기준 5.96%)을 적용키로 함

○ 제일투신 외자유치 본계약

– 프루덴셜 관계자는 3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스티븐 펠레티어 프루덴셜 국제투자그룹 국제자본본부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일투신증권 투자 본계약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힘

– 따라서, 프루덴셜과 IFC (국제금융공사)는 각각 $1억과 $3,300만을 투자해 제일투신증권 발행 우선주 (보통주 전환 가능)와 후순위 전환사채를 각각 절반씩 매입하게 될 예정

– 현재 대주주인 제일제당도 제일투신증권의 후순위 전환사채 5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상태임

○ 자산운용사 생존 위기

– 31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29일 기준 증권투자회사 규모는 지난해 말에 비해 6,000억원이 감소한 2조2,600억원이며, 한강구조조정기금 7,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월드에셋과 마이에셋 등 2개 운용사는 펀드 운용 자산이 0인 것으로 나타남

– 운용 자산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나 주가 수준이 낮아 대규모 자금모집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기대됨

○ 변액보험 빠르면 3월 도입 예정

– 금감위는 보험가입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선진형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 변액보험이란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펀드로 구성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뒤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임

2월 February

10대 주요 기사

1.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2월 5일 판매 돌입
   (2일, 3일, 8일, 10일, 20일)
2. 초단기성 자금인 MMF의 폭발적 증가
   (3일, 10일, 15일, 17일, 23일, 24일, 27일)
3. 투신 상품 광고할 때 세후수익률 표시
   (6일)
4.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 230조원으로 추정
   (7일)
5. 연기금 증시 최대 세력으로 부상 기대
   (7일, 9일, 22일, 24일, 27일)
6. 회사채 전용 펀드 관심 집중
   (9일, 14일, 26일)
7. 현대전자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소
   (12일)
8. 생보·투신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논쟁
   (12일)
9. 산은투신의 인가 보류로 서울투신 타격 예상
   (26일)
10. 3월 중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5천억원 투입 예정
    (27일)

◈ 2월 목차 (2/1-2/10)

2/1 (목)	○ AIG 정부에 공동출자 제의 ○ 대투 소액펀드 관리팀 신설 ○ 비효율적인 스팟펀드
2/2 (금)	○ 금감위에 준사법권 부여 ○ 투신 투기등급채 매입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판매 앞서 진통 ○ 현대투신증권 외수펀드 $1천만 유치 발표
2/3 (토)	○ 세계 최대 뮤추얼펀드사인 피델리티 한국 진출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5일부터 판매 ○ MMF 한달새 10조원 증가
2/4 (일)	
2/5 (월)	○ 투신사 실적 회복 징후 ○ 체신 예금 회사채 투자 ○ 예보채 시장에서 외면
2/6 (화)	○ 이 금감위장 금융 관련 협회 대대적 개혁 천명 ○ 투신 상품 광고할 때 세후수익률 표시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5일 판매 돌입 ○ 민주당 원금보장형 펀드 도입 추진
2/7 (수)	○ 4대 공적 연금 잠재부채 230조원으로 추정 ○ 현대투신증권 CBO펀드 1,887억원 상환 ○ 국민연금 올해 3조원 증시 투입
2/8 (목)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세부시행 방안 ○ 운용사에 대해 까다로운 선별 조건을 내세우는 판매사
2/9 (금)	○ 연·기금 주식 투자 25조로 확대 ○ BB등급 회사채 펀드 등장 ○ 금감원 랩어카운트의 No Load 펀드 돌연 불허
2/10 (토)	○ 투신 MMF 수익률 인하 움직임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봇물 ○ 부동산 증권투자회사 연내에 선 보일 듯

◈ 2월 목차 (2/11-2/20)

2/11 (일)	
2/12 (월)	○ 생보·투신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논쟁 ○ 한빛은행 고유계정 자산운용 아웃소싱 ○ 현대전자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소 ○ 개인연금 옮기면 수수료 부과 ○ 푸르덴셜 제일투신 지분 60%까지 확대 ○ 기업연금 도입 검토 ○ 신탁안정조정금 6월 폐지
2/13 (화)	○ 랩어카운트의 도입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투신운용사 ○ 대투·한투 부실채권 매각 추진 ○ 진 부총리 2월 경제동향 설명회 ○ 원금보장 연기금 펀드
2/14 (수)	○ 회사채 전용펀드 인기 급증 ○ 투자자문회사 회생 기미 ○ 증권업협회 채권 금리차 조정 주 3회로 확대
2/15 (목)	○ 대투증권 본사사옥 등 기초로 ABS 발행 ○ 현투증권 자본잠식 1조3천억원 육박 ○ 대우채 환매연기 무효 ○ 투신 MMF 비중 위험 수위
2/16 (금)	○ 대투 "신탁저축" 금리 0.5% 포인트 인하 ○ 기업 신용등급 산정 허점 많다 ○ 분리과세 은행신탁 26일 판매 예정 ○ 대우채 환매 연기 조치에 대한 엇갈린 법원의 판결
2/17 (토)	○ 투신 MMF 수익률 인하 예정 ○ 회사채 시장 급속 안정 ○ 기관투자가협의회 설립 예정
2/18 (일)	
2/19 (월)	○ 사무수탁업에 은행·투신·외국사 3파전 ○ 외국 수익증권 판매 저조 하지만 점차 증가세 ○ 수익증권 실물 발행 "무권화"에 역행
2/20 (화)	○ 확정금리 신탁상품 조기 매진 ○ 한국투신운용사 스위스 UBS로부터 외자유치 ○ 미국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사 대형증권사 인수 추진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투기등급채 민간 시가평가 의무화

◈ 2월 목차 (2/21-2/28)

2/21 (수)	○ 국민연금 주식 투자 600억원 손실 ○ 금감원 대형은행의 신탁부문을 독립시킬 방침 ○ 프라이머리 CBO 예상외 고수익 ○ 기관들 신용 단수평가제 반대
2/22 (목)	○ 연기금 증시 최대세력으로 부상 기대 ○ 현대투신운용 부실채권 1조6천억원 회수 ○ 증권사 투신상품 평가 본격화 ○ 현대투신 파산기관 보증소송 승소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출시 예정
2/23 (금)	○ 한국·대투가 올 주총에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 예정 ○ HSBC·골드만삭스증권 수익증권 판매회사 설립 ○ MMF 자금 증가의 문제점
2/24 (토)	○ 연기금 6,000억원 내달까지 증시 투입 예정 ○ 투신사 MMF 사절 ○ 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직접판매 전환 ○ 굿모닝투자신탁운용 허가
2/25 (일)	
2/26 (월)	○ 회사채 전용 펀드 판매 부진 ○ 투신권 운용수수료 인하 바람 ○ 원금보장형 연기금 펀드의 "원금보장" 여부 논란 ○ 산은투신의 인가 보류로 서울투신 타격 예상 ○ 3월부터 개인연금 거래기관 이전 가능
2/27 (화)	○ 정부 AIG와 공동으로 현투 출자시 정부지분 1조원 안될 것 ○ 사학연금도 증시 투입 예정 ○ 일부 투신 MMF 과다 운용에 대해 금감원 행정지도 등 검토 ○ 3월 중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5천억원 투입 예정 ○ 투신안정기금 운용 문제 제기
2/28 (수)	○ 해외 뮤추얼펀드 손실 규모 확대 ○ 한투·대투증권 실적 부진 ○ 성장형 주식펀드 실적 저조 ○ 올 들어 설정된 채권형 펀드 중 31개가 원금 손실 ○ 푸르덴셜 제일투신증권 경영 참여

♣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AIG 정부에 공동출자 제의

– 미국 AIG컨소시엄이 현대투신증권의 경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공동 출자를 정식 제의해왔으며, 이 제의를 통해 현대투신증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1,000억원까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AIG와 정부의 공동출자 협상이 타결돼 AIG측이 51%의 현대투신증권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리 정부측 출자 규모는 약 8,000억~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

– 정부는 현대투신 정상화를 위한 적정 자본금 규모와 출자 규모, 현대투신의 잠재부실 분담 등 풋백옵션 문제를 놓고 AIG측과 본격 협상을 벌일 예정임

– 현대투신 문제 해결이 구체화됨으로써 투신권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대투 소액펀드 관리팀 신설

–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지난 달 8일부터 기존의 주식운용3팀에다 소규모 펀드만을 중점관리할 운용4팀을 새로 구성해 운용해 오고 있음

  • 운용4팀은 자산규모 20억원 이하 펀드 600개를 180여개의 일반펀드와 420개의 대우 분리전환펀드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성이 비슷한 대우관련 펀드 50개를 따로 묶어 총괄하고 있음

– 대투는 설정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측면과 다른 운용팀들의 경우 펀드 수가 줄어듦에 따라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비효율적인 스팟펀드

– 증시 호조로 빈번히 설정되는 초단기 펀드인 스팟펀드가 투신사 경영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스팟펀드는 목표수익률에만 도달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상환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운용 기간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스팟펀드에 성과보수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정상적인 펀드 구조가 아닌 만큼 이를 펀드로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각각 엇갈리고 있음

♣ 2001년 2월 2일 금요일

○ 금감위에 준사법권 부여

– 금감위가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실 신설을 통해 금융시장의 검찰로 재탄생할 전망

  • 공무원 조직으로 신설될 조사실은 기존 금감원 조사국의 기능과 업무를 흡수하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혐의자 소환·조사 등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강도 높은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벌이게 될 예정

– 우리나라도 금융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옮아가면서 "한국판 SEC"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금감위 권한의 비대화로 또 다른 비리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권한에 비례하는 강도 높은 윤리규범의 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됨

○ 투신 투기등급채 매입

– 지난 달 연계콜을 해소하고 증금채의 상환이 연장됨으로써 운용자금에 여유가 생긴 한투와 대투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BB급 회사채를 금명간 본격적으로 매입할 방침임

  • 올 들어 시중 자금사정이 호전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BBB급 회사채가 무난히 소화되고 일부 우량채권의 경우 매물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등 채권시장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임

– 두 투신사는 B급 회사채 편입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판매 앞서 진통

– 2월 둘째 주부터 판매될 예정인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놓고 수수료 체계 문제 등으로자산운용사와 당국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 업계에서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폐쇄형과는 달리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상품인데다 많은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환매수수료 조항은 약관에서 삭제해 달라는 주장

–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신사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3개월 안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현대투신증권 외수펀드 $1천만 유치 발표

– 올들어 처음으로 현대투신증권이 사모 외수펀드인 "현대마이더스 투자신탁 (HMT)"에 $1천만 (125억원)을 추가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 미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 및 AIG 외자유치 등으로 현대투신증권의 신뢰성이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2001년 2월 3일 토요일

○ **세계 최대 뮤추얼펀드사인 피델리티 한국 진출**

- 미국 피델리티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국내 법무법인 김&장을 설립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 피델리티는 100% 단독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영업을 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영업 시기는 올 하반기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5일부터 판매**

- 2일 금감원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펀드'와 마이에셋자산운용의 '징기스칸2호'가 3일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1호인 이들 두 펀드는 5일부터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됨
  - 두 펀드 모두 주식 편입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이어서 주식 매수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MMF 한달새 10조원 증가**

- 12월 30일 기준으로 26조4,970억원이던 MMF 수탁고가 1월 31일 기준으로 10조280억원이 늘어난 36조5,250억원을 기록
  - 지난 연말 은행 파업으로 인해 6조원의 MMF 수탁고가 일시적으로 이탈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4조원 정도가 유입된 셈임
- MMF 증가 요인
  - 주식시장 활황을 기대하는 대기성 자금의 유입
  - 장부가로 평가되는 펀드여서 시장 실세금리 변동에 둔감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고시금리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됨

♣ 2001년 2월 5일 월요일

○ 투신사 실적 회복 징후

–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투신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 양대투신은 지난 달에만 무려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남

- 한국투신의 경우 지난 달 말 현재 경영수지가 3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대한투신도 2월 중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양 투신사는 지난 연말에 연계콜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음
- 정부와 AIG와의 협상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며 제일투신 등의 외자유치 성사 등이 투신시장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경영이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고객들의 신뢰도도 향상되어 단기성 자금인 MMF의 경우 1월 한달 간 10조원이 유입되는 등 1월 31일 기준으로 신탁형 포함 수탁고가 150조원을 돌파했음

○ 체신 예금 회사채 투자

– 정통부 관계자는 구정 이후 총 5,000억원 규모를 BBB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회사채 투자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에 조성된 정통부의 회사채 펀드는 BBB급 이상 채권에만 신탁재산 50% 이하를 편입하고 전체 채권 편입비율 60~95%인 것으로 알려짐
-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은행권 정기 예금 금리로는 수익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 정통부 및 투신권 등의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회사채 펀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회사채 금리는 1월 2일 기준 8.12%에서 2월 5일 기준 6.97%로 올해 들어 1.1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예보채 시장에서 외면

– 11개 투신사들은 1조6,700억원의 예보채를 지급받은 후 현금확보 차원에서 예보가 대지급한 예보채 물량 일부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총거래액은 당초 예상과 달리 3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투신사들이 대지급받은 예보채는 국고채와 맞먹는 신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5.97% (국고채 3년물 5.48%)로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5개월 후 풋백옵션 행사가 가능

– 예보채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사실상의 국영회사인 서울신용보증보험의 대지급 요청 거부,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보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때문

♣ 2001년 2월 6일 화요일

○ 이 금감위장 금융 관련 협회 대대적 개혁 천명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지금까지 금융개혁은 개별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 관련 협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이들 협회들은 준조세적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내부개혁이 요구됨
- 앞으로 금융 부문별 각종 검사나 감독권한이 자율규제기능 차원에서 협회로 상당부분 이관될 것이며 협회의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 투신 상품 광고할 때 세후수익률 표시

– 금감원은 5일 향후 투신운용사나 증권사는 투신 상품을 광고할 때 세전 수익률 이외에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하도록 투신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발표

– 기대 효과

- 투자자로 하여금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타펀드와의 세금 효과에 대한 비교 가능
- 세금 공제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킴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5일 판매 돌입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5일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금감원에 상품등록을 마치고 이날부터 판매에 돌입했으며 마이애셋자산운용도 7일 등록승인이 나는대로 판촉활동에 들어갈 예정

- 미래에셋이 판매한 인디펜던스 주식형 펀드의 판매 및 운용수수료는 순자산 금액의 2.5%이며 설정 후 90일 이내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함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는 언제든지 가입과 해지가 가능해 투자자들이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일정에 맞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이나 준개방형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민주당 원금보장형 펀드 도입 추진

– 민주당은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키로 하고 이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채권을 현가로 할인해 매입하면 펀드 원금의 20~30%를 여유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 여유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운용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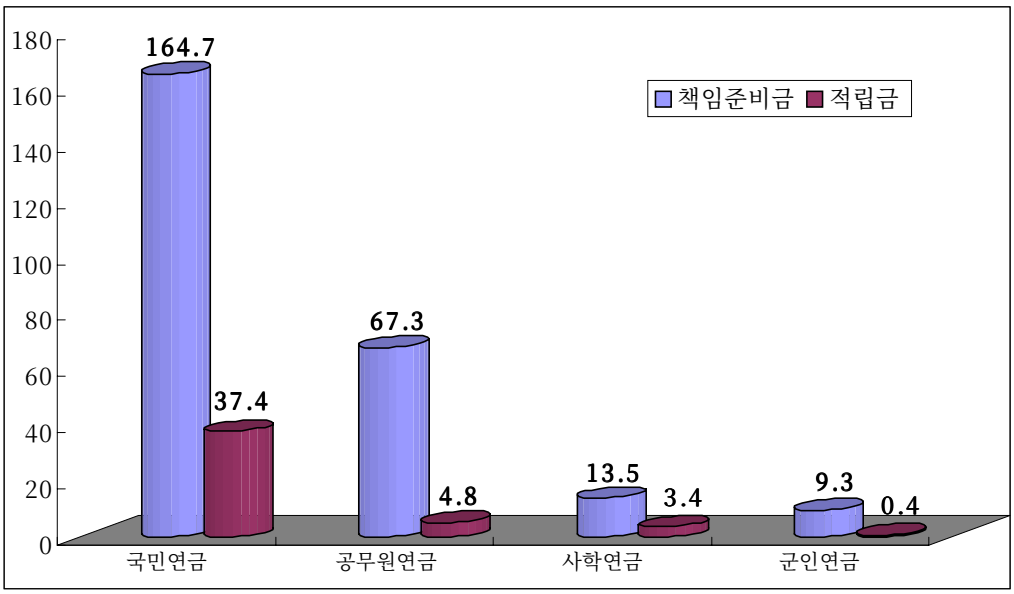
♣ 2001년 2월 7일 수요일 (1)

○ 4대 공적 연금 잠재부채 230조원으로 추정

– 국민연금기금 운영실무평가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6일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1998년 말 현재 잠재적 부채 규모가 2백조원이 넘는다고 밝힘

-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둬야할 책임준비금 규모가 255조원이며, 각 공단의 적립액은 46조원에 불과해 적립액이 책임준비금보다 209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0조원 내외로 불어나 지난 2000년 말에는 230조원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4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과 적립금 현황 (98년 말 기준, 단위: 1조원)



– 전문가들에 따르면 잠재적 부채 증가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현재의 저부담·고지급 구조를 저부담·저지급 또는 적정부담·적정지급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 현대투신증권 CBO펀드 1,887억원 상환

– 현대투자신탁증권이 7일 국내 투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1년 만기 후순위채 1,887억원을 모두 상환

– 이번 상환은 그동안 지급 불능이 우려됐던 후순위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후순위채권을 집중 편입하는 투신사 CBO펀드의 안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타 투신사의 CBO펀드도 이달부터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수익을 크게 올려 대체로 환매하지 않고 잔류하거나 다른 CBO펀드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2월 7일 수요일 (2)

○ 국민연금 올해 3조원 증시 투입

–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 해 1조2,000억원에 그쳤던 주식 간접투자 규모를 올해 2조 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직접투자 규모 (5,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투자규모는 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투신권 수익증권에 9,00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4월 1일 자산운용사와 일임운용이 가능한 투자자문사, 투신사를 상대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외주에 들어갈 예정

– 사학연금의 경우 지난 해 총운용자산액 4조3,000억원 중 주식과 채권에 각각 3,5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올해 주식에 5,000억원, 채권에 1조 9,000억원을 투자할 방침

♣ 2001년 2월 8일 목요일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세부시행 방안

– 발기인 (주로 자산운용사, 판매사) 인수 주식의 3월간 환매 제한

- 출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타 펀드출자 방지 (펀드 남설 방지) 및 펀드 운용의 충실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실물발행에 따른 보완 조치

- 신주 발행 및 감자 (환매) 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권불발행을 원칙으로 함
- 실물에 의한 환매 요청시에는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15일 이내에 주주의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공시

– 증권투자회사의 유동성 확보 비율 의무화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율 제한: 펀드 자산의 15% 이내
- 현금성 자산 확보 의무화: 펀드자산의 10% 이상
- 일시 대량 환매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RP 거래 허용

– 판매수수료 체계

-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폭 확대 및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 선취, 후취, 기간배분 방식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업계 자율에 맡김
- 90일 이내 환매 청구시 이익금의 70%를 조기 환매수수료로 징구하고 이를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에 편입 (계약형과 동일)

–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환매를 의무화함

○ 운용사에 대해 까다로운 선별 조건을 내세우는 판매사

– 업계에 따르면 판매를 담당할 증권사들이 운용사의 투명성과 운용 내역 및 능력, 상품성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운용사들이 판매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증권사들이 선별적으로 간접투자상품 판매에 나서는 것은 대우사태 이후 투자자들의 원성을 1차적으로 받는 등 판매사의 책임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임

– 장·단점

- 과거 백화점식 판매를 지양함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투명한 운용내역과 운용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용사는 자연 도대하게 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증권사의 선별적 상품 선정 및 판매가 자칫 투신 및 자산운용사를 길들이기 위한 출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2001년 2월 9일 금요일

○ 연·기금 주식 투자 25조로 확대

–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증권시장 관계자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연·기금이 증시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주식 투자를 대폭 확대하라고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음

- 진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총자산의 11%, 8조원 수준인 주요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2~3년 내에 20%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3년간 연기금 자산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25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

○ BB등급 회사채 펀드 등장

– 회사채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양대 투신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R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음

- 한국투신증권의 경우 8일 BB-, BB를 비롯해 BBB-등급과 A3-등급의 CP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수익공모주 뉴하이일드 D형 (6개월, 1년짜리)" 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힘
- 대한투신증권도 8일 BB등급에 일부 투자하는 "인베스트고수익CBO" 펀드와 BBB-등급 이상 회사채를 편입하는 "인베스트골드회사채 전용펀드"를 내놓았다고 밝힘

– 최근 국채수익률이 5% 초반까지 하락해 더 이상 만족할 만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자금시장 안정으로 기업들의 부도위험이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저등급 회사채 투자가 확산되고 있음

○ 금감원 랩어카운트의 No Load 펀드 돌연 불허

– 금감원이 8일 랩어카운트 가입 고객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없는 No Load 펀드를 허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돌연 철회했음

- No Load 펀드가 설립될 경우 랩계좌 가입고객이 투자할 수익증권 선택범위가 좁아지는데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

–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받은 뒤 다시 환급해 주도록 방침을 정해 증권사들이 계좌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 2001년 2월 10일 토요일

○ 투신 MMF 수익률 인하 움직임

– 투신사들은 MMF의 콜자금 운용비율이 평균 20%에 이르고 있으며, 콜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현행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MMF 수익률을 연 6% 안팎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MMF 운용대상인 CP (기업어음),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콜금리 하락(5.25%→5.0%)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MMF의 수익률 인하 문제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태임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봇물

– 그동안 신상품 고갈상태였던 자산운용사마다 다양한 상품 구성을 지닌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선보이고 있음

– 2월 중 판매되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상품명	판매시기	상품특징
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형	2월 5일	60% 이상 주식 편입 (성장형)
	인디펜던스회사채플러스	2월 말	A- 이상 회사채·국공채에 60% 이상, 공모주 투자 10%
	인디펜던스안정혼합형	2월 13일 설립	주식 30% 이하, 채권·유동성 70% 이상
	코스파이더인덱스	2월 중	코스피200지수 흐름따르는 인덱스펀드
KTB	KTB 혼합형	2월 21일 이후	주식 60% 이하, 채권·현금 40% 이상
마이다스	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	2월 21일 이후	주식에 60~90%, 채권·수익증권에 30% 이하
마이에셋	징기스칸성장형2호	2월 7일	60% 주식 편입
글로벌에셋	글로벌세이프1호혼합형	2월 말	30% 미만 주식 편입
유리에셋	유리인덱스200주식형펀드	2월 21일 이후	95% 이상을 코스피200 중심 종목에 투자
SEI에셋	세이에이클라스펀드	2월 말	채권형 펀드, A-등급 회사채 70% 투자, 공모주 5% 투자
	세이한가족주식형펀드	2월 말~3월 초	주식 60% 이상 투자

○ 부동산 증권투자회사 연내에 선 보일 듯

–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수정해 연내 부동산 증권투자회사법을 수정해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부동산 증권투자회사는 설립과 청산이 자유로운 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와는 구별되는 상품임

– 이에 따라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한편 기업들이 내놓은 덩치 큰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생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01년 2월 12일 월요일 (1)

○ 생보·투신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논쟁

- 국내 생명보험업체들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판매는 물론 운용까지 독점하려 하자 투신사들이 운용은 투신사 고유업무라며 반발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생보사들은 운용업무를 투신사에 맡길 경우 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초 올 3월로 예정됐던 변액보험의 판매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빛은행 고유계정 자산운용 아웃소싱

- 한빛은행이 고유계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1조2,000억원대의 자금 중 2,000억원을 운용 전문기관인 투신운용사에 맡기기로 해 주택은행에 이어 은행 고유계정의 아웃소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지난 8일 고유계정 금액 중 자회사인 한빛투신운용에 1,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각각 삼성투신에 500억원, 아이투신에 500억원씩을 투입한 상태임
- 운용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운용사간 실적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대전자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소

- 현대전자는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현대투신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해 내놓았던 담보주식이 현물출자된 것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며, 신주 발행가격 산정도 불공정하다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힘
  - 현대투신은 현대전자,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대주주들의 담보 주식 2,373억원어치를 현물 출자했으며, 이 중 현대전자의 담보주식은 2,197억원어치로 출자 후 현대전자 보유 지분율은 27%에서 42%로 증가됨
- 미국 AIG의 자금이 들어 올 경우 감자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대투신은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가치가 거의 없는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신주 액면가를 5,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개인연금 옮기면 수수료 부과

- 시중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이 자유로워지는 개인연금을 거래은행에서 빼내 다른 은행이나 보험, 투신 등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계좌당 최고 3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음
  - 계약 이전에 따른 고객원장 이관 등 투입되는 업무원가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고객 이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설명

♣ 2001년 2월 12일 월요일 (2)

○ 푸르덴셜 제일투신 지분 60%까지 확대

- 12일 제일투신에 따르면 푸르덴셜은 향후 제일투신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지분율을 최대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푸르덴셜이 지분율을 확대할 경우 현재 자본금이 2,300억원에서 3,000억원대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도 1,400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50% 이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
- 이에 따라 양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푸르덴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경쟁력있게 육성할 계획임

○ 기업연금 도입 검토

- 정부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임
-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 중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할 예정

○ 신탁안정조정금 6월 폐지

- 지난 96년 한투, 대투 등 6대 투신사를 중심으로 설정됐던 개인연금 펀드 (주식형) 내의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던 신탁안정조정금이 오는 6월말 폐지될 예정임
  - 신탁안정조정금은 펀드내 초과 수익률 0.05%를 떼어 특별계정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로 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됨
- 금감원은 지난 해 시가평가 실시와 금리 변동 리스크 확대에 따라 펀드내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전 펀드에 도입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중단되었음

♣ 2001년 2월 13일 화요일 (1)

○ 랩어카운트의 도입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투신운용사

– 한일, 신영, LG, 동원투신운용 등이 운용하는 펀드는 증권사 랩의 추천 펀드에 중복 선정된 반면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은 랩어카운트를 판매하려는 증권사들로부터 모두 제외됐음

- 한일투신의 5개 펀드는 대우, 동원, 굿모닝증권 등이 판매하는 랩어카운트 추천 펀드로 선정됨

– 각 증권사들이 랩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나와있던 펀드를 평가해 수익률과 리스크관리가 괜찮은 펀드를 우선 추천키로 한 만큼 중복 추천된 펀드는 그만큼 호평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투·한투 부실채권 매각 추진

– 최근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이 올 상반기 중으로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현금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투신증권의 경우 8,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오는 4월까지 시장에 매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부실채권 유동화 자문 및 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
- 대한투신증권은 5,0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CBO로 발행해 처분하기로 하고 최근 부실자산유동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에 들어간 상태임

– 양 투신사는 이같은 부실자산의 유동화에 성공할 경우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동화 과정에서 액면가 이하로 할인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진 부총리 2월 경제동향 설명회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연기금 전용펀드 운용을 외국투신사에 맡기는 방안을 허용하겠으나, 연기금 주식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밝힘

– 진념 부총리 주요 발언 내용

- 경기 2·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
- 집단소송제 도입 등 분식회계 방지 대책 추진
-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및 대상 확대는 검토 안함
- 2월 말까지 4대 개혁 완수

♣ 2001년 2월 13일 화요일 (2)

○ 원금보장 연기금 펀드

– 진념 부총리 발언을 계기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수익성이 기대되는 연기금 전용 펀드가 조만간 개발될 전망

– 기존의 원금 보존형 상품구조

- 포트폴리오 보험주식1-성장형: 펀드의 채권 편입을 통해 만기시 원금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맞추고 이자부분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음
- 포트폴리오 보험주식2-안정형: 주가상승시 주식부분에서 목표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보이면 이를 팔아 채권 편입 부분을 늘려 최저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구조로 짜여져 보다 안정적인 형태임
- 기존의 원금보장 상품의 경우 구조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상품구조가 바뀌면서 원금이 깨진 경우도 있음

– 기존 상품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 새롭게 원금보장형 상품을 설계하면서 원금보장이라는 부분과 함께 수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1)

○ 회사채 전용펀드 인기 급증

–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투신사가 판매하는 회사채 전용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해 하반기 들어 절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회사채에 비해 낮은 국고채 편입펀드가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거두는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
- 그러나, 올 들어 현재 국고채펀드 유통수익률이 5% 선으로 떨어져 절대금리 수준이 회사채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금리가 추가 하락 (채권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회사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2월 들어서 투신권이 앞다퉈 회사채 전용펀드를 내놓고 있으며, 투신 채권형 펀드가 이달 들어 2조원 가량 증가한 상태

- 따라서, 무위험채권인 국고채와 회사채 기준물 (AA-)간의 금리격차가 1월 말 1.70%에 비해 9일 현재 1.57%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 2월 14일 현재 회사채 펀드 현황 (단위: 억원)

운용사명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수익률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회사채중기채권2	2001.1.9	498.7	1,014.7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회사채중기채권1	2001.1.11	500.0	1,020.8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회사채중기채권3	2001.1.15	1,272.1	1,014.2
동양투신운용	에이플러스회사채채권06-1	2001.1.22	400.0	1,008.5
동양투신운용	에이플러스회사채채권10-1	2001.1.22	300.0	1,010.0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회사채장기채권1	2001.1.30	315.9	1,005.5
동원BNP투신운용	네오회사채전용채권1	2001.1.30	277.9	1,008.6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YES단기회사채권1	2001.1.31	1,115.5	1,022.5
미래에셋투신운용	미래회사채장기채권2	2001.2.2	300.0	1,005.3
한국투신운용	KM회사채전용A단기채권A-1	2001.2.5	200.0	1,002.9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YES장기회사채권H-1	2001.2.6	500.0	1,004.8
신한투신운용	회사채α6M채권2	2001.2.9	300.0	1,004.5
신한투신운용	회사채α6M채권1	2001.2.9	500.0	999.4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YES장기회사채권H-2	2001.2.9	1.0	1,000.6
신한투신운용	회사채6M채권1	2001.2.2	50.0	1,000.3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YES중기회사채권H-1	2001.2.2	0.1	1,000.2

○ 투자자문회사 회생 기미

– 97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99년 급증했던 투자자문사들은 지난 해 증시 침체와 더불어 고사위기에 몰렸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반전과 금리 하락의 이유로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투신업법과 증권투자신탁회사법에 의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종목당 편입 한도와 그룹계열사의 편입 한도, 최소 주식편입 비중 등 운용상 제한이 많은 반면 자문사들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장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기 때문

– 또, 자체적인 신탁계리가 많은 투신사와 달리 자문사는 별도의 신탁계리회사를 통해 운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

♣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2)

○ **증권업협회 채권 금리차 조정 주 3회로 확대**

– 증권업협회는 16일부터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금리차를 조정하는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힘

- 최근 채권 종류간 신용평가 등급간 금리차 (스프FP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스프레드가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당분간 조정시기를 주 3회로 운영할 예정

– 이에 따라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조정되던 국내 41개 종류 채권의 359개 수익률 스프레드는 월·수·금요일 오후 5시에 변경됨

–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의 회사채 시가테이블 수익률과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펀드가 시장가격대로 회사채를 편입할 경우 당일부터 평가손이나 평가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나타난다고 지적

♣ 2001년 2월 15일 목요일

○ **대투증권 본사사옥 등 기초로 ABS 발행**

– 대한투자신탁증권이 본사건물 등을 기초로 ABS (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차입금 감축에 나설 예정

• 이덕훈 대투증권 사장은 14일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갖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본사건물 등 보유 부동산을 기초로 ABS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투증권은 ABS 발행으로 3천억~4천억원 정도가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2백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대투증권의 차입금은 지난 14일 현재 1조6천억원

○ **현투증권 자본잠식 1조3천억원 육박**

– 현대투신증권은 14일 금감원에 낸 3분기 및 4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말 현재 자본이 마이너스 1조2,771억원이라고 밝힘

• 이는 작년 3월 말 자본잠식 규모 1조2,178억원보다 592억원 (4.8%) 증가한 것임

– 현대 계열사의 현물출자 및 AIG 컨소시엄의 1조1천억원의 출자의사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대투신의 자구노력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음

○ **대우채 환매 연기 무효**

– 98년 9월 이후 발행된 대우채권이 들어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환매 연기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

•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는 9일 무역업체인 Y사가 수익증권 환매 연기로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Y의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음

– 재판부는 98년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이후 금감위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에 대한 환매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졌다고 결론을 내림

• 따라서, 증권사가 금감위로부터 환매 연기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와 금감위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힘

○ **투신 MMF 비중 위험 수위**

– 지난 13일 기준으로 투신권 전체의 MMF 잔고는 39조8,556억원으로 총 설정잔고 (신탁형 제외) 146조5,572억원 중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 연말 20.1%에 비해 약 7%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대신, 동부, 세종투신운용의 경우 MMF가 총수탁고의 57.9%, 73.3%,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형편에서 MMF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리 상승으로 자금 이탈이 집중될 경우 일부 중소형 투신운용사의 환매가 지연되는 사태가 우려됨

♣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1)

○ 대투 "신탁저축" 금리 0.5% 포인트 인하

– 15일 대한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대투증권이 판매하는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는 19일부터 1년 이상 연 7.5%,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 7.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6.5%, 1개월 미만 연 6.1%, 수시 입·출금 연 4.5%가 적용될 예정

– 대투증권은 이와함께 RP (확매조건부 채권) 금리도 오는 19일부터 0.5% 포인트 인하하여 기간에 따라 연 4.5%~7.0%의 금리를 지급키로 했음

○ 기업 신용등급 산정 허점 많다

– 15일 투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회사채가 기관투자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일한 등급의 회사채인데도 발행이나 유통과정에서 차등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회사채를 주로 거래하는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업의 현재나 미래가치와 능력 등을 적극 고려하여 투자 패턴에 좀 더 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평가사는 과거의 재무적 상황에 치중하다 보니 현실과 다소 괴리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투신사들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 산정에서 현실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99년부터 신용평가회사들의 기업평가 결과를 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임

○ 분리과세 은행신탁 26일 판매 예정

– 지난 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뀜에 따라 분리과세형 상품을 은행신탁에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품 약관이 마무리되면 26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새 은행신탁 상품은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신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으나,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

- 투신권은 정부 투신안정 대책에 따라 1년제 분리과세 상품을 취급해 왔지만 투신권에 대한 시장 불신으로 수신액은 지난 해 말까지 7,000억원에 불과

– 은행 구조조정 완료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졌고 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신탁 상품 시장 경쟁력의 제고로 시중 부동자금이 상당 규모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년 2월 16일 금요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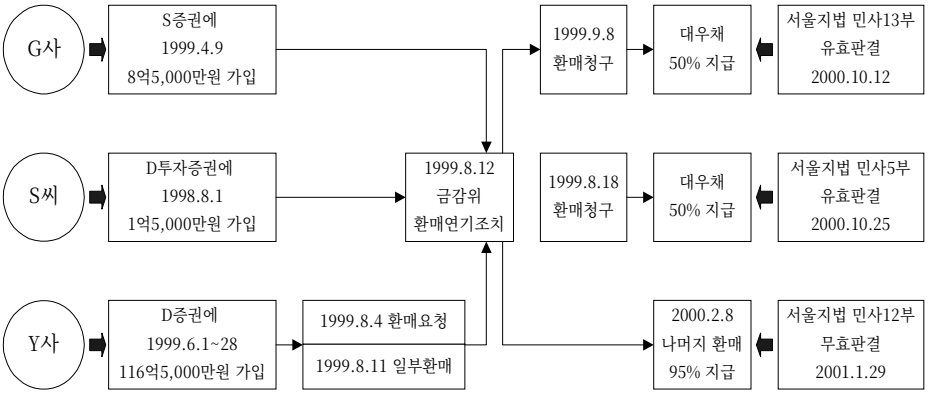
○ **대우채 환매 연기 조치에 대한 엇갈린 법원의 판결**

– 금감위가 내린 환매 연기 조치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우 계열사 채권이 들어간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제때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건인데 서울지법 민사 13부와 5부는 금감위의 연기조치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반면 민사 12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림

- 13부와 5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98년 9월 16일 개정돼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각 내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수익증권은 1년간 연기한다"는 부칙을 적용 받는다고 간주
- 그러나, 12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증권투신업법만을 참고했을 뿐 부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대우채 환매 연기관련 판결 3가지 요약도



♣ 2001년 2월 17일 토요일

○ 투신 MMF 수익률 인하 예정

– 투신사들은 초단기 상품인 신종 MMF의 수익률을 상품 설정 이래 처음으로 4% 선으로 낮출 예정임

- 시중 부동자금이 MMF로 대거 몰리면서 신규 편입한 채권의 유통 수익률이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기존에 제시한 예상수익률을 모두 맞춰주면 투신사가 오히려 운용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임
- 2월 들어서만 약 6조원 가량이 유입되어 현재 수탁고가 약 42조6천억원에 달함

– MMF는 국고채·통안채 편입비율이 50% 이상으로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15일 현재 5.14%, 통안채 (1년물)는 5.24% 선으로 이미 주요 편입채권의 절대금리 수준이 5%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

- 5.0% 선의 MMF 예상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 대투는 다음주 중 이보다 0.2% 포인트 인하된 4.8%의 예상수익률을 고객들에게 제시할 방침임

– MMF 상품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MF로 몰렸던 시중 부동자금이 고수익을 쫓아 채권형 펀드는 물론 혼합형, 주식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투신관계자들의 분석임

○ 회사채 시장 급속 안정

–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1.5% 증가하여 회사채 시장이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달 기업들의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회사채 발행 2조9,443억원을 포함, 총 3조3,453억원으로 이 가운데 프라이머리 CBO 등 ABS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는 총 30건으로 2조4,133억원어치가 발행됐음

- 이 가운데 무보증사채 발행 실적은 2조3,710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어 기업들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쉬워졌음

– 특히 최하위 투자적격 등급인 BBB-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 등급 회사채도 지난 해 12월에 비해 각각 6.7배와 1.3배 늘어난 1,890억원과 1,200억원어치가 발행돼 자금시장이 선순환 기조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음

– 반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실적은 상장·등록법인의 유상증자 물량 감소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조7,191억원의 4분의 1보다 작은 4,101억원에 그침

○ 기관투자가협의회 설립 예정

– 증권, 투신, 연기금, 은행, 보험 등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기관투자가협의회가 내달 설립 예정임

- 설립 이후 증시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2001년 2월 19일 월요일

○ 사무수탁업에 은행·투신·외국사 3파전

– 현재 사무수탁업무에 진출한 기관은 한빛, 외환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과 한국, 대한, 현대투신을 비롯한 투신사 등 모두 11개 기관으로 지난 해 8월 금감원에 등록이 가능해진 이후 6개월 사이에 8개 기관이 더 늘어났음

– 여기에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SSB), 체이스 맨해튼, 뱅크 오브 뉴욕 등도 국내 사무수탁업무 시장을 노리고 한국 진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간 영토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

○ 외국 수익증권 판매 저조 하지만 점차 증가세

– 1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수익증권의 판매량 (1월말 기준 3,311억원)이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내 투신사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 외국 수익증권은 대부분 엄브렐러 펀드로 펀드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선취 및 후취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양한 것이 특징임
- 하지만, 국내 수익증권과 달리 환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5일, 7일 환매제이기 때문에 환매 지급이 늦어 아직까진 국내 투자자에게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익증권 실물 발행 "무권화"에 역행

– 투신업계가 현재 존속되고 있는 수익증권 실물발행 제도에 대해 정부의 유가증권 무권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고 있음

- 업계 대부분이 실제로는 투자자가 수익증권 거래시 통장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증권 현물을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도 현행법이 제한적인 거래를 위해 수익증권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2001년 2월 20일 화요일 (1)

○ 확정금리 신탁상품 조기 매진

– 19일 한국·대한·동양 등 3개 투신사는 현재 9조5,895억원의 신탁형 상품 판매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 자금이 쇄도하면서 지난 주 이미 한도가 소진돼 투신사들이 판매를 중단했음

- 신탁형 증권저축 상품은 1개월 예탁시 연 5.0%, 30~60일엔 연 6.6%, 60~120일엔 7.0%를 확정적으로 주는 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금감위의 방침에 따라 2003년 상반기 내로 모두 해소해야 함

– 그러나, 신탁형 상품 한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MOU대로 약속을 이행할 경우 또 다시 투신사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다며 금감위에 한도 축소 시한을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임

○ 한국투신운용사 스위스 UBS로부터 외자유치

– 한국투신운용은 오는 3월 5일 스위스의 UBS 금융그룹과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할 전망임

- 당초 UBS 그룹측은 51%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까지 확보하길 원했으나 정부가 반대해 한국투신운용 지분 중 10%를 인수키로 했음
- 투신업계에서는 UBS가 한국투신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한국투신운용은 이번 외자유치를 계기로 UBS와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의 포괄적 업무제휴까지 맺어 대외 신인도를 높여나갈 계획임

○ 미국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사 대형증권사 인수 추진

–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한국 증권시장의 소매영업에 진출하기 위해 증권사를 인수키로 하고 최근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힘

– 살로먼스미스바니측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사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대우증권을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관측하고 있음

- 대우증권은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표방하면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올해 초 산은투신운용 설립이 금감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주회사 설립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임

– 한편, 메릴린치증권도 최근 국내 소매영업 진출을 위해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임

♣ 2001년 2월 20일 화요일 (2)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투기등급채 민간 시가평가 의무화**

–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채권 시가평가 주체를 민간 채권 시가평가업체 중 두 곳으로 의무화했다고 밝힘

- 현재 민간 채권 시가평가 전문업체로는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등 세 곳임

– 투자적격 채권이나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시가평가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음

♣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1)

○ 국민연금 주식 투자 600억원 손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지난 해 1월 말부터 1년 동안 연기금 2천억원을 삼성투신, LG투신, 미래에셋, 리젠트자산운용 등 4개사에 각각 5백억원씩 맡긴 결과 평균 30% (총 6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20일 밝힘

-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같은 기간 동안 KOSPI가 38%, 코스닥지수가 57%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30%의 손실률을 나타낸 것은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

– 전문가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부상의 평가손에 그치지만 위탁투자는 투자 기간이 지나면 결산토록 돼 있어 마이너스 수익률은 곧바로 연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함

○ 금감원 대형은행의 신탁부문을 독립시킬 방침

–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 경영 과정에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자금이 섞이는 것을 막고 신탁부문의 운용을 전문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힘

– 따라서, 앞으로 국민·주택 합병은행과 정부 주도 통합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들의 신탁부문이 은행으로부터 분리돼 자회사로 완전 독립될 예정임

– 분리된 이들 신탁회사에서는 금전신탁과 특정 금전신탁·부동산신탁 등의 업무를 중점 취급하게 되며 은행들도 증권관련 투신운용사들처럼 고객들이 맡긴 신탁자산의 운용내용을 정기적으로 가입자들에게 통보해야 함

– 은행신탁 부문의 분리 작업은 대형 합병 및 통합은행이 탄생하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프라이머리 CBO 예상외 고수익

– 20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집중 설정됐던 프라이머리 CBO 펀드가 대부분 연환산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프라이머리 CBO펀드는 지난 해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채권시장의 마비로 투기등급 채권의 발행이 막히자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 등을 동원해 총 10조원이 조성된 펀드임
- 프라이머리 CBO 50% 이상, 회사채 20% 이상, 국공채 30% 미만으로 운용

– 고수익의 배경

- 국고채 금리 하락때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었음
-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인 투기등급 채권의 부도가 단 한건도 안난데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편입한 점도 고수익의 배경이 됐음

♣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2)

○ **기관들 신용 단수평가제 반대**

– 금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평가 단수평가제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은 신용평가 부실 및 신용등급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반대하고 있음

- 신용평가 단수평가제란 기업들이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하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등급을 받아도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제도임

– 기관들은 아직까지 신용평가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1)

○ 연기금 증시 최대 세력으로 부상 기대

- 21일 삼성증권은 국내 연기금의 자산 규모는 작년 말 현재 345조2천억원으로 지난 96년 말 (80조6천억원)에 비해 3.2배 (연 평균 증가율 43%)나 늘어났다고 밝힘
-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 연말 국내 연기금의 총자산 규모는 460조원대에 이른 뒤 내년 말에는 6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올해와 내년 연기금의 순증 규모 (예상치)는 각각 120조원과 170조원이며, 이 중 5%만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기금의 주식 매수 여력은 올해 6조원, 내년 8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음

○ 현대투신운용 부실채권 1조6천억원 회수 예정

- 현대투신운용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수한 부실채권과 회수 예정인 부실채권은 총 1조6,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힘
  - 구체적인 회수 및 회수 예정 금액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6,601억원, 대우담보채 2,961억원, 리스채 및 부도채권 매각 260억원, 개별 기업 채무 회수 509억원, 파산 배당 및 워크아웃 기업 채권 회수 5,795억원임
- 회수 예정 내역
  - 파산 배당 및 워크아웃기업 채권은 현재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의 경우 지난 달 31일 예보로부터 5년 만기 예보채로 상환받았으며 오는 6월 21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4개월 후 현금화 가능

○ 증권사 투신상품 평가 본격화

- 대우증권은 조흥, 한일, 한화, 서울투신이 운용하는 MMF에 대해 평가 작업을 마치는 등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투신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했음
- 업계에서는 판매사로서 운용사의 상품을 분석해 고객들에게 제시해주는 일은 일찍이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우증권은 이를 계기로 3개월마다 정기적인 분석자료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힘

○ 현대투신 파산기관 보증소송 승소

- 현대투신이 장은증권 파산재단과의 소송에서 지난 13일 서울지법에서 승소함으로써 파산배당에 따른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될 전망
  - 22일 현대투신은 장은증권이 보증한 회사채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은증권측이 자신이 보증한 사채가 발행업체의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돼 보증채무가 소멸하여 파산 배당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힘

♣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2)

○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출시 예정

– 건교부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재경부가 "구조조정용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금전신탁"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구조조정용 부동산 펀드는 이르면 5월에 발매될 예정임

– 부동산 간접상품 비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구조조정 부동산 펀드
자본 규모	50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사업비 조달	자기자본	자기자본·차입·사채
존속기간	제한 없음	최장 6년 한시적 운영
환금성	주식 거래	주식 거래
투자대상	제한 없음	기업 구조조정용 매물
자산운용	자체	위탁운용
주 수익원	임대수익	매매차익
특징	안정적	고수익·고위험

♣ 2001년 2월 23일 금요일

○ 한국·대투가 올 주총에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 예정

– 한투와 대투는 22일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 실적이 나쁘거나 대주주의 부당 내부거래, 부당한 계열사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들 기업이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게 사실을 왜곡한 답변을 할 경우 대표소송 제기, 이사해임 청구, 장부 열람, 임시주총 소집 청구, 검사인 선임 청구 등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임

– 국내 양대 투신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국내 투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중견 투신사와 보험·연기금 등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주총 대응 방식과 형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HSBC·골드만삭스증권 수익증권 판매회사 설립

– 지난 해 10월 메릴린치증권에 이어 22일 HSBC (홍콩상하이은행)와 골드만삭스증권도 국내시장을 상대로 수익증권 판매회사를 속속 설립하고 나섬에 따라 국내·외 업계간 치열한 시장 다툼이 예상됨

- 특히 HSBC증권은 해외 뮤추얼펀드에다 국공채나 MMF 판매도 취급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음

–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시장 공략이 업황 악화 등으로 입지가 대폭 줄어든 국내 중소 투신사들의 생존 문제를 자극하여 투신업계의 재편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MMF 자금 증가의 문제점

– MMF는 기간 미스매칭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MMF에는 잔존기간 2년 미만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 자산총액의 50%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했음

- 하루만 맡겨도 되는 펀드에 잔존만기가 2년이나 되는 채권이 50%까지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상당한 투자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1년 이내 국채만이 편입될 수 있음

– MMF는 감독규정에 의해 MMF 자산 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일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그 계산과정에서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국채와 통안채는 제외하도록 돼 있음

- 미국의 경우 펀드 전체의 잔존만기를 90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MMF 내에 있는 채권은 장부가 평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투신 부실 초래 우려

- 단, 장부가와 시간 간의 차이가 1% 이상 나면 채권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임

♣ 2001년 2월 24일 토요일

○ 연기금 6,000억원 내달까지 증시 투입 예정

–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 주 (2/26~3/2) 동안 1,600억원과 3월 중으로 2,400억원이 증시에 투입될 예정이며, 정통부의 우체국 보험기금 2,000억원도 23일 대신, 동원, LG투신운용에 500억원씩 집행돼 증시에 투입될 예정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종합주가지수가 600선을 밑돌면 당초 예정한 2,400억원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으나, 지수가 630선을 넘으면 투자 시기를 2분기 (4~6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힘

– 국민연금은 4월 이후 1조5,000억원을 증시에 추가 투입할 예정임

○ 투신사 MMF 사절

– 최근 들어 중소투신사는 물론 대형투신사까지 개인고객을 제외한 기관투자가 및 일반법인의 MMF 가입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투신사들이 이처럼 MMF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시중 부동자금이 은행 예금금리보다 1% 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높은 MMF에 대거 몰려들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운용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임
-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 추세 (23일 기준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6.0%)여서 MMF의 수익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분석됨

○ 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직접판매 전환

– 투신협회와 자산운용사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를 팔 때 판매증권사가 적용하던 높은 수수료 체계에서 탈피하여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직판 (no-load)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직판이 이뤄질 경우 판매수수료가 현행 1.2~1.5% 선에서 0.2~0.3%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업계에서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지닌 은행이나 증권사를 선택해 입출금 현황이 확인되는 계좌를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중임

○ 굿모닝투자신탁운용 허가

– 금감위는 23일 굿모닝증권이 자회사로 설립한 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해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를 내주기로 의결했음

- 굿모닝투자신탁운용은 굿모닝증권이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며, 자본금은 150억원임

♣ 2001년 2월 26일 월요일 (1)

○ 회사채 전용 펀드 판매 부진

- 올해 들어 10개 투신사가 23개 회사채 전용 펀드를 설정했지만, 판매액은 8,0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 연초 국고채 금리가 급락하자 일시적으로 회사채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금리가 다시 반등하고 투자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이상 판매액이 늘지 않는 추세임
- 회사채 펀드 가입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며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단지 가격 메리트만 가지고 회사채 펀드를 조성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기는 힘든 형편이라고 함

○ 투신권 운용수수료 인하 바람

- 최근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뭉칫돈 예치를 내세워 판매 및 운용보수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해 주식시장의 침체로 설정잔고가 크게 감소한 투신사로서는 이들 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형편임
  -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금이 수수료 인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통상적인 운용보수는 채권형이 1%이며 주식형은 3%임에 비해 이들 일부 기관들이 모두 1% 이내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짐
- 업계에서는 투명성과 운용능력이 운용사 선정의 최우선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보수에 따라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칫 판매 및 운용보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임

○ 원금보장형 연기금 펀드의 "원금보장" 여부 논란

- 정부가 오는 2002년까지 25조원의 연기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키로 한 원금보장형 연기금 펀드가 이달 안에 구체적인 상품 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판될 예정임
  - 투신협회는 투자금액의 17~27%는 주식에, 나머지는 채권에 투입해 채권 이자만으로 주식투자 손실을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 중임
  - 채권은 국고채와 회사채를 적정 비율로 섞되 국고채 수익률이 낮은 만큼 회사채 비중을 높이고 투자 대상도 투자 적격의 최하위 등급인 BBB- 이상으로 할 방침
- 투신상품이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 약관에는 "원금보장형"이란 말을 명기하지 않도록 했음
- 전문가들은 수익률 등락이 심한 요즘 채권이자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2002년까지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 규모를 8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음

♣ 2001년 2월 26일 월요일 (2)

○ **산은투신의 인가 보류로 서울투신 타격 예상**

– 26일 금감원은 산은투신의 예비 인가신청이 또 보류됨으로써 향후 산은투신의 진로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힘

- 증선위원들간에도 산은투신 설립에 대한 시각 차가 상당하고 투신업계에서도 산은투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투신은 계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만큼 산은투신이 설립되기 전까지 생존 방안을 스스로 찾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한편 서울투신은 산은투신의 설립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자산 이전을 반대했던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자동 해지돼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3월부터 개인연금 거래기관 이전 가능**

– 내달부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언제든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들은 종전 개인연금저축의 가입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종전처럼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계약 이전을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금융기관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2001년 2월 27일 화요일 (1)

○ 정부 AIG와 공동으로 현투 출자시 정부지분 1조원 안될 것

–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미국의 AIG와 공동으로 현대투자신탁증권에 출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할 돈은 1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정부가 현대투신증권에 공동 출자할 경우 현대투신증권을 현대계열에서 분리시킨 뒤에 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사학연금도 증시 투입 예정

– 국민연금이 증시자금을 투신사에 투입키로 한데 이어 사학연금도 증시자금 조기 투입 결정을 내리고 최근 운용을 맡길 투신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사학연금 관계자는 증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운용을 맡을 투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투입 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투신사들에게 운용 계획을 27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일부 투신 MMF 과다 운용에 대해 금감원 행정지도 등 검토

– 금감원은 지난 23일 17개 투신사의 MMF 운용 실태 검사를 마친 결과 일부 부당 운용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제도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부, 세종, 대신, SK 등은 채권형 수탁고 대비 MMF의 비중이 50~7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제일, 외환코메르쯔, 프랭클린템플턴, 국은, 조흥 등도 일시적으로 50%를 넘었거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투신사들은 MMF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편입 채권의 잔여만기 제한을 어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금감원은 금리가 급등할 경우 MMF 운용에서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3월 중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5천억원 투입 예정

– 26일 금감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제 2금융권 구조조정 마무리 계획을 통해 3월 중 서울보증보험에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자금 중 상당 규모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우채권 미지급 보증채무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체 투신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우채 지급 보증금은 대략 1조5천억원이며 이 중 한국, 대한, 현대 등 3투신사가 차지하는 규모는 약 1조원임

– 서울보증보험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투신사의 자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01년 2월 27일 화요일 (2)

○ 투신안정기금 운용 문제 제기

– 최근 MMF 수탁고가 급증하면서 투신운용사들이 상품약관상 MMF의 10%를 증권금융 어음에 투자해 간접 조성하고 있는 투신안정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기금 운용 현황

- 현재 한국투신 7,200억원, 현대투신 5,000억원 등 1조2,200억원을 지난 98년부터 5년간 연 4.9%의 금리에 대여하고 있음
- 나머지 기금은 조합원인 한국, 대한, 현대, 제일, 동양 등 5개사의 MMF 상품에 연 5.2%의 수익률로 분산 예치해 운용하고 있음

– 한국, 현대 등에 지원한 자금을 제외한 2조8,000억원이 투신협회를 거쳐 기금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던 6개사에만 위탁 운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투신운용사들은 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인 연 4.7%에 증금어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다 그 규모가 4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MMF 상품의 수익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1)

○ 해외 뮤추얼펀드 손실 규모 확대

– 27일 펀드평가 회사인 모닝스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해외 뮤추얼펀드는 연간으로 평균 -30% 안팎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현재 국내에 들어온 해외 뮤추얼펀드는 118개로 이 가운데 ⅓ 가량만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음

– 해외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 나스닥 등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유럽 및 다른 지역의 주식시장도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임

- 투자자들은 또 이 같은 수익률 하락에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발생한 환차손까지 입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임

○ 한투·대투증권 실적 부진

– 지난 해 7월 투신사에서 증권업으로 전환한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이 전환 9개월이 지났지만 기업공개 등 기업금융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증권사는 채권담보부증권 (프라이머리 CBO) 등 채권 인수업무에는 가시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채권과 주식 부문을 망라해 기업공개 (IPO) 주간사 업무 실적은 27일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성장형 주식펀드 실적 저조

– 투신·자산운용업계가 올 들어 운용에 들어간 주식 편입비 60% 이상의 성장형 펀드 7개 (설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26일 현재 기준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펀드 모두 시장수익률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올 들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이들 7개 펀드는 모두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시장흐름을 전혀 쫓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설정된 주식형 펀드들이 시장수익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은 상당수 펀드매니저들이 올해 연초장을 나쁘게 보고 주식 편입비를 크게 줄인 상태에서 연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올 들어 설정된 채권형 펀드 중 31개가 원금 손실

– 투신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설정된 채권형 펀드 (설정액 50억원 이상) 87개 중 26일 현재 전체펀드의 35%를 넘는 31개 펀드가 원금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됨

–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금리 급등으로 올 들어 신규 설정된 채권형 펀드 상당수가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돼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간주되는 채권형 상품운용에도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2)

○ **푸르덴셜 제일투신증권 경영 참여**

– 제일투신증권은 27일 주총을 열어 스티븐 펠레티어 푸르덴셜 국제투자그룹 대표이사를 등기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으며, 푸르덴셜 및 IFC로부터의 외자 유치를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고 밝힘

- 제일투신증권은 6백만주의 우선주를 발행해 푸르덴셜에 440만주, IFC에 160만주를 각각 배정했으며, 5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푸르덴셜과 IFC는 각각 1천1백억원과 4백억원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제일투신증권으로 입금할 예정임

3월 March

10대 주요 기사

1.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한 연장 (2일)
2. MMF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및 MMF 수탁고 약 45조원 기록 (7일, 20일, 27일)
3. 투신사와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힘 겨루기 (8일, 29일)
4.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3월 말까지 경영 정상화 차질 예상 (9일, 21일)
5.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에 나선 투신사 (10일, 13일)
6. 서울보증보험 대우 보증채 법정 소송 (10일, 26일)
7. 산은 투신운용사 설립 백지화 (15일)
8. 현대증권 현대투신과 함께 AIG 컨소시엄에 매각 추진 (27일)
9. 증권투자회사 시장에 진출을 추진 중인 투신운용사 (28일)
10. 투신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대건설 채권 (30일)

◈ 3월 목차 (3/1-3/10)

3/1 (목)	**삼 일 절**
3/2 (금)	○ 투신사 수익증권 직판 허용 관련 증권사 수익구조 악화 예상 ○ 대투증권 정크본드 펀드 국내 첫 선 ○ 회사채 선호 기업 증가로 프라이머리 CBO 발행 위축 ○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한 연장
3/3 (토)	○ 펀드매니저 접대에 제재받게 될 증권사 ○ 은행 투신상품 판매 대행 성행 ○ 이탈 현상이 적은 만기 투기등급 채권펀드
3/4 (일)	
3/5 (월)	○ 한투 사무수탁 자회사 지분매각 추진 ○ '펀드슈퍼마켓' 국내 첫 등장
3/6 (화)	○ 투신업계 순위 바뀜 가속 ○ 국민연금 3월내 증시에 1조9,000원 투입 ○ 한국투신운용과 UBS 합작으로 만든 "코리아펀드" 4월 첫 선 ○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증권투자회사 직판
3/7 (수)	○ 금감원 내년부터 채권 시가평가 기능 민간 이양 ○ 현대·리젠트종금 합병 ○ 채권형 사모펀드 인기 ○ MMF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3/8 (목)	○ 변액보험 관련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듯 ○ 투신운용사 2000 회계연도 3/4분기 (4.1~12.31) 영업 실적
3/9 (금)	○ 수익증권 수수료 인하 바람 ○ 펀드 투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펀드운용사 대표 ○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타격을 받은 투신권 하이일드펀드 ○ 41개 기금 주식 투자 허용 ○ 증시 상황에 따른 연계성이 큰 한투 및 대투증권의 수익구조
3/10 (토)	○ 5개 투신사 내주 서울보증보험 소송 ○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투신사

◈ 3월 목차(3/11-3/20)

3/11 (일)	
3/12 (월)	○ 스커더 투자자문업 진출 ○ 투신사 적기시정조치제 도입 ○ 투자자문사 잇따라 폐업 ○ MMF 펀드내 자전거래 급증 ○ 리퍼코리아 펀드평가업 본격 실시 ○ 엔젤펀드 5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3/13 (화)	○ 대한·한국투신증권 공동 주주권 행사 ○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증권투자회사 거래 현황
3/14 (수)	○ 펀드평가 글로벌기준 도입 ○ "연기금 투자 풀" 이르면 하반기 등장 ○ 연기금 주식 투자 여력 바닥
3/15 (목)	○ 연기금·우체국 펀드 손실 ○ 산은 투신운용사 설립 백지화 ○ 하이일드펀드의 임의적 운용 논란 ○ 투신·보험사도 중개회사 통한 회사채 거래 방안 검토 ○ 해외 투자로 눈 돌리는 기관 투자가
3/16 (금)	○ 투신운용사 계열사 우회지원 의혹 ○ 국내 최초 여성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여성전용 펀드 소개
3/17 (토)	○ 고용보험기금 1조원 채권 투자 ○ 원금보장형 펀드 상반기 출시 예정
3/18 (일)	
3/19 (월)	○ 환매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 증권사 미매각 수익증권 부실 요인
3/20 (화)	○ MMF 수탁고 다시 증가 ○ 미 이머징마켓 펀드 자금 다시 줄어 ○ 투신운용사의 전 포트폴리오 분기당 1회 평가사에 제공

◈ 3월 목차 (3/21-3/31)

3/21 (수)	○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3월 말까지 경영 정상화 차질 예상 ○ 펀드 수수료 차별 심하다 ○ 채권형 펀드 '시스템형' 인기
3/22 (목)	○ 투신사별 연기금 펀드 수익률 8~9% 격차 ○ 코스닥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현황 ○ 전환증권사 법인 약정 폭주
3/23 (금)	○ 제일투자신탁증권에 푸르덴셜 등 2,000억원 납입 완료 ○ 시티그룹 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개인 금융자산 보고서 발표
3/24 (토)	○ 주은투신운용 펀드 편법 운용 ○ 4월부터 투신운용사도 적기 시정조치 ○ 정부 설비투자 펀드 1조원 조성 ○ 리츠 7월 출범 겨냥해 고수익 빌딩 확보전
3/25 (일)	
3/26 (월)	○ 서울보증보험 대우 보증채 법정 소송 ○ 자산운용사 직판에 대해 증권사 반발 ○ 에이브레인 도이체방크서 외자 유치
3/27 (화)	○ 현대증권 현대투신과 함께 AIG 컨소시엄에 매각 추진 ○ 현대투신 일지 ○ MMF 45조201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3/28 (수)	○ 해외 뮤추얼펀드 인기 ○ 증권투자회사 시장에 진출을 추진 중인 투신운용사 ○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사 및 투신운용사와 공정 경쟁 선언 ○ 대투증권에서 복수주문 처리 시스템 국내 첫 개발
3/29 (목)	○ 투신사와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힘 겨루기 ○ 투신권 법인자금 비중 증가 ○ "KEB-스트리트 펀드서비스" 5월 출범
3/30 (금)	○ 투신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현대건설 채권 ○ 공모주 청약 관련 펀드에 관심 집중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이하 IDB)인 한국증권중개 설립 무산
3/31 (토)	○ 금리 급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 초비상 ○ 미국 채권형 펀드에 자금 유입

♣ 2001년 3월 2일 금요일

○ 투신사 수익증권 직판 허용 관련 증권사 수익구조 악화 예상

-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이어 투신운용사까지 직판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동안 이들 운용사의 투신상품 판매를 대행해 온 증권사에 비상이 걸렸음
  - 투신상품 직판을 허용할 경우 증권사 간접판매 시스템과 이에 따른 수익구조·인력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투신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증권사 전체 수익의 20~30%를 차지하며, 6대 증권사의 경우 회사별로 연간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수익이 1,000억원대에 이름
-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운용사가 수익증권을 직판하더라도 지점을 새로 열어 판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인터넷 혹은 본점 직할영업소, 은행창구 임대판매 등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

○ 대투증권 정크본드 펀드 국내 첫 선

- 대한투자신탁증권은 신용등급 BB급과 BBB급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탑플러스 단기 고수익 채권형 펀드'를 3월 2일부터 1주일 동안 한정 판매한다고 밝힘
  - 이 펀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정크본드에 투자
  - 정크본드 펀드란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킴

○ 회사채 선호 기업 증가로 프라이머리 CBO 발행 위축

- 회사채 시장이 회생 조짐을 보이면서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 프라이머리 CBO 발행 희망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거의 소진됐는데다 BBB 등급 등 비교적 우량기업들의 경우 최근 회사채 발행이 원활해지면서 단독 발행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
  - 기업들은 특히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기업은 부실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발행을 더욱 꺼리고 있음
- BBB 등급 회사와 투기등급 회사의 회사채 비율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함에 따라 CBO 자산 구성에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계획했던 만큼 CBO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투기등급 기업들은 더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한 연장

- 금감위는 2월 28일로 만료되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유예 및 연계차입금 축소 기한을 잠정적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현대투신증권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월 2일부터 파견감독관 (2명)을 동사에 상주토록 했음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펀드매니저 접대에 제재받게 될 증권사

–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펀드매니저 등 자산관리자에 대해 주식 매매거래 위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음

- 투신사와 투자자문사 소속 펀드매니저 뿐만 아니라 연기금 소속 펀드매니저와 일반회사의 자산관리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펀드매니저들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들에 대한 편익 제공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농협의 채권 매니저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는 등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라며 편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의 유착 차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은행 투신상품 판매 대행 성행

– 은행들이 MMF에 이어 주식형 투자신탁 상품도 판매하는 등 잇따라 투신권 상품 판매 대행에 나서고 있음

- 이는 초저금리로 예금이 투신권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판매수수료 (판매액의 0.5~1.0%)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이탈 현상이 적은 만기 투기등급 채권펀드

–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만기가 돌아온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는 모두 2조 6,772억원으로 이 중 90% 정도인 2조4,000억원이 기존 펀드에 잔류하거나 MMF와 신탁형 상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만기 투기등급 채권펀드의 이탈 현상이 적은 이유

- 이들 펀드의 수익률이 10~14%에 달했고 만기 이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지표금리가 바닥권에 도달할 만큼 절대금리 수준이 낮아 이들 펀드를 대체할 상품이 없는 것도 잔존율을 높이고 있는 한 요인으로 판단됨

♣ 2001년 3월 5일 월요일

○ **한투증권 사무수탁 자회사 지분매각 추진**

– 한국투신증권이 자회사인 사무수탁회사 아이타스의 지분을 외국계 수탁은행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투는 지난 해 증권사와 투신사로 분리되면서 신탁회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무수탁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총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 한국투신증권은 자회사로 사무수탁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 중임

– 한투는 이미 에이전트를 내세워 외국계 은행 중 사무수탁에 관심있는 기관들과 매각에 따른 협상을 추진 중이지만 관심을 가진 몇몇 외국 기관들이 운용자산의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 **'펀드슈퍼마켓' 국내 첫 등장**

– 이트레이드증권은 각종 펀드 정보 및 계좌 정보의 조회 뿐 아니라 매수와 환매 과정까지 100%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설계한 온라인 펀드 판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지금까지 한투증권이 온라인에서 SK투신운용, 한일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의 펀드를 직접 판매는 했지만 펀드슈퍼마켓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펀드를 갖춰 놓지는 못했음

– 이에 반해 이트레이드증권은 6개 운용사의 9개 펀드를 시작으로 향후 판매 펀드 수를 크게 늘려갈 계획

– 유통 채널의 단순화로 펀드 만기 후 판매수수료 중 30%를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어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시도될 예정임

- 미국의 경우 찰스슈왑이 2,000여개, 피델리티가 3,400여개, 이트레이드증권이 5,200여개의 펀드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3월 6일 화요일 (1)

○ 투신업계 순위 바뀜 가속

– 제일, 주은, 삼성, 교보투신의 올 수탁고 증가액이 두드러지면서 투신업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제일투신의 경우 푸르덴셜 보험 및 IFC로부터 외자 유치를 계기로 신뢰도가 높아져 현재 27개 투신사 중 3월 2일까지 수탁고가 가장 많이 증가 (1조6,886억원)한 회사로 집계됨
- 삼성투신의 경우도 1조2,584억원이 증가하여 수탁고가 18조1,554억원으로 신탁형을 제외할 경우 한국, 대한, 현대투신을 제치고 수탁고 1위로 부상했음

– 작년 말에 비해 올 3월 2일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수탁고 증감을 보인 곳은 주은 (1조3,217억원) 및 교보투신 (1조2,359억원) 차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3월내 증시에 1조9,000억원 투입

– 국민연금 관계자는 3월 투자 계획안을 마련해 주식에 4,000억원, 채권에 8,000억원, 그리고 MMF 등 단기 금융상품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조9,000억원을 금융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3월 중 투입하는 주식투자분 4,000억원 중 3,000억원은 투신권에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이뤄지며 1,000억원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될 계획임

– 사학연금도 투신사 선정이 끝나는대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계획임

○ 한국투신운용과 UBS 합작으로 만든 "코리아펀드" 4월 첫 선

– 3월 5일 스위스의 UBS자산운용은 한국투신운용과 지분 출자 조인식을 갖고 1조원 규모의 코리아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4월 중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힘

- UBS의 경우 한국투신운용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 국내의 판매망을 구축한 셈이 되며, 한국투신운용은 UBS의 선진 운용기법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지분 참여와 관련하여 UBS는 한투운용 지분을 내년 3월까지 최소 10% 이상 매입할 계획이며, 한국시장의 영업 상황에 따라 경영권 확보가 유효한 추가 지분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3월 6일 화요일 (2)

○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증권투자회사 직판**

– 투신·자산운용사들이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직접판매에 나서도 증권사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음

- 신한증권에 따르면 증권투자회사 직판이 허용되면 증권사들은 최악의 경우 주당 151원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운용사들의 직판 허용시 운용사 인력구조나 판매망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증권사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음

♣ 2001년 3월 7일 수요일

○ 금감원 내년부터 채권 시가평가 기능 민간 이양

-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의 채권가격 평가 기준이 투기등급 채권이나 변동금리 채권 등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채권가격 평가 전문기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금감원은 이와 관련 투기등급 채권이나 주식관련채, 변동금리부 채권, 자산담보부 채권 (ABS) 등에 대해 이달 안으로 상품약관 개정 작업을 마쳐 민간 채권가격 평가 전문기관의 채권 시가정보를 이용토록 할 방침
  - 현재 국내에는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 3개 민간 채권가격 평가 전문기관이 있지만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투신사나 은행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증권업협회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현대·리젠트종금 합병

- 영업정지 중인 리젠트종금이 동양현대종금과 합병하기로 3월 6일 최종 합의했으며 동월 8일 공식적인 합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직 구체적인 합병 절차는 결정한 바 없으며, 지난 해 12월부터 예금이 묶여있던 리젠트종금 거래자들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음

○ 채권형 사모펀드 인기

- 3월 6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국내 투신사의 채권형 사모펀드 설정규모는 총 1조5,551억원으로 지난 해 11월 18일 현재 설정액 9,120억원에 비해 6,43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채권형 사모펀드의 인기는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투자제한 (10%) 및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20%)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특정 채권에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임
  - 동시에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없기 때문에 채권형 사모펀드의 만기와 회사채 발행을 원하는 특정기업의 회사채 만기를 일치시킬 경우, 펀드는 만기에 회사채의 확정금리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음

○ MMF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 금감원이 MMF의 일시 환매에 따른 투신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음
  - 지난 2월 금감원이 MMF 운용실태 점검 결과 투신사들은 MMF 자금 유치를 위해 목표수익률을 과다하게 제시한 경우 및 투자 부적격 유가증권 편입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비교적 사안이 심각한 건은 심의제재위원회에 상정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기로 했음

♣ 2001년 3월 8일 목요일

○ **변액보험 관련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듯**

-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올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인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 직판 문제가 결국 투신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
- 투신업계는 금감위가 생보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허가할 경우 "유사투자신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감위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힘
- 투신업계가 보험사의 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생보사에 변액보험 상품의 운용을 허용할 경우 어렵사리 이룬 시중자금의 투신권 유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
  - 투신업계는 보험사가 기존 투신사에 운용 위탁할 의사가 없다면 보험사가 운용을 전담하는 별도 투신운용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투신운용사 2000 회계연도 3/4분기 (4.1~12.31) 영업 실적**

- 2000년 3/4분기 투신운용사 (27개)의 세전 이익은 전년 동기 (2,370억원) 대비 1,271억원 (-53.6%)이 감소한 1,099억원 시현
  - 신설 등 7개사 제외시에는 992억원으로 1,378억원 (-58.1%) 감소
- 이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수탁고 감소로 인한 위탁자 보수 감소 (3,089억원→2,378억원, -23.1%)와 수수료 수익 감소 (81억원→48억원, -40.7%)에 기인
- 지난 해 12월 말 현재 투신사 수탁고는 총 142조5,139억원으로 1년 전 (188조3,048억원)에 비해 24.3% (45조7,909억원 감소) 줄어들었음

♣ 2001년 3월 9일 금요일 (1)

○ 수익증권 수수료 인하 바람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펀드 수수료 파괴에 나섬에 따라 다른 기관 투자가, 일반법인,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임

- 8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들어 증시 부양을 위해 투신사 펀드에 자금을 맡기면서 연 1%에 달하는 펀드 수수료를 0.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펀드 수수료 중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는 자율화돼 있지만 사실상 업계 담합 형태여서 각 펀드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이를 계기로 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늘어날 전망

○ 펀드 투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펀드운용사 대표

– 증권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마자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펀드운용사 대표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서 화제가 됨

- 코스닥 종목명 "유리크레디트"는 지난 5일 등록 이래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1만4천원까지 급등했음
- 그러나, 조흥은행이 유리자산운용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5,030.36에 불과해 현재 0.6%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투자회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 이 펀드를 운용하는 박용국 유리자산운용 대표는 코스닥에 등록된 펀드에 대해 묻지마 투자가 극성을 부리면서 간혹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시하게 됐다고 밝힘

○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해 타격을 받은 투신권 하이일드펀드

– 지난 3일 고려산업개발의 최종 부도에 따라 고려산업개발 채권이 편입된 하이일드펀드의 운용 투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 8일 현재 고려산업개발 미상환채권 3,424억원 가운데 80% 정도가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고 이 중 420억원 가량의 채권을 6개 투신사들이 하이일드펀드에 편입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는 현재 투신 고유상품일 뿐이고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한 것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짐

– 투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고수익을 자랑하며 수탁액을 늘려가던 하이일드펀드의 판매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2001년 3월 9일 금요일 (2)

○ 41개 기금 주식 투자 허용

– 재경부 관계자는 8일 전체 60개 기금 가운데 현재 주식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31개 공공기금과 10개 기타기금 등 41개 기금법령을 고쳐 주식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최근 19개 소관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힘

  • 법률과 시행령에 자산운용 방법의 하나로 주식 투자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군인복지기금법과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특별법 등에는 주식 투자 조항을 넣도록 했음

– 이들 41개 기금의 주식 투자가 허용될 경우 내년 주식시장 수요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증시 상황에 따른 연계성이 큰 한투 및 대투증권의 수익구조

– 한투 및 대투증권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주식 규모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실적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 지난 해 말과 올 초에 정부가 산업은행에서 현물출자 형태로 받은 고유 주식 및 신탁형 편입 주식 등을 합쳐 2월 말 현재 한투 7,600억원, 대투 6,000억원 정도

  • 한투증권의 경우 지난 해 12월 말 현재 1,090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올 초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주식 부문에서 수익이 크게 늘어 1월 말 현재 13억원의 순이익으로 돌아섰으나, 주가가 하락한 2월 말 현재 다시 23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 대투증권의 경우 지난 해 말 현재 1,129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1월 말에 손실규모가 288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 달 말에는 다시 적자 폭이 500억원대로 확대됐음

– 이처럼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들이 지난 해 9월 금감위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MOU) 달성도 어려울 전망

♣ 2001년 3월 10일 토요일

○ 5개 투신사 내주 서울보증보험 소송

– 대한·현대·삼성·제일투신 등 시중 5개 투신사들이 내주부터 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투신사들이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우주력, 대우비주력,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는 모두 4조3,675억원이며 이 중 2조8,329억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현금으로 상환될 예정임

– 투신권은 소송에서 6월 말까지 지급될 현금 상환액 이외의 1조5,346억원도 투신권의 유동성 문제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회복 등을 감안하여 전액 현금 상환을 요구할 계획임

○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투신사

– 주총 시즌을 맞아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이자 수조원대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투신사들은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나마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대주주 손을 들어주고 있어 대주주의 전횡 경영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 가령, 3월 9일 삼성전자 주총의 이사 선임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측은 전성철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주장했지만, 투신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삼성전자가 추천한 이학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했음

– 이에 반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원공제회 등 일부 기관은 대다수 기관 및 투신사와는 달리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표를 던지는 등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 대규모 증시기금 조성

– 일본의 자민·공명·보수 연립여당은 3월 9일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주식 매수기관들이 담보로 안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음

- 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의 출자 등으로 주식 매수기관을 설립하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칠 예정인 것으로 추측됨

–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까지 주식 매도 대금의 1%를 양도세로 징수하던 것을 매도이익 2백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엔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 주기로 했음

–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고 도심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음

♣ 2001년 3월 12일 월요일 (1)

○ 스커더 투자자문업 진출

– 스위스계 회사인 스커더가 대우투자자문을 인수해 이달 중 투자자문 업무에 진출하여 본격 영업에 나설 계획임

- 스커더는 이미 투신영업을 위한 예비허가를 취득했으나, 지난 2월 25일까지 본허가 면허 신청을 하지않아 투신운용사 설립이 내년 초로 유보된 상태임

○ 투신사 적기시정조치제 도입

– 금감원은 오는 3월 16일에 열릴 금감위·증선위 간담회때 투신사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하는 안건을 협의한 후, 이르면 23일 금감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제도의 도입으로 투신사의 순자산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해당 투신사에게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 명령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

○ 투자자문사 잇따라 폐업

–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9개 투자자문사가 문을 닫은데 이어 올들어 3월 초까지 두달여 동안 9개사가 영업권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됨

- 올 들어 투자자문사의 영업폐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도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 3월 현재 국내에서 순수하게 투자자문만 하는 자문사는 38개, 투자자문과 일임을 겸업하는 자문사는 71개 등 모두 109개 투자자문사가 영업중

○ MMF 펀드내 자전거래 급증

– 일부 투신운용사에서는 펀드간 자전거래를 통해 MMF 수익률을 맞춰주는 편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 들어 시중 부동자금이 MMF로 급격히 몰리고 있지만 운용 대상이 마땅치 않아 당초 고객에게 약정한 금리를 못주는 형편에 이르렀기 때문
- 아울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통화채 및 국고채 투자 비중을 높였는데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됐음

♣ 2001년 3월 12일 월요일 (2)

○ 리퍼코리아 펀드평가업 본격 실시

– 세계적인 펀드평가회사인 리퍼의 국내 현지법인인 리퍼코리아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펀드평가 업무를 실시할 방침임

  • 리퍼코리아는 펀드 마케팅 및 평가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펀드분석 윈도우시스템인 Hindsight와 국내 약 2,500개 펀드를 포함하여 세계 45개국의 6만여 펀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DB를 출시할 예정

– 리퍼의 펀드분석 업무는 전형적인 B2B 위주의 전문성을 가지며 전세계 펀드 자료의 구성과 분석 절차가 리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엔젤펀드 5월부터 등록제로 전환

– 중소기업청은 5월 1일부터 결성액 5억원 이상의 엔젤펀드를 등록제로 전환시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힘

  • 이같이 등록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유사금융업체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중기청은 엔젤펀드로부터 반기별로 투자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후관리키로 했으며, 투자하고 남은 펀드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 및 국공채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

♣ 2001년 3월 13일 화요일

○ 대한·한국투신증권 공동 주주권 행사

– 대한투신증권 관계자는 3월 12일 한국투신증권과 함께 SK텔레콤 등 7개 상장기업에 주주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힘

  • 보낸 질의서에는 상장 기업의 영업 현황, 향후 사업 전략, 재무 상태 등 통상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지원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돼 있음

– 국내 기관 투자가 중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증권투자회사 거래 현황

– 등록된 증권투자회사가 2000년 6월 말 91개를 기록한 이후, 주식 시장의 침체로 인해 투자 손실, 만기 연장 실패 및 신규 펀드의 설립 부진으로 2001년 2월 말 현재 43개로 격감

기준일	99.2	99.6	99.12	00.6	00.12	01.2
등록된 증권투자회사 수 (A)	2	18	58	91	64	43
등록회사 수 (B)	329	345	453	538	604	612
A/B (%)	0.60	5.21	12.80	16.91	10.59	7.02

– 증권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차지하는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 월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매우 저조 (단위: 천주, 백만원)

비교	등록회사 수	등록주식 수	자본금	시가 총액	2월 거래량	2월 거래대금
증권투자회사 (A)	43개	207,500	1,169,414	1,538,023	1,457	5,920
시장 전체 (B)	612개	7,078,374	14,039,244	42,735,042	9,911,644	54,652,472
A/B (%)	7.02	2.93	8.32	3.59	0.01	0.01

  • 2월 말 현재 등록된 증권투자회사 43개 중 올해 안으로 만기 도래하여 해산이 예상되는 종목은 모두 33개에 달하여 연말에는 10개 내외로 축소 전망

– 2001년 3월 5일 공시한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거래가 1주라도 이루어진 종목은 NAV로부터 평균 4.3%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됨

– 증권거래소에는 99년 말 증권투자회사 수가 13개에 이른 후, 줄곧 감소하여 2000년 말 '코스파이더'와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2개만이 상장 유지 (단위: 천주, 백만원)

기준일	99년 말	2000년 말	2001년 1월 말	2001년 2월 말
상장된 증권투자회사 수	13	2	2	2
상장주식 수	341,768	134,401	134,401	134,401
시가 총액	2,722,695	364,572	397,610	434,588

  • 2001년 2월 말 상장 증권투자회사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등록 증권투자회사 시가총액의 28%에 해당함

♣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 펀드평가 글로벌 기준 도입

– 모닝스타 코리아는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펀드를 한 개의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Gloval Star Rating (이하 GSR)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 해외 뮤추얼펀드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임

○ "연기금 투자 풀" 이르면 하반기 등장

–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13일 '연기금 여유자산 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연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한데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연기금 투자 풀 (Investment Pool)이 이르면 하반기에 등장할 전망

- 증권투자회사나 투자신탁 형태로 운영하되 연기금별 출연 규모는 개별 연기금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 연기금 주식 투자 여력 바닥

– 13일 종합주가지수가 나스닥 2,000선 붕괴에 따른 충격으로 폭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개입 확대를 고대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력이 거의 바닥나고 있어 증시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지난 해 11월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투입한 연기금 펀드 2조원 중 매수 여력은 고작 600억원에 불과하며, 3월 13일 주가 폭락 이후, 나머지 매수 자금도 대부분 시장에 투입돼 연기금 펀드의 주식 매수 여력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정부 당국에 의해 연기금에 투자를 추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2001년 3월 15일 목요일 (1)

○ 연기금·우체국 펀드 손실

– 3월 들어 주가 낙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설정된 연기금·우체국 보험펀드가 모두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펀드의 경우 삼성투신의 팀파워주식3호펀드가 12일 종가 기준 -4.26%이며, 현대투신 베스트파트너주식DH1호, LG투신 LG시그마주식3호도 각각 -3.33%와 -2.87%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음
- 정통부 자금인 우체국 보험펀드의 경우 지난 달 23일 운용에 들어간 교보투신 비전 21C우체국보험기금주식J2호가 -5.59%의 원금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

– 시장 불안으로 일부 연기금·정통부 펀드들이 원금 손실로 돌아섬에 따라 국민연금·정통부가 당장 공격적으로 주식 매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산은 투신운용사 설립 백지화

– 산업은행이 산은투신운용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지난 해 11월 말부터 추진해 온 산업은행의 투신운용 자회사 설립 계획은 3개월여만에 막을 내렸음

– 산은 관계자는 금감위 증선위에서 영업 인가 결정이 계속 보류된 산은투신 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으며, 이미 설립된 법인을 곧 해체할 방침이라고 밝힘

– 한편, 산업은행은 산은투신 설립이 무산된 것과 상관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서울투신운용을 자회사로 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하이일드펀드의 임의적 운용 논란

– 3월 14일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채권형 펀드를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2000.1.2 ~ 2001.2.28)의 투자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하이일드펀드는 당초 고객과의 약속과 달리 안전성 위주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스타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이일드펀드는 투기 등급 채권의 편입을 거의 하지 않아 회사채 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과는 반대의 운용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 전체 회사채 편입비중은 68%에 달했으나, BBB 등급 채권 비중은 6%에 불과함
- 스타일 분석이란 펀드의 기준가격과 채권 수익률 등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펀드에 편입된 투자 자산의 구성비를 추정해 내는 기법임

– LG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펀드시장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펀드의 편입자산 비중과 운용 성과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돼야 하며, 당초 고객과 약속한 대로 펀드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언급했음

♣ 2001년 3월 15일 목요일 (2)

○ 투신·보험사도 중개회사 통한 회사채 거래 방안 검토

– 재경부에 따르면 침체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신사나 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채권 딜러간 중개회사 (Inter Dealer Broker, 이하 IDB)를 통해 매매 중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 증권거래법상 IDB의 매매 행위 중개 대상이 증권사와 은행의 일부 계정 등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로만 한정돼 있음
- 따라서, 회사채 물량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가 배제돼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온 상태임

– 재경부는 투신사들도 한국채권중개 등 중개회사를 통해 회사채 매매를 중개받도록 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IDB는 흩어져 있는 채권 딜러들간 매매 정보나 호가 등을 수집해 집중 제공함으로써 매매 포지션을 공개하는 기능을 수 (자료: 한국금융신문)

○ 해외 투자로 눈 돌리는 기관 투자가

– 신용 불안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기관투자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지난 99년부터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한 삼성생명은 현재 3조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규모를 자산운용 준칙상 한도인 총 자산의 10%인 5조원까지 늘릴 계획임
- 국민연금의 경우도 오는 7월부터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시작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삼성생명과 같은 규모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그러나, 국내 자금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며 주식과 채권의 주 매수기관인 이들의 해외 투자가 무한정 늘어날 경우 시장 약화, 채권 수급 불균형,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어서 해외 투자 자체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3월 16일 금요일

○ **투신운용사 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

– 투신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와 거래하면서 수수료가 싼 사이버 거래보다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전화 주문을 주로 하고 있어 계열 증권사를 간접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증권사에 내는 전화 주문 수수료는 통상 거래 금액의 0.5% 수준이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적게는 0.025%, 많게는 0.1%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가능함

– 국내 27개 투신운용사 중 인터넷 주문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는 운용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일부 투신운용사는 아예 사이버 거래를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펀드의 성패는 주문의 정확성과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이버 매매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사이버 거래 비중이 70%가 넘는 국내 현실에 비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국내 최초 여성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여성전용 펀드 소개**

– 대한투신운용의 '우먼파워 채권투자신탁'은 금융권 최초로 여성 펀드매니저인 김정숙씨가 운용하는 여성전용 펀드임

– 지난 해 10월 말 선을 보인 이래 3월 9일 현재 단기, 중기, 장기채 펀드가 각각 15.1%, 18.9%, 21.2%의 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이에 힘입어 1,000억원 이상 돈이 몰렸음

– 여성전용 펀드의 특징

- 단기, 중기, 장기 상품에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 이상 예치시, 가입 3개월 후에 여성암 보험 서비스를 실시
-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각각 가입자에게 받는 운용·판매 보수에서 5%씩 떼어내 불우 여성 돕기 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 계층을 위해 사용함

♣ 2001년 3월 17일 토요일

○ 고용보험기금 1조원 채권 투자

–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난 3월 14일 투신권 수익증권에 1조1,334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음

- 1년 만기 일반 채권형 장기 상품에 8,400억원, 나머지 2,000억원 정도의 자금은 클린 MMF, 신종 MMF 등 단기 상품에 투입했음
- 노동부에 의해 기존에 투신 상품에 투자한 1조5,000억원을 합쳐 고용보험기금의 투신 상품의 투자 규모가 약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음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자금이 투신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날 하루 동안 투신권 장기 채권형 상품 잔고가 8,455억원이나 급증했음

○ 원금보장형 펀드 상반기 출시 예정

–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투신사, 연기금이 원금보장형 펀드 상품의 개발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원금보장형 펀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정부와 업계가 구상 중인 원금보장형 펀드는 만기가 3년 정도인 장기 상품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연차적으로 높일 예정인 연기금이 이 펀드에 주로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 2001년 3월 19일 월요일

○ 환매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 현행 환매수수료 체계가 3개월 이내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투자자에게 최소 투자 기간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현재의 과도한 환매수수료 체계는 투자 기간 결정 및 투자 시점에 대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 아울러 업계에서 통용되는 환매수수료 체계는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운용자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 증권사 미매각 수익증권 부실 요인

- 증권사들이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권사들은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해 일단 콜자금을 빌려 환매를 해주고 관련 수익증권은 고유계정에서 떠 안고 있는 상황
- 현대증권 1조598억원, 삼성증권 6,027억원, 대우증권 5,149억원, LG투자증권 4,311억원, 대신증권 1,689억원 등 총 3~4조원 규모의 미매각 수익증권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음
- 증권사들은 지난 해 이들 수익증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CBO나 ABS 채권 발행을 통해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했지만 이는 손실을 이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임
- 문제는 이들 미매각 수익증권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곧바로 증권사 유동성 압박 및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임

♣ 2001년 3월 20일 화요일

○ MMF 수탁고 다시 증가

– 투신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MMF 수탁고가 3월 19일 현재 43조3,597억원으로 월 초인 3월 2일 현재 39조5,790억원에 비해 3조7,807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MMF 수탁고 증가 배경

- 최근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임시로 MMF에 자금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
- 또, 최근 시중 실세금리 지표인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5.5%대로 내려가면서 6%대의 금리를 보장하는 MMF의 장점도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이머징마켓 펀드 자금 다시 줄어

– 미국 뮤추얼펀드 가운데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이머징마켓 펀드와 아시아퍼시픽 펀드 (일본 제외)의 자금이 지난 주 다시 순유출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3월 19일 대신경제연구소의 집계 결과 지난 한주 (3.8~14) 동안 미국의 이머징마켓 펀드는 $5,200만, 아시아퍼시픽 펀드는 $4,100만이 감소했음

– 이는 일본의 금융 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에 민감한 이머징마켓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럽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임

– 뮤추얼펀드 가운데 기술주 펀드는 3월 첫주 $1억4,200만에 이어 지난 주 $2억3,600만가 추가로 감소해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신운용사의 전 포트폴리오 분기당 1회 평가사에 제공

– 그동안 펀드 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공 범위와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던 투신운용사들과 펀드평가사들은 투신운용사들이 투신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분기당 1회씩 각사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이달 말을 기준으로 각 투신사의 펀드 운용 내역을 일괄적으로 취합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펀드평가사와 자본시장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임

–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투자신탁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투자자의 투자패턴을 전환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1년 3월 21일 수요일

○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3월 말까지 경영 정상화 차질 예상

- 금감위는 지난 해 9월 대투증권에 2조9,000억원, 한투증권에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MOU를 맺고 불이행시 불이익 조치를 명시한 상태여서 이행 계획 실패에 따른 금감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 한투증권의 경우
  - 신탁형 증권저축의 수탁고를 3월 말까지 3조6,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한데 비해 3월 17일 현재 8,500억원이 초과된 상태임
  - 총수탁고의 경우 3월 말까지 22조3,600억원을 유지키로 했지만 3월 17일 현재 6,184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 대투증권의 경우
  - 신탁형 수탁고의 경우 3월 말까지 3조5,000억원으로 맞추기로 한데 비해 3월 17일 현재 2,280억원이 초과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총수탁고는 3월 말까지 22조1,000억원으로 늘려야 하지만 지난 3월 17일 현재 5,492억원이 부족한 상태임
- 한편, 두 전환증권사는 경영개선 계획의 핵심 사항인 경상이익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상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업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펀드 수수료 차별 심하다

- 연기금 등 증권시장 큰손과 개인투자가, 소규모 기관투자가들이 부담하는 펀드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여 차별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우체국기금이 투신사에 펀드를 설정할 때 드는 수수료 비용은 연간 펀드 설정액의 0.7%인데 반해 일반 펀드의 수수료 부담률은 2% (주식형 펀드의 경우)를 웃돌고 있는 상태임
  - 연기금 주식형 펀드는 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가 각각 0.15%, 0.5%이며, 수탁수수료는 0.05%로 펀드 운용에 필요한 총 수수료는 0.7%에 불과함
  - 반면, 일반 주식형 수익증권 수수료는 펀드 설정액의 2~3%에 해당하고,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1.5~2.5%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별도의 판매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한 투신운용사의 판매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채권형 펀드 '시스템형' 인기

- 채권 금리가 급등락하면서 미리 설계된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채권형 펀드인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시스템 헷지 채권펀드'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시스템형 펀드가 채권형에 도입된 것은 처음이며, 19일부터 발매된 후 이틀만에 1,700억원의 판매고를 기록

♣ 2001년 3월 22일 목요일 (1)

○ 투신사별 연기금 펀드 수익률 8~9% 격차

– 투신업계에 따르면 각 투신사가 성장형 연기금 펀드를 설정한 후 지난 3월 17일까지 누적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투신사별로 운용수익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조흥투신과 동원BNP투신은 국민연금이나 우체국 보험기금이 맡긴 연기금 자금의 운용 결과가 만족스러운 반면, 제일투신과 대신투신 등이 운용한 연기금 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 투신사별 국민연금 및 우체국 펀드 운용실적 (단위: 억원, %)

국민연금 펀드 운용실적				우체국 펀드 운용실적			
설정일	투신사	설정액	누적수익률	설정일	투신사	설정액	누적수익률
2000.10.17 ~11.2	조흥	500	9.27	2000.11.13	한화	500	8.63
	삼성	500	3.58		한일	500	5.58
	교보	400	3.22		국은	500	-0.43
	대신	600	2.82		SK	500	-2.01
	제일	600	0.21	2000.11.30 ~12.1	조흥	500	9.80
2000.12.1	LG	600	11.33		동원	500	9.08
	대한	350	8.30		한화	500	8.61
	조흥	475	7.75		한일	500	5.65
	대신	600	5.13		SK	500	3.27
	한일	475	4.62		국은	500	1.31
	제일	475	4.04	2000.12.20 ~12.21	동원	500	4.83
2000.12.21	LG	350	6.62		조흥	500	4.61
	조흥	250	4.28		대신	500	4.44
	SK	250	3.78		조흥	500	4.35
	한화	250	2.95		교보	500	2.52
	동원	250	2.74		신영	500	2.16
	신영	350	2.65				
	삼성	350	2.62				
	한일	350	1.05				
	대신	350	0.90				
	신한	250	-3.40				

♣ 2001년 3월 22일 목요일 (2)

○ **코스닥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 3월 21일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50억원 이상 규모 코스닥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운용사 전략에 따라 펀드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들어 코스닥 종목에 집중 투자한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해 손실 폭이 컸던 펀드들이 올해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월 16일 현재 코스닥 주가지수가 연초 이후 35.75%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펀드들은 평균 10.19%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회사별로는 현대, 한국, 삼성투신 및 KTB자산운용 등의 펀드들이 평균 이상 수익률을 보인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한빛, 동양, 제일, 대한투신 등은 저조했음

○ **증권사 수익증권 판매 현황**

– 3월 17일 현재 수익증권 판매 현황은 삼성이 19조5,611억원으로 1위이며, 현대 (10조4,420억원), LG (6조3,778억원), 대우 (1,313억원), 동원 (4조1,729억원)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수익증권 수수료 비중은 삼성이 22.4%, 현대 19.3%, 동원 15.4%, 대우 15.1%, LG 14.9%, 대신 4.3%로 증권사별 수익구조가 차별화를 보이고 있음

- 수익증권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주식 일변도의 영업에서 탈피해 수익원 다변화를 꾀해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전환증권사 법인 약정 폭주**

– 3월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32개 증권사의 법인 약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투, 한투, 현투 등 3개 전환증권사의 점유율은 전체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지난 해 1,2,3분기 (4~12월) 누적점유율 8.5%를 크게 상회하는 것임
- 대투의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약정고가 약 9,387억원으로 약정고 1위인 삼성 (9,617억원)에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그 이유는 값싼 수수료에다 기존 운용사와 분리되기 이전에 구축해 놓은 기관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1년 3월 23일 금요일

○ 제일투자신탁증권에 푸르덴셜 등 2,000억원 납입 완료

– 제일투자신탁증권은 지난 1월 31일 체결한 외자 유치 계획에 따라 푸르덴셜이 1,100억원, 국제금융공사가 400억원, 제일제당이 500억원을 납입함으로써, 1차 투자금 2,000억원이 모두 들어 왔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제일투자신탁증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으로 늘어나 전환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게 됐음

○ 시티그룹 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개인 금융자산 보고서 발표

– 3월 22일 시티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개인 금융자산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의 개인 금융자산 규모는 89년 약 $2조에서 올해 $3조로 확대됐음

- 지난 10년간 간접투자부문인 뮤추얼펀드 분야가 16%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주식 등 직접 투자는 11% 성장을 기록
- 이들 5개국의 개인 금융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예금 39%, 직접투자 21%, 뮤추얼펀드 12%, 보험과 연금 19%로 구성

– 직접투자 대 간접투자 비교 (단위: $10억)

비 고	5개국 합계	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	호주
직접투자 부문	2,000	490	100	420	700	270
간접투자 부문	1,000	200	40	220	130	380
직·간접 투자 부문	2:1	2.4:1	2.5:1	1.9:1	5.4:1	0.7:1

♣ 2001년 3월 24일 토요일

○ 주은투신운용 펀드 편법 운용

– 금감원은 23일 주은투신운용의 불공정 채권 매매 행위를 적발해 대표이사 등 3명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주은투신운용에 대해선 문책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 98년 12월부터 지난 해 11월 말까지 2년에 걸쳐 장부가 평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한 동일 펀드내 자전거래가 10조원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짐
- 실적이 우량한 펀드에 편입된 고수익 채권을 실적이 부진한 다른 펀드에 채워 넣는 자전거래 규모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펀드간 채권 교환도 성행한 것으로 드러남

– 모회사인 주택은행이 소유한 국채와 통안증권 2조2,425억원을 떠안은 한편, MMF를 운용시 편입이 금지된 투자부적격 채권 142억원과 사모사채 등을 부당 편입해 운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음

○ 4월부터 투신운용사도 적기시정조치

– 금감위는 3월 23일 투신운용사의 부실 예방과 경영 건전성 유도를 위해 투신사에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음

– 투신운용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받게 됨

- 투신운용사에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기준은 순자기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구하며 투신운용사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정부 설비투자 펀드 1조원 조성

– 정부는 3월 23일 진념 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의 설비자금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음

-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중 1조원 규모를 차입 방식이 아닌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특별 펀드임

○ 리츠 7월 출범 겨냥해 고수익 빌딩 확보전

– 오는 7월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위치가 좋은 빌딩과 상가 등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 및 풍부한 자금 여력을 지닌 개인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함

– 론스타 펀드 등 외국계 투자회사는 대기업 사옥이나 도심 업무용 빌딩 등 500억원 이상 대형빌딩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큰 손들도 100억원 정도의 사설펀드를 결성해 20~50억원대 중소형 빌딩, 근린시설, 및 임대용 주택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 서울보증보험 대우 보증채 법정 소송

- 16개 투신사들은 3월 25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우보증채권의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힘
  - 이들 투신사들은 일단 보유 채권 중 금액이 큰 채권 1개씩만 포함시켜 이번 소송에는 995억원만 청구하게됨
  - 투신사들이 보유한 전체 서울보증채는 기업개선작업 기업 보증채를 포함하여 지난 2월 말 현재 4조3,000억원대에 달함
-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1월 초 대우 5개 주력사 보증채무만 지급하고 3개월여째 추가 지급을 미루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힘
- 투신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 의무를 늦추면서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는 시가평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동성이 떨어져 있고 기관투자가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생겨 회사채 시장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음

○ 자산운용사 직판에 대해 증권사 반발

- 증권사들은 자산운용사들이 금감원에 직판 등록을 할 경우 뮤추얼펀드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직판이 이루어질 경우 증권사들은 기존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어져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판매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산운용사들의 직판 등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한편, 직판 허용시 자산운용사들은 지점 형태보다는 사이버 상에서 직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정 비용이 연간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확실한 수익원 창출이 불투명한 가운데 섣불리 직판을 도입할 경우 비용만 낭비될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도 직판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기임

○ 에이브레인 도이체방크로부터 외자 유치

- 사무수탁 전문회사인 에이브레인이 도이체방크와 외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에이브레인은 지난 해 8월 도이체방크와 일반사무수탁 및 자산보관 업무 취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번 외자 유치 협상은 전략적 제휴의 연장선상으로 도이체방크가 기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규 증자 형식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임
- 에이브레인은 이번 외자 유치를 계기로 신탁회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등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어 사무수탁업계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전략

♣ 2001년 3월 27일 화요일 (1)

○ **현대증권 현대투신과 함께 AIG 컨소시엄에 매각 추진**

- 정부와 현대는 현대증권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뒤 현대투신과 함께 미국 AIG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와 AIG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현대투신에 대한 공동 투자 협상이 원만히 진행 중이며, 안건회계법인이 3월 27일 현대투신에 대한 최종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 정부와 AIG 측이 파악해 놓은 현대투신의 최종 실사 전 자본잠식 규모는 1조2,000억원선이며, 실사 결과 추가 잠재부실 규모가 9,0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현대투신 일지**

- **2000.4월 말~5월 초**: 현대투신 자금 인출 사태, 현대그룹, 현대투신 경영 정상화 방안 발표 (1조7,00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 담보 제공 등)
- **2000.6.16**: 금감원, 현대투신 경영 정상화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
- **2000.6.21**: 현대-AIG 컨소시엄 MOU 체결
- **2000.8.28**: 현대-AIG 컨소시엄 2차 MOU 체결 (1조1,000억원 유치,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 경영권 이양)
- **2000.10.31**: 그린버그 AIG 회장 방한 취소 (현대투신 손실 보전 문제로 외자유치 협상 진통)
- **2000.12.26**: 금감위, 현대투신 연계콜 해소 시한 200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2001.1.3**: 금감위, AIG와 공동 투자 고려 의사 공개
- **2001.1.31**: 금감위, AIG가 정부에 공동 출자 제의 발표
- **2001.2.28**: 금감위, 현대투신 적기시정조치 9월 말로 연장

♣ 2001년 3월 27일 화요일 (2)

○ MMF 45조201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 3월 26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투신사 MMF 수탁고가 지난 3월 23일 현재 45조201억원을 기록하여 종전 최고치인 2월 22일 43조6,519억원을 넘어 섰음
- 투신권 MMF 수탁고는 지난 2월 중순 최고치 이후 금리 급등락에 따른 위험 증가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띠다가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일 이후 3일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 연초 (29조7,860억원) 대비 51.1%나 급증했음
- 하지만, 금리가 불안정하고 운용 대상이 되는 자산도 마땅치 않아 대형 투신사를 중심으로 다른 금융기관 자금이나 규모가 큰 법인자금을 MMF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01년 3월 28일 수요일 (1)

○ 해외 뮤추얼펀드 인기

- 최근 환율이 불안해지자 거액 자금이 해외 뮤추얼펀드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미국 국공채 펀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가입 후 환율이 오르면 투자 수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기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음
- 시티은행의 경우 은행권 최초로 프랭클린 템플턴 펀드 9종과 피델리티 펀드 39종 등 해외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7일 기준 578억원의 판매 잔고를 기록
  - 투신사,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해외뮤추얼펀드 업계 2위로 부상
- 자산의 분산 투자와 통화의 분산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은 향후 해외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기대됨

○ 증권투자회사 시장에 진출을 추진 중인 투신운용사

- 28개 투신운용사들이 자산운용사가 취급하고 있는 증권투자회사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행법상 투신운용사는 증권투자회사 취급이 가능하나 금감원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등록되지 못한 투신운용사는 판매 자격이 부여되지 못한 상태임
  -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의 위축된 시장을 의식하여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가 증권투자회사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은 증권투자회사 시장이 침체돼 가고 있지만 이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임
  -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부터 판매하는 사모 M&A 증권투자회사 시장도 큰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투신운용사 측은 투신운용사들의 진출이 향후 잠재력이 있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시장의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임

○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사 및 투신운용사와 공정 경쟁 선언

- 투자자문 업계는 그 동안 연기금이나 정부 기관들의 자산 위탁운용 심사에서 투자자문사들이 계속 배제됨에 따라 공정한 평가 실적을 토대로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을 투자자문으로 끌어오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들은 펀드 실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수탁회사를 선정하고 앞으로 운용 실적도 공개하기로 결정
  - 에셋플러스 투자자문사의 경우 주택은행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음

♣ 2001년 3월 28일 수요일 (2)

○ **대투증권에서 복수주문 처리 시스템 국내 첫 개발**

– 국내에서는 최초로 최대 4개 종목까지 한 화면에서 조건 설정, 통보, 주문, 체결 확인까지 신속하게 원 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수 알람 주문처리 시스템이 개발됨

- 대투증권은 3월 27일 인터넷 홈트레이딩 시스템인 "인베스트 트레이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투증권의 홈페이지 (www.daetoo.com)를 통해 시현한다고 밝힘

–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복수 알람 주문창 서비스는 관심화면에서 주문까지 원클릭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전문투자자들의 인기를 끌 전망

♣ 2001년 3월 29일 목요일

○ 투신사와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힘 겨루기

- 투신사 사장단들은 3월 27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변액보험은 성격상 투신 상품이 분명한 만큼 판매는 보험사가 하되 운용은 투신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
  - 이들은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판매와 운용을 함께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분리, 실적 배당상품의 판매와 운용의 분리라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배치된다고 지적
-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투신사에 맡길 수 없으며 운용 능력면에서도 투신사에 뒤질게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투신사와 보험사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액보험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하려던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추정
  - 금감위는 4월 3일 간담회를 열고 변액보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결론이 나기 어려워 보임

○ 투신권 법인자금 비중 증가

- 지난 98년 대우채 사건 이후 20%까지 내려갔던 은행·보험·연기금·대기업 등의 법인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부 투신사의 경우 전체 수탁액의 절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계는 세금을 공제한 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적인 금리가 거의 제로에 이르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투신 상품으로 법인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함
-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법인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대부분은 MMF 등 단기성 자금이 많아 투신사들이 장기 운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자금 유치를 더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KEB-스트리트 펀드서비스" 5월 출범

- 외환은행과 세계적 수탁은행인 미국의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본금 50억원의 합작 사무수탁회사가 5월 초 출범할 계획
  - 지분율은 외환은행과 스트리트 은행이 각각 51:49 비율로 공동 경영을 하며, 일반사무수탁 합작법인의 명칭은 가칭 KEB-스트리트 펀드서비스(주)로 결정됐음
  - 영업은 외환은행측이 맡고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등 프로세서는 스트리트 은행측에서 전담키로 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사무수탁 합작법인은 국내 사무수탁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외자 유치를 성사시킨 경우로 다른 사무수탁사들의 외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2001년 3월 30일 금요일

○ 투신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대건설 채권

– 현대건설이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투신사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약 5천억원의 회사채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음

-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채권 5천억원 중 4천억원 가량이 보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채로 파악됨

– 투신사들은 지금까지는 만기가 도래한 현대건설 채권을 산업은행이 거의 자동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오는 6월 초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4, 5월 중 만기 채권의 처리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임

- 투신사들은 작년 말만 해도 7천5백억원 가량의 현대건설 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금년 들어 산업은행이 만기가 된 현대건설 채권을 인수해 가면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임

–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현대건설이 만기 회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채 처리 문제는 제 2의 대우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

○ 공모주 청약 관련 펀드에 관심 집중

– 3월부터 공모주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투신권 간접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코스닥 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공모가가 많이 낮아졌으며, 지금같은 약세장에서도 신규 등록종목이 등록 후 2~3일은 상한가를 기록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상품으로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가 있으며, 이들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권이 있어 공모주 투자에 따른 추가 수익이 가능함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이하 IDB)인 한국증권중개 설립 무산

– 영국계 프레본야마니와 국내 금융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난 해 초부터 IDB 영업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이던 한국증권중개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음

– 금감원은 프레본야마니 컨소시엄이 예비 허가를 받고도 본허가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24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증권중개 설립은 무산됐다고 언급

- 이 회사는 자본금 30억원으로 프레본야마니가 40%의 지분으로 대주주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국민·산업은행이 각각 11%, 한화증권 11%, 신한증권 7% 등의 출자로 설립될 계획이었음

- IDB란 개별 채권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 정보와 호가를 수집해 스크린에 제공함으로써 매매 현황을 공개하고 채권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임

♣ 2001년 3월 31일 토요일

○ **금리 급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 초비상**

– 3월 30일 현재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6.31%를 기록하는 등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금리가 출렁거렸던 지난 2월에 설정한 펀드 가운데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투신권은 펀드 수익률 하락뿐만 아니라 침체된 증시 상황과 저금리 기조에서 그나마 자금이 유지되고 있는 채권형 펀드마저 외면당할 경우 투신권 전체 수탁고 감소에 따른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까 우려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MMF는 문제가 없지만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투신권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해 MMF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

○ **미국 채권형 뮤추얼펀드에 자금 유입**

–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형 뮤추얼펀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속속 유입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국채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

– '프랭클린 미국 정부채 펀드'의 경우 금년 들어 2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상태임

- 이 펀드는 주택저당채권 등 미국 정부나 정부기관이 보증 발행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펀드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매달 배당이 지급되고 있음

4월 April

10대 주요 기사

1. MMF의 환매 비상사태 및 현 실태와 문제점
   (2일, 9일, 10일, 13일, 26일, 27일, 30일)
2. 개인연금 계약 이전 미미
   (4일)
3. 연기금 주식 투자 허용 및 운용에 대한 문제점
   (4일, 6일,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27일, 30일)
4. 현대건설 채권 출자 전환에 투신사 반발
   (6일, 18일)
5. 실적 배당 "변액보험" 6월에 시판 및 문제점
   (7일, 28일)
6. 사무수탁사 경영 실적 아직은 미흡
   (9일)
7.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 연내 도입
   (14일)
8. 미국식 종업원지주제 (ESOP) 내년 도입
   (19일)
9. 금감원 역외펀드 전면 조사
   (23일)
10. M&A 전용펀드 중개업체가 직접 운용 가능
    (26일)

◈ 4월 목차 (4/1-4/10)

4/1 (일)	
4/2 (월)	○ 투신사에 골칫거리가 된 MMF ○ 금감원 MMF 과다 판매 억제 ○ 세이에셋코리아 채권혼합형 펀드 단일 규모론 최대 ○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
4/3 (화)	○ 올 설정 채권형 펀드 20% 손실 ○ 주식형 펀드 장세별 수익률 ○ 한투·대투 MOU 이행 부족
4/4 (수)	○ 1분기 펀드 수익률 점검 ○ 연기금펀드 원금 손실 속출 ○ 연기금 3,000억원 증시 조기 투입 ○ 개인연금 계약 이전 미미
4/5 (목)	식 목 일
4/6 (금)	○ 현대투신증권 소방공무원 지원 상품 판매 ○ 현대건설 채권 출자전환에 투신사 반발 ○ 사학연금 4월 9일 500억원 증시 투입 예정 ○ 해외 뮤추얼펀드 판매 저조
4/7 (토)	○ 세계적 펀드평가사 중 하나인 '마이크로팔' 연내 국내 상륙 ○ 생보사 변액보험 도입 주춤 ○ 리젠트자산운용 수탁고 "0" ○ 연기금 주식투자 위험 수위
4/8 (일)	
4/9 (월)	○ 현대투신 JP모건으로부터 1천억원 돌려받아 ○ MMF 첫 원금손실 발생 ○ 전환증권사 판매망 다변화 추진 ○ '엔터테인먼트 펀드'에 돈 몰린다 ○ 사무수탁사 경영실적 아직은 미흡
4/10 (화)	○ 투신사별 MMF의 채권 편입비중 천차만별 ○ 연기금 주식 투자 거래세 면제 ○ 연기금 주식 투자 본격화

◈ 4월 목차 (4/11-4/20)

4/11 (수)	○ 정부 서울보증보험 통해 투신에 1조원 대지급 ○ 해외 뮤추얼펀드 판매를 확대하는 씨티은행 ○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연기금 역할 제고 방안 확정 ○ 펀드평가사 협의체 구성 예정 ○ 시스템 펀드의 소개
4/12 (목)	○ 사모 M&A펀드 운용 관련 증권사-자산운용사 마찰 ○ 연기금 증시 견인에 큰 힘 못될 듯 ○ 국내 투신 보유주 10조원 불과 ○ 메리츠증권 부동산 투자자문사 세운다
4/13 (금)	○ 현투-AIG 상품 공동 개발 ○ 투신권에 골칫거리로 등장한 MMF 단독펀드 ○ 공무원연금이 85년에 설정한 주식형 펀드 해지 ○ 조흥투신운용 지분 30~40% 해외 매각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으로 2금융권 지각 변동 예고 ○ 연기금 증시 투입에 반대하는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4/14 (토)	○ 투신사 총수탁액 중 2조원 손실 ○ 연기금 주식 투자 전면 허용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 연내 도입
4/15 (일)	
4/16 (월)	○ 원금보장형 상품 외국사 벤치마킹 ○ 사모 M&A 증권투자회사 운용기관 선정 주춤
4/17 (화)	○ 미국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권 주식 매수 늘릴 듯 ○ 4대 연기금 지난 해 2조7,000억원 손실 ○ 서울보증보험 투신권에 현금 1조원 지급 예정 ○ 금감위 자산운용사 활성화 조치 고려 안해
4/18 (수)	○ M&A 전용펀드 내주부터 설립 가능 ○ 투신협회, 세계총회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 개최 ○ 현대투신증권의 "퍼펙트 엄브렐러" 소개 ○ 현대건설 출자전환 삐걱
4/19 (목)	○ 미국 금리 0.5% 전격 인하 ○ 미국식 종업원 지주제 (ESOP) 내년 도입 ○ 회사채 복수 신용평가 우대 ○ 서울투신 독자생존 추진
4/20 (금)	○ 금융상품 표준약관 인터넷 게시 ○ 국민연금 지난 해 주식 투자 반토막

◈ 4월 목차 (4/1-4/10)

4/21 (토)	○ 투신사 신규펀드 올들어 526개 ○ 한빛투신운용의 "원금보전펀드" 소개
4/22 (일)	
4/23 (월)	○ 투신 사모채권펀드 설정 급증 ○ 금감원 역외펀드 전면 조사 ○ 연기금 운용 위험 무방비 ○ 미국 뮤추얼펀드에 자금 지속 유입
4/24 (화)	○ 현대투신증권 매각 상반기 마무리 ○ 최근 채권거래 급격히 감소
4/25 (수)	○ 서울보증 투신권 대지급 5월로 지연 ○ "바이오랜드" 적정주가 산정 논란 ○ 투신권 증시 주도세력 재 부상
4/26 (목)	○ M&A펀드 중개업체가 직접 운용 ○ 금감원 상품약관 보고제 도입 후 통제 여전 ○ 공모주 배정물량이 적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주 펀드 ○ MMF의 잇단 환매로 일부 투신사 유동성 부족 사태 발생
4/27 (금)	○ 채권 금리 연일 급등으로 MMF 환매 비상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5월 말부터 부실책임 조사
4/28 (토)	○ 실적 배당 "변액보험" 6월에 시판
4/29 (일)	
4/30 (월)	○ 회사채 발행 크게 줄어 ○ 미국 뮤추얼펀드 3주째 자금 유입 ○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최근 MMF 인출사태

♣ 2001년 4월 2일 월요일 (1)

○ 투신사에 골칫거리가 된 MMF

- 3월 30일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연 6.31%까지 폭등함에 따라 2월과 3월에 연 5%대에 국고채를 사두었던 MMF의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음
  - 그러나 MMF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선 투신사가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할 형편임
- 만일 MMF에 편입된 채권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1% 이상 발생하여 시가평가가 적용될 경우 MMF의 수익률이 급락하여 MMF 자금이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 운용 부문의 경우, MMF에 주로 편입되는 CD와 CP의 물량이 부족하여 투신사들이 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 MMF 과다 판매 억제

- 금감원이 최근 수탁고 대비 MMF 비중이 50% 이상인 투신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음
  -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고 대비 MMF 비중이 50%를 넘는 투신사에게 검사를 실시한 후 더 이상 MMF를 팔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금감원의 이같은 검사와 행정지도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음
- 본질적으로 단기상품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제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금감원의 행정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세이에셋코리아 채권혼합형 펀드 단일 규모론 최대

- 세이에셋코리아가 발매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에 3월 29일 현재 4,367억원의 자금이 몰려 들어 채권혼합형 펀드 단일 규모로는 최대를 기록했음
  - 최초 모집 기간이 끝난 뒤 690억원의 자금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세이에이스플러스 혼합형 펀드'는 설정 이후 하루에 100~200억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
  - 이 펀드는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과 적극적인 채권 매매를 통한 자본소득을 추구함과 동시에 5% 미만의 공모주 투자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얻도록 설계됨
- 세이에셋의 인기 비결은 지난 해부터 보여준 꾸준한 운용 성과와 운용의 전문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일선 판매 담당자들과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 판매사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운용사로서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노력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4월 2일 월요일 (2)

○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2000년 3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대표가 서명을 하고,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음
-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에 왕래하며 근로하는 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그리고,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 이 협정으로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미국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미국의 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게 됨
  - 이러한 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청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됨
- 해당 연금은 한국 또는 미국의 어느 기관에나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됨

♣ 2001년 4월 3일 화요일 (1)

○ 올 설정 채권형 펀드 20% 손실

- 투신협회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펀드로 금년 들어 설정된 79개 펀드 중 20%에 달하는 14개 펀드가 채권형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전체 펀드 중 17개를 제외한 60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는 등 금리 급등에 따른 헤지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권형 펀드들이 투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 손실이 커지는 한편,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 수익률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올 들어 설정된 전체 채권형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0.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 같은 수치는 연환산으로 추정하더라도 2.57%에 불과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형 펀드 장세별 수익률

- 4월 2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최근 주식시장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눠 운용사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성과를 조사하였음
  - 강세장에서는 한국투신과 LG투신운용이, 약세장에서는 국은투신, 한화투신운용이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 장세별 TOP 10 운용사

강 세 장 (2000.11.01~2001.1.31)		약 세 장 (2000.8.2~11.02)	
운용사 (순위별)	수익률 (%)	운용사 (순위별)	수익률 (%)
주가지수 변화율	20.10	주가지수 변화율	-24.53
업계 전체	15.22	업계 전체	-15.71
한국투신	18.04	국은투신	-2.46
LG투신	17.91	한화투신	-4.26
SEI에셋자산운용	17.78	한일투신	-5.99
마이다스자산운용	17.71	조흥투신	-6.57
현대투신	16.89	템플턴투신	-7.55
동양투신	16.39	SK투신	-7.58
동원투신	15.95	주은투신	-8.10
외환투신	15.84	신한투신	-10.27
제일투신	15.74	신영투신	-10.27
대신투신	15.59	동원투신	-11.09

- 이 조사에 따르면 강세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운용사들은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컸으며, 반대로 약세장에서 손실 규모를 줄인 회사들은 보수적인 운용으로 강세장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4월 3일 화요일 (2)

○ 한투·대투 MOU 이행 부족

- 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의 기업경영개선(MOU)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
- 한투증권의 경우 3월 말 신탁형 저축 수탁고가 3조9,399억원으로 MOU 계획상 목표치인 3조6,000억원을 3,399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대투증권의 경우 신탁형 저축의 수탁고는 3조4,968억원으로 낮춰 MOU상 한도인 3조5,000억원을 간신히 지킨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월까지 당기 경상이익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이행되지 못했음
- 당초 올 1/4분기 주가를 900선까지 내다 본 상황에서 MOU를 작성한 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져 이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양사의 주장

♣ 2001년 4월 4일 수요일 (1)

○ 1분기 펀드 수익률 점검

–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이 3월 31일 기준가격으로 1분기 펀드에 대한 수익률 자료를 발표

– 주요 내용

- 일반 주식형 펀드 중 주식 편입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 성장형 펀드는 지난 석달 동안 수익률 3.76%를 올렸으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도 0.88%를 기록
- 코스닥 종목 편입비율이 높은 코스닥·벤처 펀드는 9.45%로 펀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으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6.55%에 그쳐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음
- 하이일드펀드 및 CBO는 각각 1.59%, 2.03%를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벤치마크 대비 -0.39%, -0.23%를 기록해 시장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음
- 지난 3개월간 단순 실현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운용사는 6개 펀드 486억원을 운용한 템플턴투신으로 약세장 속에서도 평균 17.37%의 최고 수익을 거뒀음

– 1분기 동안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올렸지만 상승폭은 매우 작았으며,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됨

○ 연기금펀드 원금 손실 속출

– 지금까지 설정된 연기금펀드는 모두 26개로 4월 2일 현재 9개 펀드가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1%선인 펀드만 8개에 달해 주가 추가 하락시 절반 이상의 연기금펀드들이 원금 손실을 볼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전기가 나타나지 않는 한 4월에는 직·간접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음

- 지난 해 10월 이후 투신사 주식형 펀드에 1조1,000억원대 자금을 집어 넣으며 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보류는 증시 수급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

○ 연기금 3,000억원 증시 조기 투입

– 4월 4일 금융 차관회의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등의 주식 매수 규모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는 지난 해 말부터 지난 달까지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던 3조원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천억원을 조기에 증시에 투입할 계획임

♣ 2001년 4월 4일 수요일 (2)

○ **개인연금 계약 이전 미미**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동이 가능해진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전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원금 손실 등의 문제로 고객들의 이동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시중 은행 개인연금 이동 현황 (기간: 3.2~4.2)

은행	유입 계좌 수	유입 금액	연환산 수익률
국민	18	3억1,000만원	7.85%
주택	11	1억1,600만원	10.22%
신한	44	9억5,000만원	18.77%
하나	12	3억600만원	15.87%
한미	21	7억8,300만원	11.81%
조흥	2	1억3,000만원	8.2%
한빛	6	4,000만원	11.95%
서울	2	5,000만원	9.37%
외환	0	0원	6.37%

– 금융기관별로 수익률 평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일괄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계약 이전을 망설이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 2001년 4월 6일 금요일

○ 현대투신증권 소방 공무원 지원 상품 판매

– 소방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투신증권이 소방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신상품 '한마음 119투자신탁'을 개발하여 오는 4월 6일부터 판매할 예정임

- 이 상품은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인 이른바 신탁보수 (1.05%)의 10%, 즉 0.105%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방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 및 학자금을 지원함

○ 현대건설 채권 출자 전환에 투신사 반발

– 현대건설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은행권이 4월 2일 모든 채권단들에게 채권액을 신고해 출자 전환 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 이에 대해 투신권은 고객이 가입해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며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약관에 위배되는지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지난 해 6월 모든 부실채를 정리하고 펀드 클린화를 통해 고객 신뢰 기반을 어렵게 쌓아오고 있는 투신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은행권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임

○ 사학연금 4월 9일 500억원 증시 투입 예정

– 사학연금 관계자는 4월 9일부터 500억원 규모의 주식형 펀드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래에셋투신과 한국투신이 각각 100억원을 운용하며, 태광, 한화, 한일, 삼성, 제일, LG투신운용이 50억원씩 운용할 예정임

– 사학연금은 지금까지 2,400억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해 왔지만 간접투자는 올 들어 처음임

○ 해외 뮤추얼펀드 판매 저조

– 지난 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해외 뮤추얼펀드가 3월말 현재 1,4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해외 뮤추얼펀드가 원화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을 겨냥한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반되는 현상임

– 이는 현재 환율이 이미 환차익을 내기에는 부담스런 수준으로 오른 수준이며, 미국, 일본 등 해외 뮤추얼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국의 주가 폭락 등 해외 투자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2001년 4월 7일 토요일 (1)

○ 세계적 펀드평가사 중 하나인 '마이크로팔' 연내 국내 상륙

– 미국의 3대 펀드평가사 중 하나인 '마이크로팔'은 자사 또는 합작 형태로 올해 안에 국내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유명 신용평가회사인 S&P의 관계사인 '마이트로팔'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닝스타코리아와 리퍼코리아와 함께 국제적 펀드평가사임

– 한편, 업계 관계자는 펀드평가를 위해 필요한 펀드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펀드평가사에 대한 감독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 생보사 변액보험 도입 주춤

–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가와 금리가 요동치면서 자산운용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조기 도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올 연초까지만 해도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을 빨리 허용해 달라고 채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임

– 이는 보험사 내부에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크게 부족해 약세 장세에서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임

– 변액보험 도입 관련 투신업계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 내부에 부족한 운용인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제도 도입 등 시스템 정비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리젠트자산운용 수탁고 "0"

– 리젠트증권의 100% 자회사인 리젠트자산운용이 수탁고 "0"인 개점 휴업 상태에 놓임

- 자산운용사가 영업중단 상태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감원은 리젠트자산운용의 지난 달말 수탁고는 485억원 (뮤추얼펀드 55억원, 투자일임 계약고 435억원)이었으나, 뮤추얼펀드는 4월 3일 만기로 청산했으며, 투자 일임 계약고는 만기 또는 중도 해지됐음

– 업계에선 리젠트그룹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리젠트자산운용이 수탁고 "0"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년 4월 7일 토요일 (2)

○ 연기금 주식투자 위험 수위

- 정부가 지난 해 말 증시 부양책으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주식 순매수가 급증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 잔액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 업계에 따르면 8조원대의 연기금이 대략 500~550선에서 주식시장에 투입됐으며, 평균 주가를 525로 보면 적어도 5%, 약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월 4일 금년 들어 지금까지 2조7,000억원을 주식시장에 투입하였으며 증시 침체를 이유로 4월에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힘
  -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은행에 예치해 둔 여유자금과 투신사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 있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해약하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계획
- 이에 대해 연기금의 기금운용 자율성과 재무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2001년 4월 9일 월요일 (1)

○ 현대투신 JP모건으로부터 1천억원 돌려받아

- 97년말 역외 파생금융상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1억2,600만의 손실 책임을 놓고 JP모건측과 법정 소송을 벌여 왔는데, 지난 3월 JP모건측에서 운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음
  - 이에 따라 현대투신은 JP모건측이 당시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가져간 담보물 1,358억원대 채권과 600억원대 현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되돌려 받게 됐음
- 현대투신은 재판 과정에서 JP모건측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시킨 모럴 해저드 사례를 비롯해 JP모건측에서 불리한 각종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해 JP모건측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짐
- 현대투신, JP모건 분쟁 일지
  - 97년: 역외펀드 운용 중 대규모 손실 발생
  - 99년: SK증권 등 JP모건 상대 소송
  - 99년 10월: JP모건, SK증권 유상증자 참여
  - 2000년 4월: 현대투신, 합의 포기 후 소송 강행
  - 2001년 3월: 현대투신, JP모건과 최종 화해

○ MMF 첫 원금 손실 발생

- 최근 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장부가로 평가되는 MMF가 시가와의 차이가 1% 이상 벌어지면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가령, 지난 3월 2일 설정된 동부투신운용의 '위너스클린MMF8호' (설정규모 600억원)는 3월말 이래 펀드 가격이 6.25원 떨어져 기준가격이 995.88원으로 하락했음
- 아직 원금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MMF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펀드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전환증권사 판매망 다변화 추진

- 한투, 대투, 현투 등 대형 전환증권사들이 그동안 자회사인 운용사 판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설 투신운용사의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음
- 이에 따라 이들 전환증권사들은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타운용사 상품 비중을 앞으로 1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품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운용사 자산 구성의 건전성, 경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음
- 신설 투신사들은 기존 대형증권사를 판매사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수익증권 고객이 확보돼 있는 전환증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전략임

♣ 2001년 4월 9일 월요일 (2)

○ '엔터테인먼트 펀드'에 돈 몰린다

– 인터넷 공모 형식으로 영화, 음반 등의 제작비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엔터테인먼트 펀드'는 요즘 공모를 시작한지 1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초기에는 '재미'나 '문화사랑'의 차원에서 시작됐던 엔터테인먼트 펀드가 이제 실질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는 추세임
- 지난 3월 심마니 엔터테인먼트 펀드가 실시한 영화 '친구'의 네티즌 펀드 (1억원) 공모는 60초 만에 마감됐음

– 엔터테인먼트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가령,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작인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우 수익률이 1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사무수탁사 경영 실적 아직은 미흡

– 3월 결산법인인 사무수탁사들의 실적이 소폭의 흑자를 달성하거나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경영 여건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증권투자회사는 현행 외부 위탁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수익증권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투신사가 운용보수 중에서 일부를 사무수탁보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음
- 수익증권의 회계업무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관은행인 수탁은행이 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회계업무의 정확성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업계 관계자들은 사무수탁사들이 시장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형 수익증권의 일반 회계업무와 외부 위탁업무가 의무화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게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함

♣ 2001년 4월 10일 화요일

○ 투신사별 MMF의 채권 편입비중 천차만별

–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현재 투신사 MMF가 편입하고 있는 채권 (회사채, 국고채, 통안채 등) 비중을 회사별로 따져보면 최고 75.29%에서 최저 19.04%까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 투신업계에서는 채권 편입비중보다는 평균 만기가 얼마나 짧은지에 따라 위험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하며, 최근 금리가 급등락한 국고채와 통안채를 많이 편입하고 있는 MMF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투신사별 MMF 채권 편입비중 (단위: 개, 10억원, %)

투신사	펀드 수	설정액	채권 편입비중	투신사	펀드 수	설정액	채권 편입비중
한국	35	4,231	41.67	한화	13	945	65.87
대한	36	3,026	49.02	한일	38	2,040	54.06
현대	25	1,686	40.19	SK	30	1,264	68.69
제일	107	6,055	51.20	동부	12	167	69.93
삼성	25	3,994	56.50	템플턴	13	1,003	26.89
동양	17	1,100	44.63	조흥	51	2,717	74.56
대신	58	1,846	57.88	한빛	30	1,306	20.55
동원BNP	12	881	66.11	외환코메르쯔	13	638	61.08
서울	19	613	47.84	주은	17	2,505	56.15
LG	24	1,470	51.54	태광	1	50	19.04
교보	25	1,064	72.17	세종	2	76	45.06
신영	24	745	75.29	아이	2	89	48.97
신한	40	994	27.16	미래에셋	2	101	62.87
국은	5	979	64.59				

○ 연기금 주식 투자 거래세 면제

– 정부는 4월 10일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연기금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전액 면제시킬 계획임

–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증권거래세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임

○ 연기금 주식 투자 본격화

– 체신보험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이 투신운용사를 통한 주식 투자를 다음 주 초부터 본격화할 전망

– 4월 9일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우체국보험이 오는 12~13일 중 8천억원을 투신사 연기금 전용펀드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밝힘

  • 연기금 전용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75%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6천억원의 주식 매수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 2001년 4월 11일 수요일 (1)

○ 정부 서울보증보험 통해 투신에 1조원 대지급

-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대지급키로 한 7천억원이 당초 예정 (4월 9일)보다 늦어진 오는 4월 20일에 투입될 전망임
  -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3천억원을 4월 2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총 1조원이 투신사에 지급될 예정임
- 정부는 총 1조원 중 일부는 예보채를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신사들은 전액 현금 상환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지급 방법에 대해선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음
- 투신사들은 정부가 총 1조원을 상환하더라도 3월 27일 제기한 보증채 대지급 청구 소송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음

○ 해외 뮤추얼펀드 판매를 확대하는 씨티은행

- 해외 뮤추얼펀드의 국내 판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미국계 씨티은행이 조만간 씨티그룹 본사의 뮤추얼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 뮤추얼펀드 판매를 확대하려 하고 있음
  - 씨티은행은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및 해외펀드의 총 판매잔액은 1조1,4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613억원은 해외 뮤추얼펀드임
  - 씨티은행이 팔고 있는 해외 뮤추얼펀드는 피델리티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뮤추얼펀드 등 총 48개에 달하고 있음
  - 씨티은행이 이처럼 펀드 판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적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됨
- 한편, 제일투신증권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피델리티 해외 뮤추얼펀드를 12개 종목에서 34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연기금 역할 제고 방안 확정

- 정부는 4월 10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고 '연기금 역할 제고 방안'을 확정했음
  - 이 제안에는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음
  - 또, 민간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
- 정부는 현재 6조8,000억원 수준인 주식 보유 잔액을 향후 2~3년 내에 2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연기금 투자 확대를 본격화할 태세인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4월 11일 수요일 (2)

○ 펀드평가사 협의체 구성 예정

– 국내 펀드평가사들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짐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평가사들이 기관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임

– 현재 유력 6개 펀드평가사들 (한국펀드평가사, 제로인, 모닝스타, 리퍼코리아, 한기평, 한신평)이 이미 몇 차례 모임을 갖고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시스템 펀드의 소개

– 금리 급변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 펀드가 등장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시스템 펀드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손실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손실 폭이 한계치에 근접하면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매입해 전체적인 채권 만기를 짧게 조정하도록 설계됨
- 채권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
- 국채금리 선물을 활용해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선물을 팔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선물을 매수해 수익률을 최대한 방어함

– 시스템 펀드는 탄력적인 만기 조정과 금리 선물 등으로 수익률의 손실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금리 급변의 현상황에서 투자자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1년 4월 12일 목요일 (1)

○ 사모 M&A펀드 운용 관련 증권사-자산운용사 마찰

- 5월부터 판매될 예정인 사모 M&A펀드 운용의 주도권을 놓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M&A펀드가 증권투자회사법을 골간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운용주체를 자산운용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그동안 M&A시장에서 기득권을 확보한 증권사 등은 M&A의 노하우가 없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맡을 경우 부실 운용의 가능성이 높아 운용 기관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음
- 이처럼 양측이 사모 M&A펀드의 운용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3월 개정된 증권투자회사법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임
  - 게다가 아직 시행령이나 금감원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M&A 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사, 창업투자조합, M&A 중개회사들 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설전을 벌이고 있음

○ 연기금 증시 견인에 큰 힘 못될 듯

- 4월 11일 투신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투신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연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기금을 위한 각종 간접상품을 선보였음
- 이날 연기금 관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 구입시 공제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게 됨
- 이런 상품의 특성 때문에 연기금이 집중 투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증시에 투입되는 자산규모는 얼마 되지 않아 증시 부양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됨

○ 국내 투신 보유주 10조원 불과

- 펀드평가사인 리퍼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수탁고 (151조1,800억원)의 7.05%인 10조6,591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투신사의 주식 편입비중은 작년말 8.34%에서 1월말 7.98%, 2월말 7.97%, 3월말 7.0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비율도 지난 2월말 57.55%에서 3월말 55.37%로 낮아졌음
- 반면, 외국인은 시가총액의 30%인 60조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투신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2001년 4월 12일 목요일 (2)

○ **메리츠증권 부동산 투자자문사 세운다**

- 증권회사로선 처음으로 메리츠증권이 리츠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 설립될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는 리츠의 운용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메리츠증권과 외국계 회사가 지분 40%를 출자하고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가 나머지 지분을 참여할 예정임
-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랩어카운트의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포함시켜 투자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4월 11일 메리츠증권은 자본금 30억원의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감원에 출자 승인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1년 4월 13일 금요일 (1)

○ 현투-AIG 상품 공동 개발

-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투자신탁증권과 미국 AIG사가 상품 공동 개발에 착수했음
  - 두 회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외자유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양사는 협상 타결 발표와 동시에 공동 개발 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들어갈 방침임
- AIG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현대투신증권이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방안과 현대투신운용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펀드를 만든 후 AIG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편입시켜 운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투신권에 골칫거리로 등장한 MMF 단독펀드

- 투신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급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거 신규 설정된 MMF 단독펀드가 투신권의 골칫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금년 들어 신규로 설정된 MMF는 모두 104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기관이 단독으로 가입한 MMF 단독펀드 숫자만 50여개로 펀드 규모만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됨

○ 공무원연금이 85년에 설정한 주식형 펀드 해지

-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에서 기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펀드 설정에 나선 연기금은 많았지만 펀드 해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공무원연금이 85년 초 투신운용사에 4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설정된 이 펀드는 최종적으로 -5%의 원금 손실을 입었으며 해지금액은 61억원임

○ 조흥투신운용 지분 30~40% 해외 매각

- 조흥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흥투신운용의 일부 지분을 해외 금융회사에 팔기로 했으며, 미국계 증권사인 ABN암로를 매각 대행사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매각 지분은 전체의 30~40% 수준이 될 것이며 선진 투자기법 등을 이전받기 위해 자금운용이나 위험관리 등을 인수회사에 맡길 것이라고 언급
- 조흥은행은 조흥투신운용의 해외 매각을 늦어도 6월 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임

♣ 2001년 4월 13일 금요일 (2)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으로 2금융권 지각 변동 예고

- 투신사 및 선물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으로 투신권 등 제 2금융권에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음
- 두 은행 통합 후 자회사인 주은투신운용과 국은투신운용의 통합으로 슈퍼은행에 이은 대형 투신사 출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4월 7일 현재 주은투신 수탁액은 10조5,000억원, 국은투신은 2조6,000억원 수준으로 합하게 되면 13조원이 넘게 됨
- 삼성 (17조2,000억원), 대한 (16조8,000억원), 한국 (16조5,000억원), 현대 (15조9,000억원) 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은행의 막강한 영업력이 집중될 경우 투신시장의 순위 바뀜을 가속화시킬 전망임
- 투신사뿐만 아니라 선물회사 등 두 은행이 자회사로 거느린 제 2금융권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음

○ 연기금 증시 투입에 반대하는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이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반대하고 나섰음
- 자유기업원은 4월 12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로는 증시를 부양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 연기금의 상당 부분이 국공채 매입이나 정부에 대한 융자로 구성돼 있어 이를 주식시장으로 돌린다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
  -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확대할 경우 연기금이 선택한 기업에 정부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기금이 회사 내부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 연기금의 증시 투입 확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률 극대화를 원하는 연금 수령자들의 이해와 상충한다는 주장을 내세움
- 자유기업원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금을 민영화해 미국의 기업연금이나 퇴직금 기금처럼 경쟁적인 환경에서 투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2001년 4월 14일 토요일 (1)

○ 투신사 총수탁액 중 2조원 손실

– 지난 4월 10일 현재 국내 29개 투신사와 3개 종금사의 총수탁액과 펀드 유형별 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총 148조338억원에 총순자산은 146조1,054억원으로 집계돼 원금 1조9,2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에서 6조7,920억원의 원금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채권형, 채권혼합형, MMF에서는 총 4조8,646억원의 수익을 올려 그나마 원금 손실을 벌충한 것으로 집계됨

– 투신상품 유형별 수탁액과 순자산 현황 (4월 10일 기준, 단위: 10억원)

구분	수탁액	순자산	원금 대비
주식형	4,530	3,350	-1,181
혼합형	40,022	34,727	-5,296
주식혼합 채권혼합	18,904 21,118	13,293 21,434	-5,612 316
채권형	63,186	66,539	3,354
MMF	40,296	41,490	1,194
계	148,034	146,105	-1,928

○ 연기금 주식 투자 전면 허용

– 연기금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 금지 조항을 삭제해 증시 투입을 전면 허용하게 됐음

-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기금 자체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음

– 주요 연기금 주식 투자 현황

구분	올해 투자 계획	기투입분
국민연금	직접: 5,000억원 간접: 1조5,000억원	직접: 2,900억원 간접: 1,600억원
사학연금	7,000억원	직접: 2,700억원 간접: 800억원

– 이에 대해 연기금 관계자는 운용 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정부 필요에 따라 손쉽게 주식 투자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어서 기금 가입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

♣ 2001년 4월 14일 토요일 (2)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 연내 도입

– 진념 재경부 장관은 4월 14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근로자 재산증식, 노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를 반드시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8월 중 초안이 나오는 대로 공개청문회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병행해 종업원 주식 소유제 (ESOP)를 활성화해 종업원의 재산증식 및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기업과 직장인에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유상증자 때 우리 사주에 배정토록 돼 있는 신주인수권비율 (현행 20%)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2000년말 현재 종업원 퇴직적립금은 80조원 중 종업원 퇴직보험, 퇴직 일시금 신탁 등에 투입된 15조원을 제외한 65조원이 적당한 투자수단을 찾지 못한 채 기업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의 50%인 최소 40조원 가량이 기업연금에 가입돼 내년부터 이 중 20조원이 증시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2001년 4월 16일 월요일

○ 원금보장형 상품 외국사 벤치마킹

- 투신업계에 따르면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업계가 외국 상품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함
- 주은투신의 경우 대주주인 ING로부터 원금보장형 상품 전문가인 밀렌밸트씨를 초청하여 선진 기법과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간담회를 오는 개최할 예정임
  - 업계에 알려진 ING 원금보장형 상품은 개방형으로 언제든지 펀드 가입과 환매가 가능하며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에 원금보장 수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금융공학 기법을 바탕으로 보험상품과도 연계해 기관 및 개인고객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모 M&A 증권투자회사 운용기관 선정 주춤

-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상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인 사모 M&A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업무의 자산운용사 위탁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기관이면 누구나 운용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업계간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
  - 증권투자회사법 79조 2항에 따르면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사에 의해 위탁해야 한다는 동법 32조 1항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 운용기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M&A 시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 동안에 일반펀드의 운용을 M&A 기관이 맡아야 하며, 투자자문업을 담당하기 위한 투자자문 등록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운용기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운용자는 증권사 M&A팀, M&A 중개회사, 기타 유사금융기관 (창투사, 파이낸스)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달리 운용기관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자산운용사가 운용기관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사항을 의무화시켰다는 비난이 예상됨
  - 자산운용사가 운용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M&A 업무에 대해서는 M&A 기관의 자문 등 업무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주주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품성을 저하시킬 것에 대해 우려
  - 또 자산운용사를 통하게 되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직접 M&A 투자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 운용기관으로 자산운용사를 우선 지정토록 하고 대신 자산운용사는 M&A 기관과 계약을 통해 M&A 부문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중론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4월 17일 화요일 (1)

○ 미국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권 주식 매수 늘릴 듯

–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뮤추얼펀드 중 이머징마켓 펀드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2억9,800만이 늘어났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아시아 퍼시픽 펀드도 같은 기간 $2억100만이 증가했음

- 특히, 아시아퍼시픽 펀드의 지난 한 주 동안 증가액은 아시아퍼시픽 펀드 총자산($36억1,800만)의 5.5%에 달하는 수준임

– 이머징마켓 펀드와 아시아퍼시픽 펀드는 주로 한국, 대만, 홍콩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한국 증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임

○ 4대 연기금 지난 해 2조7,000억원 손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이 지난 해 총 2조 7,403억원의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에서는 우체국보험과 사학연금이 각각 2,542억원과 83억원씩 손실을 입었지만, 4대 연기금 전체로는 2,376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4대 연기금 최근 3년간 운용 실적 (단위: 1억원)

	1998년		1999년		2000년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국민연금 수익금	4,871	425	15,523	1,336	-16,307	-3,662
수익률 (%)	(60.81)	(7.86)	(137.28)	(17.43)	(-52.11)	(-48.18)
우체국보험 수익금		292		668		-3,502
수익률 (%)		(29.2)		(37.8)		(-18.9)
사학연금 수익금	313	-189	999	829	-830	-1,205
수익률 (%)	(60.8)	(-10.9)	(97.7)	(46.1)	(-47.9)	(-33)
공무원연금 수익금	1,235	0	3,464	13	-1,911	14
수익률 (%)	(19.1)	(0)	(125.6)	(1.9)	(-51.5)	(5)

–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보다는 리스크 통제를 통한 펀드수익률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

○ 서울보증보험 투신권에 현금 1조원 지급 예정

– 투신사들이 대우 보증채와 관련하여 4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서 1조원의 현금을 상환받게 돼 투신 유동성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임

-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9일 현물 지원방식으로 투신사에 7,000억원 규모의 예보채를 투신사에 넘기고, 3,000억원은 현금으로 4월 20일 투신사에 지급할 계획이었음

– 투신사들은 그 동안 예보채를 현물로 받으면 금리 급등시 시장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해 현물 인수를 거부해 온 상태임

♣ 2001년 4월 17일 화요일 (2)

○ **금감위 자산운용사 활성화 조치 고려 안해**

– 금감위 관계자는 4월 16일 고사 위기에 직면한 자산운용사의 대책과 관련해 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맡길 것이며 이 가운데서 문닫는 회사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언급함

- 이는 경영이 부실한 일부 자산운용사가 퇴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며, 자산운용사에 대한 활성화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됨

– 국내 자산운용사는 현재 10개사에 이르고 있지만 자산운용 규모가 2조선에 머물고 있으며, 운용자산이 전무한 회사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1)

○ M&A 전용펀드 내주부터 설립 가능

– 재경부는 4월 17일 M&A 전용펀드의 설립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기존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Shadow Voting 조항을 둬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이 같은 조항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적대적 M&A를 허용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르면 M&A 전용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이른바 Green Mail을 막기 위해 M&A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각을 금지하도록 했음
- M&A 전용펀드는 사모 증권투자회사 형태로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구성하되 정관에 M&A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금감원에 설립신고를 해야 함

○ 투신협회, 세계총회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 개최

– 투신협회 세계총회 (IIFC)와 연결된 제 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국가 투자신탁협회 회의가 1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임

– 투신협회는 4월 17일 제 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국가 투자신탁협회 회의가 중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 투신협회 회장 및 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8일 개막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투신산업 관련 제도 변경과 신상품 소개 등 각국의 투신업 동향과 판매망, 수수료 체계, 펀드평가, 유동성 문제 등 투신업의 어려움을 극복한 각국 사례도 아울러 발표될 예정임

○ 현대투신증권의 "퍼펙트 엄브렐러" 소개

– 현대투신증권은 미리 지정한 목표수익률에 따라 하위 펀드간에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퍼펙트 엄브렐러" 펀드를 개발하여 4월 18일부터 발매한다고 4월 17일 발표했음

– 이 펀드는 엄브렐러펀드 속에 6개의 하위 펀드간에 주어진 목표수익률에 따라 수시로 자동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 예컨대, 가입자가 자동전환 목표수익률을 10%로 지정했을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떨어져 주가상승이 예상될 때 MMF에서 주식형으로 자동전환됨

♣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2)

○ **현대건설 출자전환 삐걱**

– 조흥, 한빛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현대건설의 출자전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에 나섰고 투신운용사들도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음

- 조흥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 대상을 담보가 없는 신용채권으로만 한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담보를 많이 잡고 있는 주채권은행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분담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현대건설 채권 5,369억원을 각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19개 투신운용사들은 채권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대건설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임

- 투신사가 보유 중인 현대건설 채권은 대부분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만든 펀드에 편입돼 있어 해당 펀드에 가입된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 이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작업은 개별 채권 금융기관들의 채권신고 부진과 투신운용사들의 반발,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대형은행들의 이의 제기까지 겹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2001년 4월 19일 목요일 (1)

○ 미국 금리 0.5% 전격 인하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하 FRB)가 4월 18일 (현지시간) 0.5%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

• 이에 따라 재할인율은 4.5%에서 4%로, 연방기금 금리는 5%에서 4.5%로 조정됐음

– FRB는 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경제활동을 감내할만한 수준 이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금리를 긴급히 조정한다고 밝힘

– 이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나스닥은 180포인트 이상 폭등세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유럽 증시 역시 미국 금리 인하에 자극받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음

○ 미국식 종업원지주제 (ESOP) 내년 도입

– 종업원들의 퇴직접립금으로 자사주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임

– 재경부는 4월 18일 종업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ESO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해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진념 재경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회사채 복수 신용평가 우대

– 금감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계기로 신용평가 및 정보시장 활성화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신용평가업에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채 복수평가 의무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세일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평가 기업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투신협회에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신용평가회사들이 차별화되고 시장의 압력에 의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음

♣ 2001년 4월 19일 목요일 (2)

○ 서울투신 독자생존 추진

- 산업은행의 산은투신 설립에 따라 정상 자산을 이전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한 후 청산할 예정이었던 서울투신이 산은투신 설립 무산으로 자력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서울투신은 3조원이 넘는 계약형 자산 전체를 신탁회계 아웃소싱을 통해 펀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인력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투입해 운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안정적인 팀제 운용을 확립하는 한편, 추가로 마케팅 인력을 확충하여 판매사 확대와 본격적인 수탁고 증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임
  - 서울투신의 수탁고는 계약 이전이 논의되던 연말의 3조267억원에서 3월말에 3조 1,21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01년 3월말 결산 실적도 35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시현한 상태임

♣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 금융상품 표준약관 인터넷 게시

-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약관을 쉽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 증권, 투신, 보험, 기타 비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www.fss.or.kr)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상품의 약관을 모두 등재할 경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금융권역별 대표상품 (28종)의 표준약관부터 올리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상품의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어 상품약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지난 해 주식 투자 반토막

- 4월 19일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된 '2000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해 주식 직접투자에서 52.11%, 수익증권 투자에서 45.69%, 위탁투자에서 41.87%의 손실을 기록했음
  - 반면, 채권투자는 10.99%, 금전신탁은 10.26%, 단기상품은 6.16%의 수익을 올려 금융부문에서 총 1.83%의 손실을 입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 해 전체적으로는 4.69%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운영위는 이날 올해 총 23조원 투자자금 가운데 금융부문에 11조원, 공공부문에 10조원, 복지부문에 16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음

♣ 2001년 4월 21일 토요일

○ 투신사 신규펀드 올들어 526개

- 국내 28개 투신사들은 올 1~3월 중 총 526개의 펀드를 신규 개발하여 17조8,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됨
  - 이 기간 중 투신사의 수탁액은 17조9,000억원이 늘었는데, 증가분의 99%가 신규펀드를 통해 조성된 것임
- 유형별로는 주식형이 66개 펀드에 4,954억원, 혼합형이 121개 펀드에 1조7,092억원, 채권형이 231개 펀드에 8조5,041억원, MMF 108개 펀드에 7조589억원이 조성되었음
- 투신업계는 기존 중소형 펀드의 통합을 통해 펀드 수를 줄이고 있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기존 펀드 가입을 꺼리고 단독펀드를 고집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빛투신운용의 "원금보전펀드" 소개

- 한빛투신운용은 채권 등에 투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수익을 달성한 경우 초과수익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5년 만기 장기 원금보전형 펀드 상품을 4월 말부터 시판한다고 밝힘
- '한빛희망봉혼합투자신탁'으로 이름 붙여진 이 상품은 국공채에 80%를 편입하되, 이중 60%는 만기 보유를 통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피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분의 2배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임

♣ 2001년 4월 23일 월요일 (1)

○ 투신 사모채권펀드 설정 급증

– 사모채권펀드의 설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채권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4월 20일 현재 투신권 사모채권펀드 수탁고는 총 1조9,667억원으로 삼성, 대한, 제일투신 등을 중심으로 펀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투신업계는 사모사채 투자제한 (3%)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고 있음

- 또한 사모 자사주 펀드의 경우 가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설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금액 한도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모사채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임의로 발행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펀드가 기업이 자금조달용으로 전락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

-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차피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자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사모펀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금감원 역외펀드 전면 조사

– 코스닥 등록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이를 주가 조작과 허위 외자유치 등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음

- 금감원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인 M사는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주)바른손의 주가 조작에 관여하여 시세를 조종해 온 것으로 밝혀짐

–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역외펀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역외펀드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허위 외자유치 행위를 색출할 계획임

- 금감원은 또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도 가려내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징계할 방침임

♣ 2001년 4월 23일 월요일 (2)

○ 연기금 운용 위험 무방비

-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 일로에 있는 반면 연기금 운용은 거의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연기금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지난 8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연평균 주식운용 수익률이 2%를 기록했지만, 99년에는 137.28%, 2000년에는 -52.11% (직접 투자)를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기금은 직·간접 주식투자에서 지난 해 총 2조7,403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주가 급등락에 취약한 운용 실태를 드러내고 있음
- 이는 국내 연기금이 주가지수선물이나 채권선물 등 주가 급등락이나 금리 급변동 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운용인력 1인당 자산 규모는 1조3,383억원 (지난 해 말 기준)으로 24개 투신운용사의 1인당 평균 자산운용 규모인 3,159억원과 7개 자산운용사 평균치인 367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음
  - 우체국보험도 1인당 3조5,860억원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뮤추얼펀드에 자금 지속 유입

- AMG 데이터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공격적 성장형 펀드와 테크 펀드에 지난 한 주 동안 (12~18일) 각각 $6억3천만과 $1억7천만이 순유입됐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지난 주 미국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가 $16억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여 전주의 $36억에 이어 2주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나갔음
  -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는 15주간 연속된 자금 순유입을 멈추고 순유출 ($1억4천만)로 돌아섰음
- 그러나, 아시아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이머징마켓펀드와 아시아퍼시픽펀드에서는 각각 $1억8천만과 $1억4천만이 순유출됐음

♣ 2001년 4월 24일 화요일

○ 현대투신증권 매각 상반기 마무리

– 금감위 관계자는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투신증권의 잠재부실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정부측의 실사는 지난 주 말 끝났으며 이 결과를 AIG측에 통보했다고 밝힘

-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정부측 실사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AIG측 대리인인 영화회계법인이 다시 실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에 따라 현대투신증권의 매각 협상은 AIG측의 실사가 끝나는 5월 중순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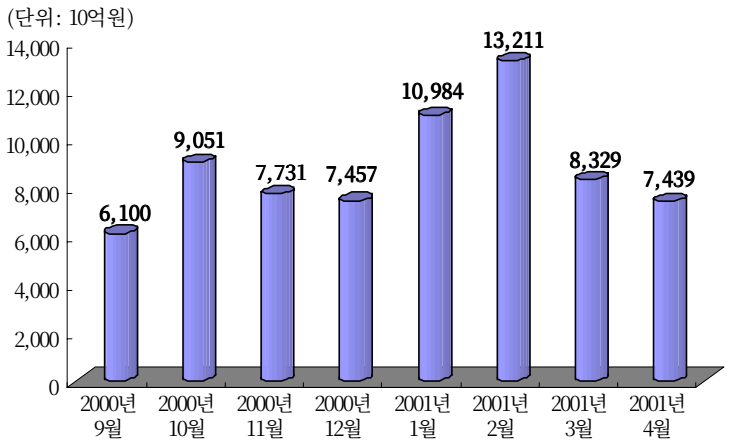
– 금감위 관계자는 잠재부실 규모를 확정하고 나면 정부와 AIG측의 투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항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매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최근 채권 거래 급격히 감소

– 4월 2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4월 중 하루 평균 채권 거래대금은 4월 21일 현재 7조 4,390억원으로 지난 해 9월 (일평균 6조1,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올 1/4분기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인 10조8,411억원에 비해서는 31.4%나 감소한 상태임

– 일평균 거래대금



– 채권시장이 이처럼 위축되고 있는 것은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환율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매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임

♣ 2001년 4월 25일 수요일

○ 서울보증 투신권 대지급 5월로 지연

- 정부가 지난 4월 20일까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대지급키로 한 1조원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5월 중순께나 투입될 전망임
  - 한 투신권 관계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1조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정부는 지난 4월 4일 발표한 증시부양대책에서 4월 9일까지 투신사에 7천억원, 20일까지 3천억원 등 총 1조원을 대지급키로 했었음
- 한편, 투신사들은 정부로부터 1조원을 상환받더라도 지난 3월 27일 제기한 보증채 대지급 청구소송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바이오랜드" 적정 주가 산정 논란

- 한국투자신탁증권과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바이오랜드의 적정 주가를 놓고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을 제시해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음
- 한국투자신탁증권은 바이오랜드의 공모주 청약 마감일인 4월 24일 오전 발표한 기업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10,450원 (액면가 5,000원)으로 제시했음
- 그러나, 불과 12일 전인 4월 12일 한국투신운용은 바이오랜드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2,7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
  - 당시 기관투자가의 가중평균가가 2,86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주 보수적인 수준이었음
  - 4월 24일 적정 주가 제시 당시 한국투자신탁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해 바이오랜드의 주식을 그들이 주장하는 적정주가인 3개월 동안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기관들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부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적정 가격 산정 방식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임

○ 투신권 증시 주도세력 재부상

- 투신권이 오랜만에 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 4월 들어 19일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3,174억원의 순매도를 보였으나, 지난 20일과 23일 이틀 동안 총 2,159억원의 순매수를 보였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23일까지 25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함
- 이 같은 투신사의 주식 매수전략은 장세가 최근 들어 크게 호전됐다는 인식과 2월 이후 매도 우위를 보였던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데다 연기금 투입도 임박해 있다는 점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투신권의 현 투자에 대해서 단기 수급개선에 편승한 소극적인 투자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4월 26일 목요일 (1)

○ M&A펀드 중개업체가 직접 운용

- 4월 25일 재경부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M&A전용 펀드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주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임
  -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회사나 기업인수합병 (M&A) 중개 전문회사들이 M&A전용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운용담당 등기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음
  - 또 M&A전용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에 운용을 맡기지 않고 M&A 중개업체 (부티크)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관계자는 M&A 전용펀드는 1백명 미만이 가입하는 사모펀드이므로 자산운용회사나 투신운용회사에 운용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음
- 투신협회는 M&A 전용펀드를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설립하도록 해 중도환매를 금지키로 하는 등의 표준약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펀드 설립 이후 6개월까지는 증권거래법상의 사모 기준을 준용하여 49명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99명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5월 초부터 M&A 전용펀드가 잇따라 설립될 것으로 전망됨

○ 금감원 상품약관 보고제 도입 후 통제 여전

- 지난 3월 28일 규제 완화와 다양한 투신상품의 개발 촉진을 명분으로 도입된 투신사 상품약관 보고제가 실제로는 과거의 승인제와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개정 규정에는 펀드 판매 전에 사전 보고만 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금감원이 약관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보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
  - 금감원은 투신사가 올린 신규펀드 약관에 대해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는 식의 의견서를 통해 상품개발을 통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만 보고제로 바뀐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고제가 남발될 경우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2001년 4월 26일 목요일 (2)

○ 공모주 배정물량이 적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주 펀드

- 공모주에 자산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모주 투자 비율은 미미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 이는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를 편입하는 공모주형 펀드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개별 펀드별 공모주 배정물량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
  - 올해 공모 기업은 지난 해 150여개에서 100~120개로 줄어들었지만, 공모주 투자펀드는 올해에만 총 8,123억원 (4월 21일 기준)이 신규 판매됐으며 총 시장규모는 1조2,055억원에 이름
- 공모주에 대한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은 전체 공모 주식수의 65%로 구성돼 있음
  - 그러나, 기존 하이일드나 CBO펀드 등 고수익 수익증권에 50%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기타 공모주를 편입하는 투신사 일반 기관분은 15%에 불과한 실정임
- 투신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마다 상품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공모주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공모주 투자 비율을 높이면 예상대로 수익률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함

○ MMF의 잇단 환매로 일부 투신사 유동성 부족 사태 발생

- MMF로 기관투자가들의 환매가 몰리면서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제때 환매자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 투신권 전체적으로 4월 20일 하루 동안 MMF에서 7,034억원, 23일 또 다시 2,271억원대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환매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 이에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투신사들이 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안채 등 MMF에 편입된 채권을 투매하여 최근 금리 상승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MMF 환매가 대거 몰린 투신사들은 채권 매도만으로 환매 자금을 다 채우지 못해 판매사가 미매각 형태로 채권을 떠안고 대신 환매 자금을 기관에 대납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 채권 금리 연일 급등으로 MMF 환매 비상

–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MMF의 환매에 비상이 걸렸음

- 4월 26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18% 급등한 6.93%를 기록하여 작년 12월 2일 (7.0%) 이후 최고치임
- 3년 만기 회사채도 전날보다 0.13% 높은 연 8.17%까지 올랐음

– MMF는 장부가 평가가 기본이지만 장부가와 시가간에 1% 차이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로 투신권 MMF 환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투신사들이 MMF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안증권 매물을 쏟아낸 것이 금리 오름세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음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5월 말부터 부실책임 조사

– 정부는 오는 5월 말 대한생명, 제일·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을 받고 영업중인 2~3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묻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퇴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도 조사를 벌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조사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음

– 영업 중인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규모 (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억원)

금융기관	공적자금 규모	금융기관	공적자금 규모
제일은행	124,678	광주은행	1,704
한빛은행	60,286	제주은행	531
서울은행	46,808	서울보증보험	46,500
조흥은행	27,173	대한생명	38,455
평화은행	4,930	**한국투신**	**30,000**
경남은행	2,590	**대한투신**	**19,000**

– 특히, 대한생명과 서울은행의 경우 매각 이후에는 부실책임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 전에 조사를 벌여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임

♣ 2001년 4월 28일 토요일

○ **실적 배당 "변액보험" 6월에 시판**

–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판될 전망임

– 이와 관련 금감위는 4월 27일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의 판매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발표했음

- 앞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작성과 전산개발을 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는 오는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감위는 변액보험을 우선 종신보험에 적용키로 했으며 펀드의 투자금이 모두 잠식됐을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은 주도록 했음

- 일반계정으로부터 특별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초기 투자자금의 한도를 총 자산의 1%와 1백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음

♣ 2001년 4월 30일 월요일

○ 회사채 발행 크게 줄어

-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회사채 발행시장이 냉각돼 4월 중 회사채 발행 규모가 신용경색이 심했던 지난 연말 수준으로 되돌아갔음
  - 4월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4월 중 발행된 일반 회사채는 13건에 1조3,309억원으로 지난 3월 2조19억원에 비해 33.5%나 감소했음
  - 이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웠던 지난 해 11월의 1조3,420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 BBB 등급 회사채 발행은 더욱 어려워져 4월 중 발행된 BBB 등급 회사채는 4건, 3,200억원으로 지난 달에 비해 58% 감소했고 지난 2월보다는 79%나 줄었음

○ 미국 뮤추얼펀드 3주째 자금 유입

-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3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4월 29일 AMG 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9억6,800만이 순수히 들어오는 등 기술주 등 성장성 위주 펀드에 자금 유입이 가속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을 제외한 한국 등 성장성 높은 외국 지역에 투자하는 인터내셔널 펀드는 $8억4,200만이 순유출됐음
  - 이머징마켓 펀드는 $9,300만이 순유출됐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퍼시픽 펀드에서는 $1,900만이 순수히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됨

○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최근 MMF 인출사태

- 최근 금리 인상으로 투신권의 초단기 상품인 MMF 가입 자금이 대규모로 인출되면서 투신권이 엄청난 자금 부담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지난 4월 27일 현재 MMF 수탁고는 33조8,200억원으로 동월 21일 (40조2,938억원)에 비해 6조4,738억원이 감소했음
-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의 전액 해지 형태로 모두 4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MMF 인출 사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더욱이 이번 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조정 결과에 따라 MMF 인출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5월 May

10대 주요 기사

1. MMF 만기 한도 축소 추진
   (3일, 26일)
2.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선 논의
   (7일)
3.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투신권 분담액 확정
   (8일, 9일, 10일, 29일)
4. 국민연금 6월 6천억원 투신권에 배정
   (11일, 14일, 18일)
5. M&A 펀드 4개 6월 출시
   (12일, 24일)
6. ETF 이르면 내년 초 첫 선
   (17일, 29일)
7. 7월부터 변액보험 판매
   (22일)
8. 금감원 현대건설 회사채 관련 투신사에게 최종안 통보
   (24일, 26일, 30일, 31일)
9. 펀드 불법 거래액 300조원
   (29일)
10. 현대투신증권 추가 부실 규모 7천~8천억원
    (29일)

◈ 5월 목차 (5/1-5/10)

5/1 (화)	부처님 오신 날
5/2 (수)	○ 채권지수로 운용되는 펀드 첫 선 ○ MMF 환매사태 '진정'
5/3 (목)	○ MMF 편입 채권 만기 1년 이내만 허용 ○ 신규 채권형 펀드 관심 고조 ○ 투신사 판매 수수료 체계 개선 건의 ○ 리젠트 자산운용사 청산 결정 ○ 한강 구조조정펀드 부분 환매 추진
5/4 (금)	○ 3개 증시 통합 방안 모색 ○ 하이닉스 (전 현대전자) 지원 방안을 두고 은행과 투신권 충돌 ○ 대투 56억원, 한투 28억원 흑자 ○ 투신 코스닥펀드 대박잔치
5/5 (토)	어린이 날
5/6 (일)	
5/7 (월)	○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선 논의 ○ 중·소형 투신사 약진 ○ 넷티즌 펀드 인기
5/8 (화)	○ 하이닉스반도체 (전 현대전자) 채무 재조정 확정 ○ 사모 M&A 펀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외수펀드 올들어 첫 설정
5/9 (수)	○ 투신 펀드에 주식 등 현물 납입 허용 ○ 현대투신증권 외수펀드 $1,000만 추가 유치 ○ 시중 부동자금 투신서 은행으로 ○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상환기간 논란
5/10 (목)	○ 투신권 하이닉스 지원 최종 합의 ○ M&A 펀드도 프리코스닥 주식 지분 5% 이상시 신고 의무화

◈ 5월 목차 (5/11-5/20)

5/11 (금)	○ 국민연금 1조5천억원 펀드 배정 착수 ○ 외수펀드 설정 봇물 ○ 하반기 회사채 만기 물량 급증 ○ 현투증권 2000 회계연도 부실 최대 반영
5/12 (토)	○ 신협 단위조합 자기자본 한도 주식 간접투자 가능 ○ 비상장 채권 평가시 두 가지 이상 가격정보 이용 ○ M&A 사모펀드 이 달 첫 선
5/13 (일)	
5/14 (월)	○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실적 상승세 ○ 국민연금 공격적 투자 나선다
5/15 (화)	○ 현대건설 투신권 출자전환 문제 회사채 만기 연장으로 해결될 듯 ○ 코스닥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 이름에 'MF' 병기 ○ 대형 증권사 채권시장에서 약세
5/16 (수)	○ 현대건설 회사채 출자전환 놓고 채권단-투신권 대립 ○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사 코스닥 50 인덱스 펀드 등장
5/17 (목)	○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국내 투신사 연내 설립 ○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인 크레디 아그리콜이 국내 투신시장 진출 예정 ○ 삼성투신운용 ETF 추진
5/18 (금)	○ 국민연금 내달 6천억원 투신권에 배정
5/19 (토)	○ 제 2금융권 중장기 발전 모델 개발 착수
5/20 (일)	

◈ 5월 목차 (5/21-5/31)

5/21 (월)	○ 다양한 인덱스펀드 본격 출시
5/22 (화)	○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 시티그룹 가장 선호 ○ 주은 투신 '월드컵 펀드' 판매 ○ 삼성·교보·푸르덴셜 생명 7월부터 변액보험 판매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5/23 (수)	○ 미국 뮤추얼펀드 자금 유입 급증 ○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주식신탁
5/24 (목)	○ 해외 대형 투신사 몰려온다 ○ M&A 펀드 4개 6월 출시 ○ 현대건설 사채 1조2천억원 투신권에 인수 요청
5/25 (금)	○ 국민연금 자문계약의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 전개 ○ 연기금 맞춤형 펀드 붐 ○ 금융상품을 독자개발한 투신사에 대해 배타적 우선 판매권 허용
5/26 (토)	○ MMF 만기 한도 축소 추진 ○ 현대건설 회사채 인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투신권
5/27 (일)	
5/28 (월)	○ 채권 평가 비용 펀드에서 부담 ○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53억 순유입
5/29 (화)	○ ETF (Exchange-Traded Funds) 이르면 내년 초 첫 선 ○ sector 뮤추얼펀드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 ○ 하이닉스반도체 투신권 분담액 확정 ○ 현대투신증권 추가 부실 규모 7천억원~8천억원 ○ 펀드 불법 거래액 300조원
5/30 (수)	○ 투신사 주식 순매수 본격화 ○ 투신권 현대건설 회사채에 대한 원칙적 합의 ○ FRN 전용펀드의 소개
5/31 (목)	○ 금감원은 현대건설 회사채 관련 투신사에게 최종안 통보 ○ 사모 M&A 펀드 성공 보수 금지에 대한 M&A 전문회사들의 반발 ○ 조흥투신 해외 매각 본격화

♣ 2001년 5월 2일 수요일

○ **채권지수로 운용되는 펀드 첫 선**

– 채권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펀드를 운용하는 채권 인덱스펀드가 국내에서도 선을 보일 예정임

– 동원BNP투신은 5월 1일 국내 첫 채권 인덱스펀드인 '초이스업 인덱스 채권투자신탁'을 5월 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힘

- 이 펀드는 채권 시가평가 기관인 KIS 채권평가가 개발한 채권지수인 KOBI30을 기준으로 펀드내 보유 채권과 편입비율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KOBI30은 국내 8천여개 채권 중 최우량 채권인 국고채, 통안증권, 산금채 등 30개 종목을 골라 유동성, 발행잔액, 만기 등을 가중평균해 지수화한 것임

– 채권 인덱스펀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금리 상황에서도 최소한 시장 수익률 만큼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음

- 또, 급격한 금리 변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 기능까지 갖춘 것도 있음

○ **MMF 환매사태 '진정'**

– 금리가 연 이틀 하락하고 월 말 자금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투신권 초단기 상품인 MMF 환매 문제가 일단락되고 있음

- 4월 말 계절적 자금 수요 (부가세 4조3,000억원, 12월 말 결산기업 법인세 3조원)가 해소되고, 연기금의 MMF 환매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임

– 투신권 관계자들은 MMF 가입 고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들과 투신사들이 환매 문제를 둘러싸고 원만하게 협조함에 따라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고 언급

– 연기금 관계자들은 가입한 MMF가 단독펀드이기 때문에 편입 채권의 만기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했으며, 이로 인해 시가평가시 괴리율이 0.1%~0.2%에 불과하므로 환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2001년 5월 3일 목요일 (1)

○ MMF 편입 채권 만기 1년 이내만 허용

– 금감위는 5월 2일 MMF에 대한 환매 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채권시장이 크게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5월 중 시행할 방침임

- 이에 따르면 MMF의 성격에 맞게 편입 채권의 만기가 현재 2년 내에서 1년 내로 줄어들게 됨
- 또, 현재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1%일 경우에만 시가평가를 하도록 했으나, 우선 0.75%로 축소하고 6개월 후에는 이를 0.5%로 더욱 좁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위는 이와 함께 MMF의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부분적인 환매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투신사별로 MMF 수탁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신규 채권형 펀드 관심 고조

– 최근에 새로 설정됐거나 설정될 채권형 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음

– 기존 채권형 펀드들이 과거 금리 급변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채를 매입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평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신규 설정된 채권형 펀드들은 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새롭게 펀드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특히, 최근에 설정된 채권형 펀드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한편, 공모주 청약에 일정 부분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투신사 판매 수수료 체계 개선 건의

– 투신사들이 한 펀드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구조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체계의 허용을 금융 당국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음

- 이는 최근 연기금, 정통부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운용보수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운용사들이 손익분기점 이하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
-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 보수를 유지하는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업계가 요구한 사항은 평잔 판매보수, 선후취 판매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의 허용 및 판매회사별, 투자금액별 수수료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 그러나, 자칫 보수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총보수 상한선 및 각 보수별 상한선 설정을 제시했음

– 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통해 각 사별로 판매 및 환매수수료 등 운용자산 및 영업전략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음

♣ 2001년 5월 3일 목요일 (2)

○ **리젠트 자산운용사 청산 결정**

– 지난 해 주가조작 등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진승현 사건"으로 영업이 위축된 리젠트 그룹 계열의 리젠트 자산운용이 결국 문을 닫게 됨

• 리젠트 자산운용은 5월 2일 곧 금감원에 자산운용회사 등록증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한강 구조조정펀드 부분 환매 추진**

– 한강 구조조정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스커더캠퍼사의 관계자는 주당 순자산가치와 실제 주가와의 괴리가 커 주식의 일부를 주당 순자산가격으로 매입하는 부분 환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부분 환매는 펀드가 총주식 가운데 일정 비율만큼을 특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치로 되사들이는 것으로 주가가 순자산가치를 크게 밑돌 경우 할인율을 축소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높여 투자자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됨

– 지난 3월 말까지는 배당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9월 말 반기결산까지는 적정한 수준의 연간 배당수익률을 내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01년 5월 4일 금요일 (1)

○ 3개 증시 통합 방안 모색

-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5월 3일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3개 증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증시가 통합돼 경쟁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증시는 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등으로 분리돼 시장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고 언급
  - 증시가 제 각각 설치 운영됨으로써 IT 투자가 중복되고 투자자들이 함께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증권연구원에서 증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아울러, 증시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증권거래 국제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증시 진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하이닉스 (전 현대전자) 지원 방안을 두고 은행과 투신권 충돌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 지원이 투신사 참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음
- 5월 3일 17개 채권은행들은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인 하이닉스반도체에 외화 대출 등 총 1조8천억원의 여신을 1~2년간 연장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임
  - 그러나, 투신사들이 올 하반기 중 7,600억원어치의 회사채 신규 인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채권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니 투신사가 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하며, 하반기 회사채 신속인수로 투신사들이 상환받는 1조5천억원 중 그 절반에 대해 하이닉스 회사채를 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기업 지원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고객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7,600억원의 하이닉스 회사채 인수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대투 56억원, 한투 28억원 흑자

-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이 2000 회계연도 (2000.4.1~2001.3.31)에서 각각 28억원과 56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비상장 증권사의 실적이 지난 해보다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99 회계연도에 대규모 부실 반영으로 3조6,398억원의 적자를 냈던 한투증권은 지난 해 2,46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대우담보 CP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외이익을 올려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힘

♣ 2001년 5월 4일 금요일 (2)

○ **투신 코스닥펀드 대박잔치**

– 투신권의 코스닥펀드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음

- 올들어 지난 4개월간 수익률이 30~40%에 이르는가 하면 무려 60% 이상의 수익을 낸 펀드도 나왔음
- 코스닥펀드란 주식 편입비율을 보통 20~80%로 조절할 수 있고 보유 주식 중 50% 이상을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임
-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부는 등록전 주식 (프리코스닥 종목)에 투자하기도 하고 공모주에 투자하기도 함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5월 3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규모 50억원) 코스닥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는 6개 회사로 펀드 수는 30개에 달함

– 관련 펀드매니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코스닥 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려 연초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냈으며, 지난 2~3월 일부 주식을 처분했으나 최근 들어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임

♣ 2001년 5월 7일 월요일 (1)

○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선 논의

- 정부의 각종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퇴직금 미적립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퇴직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21만여개 업체 570여만명 (취업자의 30.1%)으로 추정되며, 기업체 기준으로 8~16%, 대상 노동자 기준으로 10% 안팎의 퇴직금만 사외에 적립돼 있는 상태임
  - 금감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사외적립액이 종업원 퇴직보험 6조 2,308억원, 퇴직보험 8조3,547억원, 퇴직신탁 1조379억원 등 15조6,200억원임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면 83조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이 무려 68조원의 차이가 발생함
- 정부는 내년부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증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임
  -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외적립은 적극 찬성하지만 사외적립 방안 가운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만을 거론하는 정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
  - 재계는 향후 도입될 퇴직금 제도에 대해 퇴직금 요율을 내리거나 국민연금과 합쳐 운영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
-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사외적립 방안을 다양화한 뒤 세제혜택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신규 및 희망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주장
  - 아울러, 우선 부도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노동자를 고려해서라도 일단 노·사·정이 퇴직금 문제를 진지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임

○ 중·소형 투신사 약진

- 올 들어 투신업계에서 아이투신과 미래에셋투신 등 중·소형 투신운용사의 수탁액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수탁액 (신탁형 제외)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아이투신이 지난 해 말 244억원에서 2,586억원으로 1060% 신장했으며, 미래에셋투신도 3,451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 259%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증감 규모에서는 제일투신이 전년 대비 1조2,6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조흥과 미래에셋투신이 각각 9,006억원과 8,951억원으로 뒤를 이었음
- 반면, 대형 3투신운용사의 경우 한국투신이 3,166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한과 현대투신이 각각 1조7,284억원과 2,593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5월 7일 월요일 (2)

○ 넷티즌 펀드 인기

–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네티즌 펀드가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인기임

- 네티즌 펀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수익률에 따라 이익금을 나눠주고 있음

– 네티즌 펀드는 주식, 부동산 등 기존 재테크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친구' 등 대박영화가 잇따르면서 투자회수도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신형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고 참가자라는 명분으로 만족했던 초기 투자자들과 달리 최근에는 전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편임
- 화제작의 경우 투자금액 상위 5%가 전체 투자금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1억원 공모가 1분만에 완료된 영화 '친구'는 상영 이틀 만에 투자비를 회수했고 개봉 38일 만에 전국에서 600만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현재 잠정 수익률은 2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짐

– 이같이 신형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네티즌 펀드는 주요 투자자나 제작사 쪽에서는 영화 상영 전 일반인의 관심을 모아 예비 관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음

- 최근에는 공모 금액도 4억원까지 늘고 있으며 심마니, 인츠필름, 구스닥, 문화거래소지팬, 엔터스탁, 한스붐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음

♣ 2001년 5월 8일 화요일 (1)

○ 하이닉스반도체 (전 현대전자) 채무 재조정 확정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5조1천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5월 14일께 $13억7천만 규모의 외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에 나설 계획임
  - 투신권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6,8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결의했으며, 이 중 6천억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로, 나머지 8백억원은 무보증채로 각각 인수하게 됐음
-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신디케이트론 8천억원, 일반성 대출 580억원, 외화 대출금 및 시설자금 1조6백억원 등 모두 1조9,180억원의 대출금을 만기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음

○ 사모 M&A 펀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5월 7일 금감원은 사모 M&A 펀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상품의 형태는 폐쇄형으로 최소 펀드 존속기간은 1년임
- 펀드 이사회가 선정한 운영이사가 직접 운용 가능하며, 투자일임사,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에 한해서 위탁운용 가능
  - 개인 또는 투자일임 자격이 없는 법인이 펀드 설립에 참여할 경우 개인의 경우 당해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이사로 참여 의무화
-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관련 편입 유가증권에 대해 5% 이상 보유시 및 5% 초과 1% 변동시 보고 의무화
  -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균등한 M&A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식관련 편입 유가증권 5% 보고 시점에서 단순 투자 목적과 M&A 목적으로 구분하고 M&A 목적 주식의 경우 취득 후 6월 이내 매도 금지
  - 투자 대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유동자산으로 운용 가능
- 판매 위탁을 의무화했으며, 판매사에서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한정했음
  - 이후 주식 장외 양도 등을 통해 펀드내 투자자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확인을 통해 100인 미만으로 관리를 의무화했음
- 소수의 출자자에서 출발한다는 점 및 고위험 고수익 추구 성향을 감안하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자율 결정에 맡겼음
- M&A 목적 달성 또는 실패시 펀드 청산의 원활화 및 시장교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산시 현금 또는 현물 지급 가능

♣ 2001년 5월 8일 화요일(2)

○ **외수펀드 올들어 첫 설정**

– 증시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국내 투신사의 외국인 투자자용 펀드인 외수펀드가 올들어 처음으로 설정됐음

- 한국투자신탁증권은 5월 7일 총 $2억5천만 규모의 신규 사모 외수펀드인 '한국 21세기 투자신탁'을 설정했다고 밝힘
- 신규 펀드는 신탁자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신탁기간은 10년이며, 수탁회사는 외환은행임

– 외수펀드는 외국인들이 국내 투신사를 통해 증시에 투자하는 간접상품으로 SK텔레콤, 담배인삼공사 등 외국인 보유 한도의 제한을 받는 종목에 추가 투자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2001년 5월 9일 수요일 (1)

○ 투신 펀드에 주식 등 현물 납입 허용

- 투신운용사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 유가증권을 받아 펀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감원 관계자는 5월 8일 투신운용사들도 은행의 금전신탁처럼 유가증권 현물을 납입해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금감원은 유가증권의 현물 납입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실시한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투신운용사에 대해 현물 유가증권으로 구성된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
- 이로 인해 연기금, 기관투자가, 개인 등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투신사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어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투신협회 관계자는 납입 유가증권에 대한 가격 평가기준,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한 과대평가 방지 해소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 현대투신증권 외수펀드 $1,000만 추가 유치

- 현대투신증권은 외국인 전용 외수펀드인 '현대 리버티에쿼티펀드'에 $1,000만 (약 130억원)에 투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5월 8일 발표
  - 이 펀드는 지난 해 9월 20일 설정됐으며,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임
  - 주로 미국계 기관투자가가 투자하고 있으며, $1,000만 추가 입금으로 펀드 규모는 511억원으로 증가

○ 시중 부동자금 투신서 은행으로

- 지난 달 시중 부동자금이 투신운용사에서 은행 쪽으로 많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5월 8일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수신고는 전월비 12조9,178억원이 줄어든 반면, 은행의 수신고 (은행신탁 제외)는 8조4,52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지난 달 채권시장이 불안해지자 투자자들이 실적배당 상품에서 돈을 빼내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에 많이 예치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지난 달 은행 예금 동향을 살펴보면,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예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5월 9일 수요일 (2)

○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상환기간 논란

- 하이닉스반도체를 위해 6,800억원의 회사채 인수를 결정한 투신권은 회사채 상환 기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투신권은 일단 6,800억원의 회사채를 1년 만기로 발행 및 인수하고 다시 만기가 돌아오면 재연장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외국인 주주들은 상환 조건을 3년 만기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투신권 관계자는 회사채 만기를 1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투신권이 판매 중인 MMF나 하이일드펀드 등 주력 상품으로의 편입이 어렵고 일부 투신사는 유동성 부족마저 예상된다고 지적
  - 반면 외국 기관들은 하이닉스가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도 위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1년보다는 3년 등 장기로 회사채를 발행 및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
- 은행 채권단들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영 상황을 감안할 때 1년 연장은 효과가 없다며 외국인 주주측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상태임

♣ 2001년 5월 10일 목요일

○ 투신권 하이닉스 지원 최종 합의

– 투신사들이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800억원 규모의 하이닉스반도체 (전 현대전자) 회사채를 3년 만기 조건에 인수키로 최종 결정했음

- 아울러 투신사들이 인수해 주는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의 만기를 3년으로 하고 6,800억원 중 6,000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붙인다는데 합의했음
-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투신사들의 회사채 인수 분담 기준과 분담액을 결정하지 못했음

○ M&A 펀드도 프리코스닥 주식 지분 5% 이상시 신고 의무화

– 금감원은 사모 M&A 펀드가 투자하는 프리코스닥 등 비상장, 비등록 주식도 펀드에서 5% 이상 보유시 지분 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법적으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 rule)가 없지만, 사모 M&A 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힘

– 이로 인해 사모 M&A 펀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5% 이상 매입하게 되면 금감원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제출해 취득 목적이 M&A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 밝혀야 함

♣ 2001년 5월 11일 금요일 (1)

○ **국민연금 1조5천억원 펀드 배정 착수**

– 국민연금이 최대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일임자문 운용 형태로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외주를 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5월 10일 3개 펀드평가 기관과 함께 위탁 투자분을 펀드 상품별로 배정한다는 전략적 논의를 마치고 기본 계획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힘
- 지난 해 2,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자금을 삼성투신 등 투신사에 일임자문 형태로 위탁했지만 이미 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외국인을 제외하면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자금 유입은 대형 호재로 평가됨

- 한편 국민연금이 올해 증시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은 총 2조9,000억원 (1조5,000억원 포함)으로 5월 10일 현재 4,900억원 (간접투자 1,600억원, 직접투자 3,300억원)을 투입한 상태임

○ **외수펀드 설정 봇물**

–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면서 외수펀드 설정이 잇따르고 있음

– 5월 10일 대투증권의 경우 지난 해 4월 설정된 사모 외수펀드인 '대한 언더밸류 에쿼티 투자신탁 (이하 DEUT)'에 미국계 기관투자가로부터 $2천만 (약 260억원)을 추가 유치했다고 밝힘

- DEUT는 신탁자산의 70% 이상을 주식과 주식 연계증권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주로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등 핵심 블루칩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동월 7일과 8일에 한투증권 및 현투증권의 경우도 각각 $2,500만, $1,000만를 추가 유치한 바 있음

○ **하반기 회사채 만기 물량 급증**

– 회사채 만기 물량이 하반기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는데다 투신권의 CBO펀드의 만기도 돌아와 금융시장 경색이 우려되고 있음

– 5월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월별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5월 1조7,057억원, 6월 1조7,794억원, 7월 2조5,525억원, 8월 4조9,153억원, 9월 4조1,985억원, 10월 7조4,473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중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재연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고 밝힘

♣ 2001년 5월 11일 금요일 (2)

○ **현투증권 2000 회계연도 부실 최대 반영**

- 외자유치를 위해 AIG의 실사를 받고 있는 현투증권이 2000 회계연도 (2000.4.1~2001.3.31) 순손실 규모는 1,6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됨
- 현투증권과 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해 발생한 잠재부실을 반영해 손실 규모를 이같이 정하고 조만간 확정치를 담은 결산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키로 했음
- 현대투신은 AIG의 실사를 의식해 신탁재산의 부실 등을 최대한 결산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올 회계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5월 12일 토요일

○ 신협 단위조합 자기자본 한도 주식 간접투자 가능

-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주식 간접투자가 가능해 짐
- 금감위는 5월 11일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의 동일한 대출 한도 및 위험자산 운용한도와 관련해 자산건전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음
  - 의결안에 따르면 신협의 단위조합들은 앞으로는 주식 편입비율이 30% 이내인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해 짐
  - 이전에는 전년도 말 여유자금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했음

○ 비상장 채권 평가시 두 가지 이상 가격정보 이용

- 금감위는 5월 11일 투신사들이 비상장채권을 평가할 때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과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등 두 가지 이상의 가격정보를 이용해 평가하도록 할 방침임
  -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 투신사가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기준수익률만 기준으로 삼아 비상장 채권의 가격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특히, 증권업협회가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의 경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한 상태였음

○ M&A 사모펀드 이 달 첫 선

- 금감원은 5월 11일 현재 인터바인 M&A와 비젼케이 기업구조조정전문 등 2개 M&A 중개기관이 참여하는 3개의 사모 M&A 증권투자회사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음
  - 인터바인 M&A는 인터바인 M&A 전용펀드 1호를 등록 신청했으며, 비젼케이 기업구조조정전문은 이산 플러스 1호와 2호 펀드를 등록 신청한 상태임
-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 등 등록심사를 마친 후 5월 안에 등록해 줄 예정이며 등록 다음 날부터 판매증권사들이 펀드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힘

♣ 2001년 5월 14일 월요일

○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실적 상승세

– 5월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8개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실적은 4월 말 현재 총 8조 7,077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 해 말 총 7조6,125억원에 비해 1조952억원 늘어난 것으로 14.4%의 증가세를 보였음
- 같은 기간 투신권 판매 증가액 4조9,480억원의 20% 이상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으로 투신권 전체 판매 증가율이 3.7%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높은 증가율임

– 은행별 투신상품 판매실적 (단위: 1억원)

은행	판매금액
조흥	11,207
한빛	71
외환	1,271
국민	16,837
주택	52,422
신한	2,020
하나	2,687
서울	562
합계	87,077

– 은행 관계자는 1999년 이래 각 은행이 추진해 왔던 업무 범위 확대 노력이 투신상품 판매 분야에서 먼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힘

○ 국민연금 공격적 투자 나선다

– 국민연금이 공격적인 투자 원칙을 세우고 6월에 1조원 가량을 증시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힘빠진 증시에 수급 차원 이상의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임자문형에 자금을 위탁할 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률과 연동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소형주에도 투자하는 등 운용 원칙을 크게 바꿨음

- 자금 투입 시기, 액수 등을 늦어도 5월 말까지 확정한 뒤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측은 외부 운용사에 자금을 맡길 때 최소한의 기본 보수만을 제공한 뒤 6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측정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수수료를 낼 계획임

– 이로 인해 운용사들은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기관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됨

♣ 2001년 5월 15일 화요일

○ **현대건설 투신권 출자전환 문제 회사채 만기 연장으로 해결될 듯**

– 현대건설 채권은행은 투신권이 출자전환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대건설 회사채 보유분에 대해 만기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임

- 이에 대해 투신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투신권의 현대건설 지원책으로 회사채 만기 연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아울러 채권은행들은 투신권에 대해 금리 조건을 낮춰서 보유 회사채를 만기 연장해 줌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코스닥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 이름에 'MF' 병기**

– 코드닥시장은 5월 16일부터 코스닥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에 반드시 'MF'라는 문자를 병기하도록 했다고 밝힘

- 따라서, 앞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가 일반 종목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

○ **대형 증권사 채권시장에서 약세**

– 현대, 대우, 대신, 삼성증권 등 4대 대형 증권사의 장외 채권 매매액은 전체 채권시장의 8% (3월 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채권시장의 98%를 차지하는 장외 채권시장 규모가 220조원 (3월 말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4대 대형 증권사의 월평균 채권 매매 실적은 18조원에 못 미치는 실정임
-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시장을 독점하던 것과는 대조적임

– 반면, 신흥, 하나, 부국, 신한, 키움닷컴 증권 등 5개 중소형 증권사의 채권 장외거래는 전체의 34.1% (3월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 현대건설 회사채 출자전환 놓고 채권단-투신권 대립

- 현대건설 채권단은 투신권이 보유한 현대건설 회사채 5,400억원 중 2,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6월 말로 예정된 유상증자 물량 7,500억원 중 1,500억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반면, 투신권은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회사채 보증을 선다는 조건하에 만기 연장할 수 있다는 자세
- 채권단은 대안으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버금가는 손실 부담을 위해 회사채 5,400억원의 금리를 현재 12%에서 3.2%로 낮춰 3년 만기로 차환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투신권은 금리를 낮출 경우 고객 자산에 직접적인 이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사 코스닥 50 인덱스 펀드 등장

-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사는 5월 15일 코스닥 50 지수 종목의 편입 비중을 최소 9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인 '마이다스 코스닥 50' 인덱스 펀드를 오는 5월 21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코스닥 50 인덱스 펀드는 코스닥 50 구성 종목을 구성 비율에 따라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성 비율이 극히 낮거나 부도 위험이 높은 종목은 편입을 배제할 계획임
  - 선물을 적극 활용해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며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이버 주문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2001년 5월 17일 목요일

○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국내 투신사 연내 설립

- 자산 규모 $1조 (약 1,300조원)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에 투신사를 설립할 예정임
- 피델리티의 브레트 구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은 6~12개월 안에 한국에 투신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 5~10년 안에 한국 투신업계 상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피델리티는 1969년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지난 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음
- 구딘 사장은 한국에는 은행, 보험에 돈을 맡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펀드 투자자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언급

○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인 크레디 아그리콜이 국내 투신시장 진출 예정

- 프랑스 최대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 금융그룹이 금명간 금감원에 증권투자회사를 등록한 뒤 본격적으로 국내 투신시장에 뛰어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국내에 이미 크레디 아그리콜 엥도수에즈 은행과 W.I카증권 서울지점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아그리콜 그룹은 1,6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 10대 은행임
  - 아그리콜 투신사 (전 인도캠 투신사)는 현재 2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회사의 관계자는 지난 해 말 아그리콜 자회사인 투신사의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사업 활동 계획을 구상해 왔으며,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을 마친 뒤 투신사 설립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삼성투신운용 ETF 추진

- 삼성투신운용은 ETF (Exchange-Traded Funds) 도입을 위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상품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친 상태임
  -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 시장에서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이미 해외시장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음
- ETF가 활성화되면 인덱스펀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증시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투자자들도 분산투자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임

♣ 2001년 5월 18일 금요일

○ 국민연금 내달 6천억원 투신권에 배정

– 국민연금은 5월 17일 '2001년도 외부 위탁투자 사업설명회'에서 오는 6월에 인덱스 운용형에 1,800억원, 순수 주식형에 4,2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운용사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총 1조5,000억원의 위탁자금 중 올해 1·2차로 각각 6,000억원씩 국내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배분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해외투자나 벤처투자 등 대체투자에 사용할 예정임

- 1차 위탁투자를 위해 5월 24일까지 국민연금은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6월에 인덱스형 3개사, 순수 주식형 10개사 등 13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게 됨
- 하반기 투입 예정인 2차분 6,000억원은 순수 주식형에 3,000억원, 자산배분형에 1,200억원, 중소형주형에 1,800억원이 각각 배분됨

– 국민연금 위탁 운용방식

구 분	운용방식	벤치마크	총 주식 편입비	비고
소극적 운용	인덱스 운용형	KOSPI 200	90% 이상 (현물+선물)	파생상품 사용가
적극적 운용	자산배분형	종합주가지수	60% 이상 (현물+선물)	파생상품 사용가 (헤지 거래시만) – NAV의 20% 이내
	순수 주식형	종합주가지수	90% 이상	파생상품 사용 금지
	스타일 운용형 (중소형주형)	증권거래소 중소형주 지수	90% 이상	파생상품 사용 금지

♣ 2001년 5월 19일 토요일

○ **제 2금융권 중장기 발전 모델 개발 착수**

– 정부가 증권, 투신, 보험 등 제 2금융권 산업에 대한 종합 발전 모델 개발에 나섰음

- 이는 부실정리 위주 구조조정 이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대통합과 자유경쟁, 진·출입 자유화, 수익기반 강화,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감위는 이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3개 금융권역별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음

- 증권의 경우 복수거래소 경쟁체제를 위해 거래소 법정주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배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거래소를 회원제에서 주식회사제로 전환하며,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식 통합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보험의 경우 생·손보 겸영의 효과, 겸영의 허용여부 및 시기에 관한 연구와 생보사 상장 방안, 그리고, 시장 진입·퇴출과 보험권의 업무영역 조정 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투신을 포함한 이른바 간접투자 산업의 발전 모델 개발 작업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금융팀이 주축이 되어 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음

- 여기에는 한국·대한투신증권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과 현대투신증권의 해외매각 이후 국내 투신회사의 경쟁력 확보 전략과 함께 공동 상품 개발과 정보기술 (IT)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3개 증권시장의 지주회사 통합방안과 관련하여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지만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2001년 5월 21일 월요일

○ 다양한 인덱스펀드 본격 출시

– 투신사들이 주가지수나 채권지수를 펀드 운용의 잣대로 삼는 인덱스펀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이는 증시 호전 분위기에 맞춰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

– 최근 선보인 주요 인덱스펀드

펀드 명	운용사	주 편입 종목	판매사
A-클럽 코스피 주식투자신탁	한국투신운용	거래소 상장업체	한국투자신탁증권
A-클럽 코스피 주식투자신탁	한국투신운용	코스닥 등록업체	한국투자신탁증권
마이다스 코스닥 50 인덱스펀드	마이다스 자산운용	한통 프리텔, 국민카드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삼성증권
삼성 KOBI 30 채권 인덱스펀드	삼성투신운용	KIS 채권평가의 KOBI 30 대상종목	삼성증권 등
신영 인덱스 채권형 펀드	신영투신운용	KIS 채권평가의 KOBI 30 대상종목	신영증권, 교보증권

– 최근 채권형 인덱스펀드의 발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동원BNP투신 이후, 삼성투신도 5월 22일부터 '삼성 KOBI 30 채권 인덱스펀드'를 발매할 예정임

♣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1)

○ 미국 뮤추얼펀드 투자 시티그룹 가장 선호

- 미국 펀드평가회사인 모닝스타는 지난 해 말 현재 평가 대상에 포함된 3,800개 미국 펀드 중 약 24% (926개)가 시티그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힘
  - 펀드매니저들은 시티그룹의 높은 수익성,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 회사 규모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해는 전년보다 25%가 늘어난 $141억의 기록적인 수익을 올림
  - 903개 펀드가 보유한 시스코시스템즈가 2위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으며,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는 5위를 기록했음
- 하지만, 투자 규모면에서는 GE가 $430억으로 최대인 반면,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액은 $360억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 주은투신 '월드컵펀드' 판매

-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 월드컵 스폰서 종목 중심의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월드컵펀드'가 등장할 예정임
- 주은투신운용은 5월 21일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주택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월드컵 2002 혼합투자 신탁상품을 개발해 금감원 허가를 받는대로 6월 초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이 펀드는 한국통신, 현대자동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택은행 등의 국내 월드컵 스폰서와 후지필름, 맥도날드, 마스터카드, 아디다스, 코카콜라, 질레트 등 미국 후원사들에 대해 운용자산의 30% 이상을 집중 투자할 예정임
  - 따라서, 한국은 물론 해외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는 이른바 글로벌 펀드이며,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도 70%까지 투자할 방침

○ 삼성·교보·푸르덴셜 생명 7월부터 변액보험 판매

- 삼성·교보·푸르덴셜생명 3사만이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변액보험 시판 일정에 맞춰 판매에 나설 전망임
  - 이를 위해 3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상품개발과 판매 교육 등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임
  - 3사는 6월 말 금감원에 변액보험 인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신상품을 출시할 것을 보임
- 그러나, 나머지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의 판매 시기를 다소 늦춰 잡거나 아예 준비 작업을 보류 중인 상태임
  - 이들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시스템 개발 미흡, 변액보험 상품의 경쟁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변액보험 판매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계획임

♣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2)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 김대중 대통령은 5월 21일 연기금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 투자 전용펀드의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언급

  • 김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세원텔레콤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한 뒤 정부는 벤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이같이 밝힘

– 벤처기업이 수출 주력부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건전성 제고 시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IT와 BT 등 첨단 분야의 우수 기술 보유 벤처기업을 발굴해 회계와 법률 마케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2001년 5월 23일 수요일

○ 미국 뮤추얼펀드 자금 유입 급증

– 현대증권은 5월 22일 전 세계 뮤추얼펀드 동향을 제공하는 트리탭스를 인용하며, 지난 5월 17일까지 3영업일간 미국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57억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밝힘

  • 이로써, 외국인 투자가는 뮤추얼펀드 투자 자금 유입 급증을 통해 신규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현대증권은 지난 주 미국 내 투자펀드보다는 인터내셔널 제반 펀드들의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져 한국 시장에서 신규 자금 유입의 수혜와 신흥시장 내 포트폴리오 상의 자산배분 변경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한국이 이머징마켓에서 투자 유망 국가로 부상하며 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몰려들고 있다고 밝힘

○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주식신탁

–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지난 해 판매한 근로자주식신탁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

  • 5월 22일 현재 연 환산수익률이 21.7%를 기록했음

– 근로자주식신탁 현황 (단위: 억원, %, 5월 22일 기준)

은행	수탁액	연 환산 수익률
농협	150	21.7%
한미	48	11.2%
신한	33	13.19%
국민	41	7.75%

  • 근로자주식신탁은 근로자주식저축의 일종으로 은행이 판매하고 있으며, 연 3천만원 이내에서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가입액의 5.5%만큼 연말 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 2001년 5월 24일 목요일

○ 해외 대형 투신사 몰려온다

–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한국의 투신시장 상륙을 서두르고 있음

– 미국 최대의 투자회사인 피델리티를 비롯 자딘플레밍, 도이체방크가 투신운용사 설립 의사를 밝힌데 이어 미국의 투자회사 인베스코와 영국의 프루덴셜, 네덜란드 계열의 포티스 등이 새롭게 가세하고 있음

  • 이들 6개사는 국내 투신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마치고 관계당국에 설립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세계 굴지의 투자회사들이 속속 한국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들의 뛰어난 자본력과 우수한 상품 개발력으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M&A 펀드 4개 6월 출시

– M&A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 M&A 펀드가 6월 중순까지 모두 4개가 출시될 것으로 보임

– M&A 펀드 현황

펀드 명	만기	펀드 규모	운용 담당	판매회사
파이오니어M&A1호	1년	300억원	ACPC	LG투자증권
인터바인M&A1호	2년	300억원 (예정)	인터바인M&A	리딩투자증권
이산플러스M&A1호	1년	250억원 (예정)	이산M&A	키움닷컴증권
이산플러스M&A2호	1년	250억원 (예정)	이산M&A	키움닷컴증권

○ 현대건설 사채 1조2천억원 투신권에 인수 요청

– 현대건설 채권단은 투신사들이 1조1,900억원의 현대건설 회사채를 올 하반기 중 인수토록 요구했으나, 투신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진통이 예상됨

– 5월 23일 채권은행들은 투신사들이 현대건설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하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5,400억원을 3년간 만기 연장하고 추가로 6,50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토록 요청한 상태임

  • 회사채 금리는 연 8.8%를 제시했음

♣ 2001년 5월 25일 금요일(1)

○ **국민연금 자문계약의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 전개**

– 국민연금이 증시에 투입할 6천억원의 자문계약 수주를 위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자문사로 선정될 경우 당장의 수수료 수입보다는 다른 기관 영업에서 상당한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국민연금 일임자문 계약 1차 제안서 마감일인 5월 24일 40개 투신 및 자산운용사와 34개 투자자문사들은 마감 시간 직전까지 입찰 제안 내용과 지원 대상을 놓고 극심한 눈치보기 양상을 보였음

– 이번 일임자문은 총 6,000억원 중 1,800억원은 인덱스 운용형에, 4,200억원은 순수 주식형에 배분되 있음

- 대부분의 투신 및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은 두 형태에 복수 응모가 가능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 막판까지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동향을 살폈음

○ **연기금 맞춤형 펀드 붐**

– 우체국보험, 고용보험기금, 교원공제회 등 연기금들이 투신사 또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맞춤형 펀드 설정에 잇달아 나서고 있음

– 정보통신부는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우체국 보험 자금을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안정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였음

- 이번 우체국 보험 펀드를 맡게 된 운용사는 마이다스에셋, 글로벌에셋, 다임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맥쿼리IMM자산운용 등 4개사로 각각 250억원씩 배정됐음

– 지난 3월 1조원의 채권형 펀드 조성에 들어갔던 노동부는 3,0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으로 공사채형 펀드를 추가 설정했음

- 이 펀드는 9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유동성자산에 10% 이하를 투자하게 되며, 삼성 (1,400억원), LG (600억원), 제일투신 (900억원), 맥쿼리IMM자산운용 (600억원), 에 각각 배분됐음

– 교원공제회도 5월 말 1,200억원 규모의 일임 맞춤형 펀드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이 자금 한도에서 주식에 60%까지 투자하는 성장형 단독펀드를 6월 중순께 설정할 계획임

♣ 2001년 5월 25일 금요일(2)

○ **금융상품을 독자 개발한 투신사에 대해 배타적 우선 판매권 허용**

- 투신운용사들의 경쟁 상품 모방 행위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상품 개발에 관한 자율성은 크게 확대될 예정임
- 금감위는 5월 24일 투신업계의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투신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은 3~6개월 동안 배타적인 우선 판매권을 주기로 했음
  -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투신업계의 상품 차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신운용사의 상품 개발 실무자로 구성된 '약관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품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음
- 금감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3월 상품약관 승인을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개선하였으나, 금감원이 개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

♣ 2001년 5월 26일 토요일

○ **MMF 만기 한도 축소 추진**

- 금감원 관계자는 5월 25일 MMF 개선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MMF 자산운용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투신사 MMF에 편입되는 국공채의 만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그리고, 편입채권의 시가와 장부가 편차에 따른 펀드 수익률 시가조정 한도도 1%에서 0.5%포인트로 축소된다는 내용임
- 개정안은 6월 중순께 금감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 **현대건설 회사채 인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투신권**

- 현대건설에 대한 투신사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감독 당국의 노력이 일단 수포로 돌아갔음
- 5월 25일 금감원은 6개 투신사 대표들을 소집하여 투신사가 보유한 현대건설 회사채 5,400억원을 연 8.77%로 차환발행 (3년 만기)하고 5,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를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도록 종용했음
  - 그러나, 투신사들은 무보증채인 현대건설 회사채를 현재 연 12%에서 8.77%로 금리까지 낮춰 주면서 차환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금감원과 투신사 대표들은 다음 주 초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음

♣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 채권 평가 비용 펀드에서 부담

- 5월 25일 금감원은 현행 시행세칙에서 투신사가 펀드의 기준가 산정 비용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시가가 제대로 반영된 기준가 산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펀드 채권평가 비용을 펀드가 부담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음
- 투신사들은 그동안 채권 시가평가 비용을 자체 부담함에 따라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민간 채권 시가평가사들을 외면하고 증권업협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의존하여 채권 시가평가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나이스, 한국, 키스채권평가 등 3개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올 1/4분기 중 채권 평가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6,346,127원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음
  - 게다가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시가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준가 산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번 조치는 채권 기준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채권 시가평가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53억 순유입

- 5월 27일 대신경제연구소는 AMG데이타 서비스를 인용하여 지난 주 (5월 17일~23일)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53억이 순유입돼 5월 들어 주 단위로는 가장 많은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었다고 밝힘
  - 대신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유입자금의 61%는 성장형 펀드에, 28%는 인터내셔널펀드와 글로벌펀드로 유입됐다고 밝힘
- 이머징마켓펀드와 아시아퍼시픽펀드도 2주간의 순유출 기조에서 전환하여 각각 $12억와 $7천만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지난 주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추측됨

♣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1)

○ ETF (Exchange-Traded Funds) 이르면 내년 초 첫 선

- 기관투자자가 주식 현물로 출자 또는 환매할 수 있는 주가 연동형 펀드인 ETF가 빠르면 내년 초쯤 등장할 전망임
- 5월 28일 금감원은 기관투자가의 주식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ETF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금감원 관계자는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현물 출자와 현물 환매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므로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
- 미국의 경우 지난 93년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지난 4월 현재 총 자산이 $7조3,330억이며 84개의 펀드가 활동하고 있음

○ sector 뮤추얼펀드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

- 5월 28일 판매를 종료한 시티은행의 원금보장형 sector 펀드인 '시티가란트-생명공학편'은 판매 한 달만에 판매액이 1,960억원을 돌파해 기존 international 뮤추얼펀드의 총 누적 판매액 1,450억원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 sector 뮤추얼펀드란 생명공학이나 금융서비스 등 산업분야별로 특화해 투자 대상을 정하고 해당 기업의 국적에 구분없이 투자하는 이른바 업종별 펀드임
- sector 뮤추얼펀드 판매 계획

운용사	펀드 명	판매 시기
피델리티	헬스케어펀드 파이낸셜서비스펀드, 컨슈머인더스트리펀드, 인더스트리펀드, 아시아테크놀로지펀드	6월 중
메릴린치	월드에너지펀드, 월드금융주펀드, 월드건강테마주펀드, 월드테크놀로지펀드, 월드텔레콤펀드, 월드공공설비주펀드, 월드광업주펀드, 월드금광업주펀드	7월 중
프랭클린 템플턴	바이오테크놀로지디스커버리펀드 등 3개 펀드	협의 중
슈로더	테크놀로지펀드	판매 중

  - 피델리티의 경우 6월 안에 전 세계의 제약, 생명공학 등 의료분야 주식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의료산업) 펀드 등 5종류의 sector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예정임
  - 메릴린치의 경우도 금감원에서의 약관 심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7월까지 8개의 월드시리즈 sector 펀드를 선보일 예정임

♣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2)

○ 하이닉스반도체 투신권 분담액 확정

–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만기 연장분에 대한 투신업계 분담액이 확정됐음

- 투신업계는 지난 5월 9일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6,800억원에 대한 만기 3년 연장을 합의한 후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열어 투신사별 분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
- 우선 회사채 만기 도래액 전체 6,800억원에 대해서는 투신사별 기존 회사채 보유 비율에 따라 회사별로 나누기로 했음

– 하이닉스반도체 투신권 분담액 (단위: 억원)

회사 명	보유 금액	배분 금액 계 (무보증채+보증채)	무보증채	보증채
한국	4,137	1,901.55	270.13	1,631.42
대한	1,284	590.19	42.01	548.18
현대	1,540	707.85	46.38	661.47
삼성	23	10.57	1.52	9.05
동양	–	0.00	0.00	0.00
대신	150	68.95	6.63	62.32
동원BNP	400	183.86	13.25	170.61
서울	1,182	543.30	78.32	464.98
교보	767	352.55	47.51	305.04
신한	10	4.60	0.66	3.93
한화	159	73.08	7.16	65.93
한일	361	165.93	21.34	144.60
SK	104	47.80	6.89	40.91
조흥	2,961	1,361.01	170.22	1,190.79
한빛	376	172.83	13.45	159.38
주은	1,340	615.93	74.54	541.39
총 합계	14,794	6,800.00	800.00	6,000.00

○ 현대투신증권 추가 부실 규모 7천억원~8천억원

–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28일 AIG가 영화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4월 말부터 현대투신에 대해 벌인 실사 결과 추가 잠재부실 규모가 7천억원~8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지난 사업연도 (2000.4~2001.3) 중 1,69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현대투신증권은 이로써 부실 규모가 대략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됨

♣ 2001년 5월 29일 화요일 (3)

○ **펀드 불법 거래액 300조원**

- 5월 2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의원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펀드간 불법 자전거래 규모가 300조원에 이른다고 밝힘
- 이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된 투신사는 전체 25개사 중 18개사이며, 총 1만3,000여개 펀드가 이에 관련되어 불법 자전거래에 이용된 종목만도 채권과 주식을 합쳐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됨
  - 불법 자전거래는 보통 수익이 많이 난 펀드의 우량 편입자산을 빼내 수익률이 떨어지는 펀드의 불량자산과 교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우량펀드 가입자들은 실제 운용 실적보다 낮은 배당을 받게됨
- 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금감원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기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근절 대책도 마련키로 했음
  - 금감원은 특히 불법 편출입을 막기위해 주요 구성자산 내역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투신운용사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2001년 5월 30일 수요일

○ 투신사 주식 순매수 본격화

- 투신사들은 최근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박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1조원 규모 대우채 대지급금도 6월 중 유입될 예정이어서 주식 매수 여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종합주가지수가 62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기 시작한 지난 주에 707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데 이어 28~29일 2일간 1,000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매물 압박을 완전히 벗어난 양상을 보임
  - 투신권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수탁고는 최근 2개월간 지수가 1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해 두 달여 동안 충분한 환매 매물 소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같은 2개월간의 충분한 매물 소화과정과 최근 주가의 견고한 상승으로 투신사들의 주식 매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투신권 현대건설 회사채에 대한 원칙적 합의

- 5월 29일 금감원과 투신사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현대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470억원 규모의 현대건설 회사채를 연 2.74%의 이율로 차환 발행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 그러나, 18개 투신사 가운데 10개사만이 기보유 회사채 5,400억원에 대해 2.74%의 이자로 만기 연장하는 안에 서명했을 뿐 나머지 8개사는 지원안을 놓고 금감원과 협상 중임
- 투신권 관계자는 현대건설 정상화에 투신권도 동참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 현대건설 회사채 금리는 연 14.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2.74%를 요구하는 것은 18개 투신사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
- 채권은행단, 투신권, 금감원은 이날 밤 2차 회동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5월 30일까지 연장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짐

○ FRN 전용펀드의 소개

- 최근 금리 변동 위험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부채권 (FRN: Floating Rate Note) 전용펀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음
  - FRN이란 일정기간을 계약된 확정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연동시키는 사채임
  -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FRN에 집중 투자하게 되며, 5%를 공모주 등에 투자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확보하게 됨

♣ 2001년 5월 31일 목요일

○ **금감원은 현대건설 회사채 관련 투신사에게 최종안 통보**

-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금감원은 5월 30일 현대건설 지원방안과 관련해 투신사에 최종안을 통보했음
- 금감원은 18개 투신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투신사 보유 채권 5,400억원에 대해 기존 금리 12%에서 9%로 낮춰서 차환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
  - 신규 회사채 인수 규모도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축소
- 한국, 대한투신 등 대규모 채권을 갖고 있는 투신사들은 인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 5월 31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사모 M&A 펀드 성공 보수 금지에 대한 M&A 전문회사들의 반발**

- 사모 M&A 펀드가 출범했지만, 현행 법규상 M&A 성사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어 사모 M&A 펀드의 정상적 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금감원의 사모 M&A 펀드 운영 규칙은 사모 M&A 펀드 전문회사들이 M&A를 성공시키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신 사모 M&A 펀드의 운용이사로 참여한 개인에 대한 급여의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M&A 펀드회사에 M&A에 따른 성공 보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준다면 M&A 전문회사에게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급여 지급 형식을 채택했다고 밝힘
  - 이에 M&A 전문회사 관계자는 성공 보수를 급여 형식으로 받게 되면 성공 보수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 펀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

○ **조흥투신 해외 매각 본격화**

- 조흥투신의 매각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관련 작업도 가속도가 붙고 있음
- 조흥투신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은 KGI증권 19%와 우리사주 2%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분 100% 중 495를 외국사에 매각해 공동 경영을 할 방침임
  - 이와 관련 하반기 국내 투신 시장에 진출 예정인 메릴린치, 피델리티, 도이치방크, 푸르덴셜UK, 인베스코 등이 조흥투신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조흥은행은 현재 인수 희망 기업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본격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조흥은행측은 6월경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사제안서를 보내고 8월 중순쯤 협상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6월 June

10대 주요 기사

1. 현대건설 지원 투신권 방안 확정
   (1일)
2. 국민연금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주식시장에 본격 투입 (2일, 20일, 26일)
3. 투신사 2000년 회계연도 1,320억원 흑자 달성
   (7일)
4. 변액보험 예금보장 안된다
   (11일)
5. 투신사 편법 동원 수익률 여전
   (12일)
6.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개인연금 지원 실태
   (21일)
7. 신탁재산 대차거래 7월부터 실시
   (25일)
8. 투신권 신종 비과세펀드 판매 속앓이
   (27일)
9. 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투신권
   (28일)
10. 내년부터 만기 1년 이내 채권만 편입하게 되는 MMF
    (30일)

◈ 6월 목차 (6/1-6/10)

6/1 (금)	○ 현대건설 지원 투신권 방안 확정 ○ 현대투신 한남투신 부실 못 메워 ○ 현대투신증권 외자유치 협상 다음 주 본격화
6/2 (토)	○ 국민연금 운용 26사 1차 선정
6/3 (일)	
6/4 (월)	○ 투신 펀드 종목 선정 전문성 제고 시급 ○ 외국계 펀드평가사 국내 시장 고전
6/5 (화)	○ 비과세 회사채펀드 오는 7월 재도입 추진 ○ 코스닥 뮤추얼펀드 사라져 간다
6/6 (수)	현 충 일
6/7 (목)	○ 투신사 2000년 회계연도 1,320억원 흑자 달성 ○ 비과세펀드 오는 7월 9조원 만기 ○ 역외펀드 두 번째 큰 손으로 급부상
6/8 (금)	○ 피델리티 연내 한국 상륙
6/9 (토)	○ 사모펀드 사모사채 투자 한도 없앤다
6/10 (일)	

◈ 6월 목차 (6/11-6/20)

6/11 (월)	○ 현대투신증권에 9천억원 출자하는 증권금융 ○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의결권 제한 ○ 변액보험 자산운용수수료 논란 ○ 변액보험 예금보장 안된다
6/12 (화)	○ 5월 중 펀드 운용 수익률 결과를 발표한 리퍼코리아 ○ 투신사 편법 동원 수익률 조작 여전
6/13 (수)	○ 은행 예금과 주식형 펀드를 결합한 상품 출시 ○ 직원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판결을 내린 법원
6/14 (목)	○ 국민연금 간접 투자만 허용 ○ 미국 증권협 애널리스트 가이드라인 발표
6/15 (금)	○ 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 증권연구원 ○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증협 기준 금리
6/16 (토)	○ 은행 취급이 허용될 신종 비과세펀드
6/17 (일)	
6/18 (월)	○ 금감위 독창적 금융상품에 독점권 부여 추진
6/19 (화)	○ 자산운용사도 MMF 취급 ○ 대한투신 유형별로 펀드 통합하여 운영
6/20 (수)	○ 사모펀드 신규 설정 급증 ○ 국민연금 주식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 대투증권 8,000억원 돌려 받는다

◈ 6월 목차 (6/21-6/30)

6/21 (목)	○ 올 투신 상품 30% 은행에서 팔렸다 ○ 5개 전환증권사 주식시장 점유율 2% 불과 ○ 퇴직금의 중간 정산과 개인연금 지원 실태
6/22 (금)	○ 시가평가되는 채권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9% 기록 ○ 코스닥 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6/23 (토)	○ 25일 현대건설 CB 발행 절차 마무리될 듯
6/24 (일)	
6/25 (월)	○ 현투증권 상대로 선물환 손실 관련 승소한 조흥은행 ○ 현투증권 6월 매각 시한 넘길 듯 ○ 신탁재산 대차거래 다음 달 실시
6/26 (화)	○ 일본 소프트뱅크 사모펀드 100억원 운용 ○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모 M&A 펀드 ○ 국민연금 금주 주식시장에 본격 투입
6/27 (수)	○ 투신권 신종 비과세펀드 판매 속앓이
6/28 (목)	○ 채권 복수평가제 9월로 연기 ○ 구조조정촉진법 강력 반발하는 투신권
6/29 (금)	○ 연말 대거 만기 도래하는 CB
6/30 (토)	○ 내년부터 만기 1년 이내 채권만 편입하게 되는 MMF

♣ 2001년 6월 1일 금요일

○ 현대건설 지원 투신권 방안 확정

- 금감원 관계자는 5월 31일 지금까지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 대한, 교보투신운용이 현대건설 지원 방안을 선택해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힘
  - 따라서, 투신사들의 현대건설 지원 방안이 최종 타결된 것으로 알려짐
- 한국투신운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신규 회사채 인수 없이 현재 보유 중인 채권을 2.74%로 차환 발행하는 안을 선택
  - 대한투신의 경우 보유 채권을 BBB+ 이자율 (8.77%)로 차환 발행 (3년 만기)하고 50%의 신규 회사채를 인수하는 대안을 선택
  - 한일투신의 경우 보유 중인 현대건설 채권을 시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

○ 현대투신 한남투신 부실 못 메워

- 99년말 현대투신이 한남투신 부실 자산을 메우기 위해 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조원으로 만든 펀드인 릴리프 펀드가 2년 6개월 동안 3,000여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이러한 수익 규모는 같은 기간 지급이자 3,4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투자 수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로만 들어갈 뿐 부실 자산을 충당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펀드에서 별도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한 현대투신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매달 111억원씩 불입해 한남투신 부실 자산 6.000억원을 차감해 왔는데 아직 3,440억원이 남아 있음

○ 현대투신증권 외자유치 협상 다음 주 본격화

-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외자 유치를 둘러싼 정부와 AIG 컨소시엄간의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AIG 측에 출자 지분 배분 등 협상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이며 AIG 측이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법률 자문을 구하느라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AIG 측의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대투신의 잠재 부실 규모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양측은 현대투신증권의 추가 잠재 부실을 7~8천억원으로 보고, AIG가 1조1천억원, 정부가 6~8천억원을 각각 출자할 것으로 전해짐

♣ 2001년 6월 2일 토요일

○ 국민연금 운용 26사 1차 선정

– 국민연금은 5월 24일 총 74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운용사가 1차로 선정됐음

- 인덱스형 펀드에 투신, 자산운용사 4개와 자문사 2개, 순수 주식형 펀드에는 투신, 자산운용사 14개와 자문사 6개를 선정했음
- 이번 위탁투자에는 28개 투신운용사와 12개 자산운용사, 34개 투자자문사들이 참가해 수주 경쟁을 벌여왔음

–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거쳐 6월 18일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동월 25일 이후부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금을 투입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1차 심사에서 통과된 투신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현장 방문과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평가한 후 인덱스형과 순수 주식형 펀드에 대해 각각 3개와 10개씩 13개사를 최종 선택하게 됨
- 인덱스형과 순수 주식형 펀드는 각각 3개 등급으로 나눠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씩 맡길 계획임

♣ 2001년 6월 4일 월요일

○ **투신 펀드 종목 선정 전문성 제고 시급**

– 장세가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계 투신사와 같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운용 기법이 단기적인 마켓타이밍에 기초한 국내 투신사보다 초과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템플턴 투신의 "그로스주식펀드"의 경우 펀드 순자산의 73%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지난 1월과 2월에 14.65%, 3.74%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 템플턴 투신 관계자는 종목 리스트에 의거해 매입한 주식들은 5년 정도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산정된 종목들로 단기 성과에 연연해 빈번한 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따라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종목의 저가 매입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마켓타이밍을 구사하는 펀드보다 리스크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이 기법은 주식시장과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 대비 성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는 양면성을 내포한다고 지적

– 이에 따라 향후 투신사들의 운용 기법 선진화를 위해서는 마켓타이밍을 줄이고 종목 선정에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외국계 펀드평가사 국내 시장 고전**

–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평가사들이 국내 펀드평가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 펀드평가사들은 대부분 장기 펀드 위주로 펀드평가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국내 투신 시장 특성상 이같은 장기 펀드가 드물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 최근 모닝스타코리아의 불화설도 이같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임

- 모닝스타코리아의 경우 국내 진출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다는 대주주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경영진이 무리하게 펀드평가 업무를 벌이다 미국 본사측과 경영 방침에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짐
- 모닝스타코리아는 미국 본사측의 경영 방침이 단기 펀드는 되도록 평가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실적이 없자 무리하게 단기 펀드평가 업무를 실시해 왔음

– 국내 펀드는 3개월에서 6개월 펀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 펀드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외국계 회사들은 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

♣ 2001년 6월 5일 화요일

○ 비과세 회사채펀드 오는 7월 재도입 추진

–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BB) 이하인 회사채를 30% 이상 포함시킨 신종 '고수익 채권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이 펀드에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1인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투자 한도 금액은 3,000만원이며, 공모주 배정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아울러 이 펀드는 편입 회사채의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으므로 작년의 비과세펀드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추정됨

– 당정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힘

– 정부가 고수익채권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으로 심각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

- 하반기 만기 채권이 34조원 가운데 BB+ 이하 정크본드 채권이 1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채권의 유통·발행시장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음
- 이들 투기등급 채권이 전체 채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당시 48.8%에서 지난 해 말 현재 8.8%로 급감하는 등 사실상 정크본드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코스닥 뮤추얼펀드 사라져 간다

– 코스닥증권 시장에 따르면 지난 해 중반 한 때 91개에 달하던 증권투자회사가 지난 해 말 64개로 줄어든데 이어 6월 4일 현재 31개로 줄어 들었음

- 현재 등록된 31개 증권투자회사 가운데 등록 취소 예정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종목을 제외하면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증권투자회사는 현재 20개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증권투자회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올 들어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코스닥에 등록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임

♣ 2001년 6월 7일 목요일 (1)

○ 투신사 2000년 회계연도 1,320억원 흑자 달성

– 지난 회계연도 (2000.4~2001.3)의 29개 투신운용사들은 전반적인 수탁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우 무보증채 손실이 축소된 데 힘입어 1,320억원의 흑자로 전환

• 1999년 경우에는 6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었음

– 투신운용사별 2001년 3월 말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세전 당기순이익	회사명	세전 당기순이익
한국	23	주은	108
대한	27	템플턴	32
동양	13	한빛	82
교보	95	한일	83
국은	52	한화	52
대신	84	현대	253
동부	16	LG	91
동원	58	나	51
삼성	-52	태광	12
서울	35	세종	28
신영	67	미래	1
신한	11	아이	-18
외환	1	하나	-13
제일	-39	굿모닝	-9
조흥	175	합계	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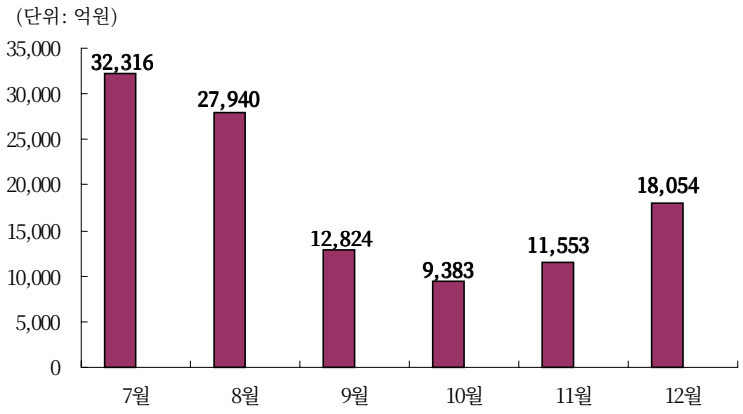
○ 비과세펀드 오는 7월부터 만기 도래

– 지난 해 11조원이 넘는 판매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끌었던 비과세펀드가 오는 7월부터 만기가 도래될 예정

• 7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임

– 그러나, 펀드 설정액 중 98%가 국공채형과 채권형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매물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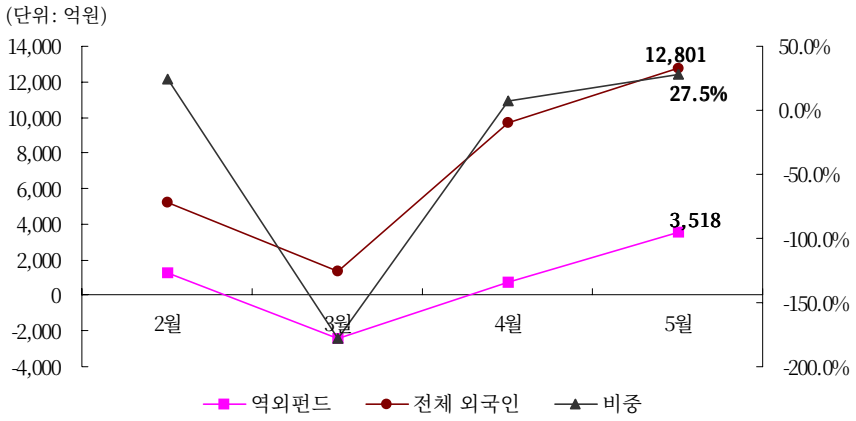
– 월별 비과세펀드 판매수수료 부과기간 경과분 현황



♣ 2001년 6월 7일 목요일 (2)

○ 역외펀드 두 번째 큰 손으로 급부상

- 조세 회피 지역에 국적을 둔 '얼굴없는 자금'인 역외펀드가 국내 증시로 몰려오고 있음
-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8개 조세 회피 지역 투자자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내 상장주식 3,518억원 (3,075만주)의 매수 우위를 보였음
  - 이는 외국인 투자자 전체 순매수 금액 1조2,801억원의 27.48%에 달하는 수치임
  - 외국인 순매수 금액 중 역외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월 14.39%, 4월엔 7.59%를 기록했음
  - 이에 따라 역외펀드는 뮤추얼펀드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계 (5월 한 달 동안 순매수 6,450억원)에 이어 두 번째 큰 손으로 부상했음
- 국적별로는 케이만군도 (1,218억원)와 버진아일랜드 (1,082억원), 룩셈부르크 (977억원) 등 조세 회피 지역 국가가 순매수 상위 2~4위를 차지했음
- 이는 5월 한 달 동안 단타매매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 등 상당수 역외펀드 자금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전체 외국인과 역외펀드의 월별 순매수



♣ 2001년 6월 8일 금요일

○ **피델리티 연내 한국 상륙**

- 세계 최대의 뮤추얼펀드 운용회사인 피델리티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임
- 브렛구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은 6월 7일 올해 안에 한국에 독립적인 피델리티의 운용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피델리티가 직접 운용하는 한국 내의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언급
- 피델리티는 현재 기술주 펀드와 텔레콤 펀드 등 2개의 해외 뮤추얼펀드를 한국에서 팔고 있으며, 오는 6월 19일부터 판매될 펀드는 금융주 펀드, 소비재 펀드 등 sector 펀드 5개임
- 피델리티는 이를 위해 금감원과 운용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협의 중임

♣ 2001년 6월 9일 토요일

○ **사모펀드 사모사채 투자 한도 없앤다**

– 금감원은 6월 8일 사모펀드 혹은 벤처기업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투자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그 동안 일반 펀드는 총 수탁액의 3% 내, 뮤추얼펀드는 5% 내로 사모사채 편입 비율이 제한돼 왔었음

– 금감원은 그 동안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사실상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간주해 펀드의 사모사채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왔음

-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 종목당 한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

– 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사모사채 투자 제한을 배제하고 법률상의 종목당 한도 10%만을 적용

♣ 2001년 6월 11일 월요일 (1)

○ 현대투신증권에 9천억원 출자하는 증권금융

- 한국증권금융이 정부를 대신해 미국계 투자 펀드인 AIG사와 공동으로 현대투신증권과 현대증권에 출자하게 될 예정임
  - 정부 관계자는 현대투신증권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로 9천억원이 결정됐으며, 증권금융을 통한 우회 출자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증권금융을 통한 출자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
- 합작 파트너인 AIG 측은 1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출자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에서 최종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고 알려짐
  - AIG 측은 현대증권의 경영권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 자금 1조1천억원 중 현대증권에 5천억원 정도를 출자하고 다시 출자된 현대증권 지분을 현대투신증권에 재출자하는 방식을 고려 중임

○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의결권 제한

-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의 의결권이 여타 인덱스펀드처럼 shadow voting 형식으로 제한될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ETF의 상품 형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겠지만 계열사 출자 제한 등 복잡한 규정을 감안해 ETF 편입 종목에 대해 shadow voting만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ETF에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하는 투자자들은 순수한 수익 목적으로만 펀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이 높은 특정 종목도 ETF가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에 상장된 ETF 중 의결권이 허용된 펀드는 없다고 밝힘

♣ 2001년 6월 11일 월요일 (2)

○ 변액보험 자산운용수수료 논란

- 금감원이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수수료의 상한선을 보험료의 최대 0.8%로 책정한 데 대해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 자산운용수수료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적립된 자산의 운용에 따른 보수로 일반 보험계약상의 사업비와 구분됨
  - 보험업계 측에서는 일반 투신사의 펀드와 은행의 채권 상품에 대해서는 0.5~1.5% 안팎의 운용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
-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투신사, 은행 등과는 달리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최대 20%를 사업비로 부과하는 등 일반계정상 부과되는 사업비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 따라서, 타 금융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수료의 책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
- 그러나, 생보사들은 사업비와 자산운용수수료는 분명히 보험 상품 구조상 다른 수익원이므로 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운용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음

○ 변액보험 예금보장 안된다

- 오는 7월부터 판매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임
-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최저사망보험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임
  - 최저사망보험금이란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적립금과는 별도로 일반계정 적립금에서 일반 보험상품처럼 사망 또는 장해의 경우 미리 정한 보험가입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임
-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계정에 따른 변동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만큼은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최저사망보험금이 아무리 보험 본연의 기능을 한다고 해도 변액보험은 어디까지나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주장

♣ 2001년 6월 12일 화요일 (1)

○ **5월 중 펀드 운용 수익률 결과를 발표한 리퍼코리아**

– 세계적인 펀드평가 기관인 리퍼의 국내 법인인 리퍼코리아는 6월 11일 발표한 '5월 중 펀드 운용 수익률 결과'에서 펀드 유형별 우수 운용사를 제시함

– 리퍼코리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information ratio란 기준을 사용했음

- information ratio란 지난 6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여 비슷한 유형의 펀드 중에서 얼마나 지속적이며 우수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information ratio가 높은 펀드는 주가나 금리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펀드 유형별 우수 운용사 (자료: 억원)

유형	운용사	운용 금액	info. ratio	유형	운용사	운용 금액	info. ratio
채권형 (공사채형 단기)	교보	300	0.4956	주식 혼합 (일반 성장)	한국	12,154	0.1169
	서울	53	0.3257				
채권형 (공사채형 장기)	한화	300	0.4596	주식 혼합 (일반 고성장)	신한	139	0.2138
	서울	365	0.4373		LG	3,705	0.1841
채권형 (국공채형 단기)	주은	29,294	0.2383	채권 혼합 (일반 단기)	동원	351	0.3464
	한일	609	0.1018		LG	660	0.1638
채권형 (국공채형 장기)	주은	428	0.2526	채권 혼합 (일반 장기)	현대	598	0.0442
	LG	1,427	0.0706		동양	229	0.0253
채권형 (비과세 공사채형)	서울	188	0.6845	특수형 (코스닥)	한국	469	0.0319
	주은	1,232	0.1831		현대	1,901	0.0293
채권형 (비과세 국공채형)	서울	589	0.3312	특수형 (하이일드)	동부	148	0.5131
	태광	124	0.2860		한국	7,473	0.3749
주식형 (일반 성장)	한화	100	0.6407	특수형 (CBO)	한국	10,937	0.2730
	삼성	796	0.0241		제일	4,544	0.1444
주식 혼합 (일반 안정 성장)	동원	200	0.2500				
	국은	105	0.2177				

♣ 2001년 6월 12일 화요일 (2)

○ **투신사 편법 동원 수익률 조작 여전**

- 6월 11일 금감원의 '1999년~2000년 투신운용사 검사 결과 조치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년 동안 28회에 걸쳐 투신사의 펀드 운용 실태를 검사한 결과 총 15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음
-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위법 행위는 펀드 수익률 조정을 위한 불건전 거래로 모두 40건에 달했음
  - 이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원 (27건), 수익증권 판매회사 지원 (12건), 각종 신탁재산 한도 위반 (21건), MMF 운용 부적정 (15건), 기타 (37건) 등이 지적됐음
- 투신사들이 여전히 각종 편법을 동원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 2001년 6월 13일 수요일

○ **은행 정기 예금과 주식형 펀드를 결합한 복합 상품 출시**

– 국은투신운용은 투자 자산을 은행 정기예금과 주식형 펀드에 분할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빅맨황금분할투자상품1호'를 개발했다고 밝힘

– 이 상품은 투자 자금의 80%를 은행 정기예금, 나머지 20%는 투신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마케팅믹스 상품이란 점이 특징임

- 은행 정기예금은 연 6%의 확정 금리가 주어지는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은투신의 '황금분할주식형펀드'로 정해졌음
- 특히,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은 정기예금의 이자 범위 안에서 손절매 한도를 정하기로 했음

– 국은투신은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같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힘

○ **직원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판결을 내린 법원**

– 기업체가 퇴직금을 줄 때 직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

- 이에 따라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는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

– 농협은 지난 81년 퇴직금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치면서 개정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80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음

- 그러나, 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오히려 부칙 규정이 불리하게 되자 관련 퇴직 예정자 등은 현행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지난 해 소송을 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둔 부칙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현재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라고 덧붙임

♣ 2001년 6월 14일 목요일

○ 국민연금 벤처투자의 경우 간접투자만 허용

- 다음 달부터 연기금의 벤처 투자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는 운용 규모가 약 68조원인 국민연금이 간접투자만을 우선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와 관련하여 이같은 운용 방안을 밝힘
- 즉, 국민연금은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형태의 간접투자로만 벤처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 투자가 신규 사업인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대비하여 운용 방법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우선 간접투자만을 할 것이라고 언급
  - 참여 조합 선정 방안으로 우선 자본금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재무지표 건전성, 투자 규모 및 과거 투자 실적 등을 포함한 운용 성과 등을 고려하기로 했음
- 한편, 중기청은 연기금의 투자조합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사 등에서 운용하는 투자조합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미국 SIA 애널리스트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의 SIA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는 6월 12일 월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 SIA는 그 동안 애널리스트들과 월가의 증권사, 투자은행들이 너무 밀착돼 있어 애널리스트들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짐
  - 오는 6월 14일 열리는 하원 금융 소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를 공개했음
-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이 추천한 종목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투자 종목에 대한 매도 행위 등 반대되는 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
  -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현황을 공개하여 애널리스트들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특정 거래에 개인적 이익이 연계되지 않도록 했음
- 한편, 월가 주요 증권사 및 투자은행들은 투자 활동과 리서치 (조사 연구) 부문의 분리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음

♣ 2001년 6월 15일 금요일

○ 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 증권연구원

- 한국증권연구원은 '펀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명화 차원에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유명무실한 감독이사와 회계감사의 역할, 수익증권의 경우 수탁회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를 15일 혹은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
  - 시가평가 책임은 전적으로 운용사가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유가증권평가위원회 (투신사)와 이사회 (증권투자회사)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정착시켜야 함
  -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투신운용업을 겸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음
  - 증권사 등을 통하게 돼 있는 현행 판매 구조를 탈피하여 운용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자서명 등 보안 장치가 확보된 인터넷 판매 방식도 도입해 투자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증협 기준수익률

- 증권업협회가 산정하는 기준수익률이 채권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매입하는 동시에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음
- 한 펀드매니저에 따르면 회사채 수요가 늘어 요즘에는 만기 1년짜리 BBB- 회사채는 협회 기준수익률보다 2~3%, 만기 3년짜리는 1% 가량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금리로 회사채를 사게되면 유통금리보다 높은 협회 기준수익률로 계산됨으로 매입과 동시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됨
- 이로 인해 시장 관계자는 협회 기준수익률과의 격차 때문에 좋은 회사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음
  - 현재 협회는 채권 거래가 많은 10대 증권사의 호가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함

♣ 2001년 6월 16일 토요일

○ 은행 취급이 허용될 신종 비과세펀드

–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에 발매될 신종 비과세펀드를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현재 임시 국회에 상정한 상태임

- 관련 법안은 은행이 취급하는 신종 비과세펀드에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은행별 취급 방침에 따라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은행이 판매 대행하는 방식과 은행이 직접 운용에 나서는 방식 (은행 신탁) 등 두 종류로 구분될 전망
-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이나 기존의 은행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므로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

– 기존 고수익 펀드 특징 비교

구 분	하이일드 펀드	CBO 펀드	신종 비과세 펀드
판매일	1999년 11월	2000년 1월	2001년 7월 예정
자산 운용	채권 (BB+ 이하), CP (B+ 이하) 50% 이상	채권 (BB+ 이하), CBO채권, CP (B+ 이하) 50% (이상, 단, CBO채권은 25% 이상)	채권 (BB+ 이하), CP (B+ 이하) 30% 이상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11% (2000년까지), 이자소득세 10.5% (2001년부터)	이자소득세 11% (2000년까지), 이자소득세 10.5% (2001년부터)	완전비과세 (1년 이상 투자시)
세제혜택 한도	없음	없음	3,000만원 (1인당)
신탁 기간	6개월~3년	6개월~3년	1~3년
공모주 배정	배정	배정	배정 예정
과거 1년간 평균 수익률	7.56% (229개 펀드)	8.47% (172개 펀드)	

– 정부에서는 하반기 채권 만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채권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음

- 세금이 없는 신종 비과세펀드를 통해 쉽게 유통되지 않는 투기등급 채권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임

♣ 2001년 6월 18일 월요일

○ **금감위 독창적 금융상품에 독점권 부여 추진**

–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업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 중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는 최근 재경부에서 금융당국이 새 상품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경쟁 회사에 상품 정보가 알려져 신상품 개발 금융회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에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고 상품 중에서 금융사으 창의성이 가미된 경우에만 독점권이 주어진다고 설명

♣ 2001년 6월 19일 화요일

○ 자산운용사도 MMF 취급

– 투신운용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산운용사에도 허용될 예정임

- 이는 다음 달부터 MMF 편입 채권 만기를 단계적으로 1년으로 축소하고 시가전환 기준도 시가와 장부가 차이가 0.5% 내일 때로 축소하는 등 MMF 제도를 정비하면서 추가된 내용임

– 지난 해 8조원대까지 수탁고를 기록했던 자산운용사가 올해 들어 3조원대로 떨어지는 등 자산 규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경영상 곤란한 상태를 호소해 왔음

– 일부 투신사들은 MMF 위주로 수탁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에까지 MMF를 허용할 경우 파이를 쪼개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자산운용사 MMF 취급 허용을 반대하고 있음

○ 대한투신 유형별로 펀드 통합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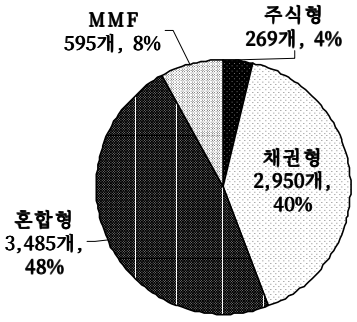
– 대한투자신탁증권은 6월 18일 현재 900개가 넘는 수익증권과 각종 펀드를 성장형, 안정성장형, 인덱스형, 코스닥투자형, 글로벌펀드형 등 5개 대표 상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 펀드 수는 많고, 운용 자금은 빈약하다 보니 투신사들은 펀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용하거나 펀드별로 수익과 손실을 골고루 분산하여 분배함으로써 상품별로 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펀드 이름도 비슷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제기된 비판에 따른 것임

– 아울러 대투증권은 주식 편입 비중을 20~90%로 설정해 펀드별로 특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해 성장형은 주식 비중을 80% 이상, 안정성장형은 30~60%로 정해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음

-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코스닥펀드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를 만들어 고객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음

– 국내에서 판매 중인 투신 상품 종류



♣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1)

○ 사모펀드 신규 설정 급증

– 지난 5월 중순 이후 기관들이 단독 펀드로 설정한 사모 증권투자회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3조3,912억원 (6월 15일 기준)의 자금 중 14.33%에 해당하는 4,861억원이 사모펀드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5월 이후 신규 설정된 펀드 중 22개가 사모 방식으로 설정돼 5,226억원의 신규 유입자금 중 2,849억원이 사모펀드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금리 시대에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기금이나 법인 등 기관들이 외부 위탁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종목 투자비중을 제한하는 10% 규정을 사모펀드에는 적용하지 않아 운용상 제약이 적기 때문임

- 동시에 사모펀드는 다른 펀드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사무 업무도 덜 복잡한 것 등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민연금 주식형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 국민연금은 6,000억원 규모의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1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9일 밝혔음

– 국민연금은 모두 1,800억원을 투자할 인덱스형 상품 운용시에는 유리자산운용 (800억원), 현대투신운용 (600억원), 델타투자자문 (400억원) 등 3개사를 선정했음

– 4,200억원 규모의 성장형 상품을 위해서는 3개 투자자문사를 포함하여 10개의 운용사를 선정했음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SK, 대신, 한일, 템플턴, 삼성, 한화투신운용과 코스모, 밸런스, 피데스투자자문 등임
- 이번 위탁 운용사 선정에는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각각 4개, 2개사씩 선정돼 눈길을 끌었고, 그동안 연기금 펀드의 운용을 사실상 독점해 온 투신운용사들은 7개사에 그쳤음

– 국민연금은 다음 주초 위탁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시황을 봐 가면서 이르면 오는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6,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임

♣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2)

○ 대투증권 8,000억원 돌려 받는다

– 대투증권이 99년초 대우증권을 통해 대우캐피탈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콜자금 2,085억원 가운데 9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됨

- 이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까지 벌였던 대우증권이 최근 원금 가운데 90%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임

–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캐피탈 연계콜 2,085억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875억원을 대투증권에 되돌려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오는 6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대투증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나라종금 발행어음 5,547억원과 영남종금 발행어음 1,591억원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음

- 결국 대투증권은 이들 3개 기관에서 모두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받게 돼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1년 6월 21일 목요일

○ 올 투신 상품 30% 은행에서 팔렸다

–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2조2,000억원이 팔려 같은 기간 투신상품 전체 판매액의 30%가 은행 창구를 경유한 것으로 조사됨

- 6월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하나,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실적은 5월말 현재 총 10조7,096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 해말 8조5,095억원에 비해 2조2,001억원이 늘어나 판매액이 20.5% 늘어난 것으로 동 기간 투신권 전체의 판매 증가액 6조6,095억원 중 33% 이상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임

– 이 같은 추세는 은행이 안정적 이미지와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투신상품 판매 창구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은행 자회사인 투신사들의 영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 투신간 제휴도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임

○ 5개 전환증권사 주식시장 점유율 2% 불과

– 한국, 대한, 현대, 제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등 5개 전환증권사의 주식시장 총 점유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 0.52%, 대한: 0.42%, 현대: 0.39%, 제일: 0.72%, 동양오리온: 0.13%임
- 97년 3월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시작으로 제일투신증권이 1999년 1월, 한국, 대한, 동양오리온투신증권이 2000년 6월에 잇따라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해 증권업무를 시작했음

○ 퇴직금의 중간 정산과 개인연금 지원 실태

– 금감원이 지난 5월 18일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30대 계열회사, 벤처기업 143 곳을 대상으로 기업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전직원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22%에 달한다고 밝힘

– 퇴직금 중 중간정산 제도를 83%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9%는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중간정산 금액이 노후생활 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개인별 퇴직적립계좌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 저축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 한편, 퇴직금을 전액 사내 유보하는 기업은 32%이며, 공기업의 경우 71.43%에 이름

– 개인연금의 경우 근로자 희망으로 기업주가 저축액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개인연금 저축지원 제도를 조사 대상의 46%가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51%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해서 함께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 시가평가되는 채권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9% 기록

- 지난 해 7월 1일 시행한 채권 시가평가 제도 실시 이후 시가평가되는 채권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9% 이상을 기록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펀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용된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는 6월 16일 현재 총 623개 50조8,639억원으로 전체 연평균 수익률 9.15%인 것으로 조사됨
  - 이같은 수익률은 현재 7%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부가 펀드나 5~6%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금감원 관계자는 시가평가 시행 뒤 장부가 펀드가 시가 펀드로 무리 없이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

○ 코스닥 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 투신권이 운용하는 코스닥 펀드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운용사별, 펀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인 39개 코스닥 펀드는 올해 들어 펀드당 평균 2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힘
  - 이 중 40% 이상의 수익을 낸 펀드도 10개에 달했음
- 반면, 올해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39개 펀드 중 9개 펀드가 10% 미만의 수익을 기록했음

♣ 2001년 6월 23일 토요일

○ 25일 현대건설 CB 발행 절차 마무리될 듯

– 현대건설 전환사채 (CB) 발행을 위한 절차가 6월 25일 마무리될 전망임

- 6월 23일 현대건설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은 6월 21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어제 하나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들의 미전환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힘
- 하나은행의 경우 6월 25일 인수 여부를 통보해 올 것으로 기대됨

–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환사채의 발행 금리를 우량은행 보증회사채 시장 수익률에 0.3%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언급

- 최종 금리는 6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대략 7.7% 수준이 될 것으로 설명
-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일반 회사채의 수익률이 7.1%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모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전환사채 인수 동의를 전제로 6월 25일까지 보증 특약서가 제출되면 전환사채 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

♣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1)

○ 현투증권 상대로 선물환 손실 관련 승소한 조흥은행

– 조흥은행이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선물환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663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 됐음

- 조흥은행은 현대투자신탁과 선물환 계약을 맺고 러시아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원금 손실을 보게 되었음
- 이에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6월 24일 밝혔음
- 조흥은행이 이날 승소한 금액은 원금 492억원 및 이자 171억원이며 이로 인해 약 663억원의 특별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

– 조흥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현대투신증권을 상대로 10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도 5월 22일 승소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한 6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음

○ 현투증권 6월 매각 시한 넘길 듯

– 6개월 이상 끌어오며 6월 말을 시한으로 진행됐던 현대투신증권 매각 협상이 이달 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관계자는 6월 24일 금감위에서 당초 6월 말까지 AIG와 현투증권 매각 협상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현대증권 매각이 결론이 나지 않아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고 언급함

- 금감위 관계자도 AIG와 현대측이 증권 매각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가격결정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와 AIG간 협상도 현대증권 매각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이근영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2일 국회 답변에서 현대투신의 실사 차이를 조정하고 나면 출자 규모와 구조가 결정될 것이며, 정확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현재로서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힘

- AIG는 현대투신 인수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2)

○ **신탁재산 대차거래 다음 달 실시**

– 오는 7월부터 유가증권 보유자가 포트폴리오상의 유가증권을 결제 또는 투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탁재산 대차거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

- 2000년 8월 3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가증권 등의 대여를 신탁재산 유가증권의 50%까지 허용한 바 있으나, 실제로 상품의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유가증권 대여 기관들은 보유시와 마찬가지로 배당 및 유무상 이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보상받고 담보에 의해 대여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차입자의 경우 차입 증권을 장내외 시장 거래의 매도에 따른 결제 부족 증권의 보전 및 차익거래와 같은 투자 활동에 이용하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신탁재산의 대여는 대차수수료 수익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익률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1)

○ 일본 소프트뱅크 사모펀드 100억원 운용

– 일본 소프트뱅크 자금이 주축이 된 소프트뱅크파이낸스코리아 (이하 SBFK)는 총 100억원 규모의 사모 M&A 펀드가 결성돼 곧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힘

- 이 회사는 7월쯤 2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곧바로 2호, 3호 사모 M&A 펀드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임
- 이번에 설립된 SBKF M&A 1호 펀드에는 50억원을 출자한 SBFK를 중심으로 3S 커뮤니케이션 서울 및 도쿄 등 10여개 국내외 벤처투자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 SBFK 다카하시 사장은 펀드 운영을 통해 M&A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간접 자금지원에 힘입어 투자회사들도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모 M&A 펀드

– 6월 22일 현재 베스트 M&A1호, 아산M&A1·2호 등 5월과 6월초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3개 M&A 펀드가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훨씬 밑도는 수십억원의 모집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6월 22일 금감원으로부터 등록 인가를 받은 LG투자증권의 트윈스파워 M&A1호 펀드도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채우지 못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지점을 통해 일반인 신청을 받을 계획임

– 펀드 판매가 이처럼 차질을 빚는 것은 보험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련 규정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모 M&A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의 경우 펀드 투자한도가 지분의 15%로 제한되어 있음
- 일반 기관투자가들의 경우는 아직 M&A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어 상품 판매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함

– 따라서, 업계에서는 M&A 붐이 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2)

○ 국민연금 금주 주식시장에 본격 투입

–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 주 총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투신 및 투자자문업체 선정을 끝냈기 때문에 조만간 자금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은 2년 만기 인덱스형 1,8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6,000억원의 자금을 10여개 운용회사에 배분하게 되는데 1개사당 400~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기반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항시 70~9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 또, 단기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월 운용에 관한 내역을 보고받고 예외종목이 있을 때에도 사전에 이를 알리도록 요구할 예정임
  • 특히, 편입 종목의 연간 회전율은 300% 이내로 제한됨
  •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5% 이상 낮을 경우에는 운용 계약을 중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임

– 증권사 관계자는 연기금이 이번 주부터 본격 투자를 시작할 경우 시장 활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2001년 6월 27일 수요일

○ **투신권 신종 비과세펀드 판매 속앓이**

- 투신업계가 오는 7월에 발매될 신종 비과세펀드의 판매를 앞두고 기존 CBO 펀드 자금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CBO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 10.5%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지만 완전히 비과세되는 신종 비과세펀드에게는 세제면에서 다소 불리하기 때문임
  - 따라서, CBO 펀드 내의 자금이 빠지면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후순위채는 미매각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또 새로운 펀드를 설정해 후순위채를 소화해도 현재 장부가인 후순위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이 경우 펀드 수익률이 30~40% 정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
- 투신사들이 CBO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후순위채는 평균 30%이며 적어도 3조원 정도로 평가됨
  - 만약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후순위채는 미매각자산으로 남거나 신규 펀드로 이전되어 시가평가 적용을 받아 펀드 수익률을 대폭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투신사들은 신종 비과세펀드로 CBO 펀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우려해 신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투기등급 채권이 30% 이상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및 부도 발생 위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2001년 6월 28일 목요일

○ 채권 복수평가제 9월로 연기

– 당초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채권 복수평가 제도가 9월로 연기될 전망

–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수탁회사의 전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복수평가제 일정이 다소 연기돼 9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밝힘

- 현재 시가평가 대상은 신규 펀드나 기존 펀드에 신규 편입되는 국공채와 투자적격 채권이며,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편입된 후순위 채권과 투기등급 채권도 시가평가 대상에 포함됨

– 조만간 금감위에서는 기존의 민간 채권평가사인 한국, 키스, 나이스 등 3개사와 함께 증권업협회를 채권 평가기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짐

○ 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투신권

– 여야 3당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투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6월 27일 투신사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도입으로 투신사 영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음

- 투신사들은 만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키로 합의했음

– 투신사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으로 투신사들을 은행과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투신사를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려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투신사 신탁재산의 경우 전부 고객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칫 투신권에 대한 신뢰 저하로 영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아울러 부실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투신사에도 똑같이 부담을 지움으로써 고객 재산을 부실기업에 추가 투자해야 하는 모순을 안게 됨

– 투신사 한 관계자는 투신사는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는 대행기관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1년 6월 29일 금요일

○ 연말 대거 만기 도래하는 CB

– 지난 98~99년 주식시장 활황기에 발행한 전환사채 물량이 올 연말 대거 쏟아지면서 하반기 회사채 만기와 더불어 기업들의 만기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올 연말 만기를 맞게 되는 CB 물량은 지난 해 만기 물량 (1조2,000억원)의 두 배 규모인 2조3,000억원 (6월 27일 상장잔액 기준)임
- 당초 CB 발행물량이 3조2,06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은 9,000억원에 그친 셈임

– 만약 하반기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해 주가가 전환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 원금과 함께 고금리의 만기 보장수익률까지 투자자에게 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됨

– FnGuide에 따르면 2조3,000억원 중 투기등급 CB는 1조1,573억원으로 50.3%에 달함

- A 등급 이상 기업은 4,600억원 발행 물량 중 3,328억원은 이미 주식으로 전환됐으며, BBB 등급도 6,710억원 중 5,653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돼 만기 부담이 없는 상황임

♣ 2001년 6월 30일 토요일

○ **내년부터 만기 1년 이내 채권만 편입하게 되는 MMF**

– 금감위는 6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MMF의 급증 및 급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MMF의 채권 편입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음

- 금감위는 이에 앞서 7월부터 1년 6개월 이내의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차가 0.75%p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편입 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했음

–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은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투신사의 자금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임

- 이는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있음

– 이와 함께 비상장 채권의 평가도 종전에는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을 토대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 채권평가 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토대로 실시될 예정임

7월 July

10대 주요 기사

1. 원금보장 네티즌펀드 금감원에서 일제 단속 착수
   (2일)
2. 사모 M&A펀드 편법 모집 논란
   (9일)
3. 변액보험 판매 저조 및 문제점
   (9일, 19일, 28일)
4. OECD 한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 지적
   (11일)
5. 투신권에 8,800억원 대지급한 서울보증보험
   (13일, 25일)
6.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및 자산운용사의 MMF 취급 허용 (18일, 21일)
7. 마땅한 투기등급 채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투신권
   (19일)
8. 투신 펀드 통폐합 난관
   (26일)
9. 채권평가사 선점 경쟁 치열
   (26일)
10. 현투증권 매각 8월초 타결 예상
    (30일)

◈ 7월 목차 (7/1-7/10)

7/1 (일)	
7/2 (월)	○ 원금보장 네티즌펀드 금감원에서 일제 단속 착수 ○ 조흥투신운용 지분 30% 해외 매각
7/3 (화)	○ 올 상반기 투신사별 수익률 결과 발표 ○ 투신권 수익증권 수익률을 앞선 증권투자회사 실적 ○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31조
7/4 (수)	○ 대한투신운용의 해외 매각 곧 가시화 ○ 신종 비과세펀드에 발묶인 투신 ○ 첫 기업인수가 이뤄진 사모 M&A 펀드 ○ 국제 투자자금의 공격적인 투자성향 두각
7/5 (목)	○ 단독펀드 난립에 큰 폐해 초래 ○ 7월 4일 국민연금 3,200억원 증시 투입
7/6 (금)	○ 국민연금 수수료 덤핑 경쟁 ○ 한국 국채 유동성 아시아 최고 ○ 투신권 하반기 만기 투기채 2조9,000억원 ○ 한국 상장사 주가 저평가는 지배구조 및 회계 불투명이 주요인
7/7 (토)	○ 미국 AIG의 현대증권 사모 M&A 펀드 참여 사실 무근 ○ 기관투자가 은행 대주주 허용
7/8 (일)	
7/9 (월)	○ 금감위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안 ○ 사모 M&A 펀드 편법 모집 논란 ○ 변액보험 7월 9일 오늘 시판
7/10 (화)	○ 대투증권 업계 첫 부실자산 해외 매각 성공 ○ 43개 중소형 기금 투자풀 (Investment Pool) 조성

◈ 7월 목차 (7/11-7/20)

7/11 (수)	○ 프라이머리 CBO 발행 지지부진 ○ 사모 M&A 펀드의 목표물은 관리 종목 ○ 현대투신 매각 협상 이달말 마무리될 듯 ○ OECD 한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 지적
7/12 (목)	○ 이번 주 투신권 1조원 지원 ○ 신종 비과세펀드 4천억원 예약 판매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목표 미달땐 경영진 징계
7/13 (금)	○ '방카슈랑스' 이르면 내년 도입 ○ 서울보증보험의 투신권 대지급금 감액 요청에 투신권 강한 반발 ○ 대투증권 경영권도 해외 매각 추진 ○ 일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10월 도입
7/14 (토)	○ 콜 금리 인하로 투신권 수탁고 크게 증가 ○ 애널리스트 통제 강화
7/15 (일)	
7/16 (월)	○ 금융 신상품 배타적 보호 6개월 확정 ○ 자산운용 관련 법률 통합 논란
7/17 (화)	제 헌 절
7/18 (수)	○ 과다 지급받은 공적자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대투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10월쯤 폐지 ○ 금감원 만기 투기채 소화할 신상품 검토 ○ 역외펀드에 배당소득세 물린다 ○ MMF 상품이 허용될 자산운용사
7/19 (목)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조만간 시판 예정 ○ 마땅한 투기등급 채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투신권 ○ 구조조정촉진법안 대폭 수정 ○ 변액보험 약관 허술
7/20 (금)	○ UBS 한투운용 인수 시사 ○ 중·소 연기금 조만간 증시 투입 예정 ○ 손실보전 약속 투자 권유시 문책

◈ 7월 목차 (7/21-7/31)

7/21 (토)	○ 투신사도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 ○ "기업연금과 종업원 복지" 국제 세미나 개최
7/22 (일)	
7/23 (월)	○ 하이닉스의 현대투신증권 주식 외환은행에 위임 ○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 개방형으로 속속 전환
7/24 (화)	○ 대우채 손실 100억원을 보상 요구하는 창투사 ○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순유입 전환
7/25 (수)	○ 투신권에 8,800억원 대지급한 서울보증보험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금감원 ○ 은행·투신 교차마케팅 (cross marketing) 붐 ○ 1조원 규모 부동산펀드 8월 출범 ○ 국민연금 체납 82,870여개소
7/26 (목)	○ MMF 수탁액 40조 재돌파 ○ 투신 펀드 통폐합 난관 ○ 투신 보유 상장주식 크게 줄어 ○ 내년 1월부터 증시 전자 감시 ○ 채권평가사 선점 경쟁 치열
7/27 (금)	○ 투신운용업, 자산운용업, 은행 신탁업무 통합 방안 제시 ○ 증권투자회사 미흡한 자금 유입 ○ 교보투신운용사 MMF 환매 분쟁
7/28 (토)	○ 신한금융지주회사 오는 9월 출범 ○ 변액보험 판매 저조 ○ 투신사 금리스와프펀드 인기
7/29 (일)	
7/30 (월)	○ 현투증권 매각 8월초 타결 예상 ○ 국민연금 700억원 증시 투입
7/31 (화)	○ 개인 공모주 배정 5% 줄 듯 ○ CBO, CLO 980억원 부실 발생

♣ 2001년 7월 2일 월요일

○ **원금보장 네티즌펀드 금감원에서 일제 단속 착수**

– 금감원은 영화, 서적, 음반과 관련된 투자 펀드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로 보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힘

-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펀드는 최근 1인 최대 5천만원, 펀드 규모도 4억원 이상으로 커지는 등 자칫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
- 인터넷을 통해 일정 부분 사업 내용을 공지하고 수익률 배분 내용도 알리는 등 다른 유사 수신행위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금보장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조흥투신운용 지분 30% 해외 매각**

– 지난 6월 29일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2002년 이후 종합금융 그룹 도약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연내에 조흥투신과 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외자 유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아울러 주가가 5,700원 이상이 되면 $7억의 해외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을 통해 정부의 조흥은행 지분을 현재 80.5%에서 50%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언급

– 조흥은행은 조흥투신과 카드 자회사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더라도 51%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갖는다는 방침임

- 이미 조흥투신 외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기관과 협상하고 있으며 이달 중 제안서를 접수해 10월까지 매각 완료할 계획임

♣ 2001년 7월 3일 화요일 (1)

○ 올 상반기 투신사별 수익률 결과 발표

– 7월 2일 펀드평가사인 한국펀드평가(주)는 유형별 운용자산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 주식 성장형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프랭클린템플턴인 것으로 조사됐음

- 교보, LG, 한국투신이 15% 이상의 수익률로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신영, 대한투신 등은 10% 미만의 수익률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 장기 채권형 펀드에서는 신영, 서울, 태광투신 등 중소형 투신사들이 5% 이상의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동원, 템플턴, 현대는 4.5% 미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했음

– 회사별 펀드 수익률 순위

주식 성장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		
순위	회사명	6개월 연 환산 수익률	순위	회사명	6개월 연 환산 수익률
1	템플턴	34.12%	1	신영	5.54%
2	교보	17.49%	2	서울	5.42%
3	LG	15.98%	3	태광	5.20%
4	한국	15.30%	4	교보	5.16%
5	동원	14.77%	5	조흥	4.99%
6	삼성	14.06%	6	한화	4.97%
7	동양	13.75%	7	삼성	4.69%
8	제일	12.41%	8	동원	4.26%
9	현대	11.56%	9	템플턴	4.24%
10	대신	10.64%	10	현대	4.16%

○ 투신권 수익증권 수익률을 앞선 증권투자회사 실적

–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증권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일반 성장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20.77%를 기록

- 이는 투신사의 성장형 펀드 평균수익률 14.17%를 6% 이상 웃도는 것이며, 동기간 종합주가지수가 1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시장수익률을 초과한 성과를 거둔 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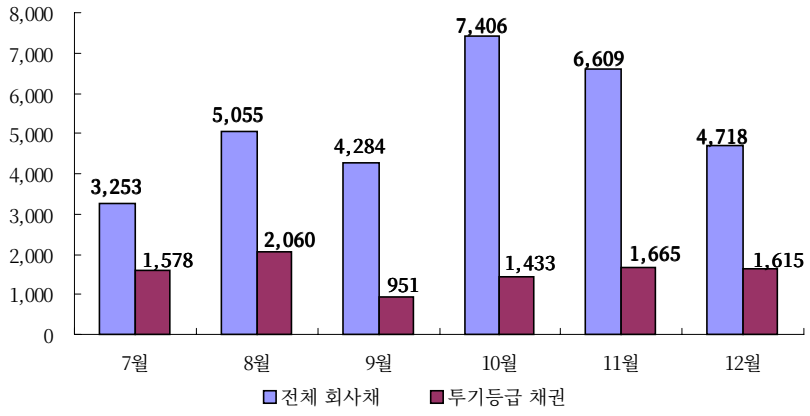
– 기존 투신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 (주로 코스피200에 편입돼 있는 주식)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코스피200지수의 성과가 15.55%에 불과한 탓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 반면, 자산운용사는 주로 저평가된 종목 발굴에 나서면서 수익증권 수익률을 앞질렀음

♣ 2001년 7월 3일 화요일 (2)

○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31조**

- FnGuide에 따르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및 전환사채는 제외)는 31조3,258억원으로 무보증 회사채가 29조4,367억원임
- 특히, 10대 그룹의 회사채 만기 물량이 18조3,358억원으로 하반기 만기 물량의 58.5%를 차지하고 있음
  -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4조6,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3조9,597억원), LG (3조3,181억원), SK (1조9,975억원) 순임
- A등급 이상 회사채는 13조2,451억원이며, BBB등급 회사채는 7조765억원으로 이들은 전체 회사채 물량의 65%를 차지
  - 이들 투자적격 채권은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 발행과 현금 상환 등을 통해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문제는 투기등급 채권으로 부도기업과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투기등급 회사채는 29.6%인 9조3,015억원임
  - 이 중 무보증 투기등급 회사채는 8조1,100억원에 달함
- 하반기 월별 회사채 만기 물량 (자료: FnGuide, 단위: 10억원)



- FnGuide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채 물량을 조절하고 신종 비과세펀드를 판매해 자금시장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
  - 내년 상반기 물량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001년 7월 4일 수요일 (1)

○ 대한투신운용의 해외 매각 곧 가시화

– 김병균 대투증권 사장은 7월 3일 자회사인 대한투신운용의 해외 매각 작업이 이달말쯤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힘

  • 김사장은 8월초까지 해외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한투신 지분의 50% 이상을 매입하려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대투증권 지분의 10%를 추가 인수해 주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김사장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영업점 독립채산제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임

  • 대투증권의 경우 1/4분기 (2001.4~6) 중 1,2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한투증권의 경우 동기간 1,100억원 기록

– 한편, 대투증권은 지난 6월 27일 대우증권 소송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1,042억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으며, 소송 중인 대우 자발어음 건이 타결될 경우 연말까지 추가로 3,5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예정

○ 신종 비과세펀드에 발묶인 투신

– 7월에 예정된 신종 비과세펀드의 발매가 늦어지면서 은행, 투신사들에 비상이 걸렸음

– 결제 조건인 조특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중자금 유치는 커녕 시판을 앞두고 예약 판매했던 고객 돈까지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 7월 2일 현재 한투: 1,075억원, 대투: 1,058억원, 현투: 490억원 등 신종 비과세펀드의 예약 판매 물량이 2,600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한 투신사 관계자는 기존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의 만기 고객과 신규 고객으로부터 예약 자금을 받았으나, 현재 임시방편으로 MMF에 예치해 두고 있지만 만기 고객들에게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

○ 첫 기업인수가 이뤄진 사모 M&A 펀드

– 지난 5월 M&A 전용 사모펀드가 허용된 뒤 처음으로 M&A 펀드를 통한 기업의 경영권 인수가 이뤄졌음

– 대우증권은 7월 3일 자사가 자문하는 거버너스 사모 M&A 펀드 1호가 상장법인인 중앙염색가공의 지분 31.2% (93,500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힘

  • 거버너스1호는 대주주인 동일방직 (59,000주)과 일신방직 (34,500주) 지분을 장외에서 49억8천만원 (주당 53,300원)에 인수했음

– 거버너스1호는 지난 6월 27일 금감원에 등록한 사모 M&A 펀드로 크리스탈투자자문이 자산을 운용하고 교보증권이 판매를 맡고 있음

  • 총 자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주로 참여하고 있음

♣ 2001년 7월 4일 수요일 (2)

○ **국제 투자자금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 두각**

–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기의 회복 징후로 인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약 1년 동안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성 금융자산과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연금펀드인 캘리포니아 퇴직연금 (캘퍼스)이 $50억을 헤지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기관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투자에 나설 태세임

– 뉴욕 소재 헤지펀드 자문업체인 헤네시 그룹에 따르면, 현재 헤지펀드의 투자원금 규모는 $4,080억에 달해 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이후 3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비율 (투자원금 대비 총 투자 가능 금액)이 평균 10배 이상으로 회복된 점을 감안하면 최대 투자금액은 $4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됨

– 아울러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음

- 이미 한국을 비롯한 외환위기 국가에선 헤지펀드 성격의 해외 펀드들이 상당 규모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매입해 놓은 상태임

– 과거 헤지펀드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기업과 채권 매입에서 시작해 주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감안하면 대우차 매각과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국내 증시에 국제 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6월 이후 각종 해외 펀드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수정했고,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평균 3% 정도 높여 놓은 상태임

♣ 2001년 7월 5일 목요일

○ 단독펀드 난립에 큰 폐해 초래

– 금감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재환 의원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25개 투신운용사의 6,575개 펀드 중 850개가 단독펀드인 것으로 밝혀짐

- 아울러 2인 이상이 가입한 펀드 중에서도 가입자 한사람이 펀드 재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305개임
- 따라서, 사실상의 단독펀드 수는 1,155개로 전체 펀드 수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이처럼 단독펀드가 난립하는 것은 수탁고를 늘려야 하는 투신사와 펀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기관투자가의 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독펀드로 인해 불필요하게 펀드수가 늘어날 경우 감독기관의 감시기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함
- 여기에 단독펀드 가입자인 기관투자가들이 펀드 운용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펀드매니저들의 독자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 업계 관계자는 단독펀드는 사실상 사모펀드인데 공모 방식으로 설정되는게 문제이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분리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

○ 7월 4일 국민연금 3,200억원 증시 투입

– 국민연금은 7월 4일 자산운용사를 통해 당초 투입키로 했던 6,000억원 가운데 3,200억원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인 증시 자금 투입이 시작됐음

– 자산운용사들은 이날 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매입에 투입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주식 편입을 완료할 계획임

- 국민연금은 지난 주 운용사들에 주식 매입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한 약관을 2주 (10영업일) 이내로 바꿨음

– 국민연금 자금이 업종 대표주들이면서 낙폭 과대 대형주들인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항제철, 현대차, 국민은행, 삼성증권 등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주가 상승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보임

- 7월 4일 장 중반 한때 6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587선까지 밀렸던 증시는 국민연금 자금 투입 소식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해 2.94포인트 상승한 597.25에 장을 마감했음
- 투신권은 연기금 자금 등에 힘입어 이날 하루 동안 423억원 이상 순매수했고, 연기금이 거래소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도 468억원을 상회했음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행동 개시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기유발 구실을 하지 못하더라도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보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년 7월 6일 금요일 (1)

○ 국민연금 수수료 덤핑 경쟁

–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과 관련해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 입찰이 증권업계 수수료 인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음

- 국민연금은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해 일반 주식형 펀드의 ¼ 수준에 그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기금 펀드 자체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음

– 국민연금은 이번 위탁 투자를 실시하면서 순수 주식형 펀드는 0.3%, 인덱스형은 0.25% 이내에서 수수료를 제한하도록 했음

- 이와 별도로 성과급 수수료도 지수 대비 초과수익의 20% 인내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제안서를 쓰도록 했음
- 총 수수료 상한선은 연간 0.5~0.8%로 제한했음
- 일반 주식형 펀드의 총 수수료는 평균 2.5%로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운용수수료는 최소 1%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임

– 동시에 연기금의 위탁 운용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몇몇 운용사는 일반 펀드의 10분의 1에 그치는 0.1%의 수수료를 제시해 국민연금의 수수료 입찰이 수수료 덤핑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

–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덤핑은 증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고급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유능한 펀드매니저 유지도 힘들게 해 결국 펀드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 가령, 500억원을 운용했을 때 최대 0.3% (성과수수료 제외)를 받는다고 해도 운용사 수익이 연간 1억5,000만원에 그쳐 펀드매니저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함

○ 투신권 하반기 만기 투기채 2조9,000억원

–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33조원대 회사채 가운데 올 하반기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기등급 채권은 모두 2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됨

-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채권 중 올 하반기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는 7조1,000억원으로 투기등급 채권 비중은 30.3%인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투기등급 채권 중 만기 연장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회사채 약 1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만기되는 물량은 2조원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됨

– 투신권은 투기등급 채권에 대해 프라이머리 CBO펀드 추가 조성 등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투신권 차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1년 7월 6일 금요일 (2)

○ 한국 국채 유동성 아시아 최고

- 금감원은 7월 5일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채의 평균 회전율이 지난 1분기 평균 2.51%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는 2.19%에 달했다고 밝힘
  - 아시아 국가 중 국채 하루 평균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일본의 1.9%를 넘어섰으며, 이탈리아 국채 회전율 (0.96%) 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채 거래량도 지난 97년 하루 평균 4,000억원에서 98년 1조2,000억원, 99년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금년 5월말 현재 3조8,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현대문제 등으로 시작된 안전자산 선호 (flight to quality) 현상이 더 이상 재료로 작용하지 않고 유동성 선호 (flight to liqudity) 현상이 더 일반적이 됐다고 언급
- 아울러 하이닉스반도체 외자유치, 현대건설 출자 전환, 대우차 문제 등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반영되면서 회사채 (BBB-)와 국공채간의 수익률 차이가 좁혀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됨
- 금감원은 금리 변동이 커지는 시점에서 단순히 금리 전망을 토대로 채권을 사고 파는 전략을 벗어나 인덱스를 이용한 투자전략이나 RP 등을 이용한 차익거래 전략, 파생상품과 연계된 채권 투자전략 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

○ 한국 상장사 주가 저평가는 지배구조 및 회계 불투명이 주요인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제공 기관인 '데이터 스트림'이 국제증권거래소연맹 (FIBV) 회원국의 거래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7일 현재 한국의 PER는 14.5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선진국 평균인 27.6의 52.5%에 불과했으며, 이머징 마켓 평균 19.7의 7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평균 PER는 미국 22.2, 일본 77.0, 영국 20.8, 홍콩 17.8, 멕시코 16.6, 중국 44.9인 것으로 조사됨
- 이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소가 주요국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PER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2.7로 조사됨
  - 반면, 미국은 32.8, 일본은 89.58, 홍콩은 22.05, 타이완은 15.23, 싱가포르는 22.01 등으로 한국보다 높았음
- 증권거래소는 한국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는 요인으로 낙후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 불투명한 기업회계, 협소한 증권시장, 홍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부족, 최고경영자 (CEO)에 대한 낮은 보상 등을 꼽았음

♣ 2001년 7월 7일 토요일

○ **미국 AIG의 현대증권 사모 M&A 펀드 참여 사실 무근**

- 현대증권은 7월 6일 현대투신 자본 참여를 놓고 협상 중인 미국 AIG사가 현대증권의 사모 M&A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설을 공식 부인했음
- 현대증권 관계자는 지분 참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현대증권 상품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사내외에서 그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기관투자가 은행 대주주 허용**

- 정부는 30대 그룹 일부에 대해 은행 소유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기금과 증권투자회사 등의 기관투자가가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해 주기로 했음
- 이와 관련해 정부는 3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중 금융업에 전체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했을 때 산업자본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산업자본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정부는 또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의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를 확대한 후에는 연기금이나 증권투자회사 등이 은행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2001년 7월 9일 월요일 (1)

○ 금감위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안

- 금감위는 7월 8일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10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음
-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주요 내용
  - 신상품 규제 대폭 해제 (사전 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 신상품 개발 금융회사에 배타적 독점권 부여
  -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 여신 금리 차등폭 확대
  - 금융회사 해외 점포 및 역외펀드 건전성 강화
  - 성과급 확대
  - 기업 신용등급별 여신 전결권 부여
-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금융회사별 여·수신 금리는 물론 수수료까지 대폭 차등 적용하여 고객들이 금융상품 및 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
- 이에 따라 자신의 기호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을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러한 고객들을 잡기 위한 금융회사들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반면, 은행이 공과금을 수납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가 최고 100% 이상 올라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사모 M&A 펀드 편법 모집 논란

- 한국창업투자 인수를 추진 중인 벤처테크가 100%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사모 M&A 펀드 자금을 모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벤처테크는 기보엔젤클럽과 서울엔젤클럽 회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 예정인 '벤스탁 사모 M&A 펀드' 출자를 권유하면서 목표수익률 250%, 최소 제공 확정 수익률 100%에 변호사 공증을 조건으로 내세웠음
  - 사모펀드는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49인 이하여야 한다는 인원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묶어 펀드 운영자 명의로 출자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벤처테크 관계자는 투자 자금을 확정한 후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출자를 먼저 받게 됐고, 수익률 보장은 투자자들에게 안심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언급
-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 제공 각서를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보장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 공증을 통한 수익률 보장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 2001년 7월 9일 월요일 (2)

○ **변액보험 7월 9일 시판**

– 고객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하는 변액보험이 7월 9일부터 판매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곧바로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됨
- 조건부 수리된 푸르덴셜생명은 변동 보험금의 계산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수정 후 판매하게 될 것임

– 이번에 도입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매월 변동), 해약환급금 (매일 변동) 등이 변동되는 순수 보장성 종신보험임

-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동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특별계정의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됨에 따라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음

♣ 2001년 7월 10일 화요일

○ 대투증권 업계 첫 부실자산 해외 매각 성공

– 대투증권은 7월 9일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파산채권 등 2,182억원어치 부실채권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

- 이에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와 기관투자 업체인 서버러스에 부실채권 원금의 28% (약 611억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종 낙찰됐다고 밝힘
- 대투증권의 이번 부실채권 매각 낙찰률은 28%로 외환 위기 직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은행권의 담보부 부실채권 낙착률 10~20%를 훨씬 웃도는 것임

– 대투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 매각한 부실채권은 지난 해 장부상 가격으로 계상해 일괄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의 일부여서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자산 내역이 비슷한 다른 전환증권사들도 부실자산 유동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투신권의 부실 처리와 특별이익 발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임

○ 43개 중소형 기금 투자풀 (Investment Pool) 조성

– 오는 9월 43개 중소형 기금을 위주로 한 투자풀 (Investment Pool)이 조성돼 이 중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될 예정임

- 자산운용은 3~4개 민간 투신사에 분산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이며, 정부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

– 기획예산처는 삼일회계법인에 연기금 투자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힘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행 주식 전용펀드 규모인 3조원 정도에서 출발해 차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나 국민연금 등 대형 기금들이 여유자금 중 일부를 참여시키게 되면 초기 규모가 2~3배로 커질 수도 있다고 언급

– 투자풀은 자산 운용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중소형 기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 우체국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대형 기금이 참여할지는 유동적임

♣ 2001년 7월 11일 수요일 (1)

○ 프라이머리 CBO 발행 지지부진

– 6월부터 8월까지 총 5조9,000억원 규모로 발행될 계획이던 CBO 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지난 6월 발행 예정이던 1조2,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한 달째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증권사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CBO 발행 제안서 순서에 따라 8월까지 20여개 컨소시엄이 발행키로 한 5조9,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시기도 대폭 늦춰질 것으로 예상

– 이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기업풀 (Pool)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임

○ 사모 M&A 펀드의 목표물은 관리 종목

– 사모 M&A 펀드의 수혜 종목이 예상과 달라질 전망임

- 대주주 지분이 낮고 자산가치가 높은 저평가 종목들보다 대주주가 실제로 팔 의사가 있거나 채무 인수 방식으로 손쉽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회사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임
- 대부분 부도나 화의 상태인 이들 기업은 모든 부채와 부실이 드러나 있어 추가 자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적고 사실상의 대주주인 채권단에서 채권을 인수해 경영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

–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에 돈을 댄 기관투자가들이 적대적 M&A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2백억원 이하인 펀드 규모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주식 매집 경쟁이 쉽지 않고 인수 비용이 높아져 수익을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힘

○ 현대투신 매각 협상 이달 말 마무리될 듯

–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7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대증권 가격을 뺀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AIG측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투신 매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힘

- 또 정부와 AIG는 현재 현대투신 실사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AIG측은 현대증권 주식 매수와 관련해 현대측과 가격 문제를 협의 중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2001년 7월 11일 수요일 (2)

○ OECD 한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 지적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정부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늦출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멀지 않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OECD는 한국이 선진국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상황을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단계로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음
- 이는 25개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 검토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경부가 밝힘

– OECD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OECD 한국 보고서를 오는 9월말쯤 발표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 OECD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결국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뒤 연금 수급 연령과 수준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음

-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급여 수혜자는 40만7,000명으로 오는 2030년에는 609만4,000명까지 12.5배가 늘어날 전망임
- 이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도 87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7월 12일 목요일

○ 이번 주 투신권 1조원 지원

–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1조원을 이번 주 내에 투입하고 이 자금을 투신사에 공급해 투신사의 주식 매수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프라이머리 CBO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특별설비 투자자금 1조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음
- CBO 채권 발행시 계열 기업, 업종별 편입 비율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음

– 정부는 7월 11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5~6조원을 투신사와 합의하여 7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우선 7월 13일 예금보험기금 채권 1조원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음

- 투신사가 이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유동성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

○ 신종 비과세펀드 4천억원 예약 판매

– 7월 18일부터 신종 비과세펀드 환매를 앞두고 투기등급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신사들을 중심으로 약 4,000억원의 예약 판매가 이뤄졌음

- 대투운용이 1,500억원, 한투운용이 1,370억원, 현투운용이 912억원의 예약 판매 실적을 올렸음
- 예약 판매분은 펀드가 설정될 때까지 MMF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되며, 비과세 혜택은 예약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목표 미달땐 경영진 징계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경영 정상화 이행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 규정에 따르면 예보는 분기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해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엄중 주의, 직무 정지, 해임 조치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방침임

- 예보는 이를 위해 예보 임원과 금융, 법률, 회계 전문가 등 6명으로 MOU 이행 점검 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감원과 이행 실적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음

♣ 2001년 7월 13일 금요일 (1)

○ '방카슈랑스' 이르면 내년 도입

–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은 7월 12일 능률협회 주최 금융인 조찬회에서 오는 2003년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를 앞당겨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으나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도록 규제해 왔음

– 정부는 다만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원도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기업체에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소위 '꺾기'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 '방카슈랑스'가 조기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다 보험 모집인에게 지출되는 과다한 사업비를 경감해 보험상품이 값싸게 공급될 전망임

○ 서울보증보험의 투신권 대지급금 감액 요청에 투신권 강한 반발

–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에 줘야하는 대지급금 중 약 4,800억원을 감액하려 하자 투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이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대형 투신사의 경영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탁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권 전체에 대지급해야 할 금액 7조3,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200억원은 감액한다는 방침임

- 이 중 투신사에 지급해야 할 보증채 5조4,100억원 중 4조1,500억원은 현금 지급하고 4,800억원을 감액 요구하며, 나머지 7,900억원은 차환 발행이나 회수 후 지급한다는 계획임

○ 대투증권 경영권도 해외 매각 추진

– 김병균 대투증권 사장은 7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투증권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자회사인 대투운용의 해외 매각에 이어 대투증권 경영권 해외 매각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 김 사장은 현재 메릴린치를 주간사로 하고 미국이나 유럽계 투자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 달 초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
- 그는 프리미엄을 얹어 대투운용의 지분 50% 이상을 매각하고, 대투증권 지분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의해 이르면 9월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2001년 7월 13일 금요일 (2)

○ **일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10월 도입**

– 일본은 지난 6월 22일 확정갹출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 1일부터 '기업형'과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의 두 가지가 시행될 예정임

- 가입자는 은행예금이나 투자신탁, 채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최소한 3가지 자산을 운용하되 안전 투자를 위해서 적어도 하나는 은행예금이나 금융채, 국채, 지방채 등 원금 보전형 상품을 택해야 함

– 일본이 약 5년간의 논의 끝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를 도입한 것은 현행 기업연금이 고용시장의 인력 이동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증시 침체와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연금 적립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 일본 정부도 고용시장의 유동성이 촉진된다는 점 외에 새로운 연금제도가 증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같은 기대대로 일본판 401(k)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새 연금제도를 도입할 지도 의문임

-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이 올 초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검토 중이거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업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됨

♣ 2001년 7월 14일 토요일

○ 콜 금리 인하로 투신권 수탁고 크게 증가

- 지난 7월 5일 단행된 한은 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융시장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채권 매수기반인 투신권의 채권형 펀드 및 MMF로 흘러 들어간 뒤 다시 기업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
- 투신권의 채권형 펀드 수탁액은 지난 7월 9일 현재 66조1,841억원으로 6월말에 비해 1조5,455억원이 증가했음
  - 장기 채권형의 경우 9,389억원, 단기 채권형의 경우 6,066억원이 증가했으며, 동 기간 단기 상품인 MMF의 수탁고도 4조498억원 증가했음
- 투신권은 이렇게 늘어난 자금으로 회사채 매수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콜 금리의 인하가 일단은 자금 선순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애널리스트 통제 강화

- 금감원 관계자는 7월 1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증권업협회를 통해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새로운 자율규제 방안은 미국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통한 담당 종목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투자자들이 증권사 분석 자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율규제 배경을 설명했음

♣ 2001년 7월 16일 월요일

○ 금융 신상품 배타적 보호 기간 6개월

- 금융회사들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보호 기간이 6개월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과 금융회사들은 7월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신상품 배타적 권리 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 규약안을 마련했음
  - 금감원은 당초 최고 1년까지 배타적 권리보호 기간을 두려 했지만, 상품의 선점 기간이 길어야 2~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6개월로 확정했다고 밝힘
-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담당자들에게 금융 신상품에 적극 나서주도록 권유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인력 조직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음
  -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명 등에 대한 특허 출원, 상표 등록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
- 금감원은 조만간 보호대상에 포함될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방침이며 올 하반기부터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보호기간을 인정할 방침임 (자료: 서울경제)

○ 자산운용 관련 법률 통합 논란

- 재경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운용 관련 법률 통합작업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는 은행신탁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산운용 관련법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방침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
- 통합 반대론자들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증권관련 법률만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추이를 지켜본 뒤 은행신탁업법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 통합 찬성론자들은 은행신탁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아 제도 선진화를 이룬 증권업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통합 법률을 만들어 동일한 관리 감독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
  - 이와 관련하여 업계는 집합적 자산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모든 유가증권 투자행위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 과다 지급받은 공적자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대투

- 대한투자신탁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1,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대투는 지난 1999년 대우계열사에 9,000여억원의 콜자금을 제공했으며, 대우그룹이 부도난 후 이 돈을 떼이게 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예보를 통해 4,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
- 이후 대투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대우 콜자금 지원때 중개업무를 맡았던 대우증권, 영남종금, 나라종금 등 3개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음
  - 이에 대해 법원은 대우 계열사에 돈을 직접 빌려준 대우증권이 콜자금의 90%를 대투에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 대우증권은 판결에 따라 대투에 우선 1차로 830여억원을 돌려 주었으나, 대투는 콜자금 보전용으로 지원받은 공적자금 1,000여억원을 아직 예금보험공사에 반납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영남, 나라종금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험공사에 3,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대투는 회사가 채권 확보 노력을 기울여 얻은 이익이므로 회사이익으로 처리해야 되며 공적자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임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10월쯤 폐지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오는 10월쯤 조기 폐지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관계자는 올해초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업체 중 상당수가 개별적인 채무 재조정이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로 인해 시장충격 완화 차원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말 이전에 조기 폐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은 7월 18일 8월분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으로 하이닉스반도체 (4,000억원)와 현대석유화학 (1,760억원), 현대건설 (174억원), 성신양회 (300억원) 등 4개사를 선정할 예정임

♣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2)

○ 금감원 만기 투기채 소화할 신상품 검토

– 금감원은 일정 시점 이후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되는 '강제전환증권'과 'Unit Investment Trust Fund' 등을 증권사의 새 파생상품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금감원 관계자는 7월 17일 하반기에 만기가 몰린 투기채를 소화할 수 있는 신상품의 허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검토되는 주요 신상품

- 일정 기간 이후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전환사채인 '강제전환사채'를 고수익채권의 출자 전환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Unit Investment Trust Fund는 주식형의 인덱스펀드처럼 고수익채권에 대한 편입비율과 신용평가등급 등을 미리 정해 놓아 펀드매니저의 주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투기채를 운용하는 펀드임
- Unit Investment Trust Fund의 경우 투기채 편입비율이나 이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의구심과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됨
- 금감원은 신용등급 변경시에 신용연계채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신용연계채권이란 신용등급 등과 같이 발행기업의 신용을 나타내는 지표의 변동에 연계하여 이자 지불액이나 상환액이 변동되는 채권임

○ 역외펀드에 배당소득세 물린다

– 정부는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유해 조세 경쟁'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역외펀드 등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는 FIF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재경부 관계자는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Foreign Investment Fund)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 2~3년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연구원과 함께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FIF 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 회피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외 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펀드 이익이 내국인에게 배당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MMF 상품이 허용될 자산운용사

– 이르면 8월말부터 자산운용사도 MMF를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용하며 증권회사와 은행을 통해 팔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7월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사 위기에 빠진 자산운용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도 MMF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임

♣ 2001년 7월 19일 목요일 (1)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조만간 시판 예정

–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을 투자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7월말부터 투신사와 은행에서 일제히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는 7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감원 승인이 떨어지는 7월말부터 2002년말까지 판매될 예정임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주요 특징

구 분	단위형	추가형
신탁 기간	13~36개월	3년
중도 해지수수료	이익의 70% 이상	1년 경과 후 수수료 면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운용 제한	B-~BB+ 채권 또는 B-~B+ 기업어음에 30% 이상 투자	
판매 기관	은행 및 투신사	

○ 마땅한 투기등급 채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투신권

– 투신업계는 7월말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판매를 앞두고 펀드에 편입할 마땅한 투기등급 채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음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펀드 내에 B-~BB+급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채워야 하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펀드에 편입시킬 만한 투기등급 채권이 흔치 않기 때문

– 아울러 일부 매력적인 채권은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높아 편입시키더라도 양호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대투증권의 경우 7월 18일 기준으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1,700억원을 예약 판매했으며, 예약 판매된 자금은 현재 MMF로 운용 중임

- 7월 18일 기준 한투증권 1,500억원, 7월 16일 기준 현투증권 1,170억원 등이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 예약 판매됐음

♣ 2001년 7월 19일 목요일 (2)

○ **구조조정촉진법안 대폭 수정**

– 국회 법사위는 7월 18일 구조조정촉진법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부분 수정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됨

-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던 주채권 은행의 독자적인 채권 행사 유예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채권조정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면책 조항도 삭제했음

– 국회는 주채권 은행의 재산권 행사가 초법적인 침해가 된다고 보고 이를 대신하여 금감원장이 전 채권 금융기관에 채권 행사 유예를 요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음

- 이 경우에도 금감원장의 요청에 강제성을 배제해 채권 금융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 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
- 이로 인해 금감원과 주채권 은행은 단순한 행정지도만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음

○ **변액보험 약관 허술**

– 7월초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간접투자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투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 중 일부분을 특별계정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 특별계정 부분이 운용담당 인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할 정도로 약관 구성이 허술하다는 지적

– 투신사 펀드의 경우 같은 채권형이더라도 약관 상에 국공채, 회사채에 각 일정비율을 투자하고 환급에 대비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음

- 이와 달리 변액보험 약관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 대출이나 단기자금으로 운용된다는 식으로 불분명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임

– 이로 인해 시장관계자들은 보험사가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위험 채권 편입비율을 지나치게 높인다던지 펀드의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2001년 7월 20일 금요일

○ UBS 한투운용 인수 시사

- 스위스의 UBS자산운용사가 한투운용에 대한 지분 참여 의사를 확고하게 밝혀 한투증권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7월 19일 John Fraser UBS자산운용사의 아·태 지역 대표는 한투운용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이며 지분 참여 비율과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밝힘
  - 아울러 향후 3~4개월 내에 한투운용 매각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며, 한투운용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 경영권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해 홍성일 한투증권 사장은 UBS자산운용사의 인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힘
- 이 날 한투증권과 UBS자산운용사는 UBS 펀드의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16개 UBS 펀드가 한투증권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될 전망

○ 중·소 연기금 조만간 증시 투입 예정

- 정부 관계자는 7월 19일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 연기금 투자를 오는 8월말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존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주식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중·소 연기금이란 자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자 소득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들로써, 문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경찰공제조함 등이 여기에 속함
-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낮은 이자 소득으로 운용되는 이들 기금의 자금을 통합하여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 투신사 등에 외주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내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며, 내부안을 완성한 이후 기금 운용의 방향이 결정되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 손실보전 약속 투자 권유시 문책

- 8월부터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할 경우 엄중 문책당하게 되며 신용 거래, 선물·옵션 거래, 시스템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등 고위험 거래시 손실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함
- 한국증권업협회는 7월 19일 금감위가 새로 만든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에 근거해 위반 임직원의 견책, 감봉, 정직을 요구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임

♣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

- 7월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투자회사 시장 확대 차원에서 투신사에게 증권투자회사 취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음
  - 투신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취급을 신청할 경우 7월부터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언급
- 이 같은 조치는 자산 운용 노하우가 많은 투신사에게도 증권투자회사를 개방해 간접투자 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로 사료됨
  - 대신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신사 고유 상품인 MMF 취급이 허용될 예정임
-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자산운용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투신사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음

○ "기업연금과 종업원 복지" 국제 세미나 개최

- 한국증권연구원은 선진국 기업연금 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음
  - 이 세미나를 통해 국내 퇴직금 제도의 실태 및 개선 사항과 이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연금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적절한 기업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금감원의 연금담당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 급부와 예상 급부액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향후 재정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 아울러 인구가 노령화되어 부양비율이 급등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일방적 재원 부담을 요구하게 될 문제점을 시사
  - 이는 세대간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후세대들로 하여금 높은 갹출금을 요구하게 되어 저축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
- 현 법정 퇴직금 제도의 경우 이직이 증가하는 노동시장 상황과 계약직 및 임시직 등 불규칙적인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처 능력이 미흡함
  -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도산하는 기업의 증가로 인해 종업원의 퇴직금 보장에 대한 제도 장치가 시급한 실정임
- 노동시장에는 이미 보조적 기업연금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2001년 7월 23일 월요일

○ 하이닉스의 현대투신증권 주식 외환은행에 위임

–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투신증권 주식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외환은행에 위임함에 따라 현대투신이 추진 중인 AIG로부터의 외자 유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음

- 하이닉스는 지난 7월 20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현대투신증권의 보통주 88,931,761주 (지분율 41.9%)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위임한다고 밝혔음
- 현재 현대투신증권의 1대 주주는 하이닉스이며 현대증권과 현대상선은 각각 18.62%, 1.48%의 지분율을 갖고 있음

– 하이닉스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될 경우 현대투신증권을 현대그룹 계열사로 존속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음

- 실제 하이닉스는 8월에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될 예정임
- 이렇게 될 경우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현대투신증권도 자동으로 현대그룹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투신증권의 주식을 외환은행에 위임한 것임

○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 개방형으로 속속 전환

–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에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는 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 개방형 펀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는 펀드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워졌음
- 준개방형 펀드는 지난 해 폐쇄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의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설정돼 운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환매가 금지되며, 3~6개월 동안은 투자금액의 50%까지만 환매가 가능한 상품임

– 지난 3월 7일 KTB 자산운용이 KTB 혼합형 1호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개 펀드가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끝마쳤음

♣ 2001년 7월 24일 화요일

○ 대우채 손실 100억원을 보상 요구하는 창투사

- 벤처캐피털이 지난 99년 8월의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로 약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신사들에 이를 지급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했음
  - 투신사들은 지난 해 11월 중 기관 및 벤처캐피털이 가입한 수익증권의 대우채 편입 부분에 대해 30~70%에 해당하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및 일반법인은 95%를 지급했음
- 벤처캐피털들은 99년 8월 19일 투신협회에서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는 창투조합이 열거돼 있지 않다며 조합이 가입한 투신사 수익증권의 대우채 부분에 대해 개인 및 일반법인에 준해 환매돼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창투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로 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일부 벤처캐피털들은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임

♣ 2001년 7월 25일 수요일 (1)

○ 투신권에 8,800억원 대지급한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한국투신 등 14개 투신사에 대우 계열과 기업개선작업 기업의 보증사채 보험금 8,800억원을 대지급했다고 7월 24일 밝혔음

–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우 등 대우 계열 8개사의 만기 보증사채에 대해 최근 지원 받은 1조원의 공적자금으로 한빛은행 2,000억원에 이어 투신권에 대지급한 것임

- 서울보증보험은 자체 자금으로 동서산업과 고려산업개발 회사채 800억원도 대지급했음

– 투신권 별로는 한국투신이 1,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투신 1,450억원, 서울투신 800억원, 현대투신 660억원 순임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금감원

– 금감원은 7월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신상품 개발 관련 조직의 효율성, 상품 개발 전문인력 구비 능력,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7월 24일 밝힘

- 이 같은 부분은 경영실태 평가상의 '내부 경영관리의 합리성' 및 '수익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임

–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선진 경영기법 연구 및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7월부터 CRM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음

-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제도란 고객별로 축적된 정보 분석을 기초로 고객별 금융상품 구매 유형 등을 파악해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고객관리 기법임
- 이에 따라 고객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재테크에 관한 각종 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체계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은행·투신 교차마케팅 (cross marketing) 붐

– 금융권 지주회사 설립과 맞물려 은행의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은 전문 운용기관인 투신운용사가 맡고 은행은 투신사 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은행·투신사간 크로스 마케팅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은행으로서는 투신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등 수익원 다변화라는 이점이 있고 투신운용사로서는 자산 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 고객을 끌어들여 판매망을 확충한다는 장점이 있음

- 신한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은 각각 신한은행과 한빛은행 전국 영업점망을 통해 MMF 판매를 개시한 상태임
- 신한투신운용 관계자는 이번 MMF 판매를 시작으로 9월 1일 지주회사 설립 이후 은행과의 마케팅 협력 체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

♣ 2001년 7월 25일 수요일 (2)

○ 1조원 규모 부동산펀드 8월 출범

– 투자 자금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리츠)가 8월에 출범할 예정

– 7월 24일 국내 금융기관과 일부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국내 최대 규모 CR리츠 (가칭 '코크랩')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8월에 건교부 인가를 받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코크랩은 한국기업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영문 약자인 KOCREF을 지칭하는 것임
- 코크랩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법에 따라 운영됨

– 코크랩 설립 현황

준비위원회 발족	2001년 6월 8일
펀드 규모	1조원
참여 회사	산업은행, 한빛은행 등 10개사
운영 방식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매입 .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 (자산관리회사가 운영) . 부동산 매각 기업이 원할 경우 5년 뒤 재매각
자산관리회사 인가	8월초
법인설립 인가	8월중

○ 국민연금 체납 82,870여개소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월 25일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한 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업장이 82,870개이며, 연체금은 총 4,401억 7,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 현재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 당한 사업장 근로자들 중 사업주의 체납으로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받고 있는 가입자가 25,153명에 달한다고 밝힘

♣ 2001년 7월 26일 목요일 (1)

○ MMF 수탁액 40조 재돌파

– 투신권 MMF 수탁액이 대규모 MMF 환매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월 이래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7월 들어 투신권 MMF 수탁액은 8조247억원 (7월 24일 기준) 증가한 40조4,408억원을 기록했음

– 이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 2주일 사이 0.5% 이상 하락한 5.5%대를 기록하면서 기관들의 MMF 유입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임

- 국고채 금리 5%대를 전후해 10조원에 달하는 단기성 시중 부동자금이 투신권 MMF로 들어와서 45조원까지 MMF 수탁고가 증가했던 지난 3월과 유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금리 하락에 따른 MMF 환매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높아지고 있음

○ 투신 펀드 통폐합 난관

– 투신권이 펀드 선진화를 위해 1,000여개 세금우대 전용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국세청이 이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세금우대 전용펀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10.5%로 저리 과세하는 상품임

– 국세청은 펀드 통폐합시 투자 종목과 고객 계좌가 바뀌는 "환매 후 신규 가입"에 해당되므로 기존 세금우대 전용펀드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투신협회에 전달했음

– 이에 대해 투신권은 펀드 통폐합이 투신 상품 선진화를 위한 것이고 가입자에게 이중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관계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금감원도 국세청 결정이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며, 투신협회는 법령 재정권을 가진 재경부를 상대로 재질의 한다는 방침임

○ 투신 보유 상장주식 크게 줄어

–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수가 작년말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7월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투신사들이 5% 이상 대량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CB, BW 등 잠재 주식을 포함해 8,383만주임

- 이는 지난 해 말 현재 9,689만주보다 13.4%가 줄었음
- 금액 기준으로는 5,145억원에서 4,776억원으로 7.25% 감소했음

♣ 2001년 7월 26일 목요일 (2)

○ 내년 1월부터 증시 전자 감시

– 금감원은 증권사와 투신 및 자산운용사 등의 위반 사항과 이상 매매를 컴퓨터로 매일 자동 적출해 낼 수 있는 '증권분야 전자 상시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음

- '증권분야 감시시스템'은 현재 은행에 가동 중인 전자 상시감시 시스템을 증권분야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증권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이로 인해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 내 부도채권 보유 현황, 특정 회사 발행 유가증권 투자 규모, MMF의 만기 불일치 실태 등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함

– 현행 증권분야 감시 시스템은 각 회사의 자료를 월별로 보고받아 해당 임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위규 사항을 적발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며 자료의 시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업체들도 동일 자료를 증권검사국,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등에 중복 제출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음

– 금감원은 9월까지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시험 가동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예정임

- 한편,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상시 시스템까지 갖춰 상호 검증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임

○ 채권평가사 선점 경쟁 치열

– 9월부터 투신운용사의 민간 채권평가 기관 채권가격 정보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계약 선정을 둘러싼 키스, 한국, 나이스 등 3개 채권평가사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수탁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한투, 대투, 현투, 삼성, 제일, 주은 등 6대 대형 투신사의 선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9월부터 증권업협회를 배제한 2곳의 민간 채권평가사의 가격 정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8월 안으로 29개 투신사 모두 채권평가사와 계약을 완료할 예정임

– 계약 수수료는 잠정적으로 펀드에 편입된 시가평가 대상 유가증권 자산 규모의 1만분의 0.5로 정해 놓은 상황임

- 키스채권평가 관계자는 수수료가 1만분의 0.5를 기준으로 하되 펀드 자산이 커질수록 비례해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힘

♣ 2001년 7월 27일 금요일 (1)

○ 투신운용업, 자산운용업, 은행 신탁업무 통합 방안 제시

- 한국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7월 26일 '증권·자산운용업 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자산위탁 운용산업을 통일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 이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은행신탁의 자산위탁 운용산업을 하나로 묶어 집합증권투자산업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음
  - 자유로운 상품 개발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
  - 판매 제도의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판매서비스 제공 유도
  - 준법감시인, 수탁기관, 펀드평가 기관 등 펀드 감시장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 개선
  - 모기업과 운용사간의 방화벽 강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등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 궁극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업종 연계가 부작용 없이 활성화되도록 현재의 기관별 법규 체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형의 기능별 법규 체계로 전환
- 이를 위해 관련법을 통합한 집합증권투자법 제정을 주장하고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신탁업을 영위할 것을 제시했음

○ 증권투자회사 미흡한 자금 유입

- 증권투자회사 자금 유입액은 금월 들어 2,228억원 (7월 24일 기준)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주식시장 침체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
  - 지난 5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도입되었지만 증권투자회사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가령, 증권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이 묶여 있는 보험사들은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임
  - 채권형 증권투자회사조차 주식으로 인식됨에 따라 주식 투자에 제한이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불가능함
  - 증권투자신탁 설립시 초기 설립 자본금 4억원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돼 있어 지속적인 펀드 설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형보다 채권형이나 시스템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산운용사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01년 7월 27일 금요일 (2)

○ 교보투신운용사 MMF 환매 분쟁

– 최근 금감원은 지난 4월 대규모 MMF 환매 사태시 즉각적인 환매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대한 교보투신의 반발에 따라 손해배상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음

- 투자자들은 환매를 신청한 당일의 기준가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보투신운용은 펀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맞서고 있음
- 투자자들은 교보측이 당초 맞춰주기로 한 수익률 약속도 어긴데다 약관상에 정해놓은 채권 종목 및 등급별 기준을 위반했고 만기 규정까지 무시했다고 강조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MMF로 인한 분쟁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인데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처리 방향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힘

- 8월 내에 금감위에 상정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
-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국은투신운용 등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2001년 7월 28일 토요일 (1)

○ 신한금융지주회사 오는 9월 출범

- 금감위는 7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예비인가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는 8월말 쯤 금감위의 본인가를 거쳐 9월초에 본격 출범할 예정임
  - 금감위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신한은행과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리스업), 신한투신운용 등 4개 자회사와 3개 손자회사를 지배하게 됐다고 밝힘
  -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릴 손자회사는 전산업을 주로 하는 신한은시스템과 신한종합연구소, 신한금융유한공사 (홍콩 현지 법인)임
- 신한생명에 대해서는 주식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지주사 편입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3년 후 신한생명을 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임
- 금융포털회사인 e신한과 신한맥쿼리 금융자문은 지주사 설립 후인 올 하반기에 편입될 예정이며, 제주은행도 내년 3월까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예정임

○ 변액보험 판매 저조

- 생보사들이 지난 7월 9일부터 시판한 변액보험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전문적인 판매인력이 부족하고 상품도 다양하지 못해 변액보험의 판매 저조가 장기화될 전망임
- 보험사별 판매 실적은 7월 24일 현재 삼성생명 191건, 교보생명 87건, 매트라이프 2건 (7월 16일부터 판매), 푸르덴셜 40건에 그침
  - 이처럼 변액보험의 판매가 부진하자 대한생명이나 다른 외국사들은 시판을 다소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변액보험의 판매 부진은 생보사 전문설계사가 부족한데다 설계사들의 판매 기법도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변액보험은 판매 시험에 합격한 설계사들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이런 전문 설계사들도 변액보험에 대한 개념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임
  - 판매에 나선 보험사들도 변액보험의 상품성을 자신하지 못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

♣ 2001년 7월 28일 토요일 (2)

○ 투신사 금리스와프펀드 인기

– 지난 7월 9일부터 금리스와프가 허용된 후 투신운용사의 금리스와프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음

• 금리스와프란 고정금리로 지급받게 되는 이자 현금흐름과 변동금리로 지급받게 되는 이자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으로 금리 전망에 따라 기관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금리스와프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MMF나 은행 금리보다 0.5~1% 이상 높은 수준이며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 위험을 배제시켜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음

• 관계자는 최근 금리 불안에 따라 자금운용 기관이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투신사들도 단기펀드 설정을 꺼려오던 상황에서 금리 헤지가 가능한 금리스와프펀드가 인기를 모으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

– 최초로 금리스와프펀드를 설정한 한일투신운용의 경우 판매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안돼 펀드 설정액이 3,500억원을 넘어섰음

• 이 상품에 대한 운용기간은 3개월과 6개월 두가지이며, 목표 수익률은 3개월은 5.90~6.10%, 6개월은 6.20~6.40%를 제시하고 있음

♣ 2001년 7월 30일 월요일

○ 현투증권 매각 8월초 타결 예상

– 7개월 이상 끌어 온 정부와 미국 AIG 컨소시엄간의 현투증권 매각 협상이 이르면 오는 8월초에 전격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 AIG와 현대그룹이 직접 진행시키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 매각 협상은 AIG가 증권의 시가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증권 지분 매각은 주당 15,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현대증권 매각 협상을 마무리 함과 동시에 현투증권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AIG의 공동출자 규모와 공적자금 투입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임

- 투입 규모는 증권매각 협상 타결로 AIG는 1조1,000억원, 정부 공적자금은 6,000~7,000억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자금 투입 방식은 정부 소유 금융회사 등을 통한 우회 출자 방식이 유력해 보임

○ 국민연금 700억원 증시 투입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30일 투신운용사 등을 통해 700억원의 자금을 증시에 투입한다고 밝혔음

-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 날 주식 매수를 위해 대신투신운용에 500억원, 밸런스 투자자문에 20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고 언급
- 국민연금은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경우 잔여 금액 2,800억원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2001년 7월 31일 화요일

○ 개인 공모주 배정 5% 줄 듯

–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코스닥 공모나 상장기업의 기업공개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의 물량이 현행보다 5% 줄어들 전망임

• 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투신사 펀드에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방침

– 7월 30일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투기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을 코스닥 공모일 경우

– 현행 50% (거래소 기업공개시 40%)에서 55% (거래소 기업공개시 45%)로 높이기로 했음

• 이에 따라 개인 배정분이 코스닥 공모의 경우 현행 15%에서 10% (거래소 기업공개시 20%→1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투기채 편입 펀드 배정분은 하이일드, CBO, 비과세, 비과세고수익펀드 및 8월부터 판매될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통합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모주 배정 비율 개정안

구 분	투기채 편입 펀드	기관	개인 청약	우리 사주
기업공개 (거래소 상장)	45% (현행 40%)	20%	15% (현행 20%)	20%
코스닥 공모	55% (현행 50%)	15%	30% (현행 35%)	

* 코스닥 공모시 개인 청약과 우리 사주의 통합 배정 부분 중 우리 사주에 20%까지 배정 가능함

– 투기채 소화를 위해 공모주 혜택을 투신사 펀드에만 집중적으로 주는데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예상됨

○ CBO, CLO 980억원 부실 발생

– 회사채 차환과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채권담보부증권 (이하 CBO)과 대출대권담보부증권 (이하 CLO)에서 현재까지 980억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말부터 발행하고 있는 CBO와 CLO에서 지금까지 각각 300억원과 680억원 등 총 980억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힘

– 이들 부실채권이 편입된 풀의 총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책임이 돌아가는 잉여현금과 후순위채가 총 7~8% (약 1,700억원)임

• 따라서, 아직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직접적인 대위변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잉여현금이란 기업들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지급한 자금에서 실질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빼고 남은 현금을 지칭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부실채 발생 비율이 높아 앞으로 기업들을 편입 시킬 때 선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 특히, 지난 11월 3일 퇴출 판정에서 회생가능 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CLO의 경우 당시 3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편입을 사실상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8월 August

10대 주요 기사

1. 펀드 통폐합 법제화 추진
   (1일)
2. 사모 M&A펀드 개점 휴업 상태
   (2일)
3. 중소형 투신사 MMF 편법 운용
   (3일)
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일단 유예 및 청산 검토
   (3일, 16일, 25일, 29일)
5.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 극히 부진
   (16일, 28일)
6. 부실기업 투자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투신사 배상' 판결 (21일)
7. 펀드 운용 내용 일반에 공개
   (24일)
8. 현투증권에 대한 정부와 AIG 컨소시엄간 MOU 체결
   (24일, 27일, 29일, 31일)
9.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투신사
   (30일)
10. 9월부터 민간 채권 평가사의 가격 정보 이용에 따른 문제점 제기 (31일)

◈ 8월 목차 (8/1-8/10)

8/1 (수)	○ 펀드 통폐합 법제화 추진 ○ 투신 광고 61% 불량
8/2 (목)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인기 ○ 세계적 자산운용사 "스커더" 국내 투자자문사 설립 예정 ○ 사모 M&A펀드 개점 휴업 상태
8/3 (금)	○ 서울보증보험 투신권과 갈등 심화 ○ 중소형 투신사 MMF 편법 운용
8/4 (토)	○ MMF 수익률 저하에 요인이 되는 증권금융어음 ○ 서울보증보험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한 투신권 ○ 한국기술투자 구조조정펀드 손실 보전 논란
8/5 (일)	
8/6 (월)	○ 비과세펀드 일단 성공 ○ 소규모 연기금 펀드 8월 내 3조원 조성
8/7 (화)	○ 대형투신사 펀드 운용 부진 ○ BBB 회사채 상한가
8/8 (수)	○ 증권·투신업계 대규모 해외 투자 ○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우증권
8/9 (목)	○ 현대유화에 가압류 조치를 추진하는 투신권 ○ 투신권 벤처캐피털 Lock Up 제도 완화에 비상 ○ 투신사 MMF 사절 ○ 연기금 투자풀 매수 여력 7천억원대 ○ 하반기 만기 회사채 소화 문제 없다고 밝힌 한국은행
8/10 (금)	○ 콜금리 인하로 투신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 기대 ○ 국고채 3년 수익률 한 때 4.94%

◈ 8월 목차 (8/11-8/20)

8/11 (토)	○ 투기채 펀드 공모 배정 현행보다 5% 증가 ○ 채권형 펀드 및 MMF 목표 수익률 낮춰
8/12 (일)	
8/13 (월)	○ 현대투신 매각 다소 늦춰질 듯 ○ 외국 투신사 진출 가속화
8/14 (화)	○ AIG 현대증권 인수 지분 34% 출자 ○ 현대투신운용 '점프혼합투자신탁' 시판
8/15 (수)	광 복 절
8/16 (목)	○ 서울보증보험 10월 유동성 위기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인기 ○ 채권형 펀드 평가방식 모순
8/17 (금)	○ MMF 목표수익률 내리막 ○ 투신사 의결권 대폭 확대 ○ 국내 첫 '섹터형 펀드' 발매
8/18 (토)	○ 연기금 투자풀 5조원 10월부터 투자 ○ 국민연금 700억원 주식 매입 ○ 신탁형 증권저축 금리 역마진 비상 ○ 서울증권 대투운용 인수 추진
8/19 (일)	
8/20 (월)	○ 하이닉스반도체 정부 간여 않는다 ○ 은행예금 주춤하는 대신 투신 2조4천억원 몰려

◈ 8월 목차 (8/21-8/31)

8/21 (화)	○ 부실기업 투자로 인한 고객손실에 대해 '투신사 배상' 판결 ○ '투자신탁' 상호 사라진다
8/22 (수)	○ 현대투신 매각 초 읽기 ○ '투자신탁' 상호 사라진다
8/23 (목)	○ 은행 수익증권 못 판다 ○ 투신권 현대 유화 가압류 가능성
8/24 (금)	○ 현투증권 정부와 AIG 컨소시엄간 MOU 체결 ○ 펀드 운용 내용 일반에 공개 ○ 삼성투신운용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1호 8월내 시판
8/25 (토)	○ 투신권 회사채 34%가 투기 등급 ○ 서울보증보험 청산 검토 ○ 한투증권 지분 인수 문제 UBS에 제의
8/26 (일)	
8/27 (월)	○ 겉도는 현투증권 AIG 매각 협상 ○ 애널리스트 규제 장치 마련하여 조사 분석 왜곡 관행 막는다
8/28 (화)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 극히 부진 ○ 공익펀드 속속 등장 ○ 회사채 연내 만기 물량 30조원
8/29 (수)	○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일단 유예 ○ 기획예산처 기금 운용 평가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 SEI에셋코리아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1조원 달성 ○ 하이닉스 자금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은행과 투신권 대립 ○ 현대투신 소액주주 무더기소송 채비
8/30 (목)	○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투신사 ○ 법정관리 가능성 높아진 하이닉스
8/31 (금)	○ AIG 발행가 8,940원에 동의 ○ 9월부터 민간 채권 평가사의 가격 정보 이용에 따른 문제점 제기 ○ 투신사별 하이닉스 보유 현황

♣ 2001년 8월 1일 수요일

○ 펀드 통폐합 법제화 추진

-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펀드 통폐합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펀드 대형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투신사 관련 법안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관련 규정 등에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7월 28일 현재 국내 펀드 수는 7,173개로 설정잔고 155조6,843억원을 감안할 때 펀드 1개당 자산 운용 규모는 217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하지만, 1997년 말 6,016개, 1998년 말 13,271개, 1999년 말 14,109개, 2000년 말 8,113개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 반면, 미국의 경우 6월 30일 현재 $6조9,430억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지만 펀드 수는 국내와 비슷한 8,303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펀드 1개당 자산 운용 규모가 $8억 3,600만 (1조870억원)에 달함
- 시장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관리비와 운용비는 고정적인데 펀드 수가 많으면 해당 펀드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만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언급
  - 펀드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에 성공할 경우 펀드 수익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 투신 광고 61% 불량

- 투신 상품 광고가 사전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7월 31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심사한 총 282건의 광고물 가운데 111건 (39%)이 적격 판정, 109건 (39%)이 조건부 부적격 판정, 62건 (22%)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광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적격 사례 가운데는 원금 보장 등의 과대광고를 통해 오인을 유발하는 애매한 표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문언 미표시와 크기 위반이 13건에 달했음

♣ 2001년 8월 2일 목요일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인기

– 저금리 시대를 맞아 오는 8월 10일부터 본격 판매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음

– 투신사별 예약 판매 현황 (자료: 대투증권, 7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판 매 사	펀 드 명	예약 금액
대한투신증권	인베스트혼합	2,135
한국투신증권	탐스혼합	1,932
현대투신증권	신비과세혼합	1,770
동양투신증권	오리엔트파워혼합	550
제일투신증권	비과세혼합	170
합 계		6,557

○ 세계적 자산운용사 "스커더" 국내 투자자문사 설립 예정

–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스커더가 국내에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문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됨

- 미국계인 스커더는 운용자산 규모가 300조원으로 한때 투신운용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금감원 본허가 단계에서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했음

– 스커더가 굳이 투자자문업 진출을 계획한 것은 한국의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투자문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 때문임

– 올 3월말 현재 전업자문사 및 겸업자문사의 자문 계약 금액은 7조4,857억원으로 지난 해 3월 13조7,51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정도 감소했음

- 64개 전업자문사의 전체 순이익은 지난 1999 사업연도 (1998.4~2000.3) 610억원 흑자에서 2000 사업연도 (2000.4~2001.3)에 207억원 적자로 전환됐음
- 전업자문사는 단순자문사와 일임자문사이며, 겸업자문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신운용사를 지칭함

○ 사모 M&A펀드 개점 휴업 상태

– 우리 증시에 M&A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됐던 사모 M&A펀드의 활동이 극도로 부진한 상태임

- 반면, 증시에는 온전치 못한 M&A 정보만 난무해 멋모르고 뛰어든 개인투자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무엇보다 자금 모집이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10개 펀드가 투자설명서에 명시한 펀드 목표액은 모두 1,950억원이지만 8월 1일 현재 602억원에 그쳐 목표 대비 30%에 불과한 실정임

– M&A 펀드들이 여러 기업을 저울질하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수 협상이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뒤늦게 협상 소식을 접한 개인투자자들이 인수가 성사되는 것으로 오인해 뛰어들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음

♣ 2001년 8월 3일 금요일

○ **서울보증보험 투신권과 갈등 심화**

–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 대지급금 가운데 6,2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 주식 (3,700억원)과 쌍용양회 전환사채 (2,500억원)로 갚겠다고 제안했으나 투신권은 이를 거부했음

– 투신권은 연체이자까지 합해 모두 9,600억원을 갚도록 요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대우 계열사와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아울러 투신권은 서울보증보험 주식이나 쌍용양회 전환사채가 사실상 무수익 자산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

– 이 같은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의 갈등은 공적자금 부족 때문임

-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대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7조7,000억원이나 투입될 공적자금은 5조6,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형 투신사 MMF 편법 운용**

– 금리 하락세로 인해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MMF 수익률을 낮췄지만 몇몇 신설 중소형 투신사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법·편법 운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펀드매니저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신사가 4%대 후반으로 MMF 수익률을 낮췄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5%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

– 최근 동원되고 있는 위법 운용 행위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진성어음의 편입으로 알려짐

- 진성어음이란 기업들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과는 구별되며 상업어음이라고도 함
- 진성어음은 기업어음과는 달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펀드에 편입할 수 없음
- 그러나, 투신사들은 수익률이 높고 회계상으로도 기업어음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진성어음을 불법 편입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규정 등급 미만의 유가증권을 편입하거나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어음 10% 편입 의무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8월 4일 토요일 (1)

○ MMF 수익률 저하에 요인이 되는 증권금융어음

- 투신사의 MMF 자산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증권금융어음의 금리가 실세 금리보다 턱없이 낮아 MMF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7월초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증금어음은 4.7%에서 0.3%를 인하하여 일반 콜금리 (4.6%)보다 낮은 4.4%로 떨어짐
- MMF 가입자들은 MMF가 CP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증금어음을 편입하는 탓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 최근에는 콜금리보다 더 낮아진 점에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신업계에서는 증금어음 발행금리를 현실화하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최근 MMF 수탁고가 40조원에 달하면서 투신권이 보유 중인 증금어음도 7월 31일 현재 3조8,341억원으로 증가했음
  - 이는 지난 해 말 1조7,349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임
  - 이에 따라 투신사당 증금어음 보유 규모는 평균 1,200억원 이상으로 일부 투신사는 편입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
- 한편, 증권금융은 4.4%짜리 증금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증권안정기금에 4.6%로 빌려 주는 과정에서 0.2%만큼 차익을 얻고 있음

○ 서울보증보험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한 투신권

- 투신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서울보증채 대지급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과 오리온전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 6천억원 가량의 하이닉스반도체 차환 발행 회사채도 인수해 주지 않기로 하는 등 24개 투신사 대표들은 지난 8월 3일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음
- 투신사 대표들은 보증채 6,200억원을 탕감해 주거나 서울보증보험 주식 (3,700억원) 및 쌍용양회 전환사채로 대신 받아달라는 서울보증보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 이에 따라 7월 14일까지 서울보증보험이 감액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가압류와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인수 거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2001년 8월 4일 토요일 (2)

○ 한국기술투자 구조조정펀드 손실 보전 논란

- 국내 2위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한국기술투자가 당초 실적배당 상품으로 판매한 구조조정펀드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회사 자산을 넣어 수익률을 높여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자산 2,028억원, 투자자 4,90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국내 1호 구조조정펀드인 이 펀드에는 정·관계의 영향력있는 인사들도 상당수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기술투자는 7월 3일 임시주총을 열어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투자 원금의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전해 주고 펀드의 부실자산 137억원을 회사 우량 자산과 교환하여 펀드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합의안을 통과시켰음
  -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벤처캐피털사는 과거 투신사처럼 부실이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한국기술투자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펀드가 일반 펀드와는 달리 구조조정펀드의 근거법인 산업발전법에 원본보전 금지 규정 등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
  - 이로 인해 회사 자산으로 펀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선의의 소액 주주들 (27%)이 엉뚱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산자부는 구조조정펀드의 근거법인 산업발전법에서 펀드의 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해 원본 보전 및 회사 자산과 펀드 자산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1년 8월 6일 월요일

○ 비과세펀드 일단 성공

- 증권사들이 지난 해 7월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투신권 비과세펀드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음
- 만기와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구하긴 힘들지만 134개에 달하는 비과세펀드는 대략 평균 8.5%선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보통 금융상품의 10% 이자율과 맞먹는 수익을 올린 셈임
  - 1년 전 만기 1년짜리 채권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 현재 수익률이 국고채 7%대, 회사채 (A+ 기준) 8%대인 점을 감안하면 펀드 가입자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비과세펀드 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과세 적용 시한인 가입 후 3년까지 펀드를 유지 및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 소규모 연기금 펀드 8월 내 3조원 조성

- 4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연기금의 자산 운용을 위한 이른바 '인베스트먼트 풀'이 최대 3조원 규모로 조성돼 8월 말경 운용에 들어갈 예정임
  - 재경부 관계자는 8월 5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베스트먼트 풀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
  - 조만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확정한 뒤 8월 말쯤 펀드를 설립해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 재경부는 소규모 연기금의 운용 자산을 한데 모은 통합펀드를 먼저 조성한 뒤 산하에 5,000억원~1조원대 하위펀드를 설립해 실제 운용은 하위펀드에서 담당하도록 할 예정임
  - 하위펀드는 운용 후 실적을 모두 통합펀드에 넘기고 통합펀드는 평균 수익률을 산출해 각 연기금에 실적을 균등 배분하도록 할 방침임

♣ 2001년 8월 7일 화요일 (1)

○ 대형투신사 펀드 운용 부진

–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펀드 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서 모두 중·소형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모닝스타코리아는 100억원 이상 채권형 펀드와 50억원 이상의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의 위험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 운용 성과를 스타레이팅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음

- 스타레이팅 시스템이란 별의 개수로 운용 성과를 분류하는 평가 시스템임

– 모닝스타코리아에서 평가된 채권형 펀드 유형별 우수 운용사 (7월 말 현재, 1년 기준)

투신사 명	별 5개인 펀드 개수	별 4개인 펀드 개수	투신사별 펀드 개수	별 4개 이상의 펀드를 보유한 비중 (%)
조흥투신	7	7	14	100
한화투신	0	4	4	100
현대투신	2	5	13	54
제일투신	1	3	9	44
한국투신	1	8	23	39
전체 투신사 총 펀드 개수	16	36	159	33

- 4개 이상의 별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유형의 펀드 중 위험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같은 유형의 펀드 중 운용 성적이 상위 22.5% 안에 들었음을 의미
- 5개의 별을 받았다는 것은 상위 10% 이내의 펀드들에게 주어짐

– 모닝스타코리아에서 평가된 주식형 펀드 유형별 우수 운용사 (7월 말 현재, 1년 기준)

투신사 명	별 5개인 펀드 개수	별 4개인 펀드 개수	투신사별 펀드 개수	별 4개 이상의 펀드를 보유한 비중 (%)
동원BNP투신	5	3	8	100
교보투신	3	2	5	100
LG투신	11	10	23	91
신영투신	3	5	11	73
제일투신	0	3	6	50
전체 투신사 총 펀드 개수	41	94	416	32

– 혼합형의 경우 운용사별로 성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운데 한국투신, 한화투신, 대한투신, 동양투신 등이 약간의 우위를 보였음

-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경우 제일투신과 현대투신이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8월 7일 화요일 (2)

○ BBB 회사채 상한가

- BBB 등급 회사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경신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올 들어 BBB 등급의 발행 물량은 7조5,280억원 (8월 6일 기준)으로 지난 해 연간 발행 실적 (7조6,318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 아울러 평균 표면금리도 지난 해 9.52%에서 8.25%로 떨어졌음
- BBB- 등급 금리는 8월 들어 0.16% 급락한 10.86%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3년물과의 스프레드는 지난 2월 초 6.47%에서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여 5.45%로 감소했음
  - BBB+ 등급 스프레드도 3.30%에서 2.71%로 감소했으며, BBB 등급도 4.62%로 감소했음
- 증권업계 관계자는 4분기 들어 BBB- 등급은 5.00% 이내, BBB는 4.40% 이내로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음

♣ 2001년 8월 8일 수요일

○ 증권·투신업계 대규모 해외 투자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삼성증권의 경우 8월 7일 농협과 삼성생명에서 각각 2,000억원과 300억원을 유치해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다고 밝힘
  - 이 펀드의 경우 삼성투신에서 운용을 맡고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사가 투자자문을 하는 형태로 OECD 국가 중 무디스와 S&P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함
  - 삼성생명은 올 연 말까지 모두 3조원 가량인 해외 투자를 최대 5조원까지 늘릴 계획임
- 지난 해 11월 국민연금관리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해외 투자가 가능해진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3년 안에 삼성생명과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투자할 계획임
  - 대한투신증권도 우선 $1,000만 정도로 해외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임

○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우증권

- 대우증권이 최근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을 상대로 $1억2,700만 (1,634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으며, 소송이 제기된 자산 규모의 80%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한 것임
- 대우증권은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의 의뢰로 러시아 지방채 (이하 GKO)에 투자한 뒤 1998년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손실을 입었음
  - 당시 러시아 채권을 직접 살 수 없었던 증권사 역외펀드들은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이하 CSFB)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 채권 매입을 위탁했음
  - 대우증권은 자사의 역외펀드인 한미아틀랜틱펀드에서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이 위탁한 자금으로 CSFB를 통해 GKO를 매입했음
  - 이후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으로 GKO 가격이 폭락하자 CSFB는 사전 계약에 따라 GKO를 손절매하고 대우측에 차입금 변제를 요구했음
  - 대우증권측은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에 차입금을 갚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음
  - 대우증권측은 지난 해 9월 해외영업을 위해 CSFB에 차입금을 갚는 대신 차입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겨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임
- 한투증권과 현투증권에서는 대우증권에 자금을 맡긴 것이지 CSFB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우증권이 자사와 상의 없이 CSFB에서 자금을 차입했다고 반박
- 대우증권측은 당시 CSFB와 차입 계약을 했지만 한투증권 및 현투증권과 대출 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지만 팩스 서류와 전화통화 내용 등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

♣ 2001년 8월 9일 목요일 (1)

○ 현대유화에 가압류 조치를 추진하는 투신권

– 현대석유화학 회사채를 보유한 12개 투신사들이 만기가 지난 회사채 2,000억원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현대유화 자산에 대해 8월 14일 가압류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 투신권은 지난 7월 2,000억원의 투신권 보유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상환받지 못하자 최근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음
- 이에 대해 채권단은 투신권을 포함하여 제2금융권에게 보유채권을 10월 말까지 만기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채권단은 현대유화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새로운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임

- 채권단은 특히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함께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등을 검토 중임

○ 투신권 벤처캐피털 Lock Up 제도 완화에 비상

– 정부는 벤처업계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캐피털 업계에 한해 시행중인 Lock Up 제도 (주식 매도 제한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9월 중 도입할 방침임

- 정부는 이 Lock Up 규정에서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에 한해 협회 등록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현재 Lock Up 제도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 자본금의 10%까지는 1년 이상 투자시 등록 후 3개월, 1년 미만 투자시 6개월간 장내 매각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투신업계에서는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코스닥 신규 등록 기업 주식이 곧바로 매물로 나오면 여타 기관 보유 물량까지 연쇄적으로 조기 매물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장외기업 중 벤처캐피털이 2년 이상 투자한 기업은 전체의 7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수급 불균형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주가 급락으로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기관들의 수요예측 저가 참여로 적정가치 이하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 공모주를 대거 편입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CBO펀드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상품성도 크게 떨어뜨려 가입 고객의 이탈 및 투기등급 채권의 수요기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2001년 8월 9일 목요일 (2)

○ 투신사 MMF 사절

– 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시중 부동자금이 투신사 MMF로 몰려들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신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해 사실상 MMF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 최근 MMF 제시 수익률을 5%대 초반에서 4.7~4.8%로 낮췄지만 실제 MMF가 편입할 수 있는 CD 및 단기 CP 수익률이 5.1~5.2% 수준에 불과하며 운용보수율 1%까지 감안하면 역마진이 불가피함
- 아울러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MMF 환매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4월의 경우처럼 금리 상승 반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투신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소액 자금을 제외하고는 수탁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언급

○ 연기금 투자풀 매수 여력 7천억원대

– 4대 연기금을 제외한 각 연기금이 출자한 연기금 자금 통합펀드가 단기, 중기, 장기 펀드로 구분되어 판매되며, 이르면 9월 중순쯤 시장에 투입될 예정임

- 단기형은 3개월형으로 수시 입출이 가능한 신종 MMF로 운용하게 되며, 6개월~1년형인 중기형은 채권형으로 운용될 계획임
- 장기형은 1년 이상 운용되며 주식 편입비율이 40~50%인 혼합형으로 운용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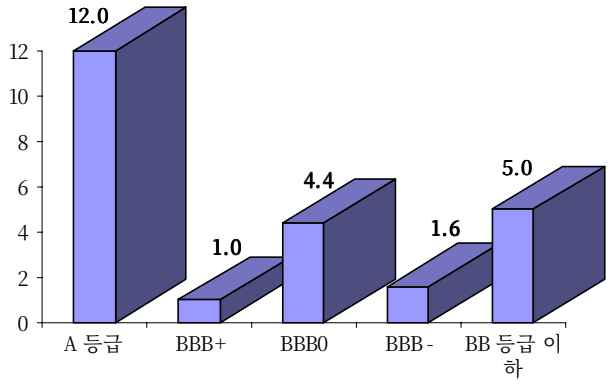
– 연기금 자금 통합펀드는 4대 연기금을 제외한 각 연기금이 10% 가량씩 출자해 설립된 것으로 규모는 4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기금별 만기 구조와 자금 성격에 따라 단기형에 7,000억원, 중기형과 장기형에 각각 1조5,000억원 가량 배분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연기금 투자풀의 실제 주식투자 금액은 장기형 투입액의 40~50% 수준인 7,000~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8월 9일 목요일 (3)

○ **하반기 만기 회사채 소화 문제 없다고 밝힌 한국은행**

- 지난 8월 8일 한국은행은 조사 자료를 통해 조기상환, 선발행,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등의 도입으로 차환발행 수요가 크게 감소해 만기 회사채 소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음
- 올해 말까지 24조5,000억원어치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선발행과 조기상환 등에 따라 실제 차환발행 수요는 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음
  - 한은은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 회사채 만기분은 19조5,000억원이지만 선발행을 통해 확보한 회사채 상환 자금과 6~7월 조기 상환분을 제외하면 실제 차환발행 수요는 13조원이라고 밝힘
  - 투기등급 (BB 등급 이하) 회사채도 만기도래액이 5조원이지만 현대건설, 현대유화, 하이닉스반도체 등 채무 재조정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차환발행 실수요는 1조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
- 한은은 시장금리 하향 안정으로 회사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 자체 신용에 의한 시장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음
- 신용등급별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단위: 조원, 기간: 8~12월)



♣ 2001년 8월 10일 금요일

○ **콜금리 인하로 투신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 기대**

– 한국은행이 8월 9일 콜금리를 연 4.50%로 내림에 따라 은행들도 즉각 예금금리 인하 작업에 착수했음

- 이에 따라 현재 연 5.6~5.7% 수준인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5% 초반대로 내려갈 전망임
- 이 경우 저금리에 실망한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서 투신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임

– 이미 지난 7월의 경우 콜금리 인하 이후 투신권의 수탁고가 월 중 13조3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부터 투신사로 이전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8월 들어서도 이어져 8월 4일까지 은행 예금은 7,300억원이 증가했지만, 투신사 수탁고는 그 2배인 1조4,000억원이 증가했음

– 한은의 콜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고채 3년 수익률 한 때 4.94%**

– 채권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지표금리인 만기 3년짜리 국고채 수익률이 사상최저치인 8월 10일 오전 한 때 4.94%까지 떨어졌음

- 한국은행의 통안채 창구 판매에서는 무려 1조5,000억원이 매출되어 랠리에 동참하고자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했음
- 이는 지난 2월12일 기록했던 종전 최저치인 4.98%보다도 4bp(0.04%포인트) 낮은 것임

– 8월 9일의 콜금리 인하를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로 인해 국고채의 지속적인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음

♣ 2001년 8월 11일 토요일 (1)

○ 투기채 펀드 공모 배정 현행보다 5% 증가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비롯하여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를 편입하는 채권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이 현행보다 5%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코스닥 공모의 경우 50%에서 55%로, 거래소 기업공개의 경우 40%에서 45% 등으로 증가되는 반면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되는 비중이 현행보다 5%씩 감소했음
-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 배정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임

– 공모주 배정 비율 개정안

구 분	투기채 편입 펀드	기관	개인 청약	우리 사주
기업공개 (거래소 상장)	45% (현행 40%)	15% (현행 20%)	현행 20%	20%
코스닥 공모	55% (현행 50%)	10% (현행 15%)	현행 35%	

* 코스닥 공모시 개인 청약과 우리 사주의 통합 배정 부분 중 우리 사주에 20%까지 배정 가능함

– 한국증권업협회는 8월 13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시 우대하기로 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며 8월 13일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임

– 아울러 협회는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의 "청약 전 3개월 평균 잔고 및 청약 전 특정일 잔고의 평균"에서 "청약 전 3개월 평균 잔고"만을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음

- 이는 일반인들이 공모주 청약 한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청약 전에 남의 주식을 빌려 잔고를 늘리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협회는 청약 한도 산정 기준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홍보 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음

♣ 2001년 8월 11일 토요일 (2)

○ **채권형 펀드 및 MMF 목표 수익률 낮춰**

– 콜금리 인하 여파로 금리가 급락세를 이어가자 투신권이 MMF와 채권형 펀드 목표 수익률을 이르면 8월 20일부터 일제히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한, 한국, 현대투신 등 대형 투신운용사를 시작으로 MMF 제시 수익률이 0.2~0.3% 정도 하락하고, 채권형 펀드의 목표 수익률도 0.5% 정도 낮춰질 전망임

– 주요 투신사 MMF 수익률 하향 조정 계획

운용사	제시 수익률 (%)		운용사	제시 수익률 (%)	
	현재	조정 후		현재	조정 후
대한	4.7~4.8	4.4~4.6	LG	5.0	4.8
한국	4.8~4.9	4.6~4.7	삼성	4.7~5.2	4.5~5.0
현대	4.7~5.0	4.5~4.8	제일	4.5~4.7	4.3~4.5

♣ 2001년 8월 13일 월요일

○ 현대투신 매각 다소 늦춰질 듯

– 현대투자신탁 매각에 대한 정부, 현대 및 AIG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양해각서 체결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관계자는 8월 12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타결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AIG측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언급
- 지난 8월 8일 진념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결말이 난다며 수 일 내에 협상이 완결될 것처럼 언급한 바 있음

– 현재 양측의 쟁점은 현대투신의 주요 주주인 현대증권 지분에 대한 AIG측의 취득 방식과 가격, 지분 취득 후 일정 기간 매각 금지 조항 등에 대한 것임

- 이에 대해 AIG 컨소시엄 내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막바지 협상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외국 투신사 진출 가속화

–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에 이어 5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자산운용 시장이 거대 외국계 금융기관의 각축장으로 변할 전망임

-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월 말 피델리티가 예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인베스코, 프루덴셜, 자딘플레밍, 포티스, 도이체방크 등이 투신사 설립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

– 외국계 투신사의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른 영향

- 은행, 보험 및 국내 투신사에서 기존 고객들이 이탈에 따른 보여 시장 점유율 변화
- 외국 증권 및 보험사 등이 연계되어 금융 서비스망이 구축되는 등 종합금융 서비스가 등장
-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외국계 투자기관의 국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자본시장의 국제화 가속화
- 운용인력이 확충될 것이며, 선진 운용기법 등의 도입으로 운용 관행의 변화

– 현재까지 외국계 자본만으로 설립된 투신사는 슈로더투신운용과 프랭클린 템플턴투신운용 2개사임

- 스커더캠퍼사의 경우 국내에서 투신운용사를 설립하려다 본허가 단계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최근 투자자문사를 설립했음

♣ 2001년 8월 14일 화요일

○ AIG 현대증권 인수 지분 34% 출자

– 미국의 AIG 컨소시엄이 현대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4%와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가 현대투신증권에 투자할 공적자금 규모는 적게는 6천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증권금융을 통한 우회 출자 방식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짐

– 8월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최근 AIG측 고위 관계자와 만나 현대투신 및 현대증권 매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AIG가 투자하는 1조1천억원은 현대증권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6,500억원 (지분 34% 인수),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출자에 4,500억원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알려짐

○ 현대투신운용 '점프혼합투자신탁' 시판

– 현대투신운용은 8월 13일 주가 하락폭이 큰 종목 중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점프혼합투자신탁'을 오는 8월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힘

– 투자 대상은 최근 1년간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나 최근 1년간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 3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경우임

• PER가 시장 평균과 업종 평균보다 낮은 종목

•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종목

• 일평균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인 종목

– '점프혼합투자신탁'은 현투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되며 오는 8월 27일부터 주식 매입 등 운용에 들어갈 예정임

♣ 2001년 8월 16일 목요일 [1]

○ 서울보증보험 10월 유동성 위기

– 서울보증보험은 투신권이 요청하는 대우 등 보증채를 전액 지급하게 되면 오는 10월부터 3,2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

-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은 이같이 언급하고 이러한 재원 부족 현상은 내년으로까지 이어져 중소기업 보증 등 각종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힘

– 서울보증은 지난 7월 대우채 등 보증채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7조2,802억원 중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 남은 1조6,802억원을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투신권 보증채무 중 6,199억원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 처리 방안 (7월 말 기준)

보증채무 미상환액: 72,802억원 공적자금 투입액: 56,000억원 ***부족액: 16,802억원***	⇒	**부족액 처리 방법 (16,802억원)** 차환 발행: 5,557억원 (대우조선, 대우기계 등) 자구 변제: 5,046억원 감액: 6,199억원

- 이에 대해 투신권은 서울보증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8월 14일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음

– 박 사장은 보증보험사로서 채무 탕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으나 대우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분담했으며, 투신권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게 됐다고 언급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인기

– 금감원은 16개 투신운용사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발매가 시작된 8월 14일 하루 동안 9,947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힘

- 한국투신이 2,616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현대 2,160억원, LG 1,360억원, 대한 1,340억원, 제일 1,115억원 등의 순임

–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647억원을 비롯해 한빛 530억원, 조흥 232억원, 한미 140억원 등 모두 1,767억원이 판매됨

- 이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편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제일, 주택, 외환 등 일부 은행들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음
- 한편, 투신권은 기존의 펀드에 들어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넘겨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은행권은 시장에서 새로 투기등급 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8월 16일 목요일 (2)

○ **채권형 펀드 평가방식 모순**

– 최근 금리 급락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했지만 정작 각 채권형 펀드들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신용위험이 낮은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의 평가 수익률은 그날 그날 시세에 따라 민첩하게 변화하지만, 투기등급 채권은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평가 수익률 변동폭이 적음

– 이에 따라 펀드 내의 투기성 자산이 많은 투신사는 투기 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누리는 동시에 평가 수익률 변동폭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로 인해 위험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일수록 펀드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위험조정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함
- '위험조정수익률'이란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측정하면서 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할 위험을 함께 감안해 실제 수익률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수익률임

– BB+ 등급의 하이닉스 반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운용사별 채권형 펀드 위험조정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운용사	하이닉스 편입규모	하이닉스 편입비중	6개월 위험조정 수익률	3개월 위험조정 수익률
조 흥	2,961	5.16	5.39(2)	2.90(5)
한 국	4,137	4.30	3.58(6)	2.92(4)
서 울	1,183	3.78	5.98(1)	2.04(15)
교 보	767	3.73	4.26(4)	3.53(2)
현 대	1,540	1.93	4.22(5)	2.62(9)
동 원	400	1.71	2.85(13)	2.82(6)
대 한	1,289	1.31	3.05(10)	2.72(7)
주 은	1,340	1.28	3.34(8)	2.43(14)
한 빛	376	1.27	2.42(14)	2.64(8)
한 일	361	0.70	3.17(9)	2.54(10)
한 화	159	0.68	4.34(3)	3.74(1)
S K	104	0.61	3.48(7)	2.46(13)
대 신	150	0.60	2.84(14)	2.54(11)
신 한	10	0.04	3.02(12)	2.49(12)
삼 성	25	0.02	3.05(10)	2.84(5)
동 양	0	0	2.34(15)	3.15(3)
계	14,801	1.75		

- 조흥, 한국, 서울, 교보, 현대 등 펀드 내의 하이닉스반도체 편입 비중이 높은 투신사들이 금리 급변기가 포함된 지난 6개월 위험조정 수익률도 높게 나옴
- 이는 자칫 무수익 자산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라는 평가를 받는 셈임

– 이에 대해 채권형 펀드들의 수익률을 바르게 분석하기 위해 펀드들의 자산 내용을 공개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

- 하지만, 펀드 내의 부실채권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장 부실채권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게 수탁고 급감이란 충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투신사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8월 17일 금요일

○ MMF 목표 수익률 내리막

– 금리 하락 여파로 투신사들이 이번 주부터 잇달아 MMF 수익률을 낮추고 있음

- 이번 수익률 인하 조치로 수시 입출식 MMF인 신종 MMF에 이어 한 달짜리 MMF인 클린 MMF 수익률도 4%대로 떨어졌음
- MMF는 보통 자금 성격에 따라 예치 기간이 하루, 일 주일, 한 달 이상으로 구분됨
- MMF 목표수익률 하락 현황 (단위: %)

	신종 MMF		클린 MMF
	하루	일주일	한 달
대한	4.7→4.4~4.5	4.8→4.5~4.6	5.1→4.7~4.8
현대	4.5~5.0→4.0~5.0	5.0→4.8	5.1→5.0
한국	4.4~4.5→4.3~4.4	4.5~4.6→4.4~4.5	–
제일	4.5~4.7→4.3~4.5	–	5.0→4.8
조흥	5.0→4.8	–	5.2→5.0
동양오리온	4.8→4.5	4.8→4.5	5.0~5.1→4.8

– 투신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채권 운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펀드 운용을 자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투신사 의결권 대폭 확대

– 8월 16일 재경부 관계자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30대 기업집단에 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융, 회계 분야 법령도 이 같은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현행 30대 그룹에서 내년부터 5~10대 그룹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아울러 30대 계열 보험 및 종금사는 물론 투신사도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임원 선임이나 합병, 영업 양·수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즉,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투신사가 자신의 신탁계정으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임

○ 국내 첫 '섹터형 펀드' 발매

–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운용은 국내 최초로 섹터형 펀드인 '삼성eco펀드'를 8월 1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이 펀드는 친환경적인 기업이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환경 관련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임

♣ 2001년 8월 18일 토요일 (1)

○ 연기금 투자풀 5조원 10월부터 투자

- 38개의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 5조원이 투자풀로 조성돼 오는 10월부터 주식 및 채권 투자에 나설 예정임
  - 정부는 8월 17일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연기금 금융자산 통합운용제도 (투자풀) 도입 방안을 확정했음
- 정부는 우선 개별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할 '연기금 통합펀드'를 설치하고 3,000~5,000억원 규모의 하위 운용펀드 10~15개를 만들어 운용할 방침임
  - 통합펀드는 사모 방식의 개방형 투자신탁 형태로 하되,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계정, 3개월~1년의 중기자금 계정, 1년 이상의 장기자금 계정 등 3개 계정으로 설치될 계획임
  - 하위 운용펀드는 운용 후 실적을 모두 통합펀드에 넘기고 통합펀드는 평균수익률을 산출해 개별 기금에 실적을 균등 배분하게 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38개 사업성 기금이 운용하는 17조8,000억원의 금융자산을 투자풀 운용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되 개별 기금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임
  - 이에 따라 9월 중 운용사, 판매사, 펀드평가사, 수탁회사 등 통합펀드 운용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실제 투자를 할 계획임

○ 국민연금 700억원 주식 매입

- 국민연금은 8월 16일 한일투신운용과 피데스투자자문에 각각 500억원과 2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맡겨 본격 주식 매입에 나섰음
  - 이들 두 투신사는 8월 16일과 동월 17일에 걸쳐 25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했으며, 나머지 잔액 450억원은 다음 주 (8.20~8.25)에 분할 매수에 나설 예정임
  - 이번 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은 90% 이상인 성장형 펀드로 자금이 투입된 후 10일 이내 (영업 일수) 주식 편입비율을 맞춰야 함
- 국민연금은 1차 위탁 투자분 6,000억원 중 총 4,600억원을 투입하게 됐으며, 1,400억원이 아직 대기 매수자금으로 남아 있음
  - 이와 함께 연말까지 투입하기로 한 2차 위탁 투자분 6,000억원은 1차 투입분 잔액이 소진되는 대로 투신사를 재선정 하여 위탁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임

♣ 2001년 8월 18일 토요일 (2)

○ 신탁형 증권저축 금리 역마진 비상

– 한국, 대한, 동양 등 3개 투신사가 연 8%대의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조달했던 신탁형 증권저축이 초저금리로 역마진 사태에 빠져들고 있음

- 신탁형 증권저축은 시중금리나 유가증권 상황과 연동해 수익률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실적배당형 투신상품과는 달리 투신사가 은행이자처럼 투자자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유치한 투신권의 특수 상품임
- 현재 이들 3개 투신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8월 13일 현재 총 수탁규모는 7조7,800억원임

– 위의 3개 투신사는 투자자에게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금리를 맞추지 못해 고객 설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투신권 관계자는 현재 신탁형 증권저축 중 일부는 지난 2월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 온 CBO 환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7~8%대의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유치한 자금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 같은 신탁형 증권저축의 취약성 때문에 투신 3사와 단계적으로 유치 자금을 해소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당장 이들 3사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됨

투신사 명	신탁형 증권저축 잔고 (8월 13일 현재)	잔고 해소 일정
대한투신	3조4,067억원	. 2002년3월 2조원 . 2003년 5월 완전 해소
한국투신	3조5,750억원	. 2002년3월 2조6,000억원 . 2003년 5월 완전 해소
동양투신	7,983억원	. 2003년6월 완전 해소

○ 서울증권 대투운용 인수 추진

–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가 대주주인 서울증권은 대한투신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지분의 일부를 인수한 뒤 추가로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인수 주체가 소로스가 될 지 서울증권이 될 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정부는 대투운용의 모회사인 대한투신증권을 먼저 매각한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증권의 대투운용 인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임

- 아울러 금감위 관계자는 소로스와 서울증권이 대투운용의 경영권 인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투운용의 대주주 자격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소로스는 지난 99년 3월 서울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한일투신운용도 인수했음

♣ 2001년 8월 20일 월요일

○ **하이닉스반도체 정부 간여 않는다**

–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8월 19일 KBS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그룹과의 연결 고리가 차단돼 있어 시장의 결정에 맡겨도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반도체의 운명은 외국인 투자자와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
-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 아니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손을 뗄 지는 채권 은행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은행예금 주춤하는 대신 투신 2조4천억원 몰려**

– 시중은행의 수신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 은행 정기예금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투신사로 자금이 대거 몰려들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9~14일까지 금융기관별 수신 동향을 집계한 결과 은행에는 1조2,385억원이 들어 온 반면, 투신사에는 2조4,624억원이 몰려 대조를 이룸

- 은행 정기예금은 4,419억원이 증가했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6,444억원 증가했음
- 이에 반해 투신사는 혼합형 펀드에 1조4,256억원 증가했으며, MMF에도 3,235억원이 증가했음

♣ 2001년 8월 21일 화요일

○ 부실기업 투자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투신사 배상' 판결

- 금융당국의 지시나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 협의에 따른 것이라도 해당 기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한 투신사는 이로 인한 손실을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
-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는 8월 20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투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 99년 5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한투증권에서 30억원의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며 대우그룹 위기가 심각해지던 99년 7월 한투증권이 대우 회사채를 사들여 그 펀드에 편입했음
  - 이후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대우채 환매가 연기되는 바람에 4억6,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투증권이 대우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 지시나 채권단 결의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해도 이는 한투증권과 금융당국, 채권단 사이의 문제일 뿐이지 투자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고 밝힘
-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현대정유가 삼성투신운용을 대상으로 대우채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렇듯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대우채 소송이 계류 중인 투신사들은 향후 판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음

○ 삼성증권 투신안정기금 탈퇴 요구

- 삼성증권이 투신안정기금에서 탈퇴하기 위해 최근 소송을 제기하자 기금 관리자인 투신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 8월 21일 응소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는 투신안정기금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중에 삼성증권이 탈퇴하면 증권사로 전환한 조합원들의 추가 이탈과 기금 존속 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 삼성증권은 이번 '조합원 지위 재확인 소송'을 통해 기금 조합원이었던 삼성투신증권이 지난 해 말 합병되면서 해산됐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삼성증권이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돌려받는 자금은 출자금 및 평가익 등 모두 6,700만원에 불과함
  - 따라서 조합 탈퇴의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임
- 이에 대해 투신협회는 삼성투신증권이 흡수 합병되었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탈퇴를 막으려 하고 있음

♣ 2001년 8월 22일 수요일

○ 현대투신 매각 초 읽기

- 현대투신과 미국의 AIG 컨소시엄의 매각 협상이 초 읽기에 들어갔음
- 정부와 AIG 컨소시엄은 각각 9,000억원, 1조1,000억원의 자금을 현대투신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임
  - 진념 부총리는 한국정학연구소 주최 조찬 강연에서 현대투신 매각은 AIG가 대주주가 되고 정부도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며, 협상 내용은 그 동안 시장에서 알려진 이상의 획기적인 것이 없다고 언급
- AIG의 현투 경영권 인수는 투신권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은행권에 고여 있던 자금의 투신권 유입을 가속화시킬 재료가 될 전망
  - 투신사로의 자금 유입은 채권시장 활성화, 기업자금 경색 문제 해소,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을 것으로 기대
  - 정부가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하면서 협상 조기 타결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표면적인 외자 유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투자신탁' 상호 사라진다

- 앞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신탁회사'란 이름이 사라질 전망
  - 지난 98년 증권사로 전환한 투자신탁 회사들이 상호변경 문제를 놓고 기존 증권사와 치열한 다툼을 벌이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전환 증권사는 2001년부터 투자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음
- 현대투자신탁증권은 9월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현투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임
  - 아울러 지난 해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투자신탁증권으로 변경해 2003년까지 여유가 남아 있는 대한, 한국, 제일, 동양오리온 등도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회사 이름에서 투자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음
- 증권업계는 외국의 경우 투자신탁운용사와 증권사가 엄밀히 구분돼 있고 증권사별로 특화된 영업 전략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투자신탁증권사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8월 23일 목요일

○ 투신권 현대 유화 가압류 가능성

– 현대석유화학 채권을 갖고 있는 11개 투신사들은 8월 22일 회의를 갖고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유화 채권 중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3,200억원에 대해 20%인 640억원을 현대유화가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

- 나머지 8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형태로 차환 발행할 경우 이를 투신사가 인수하겠다는 협상안을 확정했음

– 투신사들은 이같은 방안을 주채권 은행인 한빛은행과 현대유화에 통보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 현대유화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키로 합의했음

- 투신사들은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정한 것은 부실기업 지원에 대한 책임을 투신사가 져야 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자료: 한국경제)

○ 배당주 펀드 인기

– 배당 투자 유망 종목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 투자에 주력하는 배당주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배당주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증시가 500~600대의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유망 종목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임

– 배당주 펀드 수익률 (기준: 2001년 8월 21일 현재, 단위: 억원, %)

운용사	펀드 명	설정일	설정액	1개월 수익률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삼성투신	배당플러스혼합B1	2001.2.6	65.9	1.30	5.85
삼성투신	배당플러스혼합B2	2001.6.8	30.0	1.38	-1.02
삼성투신	배당플러스혼합B3	2000.7.3	250.0	1.72	1.56
LG투신	시그마 배당혼합1	2000.11.24	0.6	0.29	8.85
한일투신	배당플러스혼합B1-1	2001.6.14	100.0	0.95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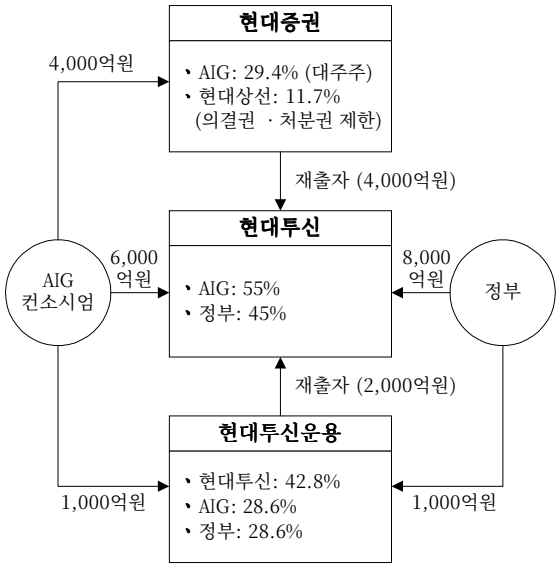
♣ 2001년 8월 24일 금요일 (1)

○ 현투증권 정부와 AIG 컨소시엄간 MOU 체결

– 정부는 8월 23일 현투증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AIG 컨소시엄과 현투증권에 대해 총 2조원을 공동 출자하는 방안에 관한 MOU를 체결했음

– 현투증권에 대한 총 출자 규모는 AIG 컨소시엄이 1조1천억원 (55%), 정부 9천억원 (45%)임

- AIG 컨소시엄은 현투증권에 직접적으로 6천억원, 현대증권 및 현투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각 4천억원과 1천억원을 출자할 계획임
- 정부의 경우 현투증권에 직접적으로 8천억원, 현투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1천억원을 출자하게 됨
- 정부 및 AIG 컨소시엄의 현대 금융 계열사 출자 구조



* 현대투신 전액감자, 투신운용 액면가 출자 가정

– AIG 컨소시엄은 이로 인해 현대증권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주당 8,940원에 4,474만주를 인수하며 29.4%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임

- 정부와 AIG 컨소시엄은 상대방 동의 없이 3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AIG는 현대그룹 또는 전·현직 현대그룹 관계자에게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 향후 정부와 AIG 컨소시엄은 출자 구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말까지 출자 대금을 납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8월 24일 금요일 (2)

○ 펀드 운용 내용 일반에 공개

– 투신협회는 8월 23일 현재 이달부터 요건을 갖춘 펀드평가사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투자신탁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힘

- 투신협회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개별 펀드 고객의 요청에만 부분적으로 응하고 일반엔 공개되지 않았던 펀드의 운용 내용을 1개월이 경과한 후면 무조건 펀드평가사에 공개하게 됐음

– 펀드평가사에 제공되는 투자신탁 정보는 펀드 내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 등 신탁내용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 등 운용 내용과 펀드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임

- 펀드 운용 내용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며 7월 말 기준 자료부터 매달 한 번씩 공개될 예정임

○ 삼성투신운용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1호 8월내 시판

– 삼성투신운용은 8월 23일 현재 삼성증권이 초기 자본금 4억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해 8월 내로 판매한다고 밝힘

– 현행 법상 투신사는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취급할 수 있지만 상품 인가권자인 금감원이 그 동안 행정지도 형식으로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아 판매하지 못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투신사에 증권투자회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 2001년 8월 25일 토요일 (1)

○ **투신권 회사채 34%가 투기 등급**

– 국내 28개 투신사가 운용 중인 36조3,594억원의 신탁재산 회사채 중 34% (12조 3,447억원)가 투기등급 (신용등급 BB+ 이하) 회사채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금감원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임

–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투신사가 운용 중인 신탁재산 회사채는 신용 등급별로 A- 이상은 17조3,100억원 (47.6%), BBB 등급의 경우 6조7,046억원 (18.4%), BB+ 이하 12조3,447억원 (34%)임

- BB+ 등급 이하의 회사채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투신사는 4개사였으며, 40% 대인 투신사도 무려 5개사인 것으로 조사됨

○ **서울보증보험 청산 검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7조6,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투신권의 계속된 보증 이행 요구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최근 공자위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해 서울보증보험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것이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 공자위가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키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연 27~28%에 달하는 투신권의 고금리 투자 수익까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임

- 7월 말 현재 서울보증이 투신권에 지급해야 할 회사채 원리금은 총 7조5,000억원으로 모두 1997년과 1998년 대우 계열사와 삼성자동차 및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사채에 보증 섰던 것들임
- 그러나, 현재 서울보증은 지급 여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어야만 원리금 지급이 가능함

– 공자위는 서울보증이 투신권에 내줘야 하는 7조5,000억원 중 공적자금 5조원과 서울보증보험사 자구액을 포함하여 6조2,000억원 가량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아울러 삼성차 보증채 (6,000억원)를 포함한 나머지 1조3,0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투신권에 손실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공자위 관계자는 1997~1998년 당시 대우채 등을 국채 수익률 (당시 연 15%)의 두 배인 27~28%로 인수했던 만큼 투신권도 마땅히 손실 분담을 해야 한다고 언급

– 공자위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에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고의 부도라는 비판과 1,200명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청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지적되고 있음

♣ 2001년 8월 25일 토요일 (2)

○ 한투증권 지분 인수 문제 UBS에 제의

– 한투증권이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S와 한투증권사 지분 매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홍성일 한투증권 사장은 8월 24일 지난 7월 중순 UBS측에 한투운용과 함께 한투증권의 지분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UBS측에선 한투증권 지분 출자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답변을 주겠다고 밝힘

– 한투증권의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대투와 한투 등 부실 투신사에 투입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는 효과를 갖게 될 전망

- 아울러 AIG 컨소시엄의 현대 금융 3사 인수에 이어 또다시 외국 자산운용사에 의해 국내 대형 투신사가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2001년 8월 27일 월요일

○ 겉도는 현투증권 AIG 매각 협상

- 8월 23일 정부와 AIG간의 MOU 발표 직후 AIG측은 현대증권의 우선주 발행가격을 7,000원으로 주장하는 등 협상 내용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돌출 행동을 하고 있음
  - 가격이 매매 계약의 핵심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매각 구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AIG는 현대증권이 제시한 신주 발행가 8,940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밝혔을 뿐 자신들의 구체적인 협상 대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일부 미국계 언론을 통해 7,00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측에 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임
- AIG가 주당 7,000원으로 현대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투자금액 4,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분율은 34.8%가 되어 8,940원일 때보다 5.4%가량 늘어나게 됨
  - 만일 지분율 29.45% (4,400만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AIG는 양해각서상 4,000억원에 미달하는 3,180억원만 투자하면 됨
- 이에 대해 AIG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라면 가격 문제를 걸어 다른 조건들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AIG 협상 전략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애널리스트 규제 장치 마련하여 조사 분석 왜곡 관행 막는다

- 금감원은 8월 26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애널리스트 규제 장치의 주요 내용
  - 애널리스트 개인적인 투자 상황 공시 의무화
  - 애널리스트 주식 투자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그 시스템의 의무화
  -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분석 보고서 검증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이는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추천 종목이나 분석 보고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 발표돼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최근 애널리스트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미국의 추세도 감안된 것임

♣ 2001년 8월 28일 화요일 (1)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 극히 부진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판매가 정체 상태를 보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지난 8월 14일부터 투신운용사들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으며 8월 24일 기준으로 1조4,861억원의 수탁고를 올림

- 시판 첫 주인 지난 8월 20일까지 1조3,119억원어치를 판매 한 이후 8월 24일까지 지난 1주 동안 1,700억원 판매에 그침
- 이는 지난 해 초와 지난 해 7월에 판매한 CBO펀드나 비과세펀드 등의 초기 판매고와 비교하면 1/5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 이 같은 판매 부진은 경기 불황 장기화 조짐과 투자적격인 인천정유의 1차 부도,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의 처리 지연 등으로 투기등급 채권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총체적인 경기 부진의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최소 1년 이상 투기채를 안고 있는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투기채 소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9월 이후 집중 도래할 만기 투기채의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공익펀드 속속 등장

– 투자와 선행을 결합한 이른바 공익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공익펀드란 펀드운용사와 판매사가 수익금 (신탁보수)의 일부 (약 5~10%)를 자애인 및 소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쓰는 펀드임
- 이로 인해 수익금을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며, 펀드 수익률도 다른 펀드보다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공익펀드 판매 현황

펀드 명	판매사	발매일	판매액	지원 내용
우먼파워 채권펀드	대투증권	2000.10.31	8,537억원	여성우대기금 조성 (신탁보수의 5%)
한마음 119펀드	현투증권	2001.4.6	950억원	소방공무원 지원기금 (보수의 10%)
아이러브핸디캡	교보, 한빛증권	2001.8.1	13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보수의 10%)
삼성 에코 펀드	삼성증권	2001.8.17	–	환경보호기금 조성
한빛 참사랑 신탁	한빛은행	2001.8.16	–	장애인 복지기금 (보수의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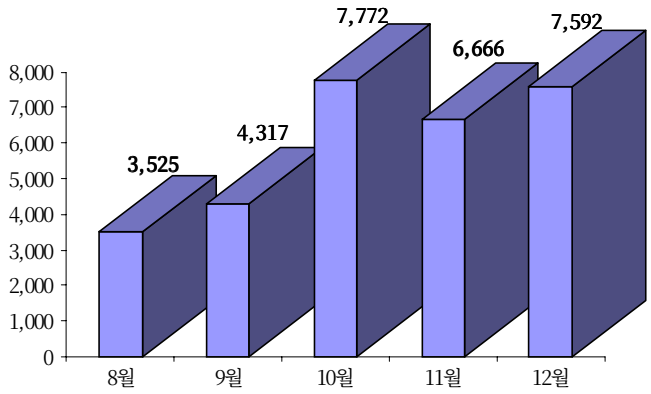
♣ 2001년 8월 28일 화요일 (2)

○ 회사채 연내 만기 물량 30조원

– 증권예탁원이 2001년 7월 말 현재 회사채 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발행된 회사채 (중도 상환분 등 제외) 총 잔량은 154조원에 이름

• 이 중 2001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590종목 29조8,728억원임

– 월별 회사채 만기 물량 현황 (자료: 증권예탁원, 단위: 10억원)



• 대우,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재벌그룹 계열사의 만기 물량이 10조3,871억원으로 전체 만기 물량의 34.8%를 차지함

• 삼성그룹이 3조3,4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만기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LG (2조5,843억원), SK (1조8,105억원), 현대 (1조5,067억원), 현대자동차 (1조1,425억원) 순임

• 기업별로는 대우 (1조8,397억원), 하이닉스 (1조7,953억원), 삼성전자 (1조2,440억원), 현대자동차 (9,700억원), 현대건설 (9,167억원) 순임

– 한편, 하반기에 회사채 만기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사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회사채 발행 규모는 47조3,509억원에 이름

♣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

○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일단 유예

– 서울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24개 투신사 사장들은 지난 8월 27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오는 9월 20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음

- 투신권 관계자는 일단 서울보증보험이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9월 20일까지 가압류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언급

– 서울보증보험은 투신권이 부실채권에 대해 6,199억원 상당의 원금을 탕감해 주더라도 원금의 140%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가압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투신권은 투자회사가 이미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니 원금을 탕감해도 된다는 논리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

-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이 기한내 만기도래 보증채에 대한 성의 있는 상환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다시 가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 (자료: 서울경제)

○ 기획예산처 기금 운용 평가 결과 국무회의에 보고

– 기획예산처는 8월 28일 '2000년도 기금 운용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각종 기금의 무분별한 복권 발행이 국민복지 및 재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규 복권 발행을 통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음
-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채권 발행을 통해 대부분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의 경우 자산·부채 종합관리 (ALM)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음

– 기금 관련 정책 건의 및 개선 사항

분야	정책 건의 및 개선 사항
사업 운영 분야	기금 목적사업의 명확화, 핵심사업 위주로 축소 기금사업 중복의 최소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DB 및 전산망 구축의 상호 연계망 구축 기금내 계정 운용 합리화 기금 출자회사 사전·사후 관리 강화
자산 운영 분야	자산 운용 전문가 활용 자산·부채 종합관리 (ALM) 체제 구축 SOC 투자, 주식, 벤처캐피탈 등 투자대상 다양화 투자풀 제도의 지속적 발전
종합 관리 분야	예산 출연금을 주된 조성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 지양 신규복권 발행을 통한 기금 재원 조성 지양 과감한 보상 제도 도입

♣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2)

○ SEI에셋코리아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1조원 달성

–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현재 SEI에셋코리아의 수탁고는 1조535억원으로 지난 해 말보다 7,569억원 증가했다고 밝힘

- 이는 증권투자회사 총수탁고 4조3,840억원의 24.0%에 달하는 것이며, 1999년 미래에셋의 총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선 이래 처음으로 개별회사의 증권투자회사 수탁고가 1조원을 달성한 것임
- SEI는 올 초 금리 하락세를 예상하여 주식형을 정리하고 채권형에 주력한 것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 개별회사의 증권투자회사 수탁고 현황 (자료: 투신협회, 단위: 억원, 8월 24일 현재)

회사명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단기)	계	증감액 (전년대비)
		주식	채권			
그린에셋운용	–	44	668	–	712	542
글로벌에셋	–	104	518	–	622	622
뉴스테이트	–	–	15	–	15	-47
다임인베스트먼트	–	8	3,882	–	3,890	3,536
마이다스에셋	382	3,071	1,720	–	5,172	995
마이에셋자산운용	60	–	504	–	564	207
맥쿼리IMM	49	–	2,046	–	2,096	2,015
미래에셋자산운용	529	1,808	2,817	–	5,153	-2,715
베스트투자자문	–	40	–	–	40	40
스커드캠프인베스트먼트	–	7,000	–	–	7,000	0
와이즈에셋자산운용	143	–	–	–	143	143
유리자산운용	577	845	3,205	129	4,756	3,952
이산플러스엠엔에이	–	24	–	–	24	24
인터바인M&A	–	154	–	–	154	154
크리스탈투자자문	–	73	–	–	73	73
KTB자산운용	8	1,591	858	334	2,791	1,096
SBFK사모M&A	–	100	–	–	100	100
SEI에셋코리아	–	34	10,501	–	10,535	7,569
합계	1,747	14,896	26,735	463	43,840	18,307

- 개별회사의 증권투자회사 수탁고를 살펴보면 몇몇 자산운용사의 경우 총 수탁고 규모가 1,000억원을 밑돌고 있어 자산운용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3)

○ **하이닉스 자금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은행과 투신권 대립**

– 8월 28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회사채 신속인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투신권은 자신들이 하이닉스반도체 지원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압박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 하이닉스는 그 동안 이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피해 왔음

– 따라서, 하이닉스가 이 같은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임

- 이 선언은 하이닉스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채권단이 하이닉스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채권 은행단은 최근 투신권이 하이닉스 자금 지원 (회사채 1조2,000억원의 만기 연장)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왔음

– 이로 인해 채권단은 하이닉스의 채무 불이행 상황을 이용하여 투신사로 하여금 회사채 만기 상환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하이닉스의 부도로 인해 함께 손해를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알려짐

- 투신권은 이에 대해 채권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속인수제까지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 주장

– 외환은행은 투신권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9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투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이닉스 자금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 **현대투신 소액주주 무더기소송 채비**

– 현대투신증권의 소액주주들이 곧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감자 조치에 맞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와 AIG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난 8월 23일 이후 금감원 및 현대투신의 민원란 등에 감자를 반대하고 법적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소액 주주의 글이 몰리고 있음
- 그 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 없이 감자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볼 때 멀지 않아 정부의 감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

– 한 소액주주는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공모한 직후 엄청난 부실 자산이 드러난 것은 현대측이 처음부터 고객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는 증거라고 주장

- 다른 소액주주들과 함께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 현대투신은 지난 해 1월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중 2,600억원어치를 25,274명의 개인 고객이 주당 6,000원에 인수했음

- 유상증가 직후 보유 중인 대우그룹 회사채에서 9,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내는 등 숨겨진 부실이 드러났었음

♣ 2001년 8월 30일 목요일 (1)

○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투신사**

– 증시 부양이나 자금시장 안정에 단골로 동원되던 투신사들이 예전과 달리 과감히 거절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

– 지난 5월 하이닉스반도체의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면서 투신권이 연말까지 만기를 맞는 회사채 1조4,000억원 가운데 6,800억원의 만기를 3년 연장하자는 채권 은행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비롯됨

• 이 갈등은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개별 투신사를 일일이 설득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지만 투신사들이 더 이상 정부와 은행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되는 신호탄이 됐음

– 정부 조치에 대한 투신권의 반응

정부 조치	주요 내용	투신 반응	영향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1989년 12월 12일)	-증시 안정 때까지 투신사가 무제한 주식 매입 -시중은행 자금 2조 7천억원 3대 투신에 대출	YES	-주가 하락 지속되며 투신 부실의 발단이 됨
신세기·한남투신 인계명령 (1998년 1월·8월)	-부실화된 신세기·한남투신의 신탁재산을 각각 한국투신·현대투신이 인계하도록 명령	YES	-한투·현투 부실 원인 제공 -투신에 대한 불신 증폭
대우사태 (1999년 8월)	-대우그룹 회사채 만기 연장 -기업어음 등 신규자금 지원 독려	YES	-환매연기·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고객 손실, 투신사 신뢰 추락 -자금시장 왜곡
현대건설 지원 (2001년 5월)	-회사채 4,995억원 차환 발행 -신규 발행 회사채 인수 지원	버티다가 YES	-현대건설 채권이 편입된 펀드 고객 불안
하이닉스 지원 (2001년 7월)	-연내 만기 회사채 중 6,800억원 차환 발행 요구	YES	-하이닉스 경영 악화로 추가 지원 부담
서울보증채권 손실 분담 요구 (2001년 7월)	-대우채 등 대지급분 중 6,200억원	NO	-서울보증보험 유동성 우려·청산 검토설 재기
하이닉스 채무 재조정 (2001년 8월)	-연내 만기 회사채 1조2천억원 전액 무보증 차환 발행 요구	NO	-하이닉스 회생 가능성 불투명
현대유화 지원 (2001년 8월)	-현대유화 회사채 6천여억원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NO	-현대유화 회생 가능성 불투명

– 투신권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오다 투신권은 물론 자금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자기 반성 때문임

• 정부는 1989년 '12·12 증시 부양 대책' 이후 증시나 자금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예산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부담 없이 끌어 쓸 수 있는 투신 자금을 단골로 동원해 왔지만 시간이 지난 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음

• 아울러 최근 대우채 환매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투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점 등이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8월 30일 목요일 (2)

○ 법정관리 가능성 높아진 하이닉스

– 하이닉스반도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직접적으로는 외화채권 $4,600만 (약 600억원)의 조기 상환을 둘러싼 해외 채권단과 하이닉스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디폴트 (채무불이행) 선언이 임박했기 때문임
- 아울러 채권 은행단이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채무조정 방안에 투신권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압력 때문에 수출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간접 개입의 여지가 없고 9월 14일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발효 시한까지 기다리기도 난처한 상황임
- 올 해 전체 매출액은 4조3,000억원이지만 적자액은 3조8,000억원으로 예상됨

– 이대로 가면 올 연말에는 1조9,000억원, 내년 말에는 3조6,000억원의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6조7,000억원의 채무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말 현금이 1,040억원 밖에 남지 않고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부족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1)

○ AIG 발행가 8,940원에 동의

– 6월 30일 현대증권 홍완순 사장은 '신주 발행가격에 대한 현대증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AIG 컨소시엄이 기준가에서 10% 할인된 8,940원의 신주 발행가격으로 증자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힘

– 홍사장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주 발행가를 7,000원에 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으나 유가증권 발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언급

  • 일부 언론에서 현대증권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발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절대 그럴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음

– 반면,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은 이날 현대 구조조정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현대증권이 신주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이사회를 다시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

○ 9월부터 민간 채권 평가사의 가격 정보 이용에 따른 문제점 제기

– 9월부터 펀드에 신규 편입하는 채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2개의 민간 채권평가사의 가격 정보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기존에 채권의 수익률을 제시하던 증권업협회의 기준 수익률이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 채권평가사에 의뢰될 경우 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아울러 투신운용사 상당수가 기존 펀드의 보유 채권에 대해서도 신규 펀드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그 수익률 상승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시장관계자들은 만약 민간 가격 정보를 신규 펀드에만 국한할 경우 신·구 펀드에 편입된 동일한 채권의 가격이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2001년 8월 31일 금요일 (2)

○ 투신사별 하이닉스 보유 현황

– 투신권은 현재 약 1조4,800억원의 하이닉스 회사채를 보유 중임 (단위: 10억원)

운용사 명	보증	무보증	합계
한국	6.0	407.7	413.7
대한	65.0	63.9	128.9
현대	84.0	70.0	154.0
삼성	–	2.5	2.5
동원	20.0	20.0	40.0
서울	–	118.3	118.3
교보	5.0	71.7	76.7
신한	–	1.0	1.0
한화	5.1	10.8	15.9
한일	3.9	32.2	36.1
SK	–	10.4	10.4
조흥	39.2	256.9	296.1
한빛	17.3	20.3	37.6
주은	21.5	112.5	134.0
총계	272.0	1,280.2	1,480.1

- 8월 28일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이 BB+에서 B0로 종전보다 4단계나 강등돼 펀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투신업계에서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및 올해 초에 만든 회사채 집중 투자용 펀드에 하이닉스 회사채가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하이닉스 회사채를 분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일부 회사의 경우는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9월 September

10대 주요 기사

1. 캐나다 및 미국에 거주했던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혜택 부여 (5일)
2. 2조6,869억원의 연계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현투증권 (14일)
3. 증권사나 은행의 미매각 수익증권 5조6,952억원 (15일)
4. 하이닉스 지원 변수로 작용될 투신권 매수청구권 행사 (21일)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선 본격화 (21일, 28일)
6. 서울보증보험 관련 보증사채 손실분담 합의한 투신권 (22일)
7. 하이일드펀드 '흥창' 부도로 타격 (26일)
8. 확정금리 상품인 신탁형 저축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투신사들 (28일)
9.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MMF 수익률 3%대로 밀려 (28일)
10. 현투증권 소액주주 감자 AIG와 협상 및 적기시정조치 6개월 유예 (28일, 29일)

◈ 9월 목차 (9/1-9/10)

9/1 (토)	○ 연말 만기 투기등급 채권 4조원 넘어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일부 인출 조짐
9/2 (일)	
9/3 (월)	○ 투신 고객 하이닉스 영향 적을 듯 ○ 하이닉스 불똥에 투신권 비상
9/4 (화)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왜곡 현상 개선 ○ 하이일드펀드 수익률 추락
9/5 (수)	○ MMF 증금어음 편입비율 낮출 예정 ○ 규정 미비로 연기된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 캐나다 및 미국에 거주했던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혜택 부여
9/6 (목)	○ 투자자문사에 돈 몰린다 ○ 투기채 소화 힘들어질 듯 ○ 연기금 주식 투자수익률 2% ○ '은대이자율'로 마찰이 일고 있는 투신사와 은행
9/7 (금)	○ 투신 수탁고 162조원 회복 ○ 현투증권 완전 감자
9/8 (토)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하이닉스 9월 내 해결 ○ 하이닉스 회생 가능성 보임
9/9 (일)	
9/10 (월)	○ 현대증권 신주 발행가 7,000원 수용 ○ 투자자금에 대해서 MMF 등의 운용을 권고하는 시장 전문가들

◈ 9월 목차 (9/11-9/20)

9/11 (화)	○ 투기채 편입 펀드 투기채 9조4,110억원 보유 ○ 9월 13일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도입 관련 운용 방향 세미나
9/12 (수)	○ 증권사 하이닉스채 만기 연장 제동 ○ 증권·투신 구조조정 지지부진 ○ 투기등급 회사채 만기 오는 11월과 12월 사이 집중
9/13 (목)	○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 현대투신증권 매각에 적신호 ○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 비상
9/14 (금)	○ 현대증권 이사회 우선주 7,000원으로 의결 ○ 은행 신탁상품 만기 폐지 추진 ○ 2조6,869억원의 연계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현투증권
9/15 (토)	○ 하이닉스 신규지원 보류 ○ 증권사나 은행의 미매각 수익증권 5조6,952억원 ○ 서울보증채 처리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 연기금 주식투자 수익률 저조 ○ 국민연금 손절매 유예 요청
9/16 (일)	
9/17 (월)	○ 증시안정펀드 긴급 조성 ○ 연기금펀드 33개 원금 손실
9/18 (화)	○ 서울보증채 대지급 타결 ○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규정 어긴 투신사 펀드 8,894개 ○ 펀드기준가 산정 주체놓고 투신사와 사무수탁회사간 논쟁
9/19 (수)	○ 우리사주 신탁 (ESOP) 제도 내년 도입 ○ 현대유화 구조조정법 첫 적용 ○ 9월 18일 정부 증시대책 발표 ○ 순매수 약속 어긴 기관에 불이익 주기로 한 정부
9/20 (목)	○ MMF 수익률 3%대로 추락할 듯 ○ 구조조정촉진법 면책 범위 놓고 투신사 사장단 전전긍긍 ○ 공적자금 4조6,000억원 서울보증보험에 투입

◈ 9월 목차 (9/21-9/30)

9/21 (금)	○ 국민연금 자산운용 논란 ○ 하이닉스 지원 변수로 작용될 투신권 매수청구권 행사
9/22 (토)	○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 급증 ○ 미국 하이닉스 지원 WTO 제소 검토 ○ 서울보증보험 관련 보증사채 손실분담 합의한 투신권
9/23 (일)	
9/24 (월)	○ 기관 강제매수 부작용 심해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투신사 허용에 대해 자산운용사 집단 반발
9/25 (화)	○ 9월 25일 38개 증권사 사장단 회의 ○ 정부의 증시대책 오히려 시장 왜곡 우려
9/26 (수)	○ 투신 사모펀드 기관들에게 인기 ○ 하이일드펀드 '흥창' 부도로 타격
9/27 (목)	○ 일부 투신 MMF 비중 위험 수위 ○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MOU 협상 10월 중순 본격 수정작업 ○ 증권사들 '주식모으기 펀드' 발매 시작
9/28 (금)	○ 금감위 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6개월 유예 ○ 스팟펀드 존폐 기로 ○ 한투증권 현물출자받은 담배인삼공사 주식 모두 처분 ○ 확정금리 상품인 신탁형 저축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투신사들 ○ 공적자금 140조원 넘어서 ○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본격화 ○ MMF 수익률 3%대로 밀려
9/29 (토)	○ 회사채 금리 첫 5%대 ○ 현투증권 소액주주 감자 AIG와 협의
9/30 (일)	

♣ 2001년 9월 1일 토요일

○ **연말 만기 투기등급 채권 4조원 넘어**

–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투기등급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의 총 규모가 4조 2,5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투기채는 발행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운데다 회사채 차환발행도 힘든 실정인 것으로 파악됨

– 8월 31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말까지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총 33조2,901억원으로 집계됐음

- 이 가운데 차환 발행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투기등급 채권의 규모는 투기등급 (BB+ 이하) 채권 2조9,102억원과 자기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보증을 받은 채권 1조3,469억원임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일부 인출 조짐**

– 하이닉스반도체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투신사 총수탁고가 감소세로 돌아섰음

- 지난 8월 29일 현재 투신사 총수탁고는 161조8,408억원으로 전날에 비해 3,279억원이 감소했음
- 투신사들은 월말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MMF를 중심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했음

– 이 같은 수탁고 감소 현상은 지난 8월 14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서도 나타나 일부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투신의 경우 지난 8월 28일 5억원, 29일 9억원이 환매됐음
- 펀드에 가입한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자금이 환매되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임

♣ 2001년 9월 3일 월요일 (1)

○ 투신 고객 하이닉스 영향 적을 듯

–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에 따른 투신 고객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채권 가운데 실제 고객 펀드에 편입돼 있는 비중이 높지 않은데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펀드 가치 손실분도 만기가 짧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

– 지난 8월 말 현재 하이닉스 채권을 일부라도 편입하고 있는 투신권 채권형 펀드의 총 규모는 34조9,000억원임

- 이 가운데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채권은 무보증채를 제외하면 1조 2,000억원 안팎으로 대상 펀드의 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가 보유 자산 50%를 상각하더라도 34조원에 이르는 대상 펀드의 수익률 하락폭은 평균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이 가운데 투신사가 자체적으로 떠안고 있는 미매각분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이미 반영했을 경우 하락폭은 0.3~0.4%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하이닉스 채권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국, 대한, 서울, 조흥, 주은투신운용의 경우 하이닉스 채권을 미매각으로 떠안고 있는 비중이 50~60% 이상을 차지
- 이것도 99년 대우채 환매 사태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 집중 편입돼 있어 지난 해와 올해 설정된 하이일드와 CBO펀드 고객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지적

♣ 2001년 9월 3일 월요일 (2)

○ 하이닉스 불똥에 투신권 비상

– 하이닉스반도체 회생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증권사와 투신운용사에는 하이닉스 회사채가 편입되지 않은 펀드로 갈아타거나 환매를 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투신권은 하이닉스 불똥이 자칫 제2의 대우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음

– 투신권으로선 고객 못지 않게 하이닉스 채권단의 요구도 부담스러운 형편임

• 채권단은 투신권이 보유 중인 약 1조2,000억원 (8월 말 기준)의 하이닉스 회사채를 3년간 만기 연장하고 이자도 유통 금리의 절반인 6.25~6.5% 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투신운용사별 하이닉스 회사채 보유 현황 (8월 27일 현재, 단위: 억원, %)

투신사	보유액	채권형 규모	채권형 대비 비중
조흥	2,560	66,579	3.84
한국	4,077	139,532	2.92
서울	1,183	40,887	2.89
교보	767	27,301	2.81
동원	200	25,757	0.77
현대	700	123,198	0.56
한빛	202	33,137	0.60
주은	1,290	130,842	0.98
대한	1,117	133,012	0.83
한화	109	26,370	0.40
한일	361	62,119	0.58
SK	104	21,937	0.47
신한	10	32,056	0.03
삼성	25	187,610	0.01
계	12,705	1,076,196	1.33

* 채권형은 채권형+채권혼합형+MMF 합계
* 표에 없는 투신운용사는 하이닉스 회사채 보유 물량 없음

• 전체 채권형 상품 수탁고에서 하이닉스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조흥, 한국, 서울, 교보 등 4곳이 2% 이상이고 나머지 10개사가 1% 미만임

– 투신권은 이런 문제보다 인천정유와 하이닉스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의 불신이 되살아날 것을 걱정하고 있음

• 투신 관계자는 편입된 투기채 가운데 하나만 깨져도 손실로 역전된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고객의 불안 심리가 자칫 투신권 전체로 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2001년 9월 4일 화요일

○ 채권형 펀드 수익률 왜곡 현상 개선

– 9월부터 채권 시가평가 방식이 바뀌자 채권형 펀드들의 수익률 왜곡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이는 채권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온 증권업협회 고시 금리 대신 실제 채권 유통가격을 반영하는 민간 평가사들의 금리 정보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임

– 투신 보유 회사채 36조원 평가 실태 (단위: %)

등급	보유 금액	비중	고시 금리	실거래 금리	금리 차
A- 이상	17조3,100억원	47.6	6.55	6.2~6.3	0.3
BBB	6조7,046억원	18.4	10.72	8.5~9.5	1.2~2.2
BB+ 이하	12조3,447억원	34.0	미발표	거래 없음	

* 보유 금액은 5월 31일 현재, 금리는 8월 31일 기준

- 우량채권인 신용등급 AA- 회사채의 경우 지난 8월 31일 협회 고시 금리는 연 6.55%였지만 실제 연 6.2~6.3%선에서 거래가 성립됐음
- 투자적격 등급의 맨 하위 단계인 BBB- 등급의 경우 고시 금리와의 격차가 최고 연 2.5%까지 벌어졌다고 조사됨

○ 하이일드펀드 수익률 추락

– 하이닉스반도체의 신용등급 하락 조정과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이일드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투신사를 중심으로 자금 이탈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8월 29일 1,271억원의 자금이 이탈한데 이어 30일과 31일에도 각각 420억원과 1,061억원씩 자금이 빠져나갔음
- 주은투신운용의 경우도 지난 8월 30일과 31일 각각 1,824억원과 1,233억원의 자금이 이탈했음
- 서울투신운용도 지난 8월 29일 1,094억원 가량 수탁액이 감소했으며, 현대투신운용도 8월 29일과 30일에는 각각 1,420억원과 3,182억원이 감소했음

– 이와 함께 지난 8월 28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신용등급이 BB+에서 B0로 하향 조정되면서 투기등급 편입비중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은 0.1%나 급락했음
- 한편, 같은 기간 동안 CBO펀드는 장부가 평가를 실시해 그나마 0.01% 소폭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2001년 9월 5일 수요일 (1)

○ MMF 증금어음 편입비율 낮출 예정

- 투신운용사의 고유 상품인 MMF에 적용하고 있는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 10%가 단계적으로 5%까지 인하될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MMF가 수익률이 낮은 증금어음 10%를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투신사들의 경영수지 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
  - 현재 10% 의무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7%, 5% 등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의무 편입비율 인하폭과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현행 증금어음 발행금리는 콜금리 (현재 연4.5%)와 연동돼 통상 0.3% 안팎에서 하향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연 4.2%임
  -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그 동안 증금어음 수익률이 낮은 반면 의무 편입비율은 높아 MMF 수익률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음
  - 최근 MMF 수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을 낮추더라도 증금어음을 통해 조성되는 '투신안정기금'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MMF의 증금어음 10% 의무 편입 규정은 당초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투신안정기금'의 기초자산을 만들 목적으로 마련됐음
  - 투신안정기금은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증금어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4.4%의 금리로 차입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투신안정기금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신세기투신을 인수한 한투증권과 한남투신을 인수한 현투증권 등 2대 전환증권사에 1조2,179억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 중임
  - 나머지 2조6,000억원은 두 전환증권사를 포함해 대투증권, 제일투신증권 등이 운용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들 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규정 미비로 연기된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 당초 9월에 예정됐던 1,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코스닥 직접투자가 10월 이후로 연기됐음
  - 직접투자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내부 규정 정비, 투자대상 종목 선정 진행, 코스닥시장 침체 때문임
-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말 직접투자 대상을 코스닥과 선물·옵션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코스닥의 경우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반기 하루 평균 거래량 3,000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종목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할 예정임
- 국민연금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황이 침체를 보일 경우 투입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으며, 1,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필요가 없는 만큼 투입 시기와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01년 9월 5일 수요일 (2)

○ **캐나다 및 미국에 거주했던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혜택 부여**

- 정부는 주요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캐나다 (1999.5.1), 영국 (2000.8.1), 미국 (2001.4.1)과의 협정을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이들 나라에 단기간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상대국의 사회보장 기관에 제출하거나 요청시 제시함으로써 최대 5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2001년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현황을 보면 캐나다 97건, 영국 479건, 미국 1,2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한편, 영국을 제외한 캐나다, 미국 장기 체류자들은 우리나라와 주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연금 수급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개시) 이후 각국과의 협정 발효일 이전 상대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도 연금 수급을 위한 기간에 포함됨

♣ 2001년 9월 6일 목요일 (1)

○ 투자자문사에 돈 몰린다

-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마땅한 자산운용 수단이 사라진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거액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자문사를 잇따라 찾고 있음
  - 이에 따라 코스모, 델타, 밸런스 등 대형 투자자문사는 물론 투자자문업을 겸하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자산 규모가 크게 늘고 있음
- 코스모투자자문의 경우 지난 7월 이후에만 국민연금 300억원을 포함해 은행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이 들어왔음
  - 델타투자자문의 경우도 지난 3월 말부터 수탁고가 크게 늘기 시작해 지난 7월 말까지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밸런스투자자문 역시 올 들어 500억원의 수탁고가 증가했음
  -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B&F투자자문도 은행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500억원 가량 유치했으며, 투자자문업을 겸하고 있는 마이에셋자산운용의 경우도 자문 수탁고가 최근 300억원 증가했음
- 투신사의 인기가 저조한 것과 달리 투자자문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산운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을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
  - 더욱이 투자자문사의 경우 투신사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덕분에 기관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투기채 소화 힘들어질 듯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어 오히려 일부 투신사를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어 연말 투기채 소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연말에 만기가 몰려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최소 13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판매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유입 자금은 1조7,518억원 (9월 4일 기준)에 불과한 실정임
  - 또 다른 투기채 소화 방안으로 제시된 채권담보부증권 (프라이머리 CBO) 발행도 하반기 들어 9,080억원에 머물면서 이를 통해 소화된 투기등급 채권 규모도 3,813억원에 그치고 있음
- 특히 대우채 소송과 하이닉스반도체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기채를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부 투신사를 중심으로 환매에 나서고 있음
  - 한투운용의 경우 지난 8월 28일부터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3,256억원 (8월 27일 현재)에 이르던 설정액이 2,954억원 (9월 4일 현재)으로 302억원 감소했음
  - 대투운용의 경우도 지난 8월 31일과 지난 9월 3일 각각 102억원과 9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판매 초기 1,380억원이던 설정액이 1,175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감소했음

♣ 2001년 9월 6일 목요일 (2)

○ 연기금 주식 투자수익률 2%

-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수익률은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재경부가 9월 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2000년 4대 연기금은 11조9,000억원을 주식에 직·간접 투자해 2,40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힘
  - 따라서 이 기간 주식 투자수익률은 2%이나 98년 이전의 주식 평가손실을 반영할 경우 수익률은 -2%인 것으로 분석됐음
- 작년 10월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 요인의 해소 방안 추진 이후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실적은 국민연금 1조9,000억원, 우체국보험 1조1,000억원, 사학연금 1,000억원 등 모두 3조1,000억원임

○ '은대이자율'로 마찰이 일고 있는 투신사와 은행

- 펀드운용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지난 98년부터 5%로 고정돼 있던 은대이자율을 최근 3%로 내리겠다고 통보해오자 투신사들은 펀드수익률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은대이자'란 투신사가 펀드운용 후 은행에 맡겨 둔 여윳돈인 미운용 현금자산에 대해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지칭함
  - 은행의 은대이자 적용 금액은 각 투신사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에 따라 매일 바뀌지만 통상 하루 평균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투신사 총 수탁고 약 161조원 (8월 말 기준)의 1.25%에 이름
-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여윳돈을 굴리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4.5%인 콜금리에 비해 은대이자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 이에 반해 투신사들은 지난 3년간 변함 없이 적용했던 은대이자율을 당장 3%로 인하할 경우 펀드 수익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인하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01년 9월 7일 금요일

○ 투신 수탁고 162조원 회복

– 투신사 수탁고가 지난 9월 3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162조원대를 회복했음

- 투신사 수탁고는 지난 8월 28일 162조1,686억원을 정점으로 나흘 연속 감소해 9월 1일에는 160조8,429억원까지 떨어졌음
- 이는 서울보증보험채 상환이 지연된데다 하이닉스채 만기 연장 등 투신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임
- 투신사 수탁고는 지난 8월 29일부터 4일 연속 MMF에서만 1조2,330억원이 빠져나가는 등 1조3,257억원이 줄었다가 9월 3일부터 증가세로 반전돼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음

– 투신 관계자는 9월 들어 하이닉스채가 일반 시가평가 펀드에 거의 편입돼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인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빠져나갔던 자금이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

- 초저금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도 투신권 자금 유입이 들쭉날쭉한 것은 투자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

○ 현투증권 완전 감자

– 금감위 관계자는 AIG와 현대그룹 금융 3사 매각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현투증권을 완전 감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힘

- 정부는 일단 완전 감자 후 소액주주들에게 현대증권의 신주인수권부 증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대주주 지분은 전액 감자가 예상되었으나, 소액주주 지분은 부분 감자를 통해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어서 소액주주들의 대응이 주목됨

– 현투증권 소액주주는 숫자만 약 2만5,500여명으로 26.3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지난 해 초 현투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시 참여한 투자자들임

- 이에 따라 현대그룹 금융 3사 매각 과정에서 이들의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음

♣ 2001년 9월 8일 토요일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 하이닉스 9월 내 해결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9월 7일 하이닉스반도체 처리와 대우 자동차 매각 작업을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힘

- 미국 AIG와 매각 협상 중인 현대투신도 이르면 10월 말까지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다음 주 중 채권단 회의가 예정돼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자리를 걸고 해결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

-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하이닉스반도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채권단이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지난 8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현대투신 매각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러 빠르면 10월 말까지 본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하이닉스 회생 가능성 보임

–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신규 지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주초 18개 은행 (씨티은행 포함)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울러 9월 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투신권도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을 전망이라고 언급
- 특히, 하이닉스가 LCD 사업부문 매각으로 $6억5,000만의 외자를 확보한 것이 회생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음

– 채권단 관계자는 산업, 외환, 한빛, 조흥, 국민, 신한 등 주요 6개 채권은행의 채권비율만으로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정족 비율인 75%를 채울 수 있다고 밝힘

- 신한·국민은행만 하이닉스의 회생 가능성과 자금 상황에 대한 실사를 지켜본 뒤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번에 합의가 안되면 법정관리가 확실시되는 만큼 결국 동참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함

– 현재 투신권은 오는 9월 14일 발효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채권기관의 의결 정족 비율 (75% 또는 50%)을 통과한 결의안에 대해 구속을 받게 될 예정임

- 투신권이 반대한다면 자기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보유한 하이닉스 채권을 시가인 헐값에 팔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됨
- 아울러 은행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의 75%를 채울 수 있어 투신권이 채권단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임

♣ 2001년 9월 10일 월요일

○ **현대증권 신주 발행가 7,000원 수용**

- 현대투신증권 매각 협상과 관련 현대증권이 AIG측 신주 발행가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여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
- 현대증권이 AIG측 신주 발행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9월 9일 보도했음
  -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에서 아직 최종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AIG측 요구를 긍정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힘
  - 당초 신주 발행가격의 하향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현대증권이 태도를 바꾼 것은 AIG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가 현대증권에 이를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 현대증권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대책 회의를 열고 당초 발행가 주당 8,940원보다 낮은 주당 7,000원으로 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신주 발행가격을 주당 7,000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현대증권 주가가 너무 높아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현대증권 주가 (9월 8일 8,230원)가 주당 7,80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증자시 적용되는 10% 할인 발행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임
  - 소액주주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힘

○ **투자 자금에 대해서 MMF 등의 운용을 권고하는 시장 전문가들**

-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잇따라 낮추고 있어 투자 자금을 예탁금으로 묻어두기보다 MMF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음
- 9월 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LG투자증권은 오는 9월 15일부터 예탁금 이용료율을 3%에서 2%로, 신용이자율 (150일 기준)은 13%에서 9%로 하향 조정할 예정임
  - 아울러 굿모닝증권은 오는 17~18일쯤, 대우, 대신, 현대증권 등은 9월 말쯤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예정임
  - 예탁금 이용료율은 지난 99년부터 3% 수준으로 유지돼 왔으나, 최근 들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임
  -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을 기관간 단기자금인 콜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다 하루를 맡겨도 연 4.5% 내외의 수익을 올려주는 MMF로 고객예탁금을 돌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음
  - 특히, 증권사에 위탁계좌와 수익증권 계좌를 합한 대표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전화 한 통화로 고객예탁금을 MMF로 쉽게 바꿀 수 있음

♣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 투기채 편입 펀드 투기채 9조4,110억원 보유

- 9월 1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 채권은 지난 6월 말 현재 12조3,000억원으로 조사됨
  - 이중 CBO 및 하이일드펀드 등의 투기채 편입 펀드에 9조4,110억원이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펀드별로는 CBO펀드에 6조5,321억원이 들어 있어 가장 많았으며, 하이일드펀드(뉴하이일드펀드 포함)에는 2조8,789억원이 편입돼 있어 투기채 편입 비율이 각각 약 65%, 40%를 기록
- 이에 따라 이들 투기채 펀드의 환매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한 편입 투기채의 유동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기채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있음
  - 그러나, 금리가 불안정해 지면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일시 환매에 따른 투신사들의 유동성 확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들 투기등급채 펀드의 만기 도래에 따른 투기채 소화 방안으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를 판매토록 허용했지만, 9월 7일까지 1조8,481억원의 판매 잔고를 기록하는 등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9월 13일 상장지수펀드 (일명 ETF) 도입 관련 운용 방향 세미나

- 증권거래소는 9월 13일 'ETF 시장개설 및 운용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며,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가격제한폭 15%가 적용될 예정임
-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주요 거래 방식
  - 상장 당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주식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기존 주식처럼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 ETF를 매매할 수 있음
  - 호가는 지정가와 시장가 등 2가지가 있으며, 호가 단위는 5~1,000원임
  - 매매수량 단위는 10ETF이며 가격제한폭은 15%임
  - 결제 방식은 매매일로부터 2일째에 하는 보통결제이며, 결제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될 예정임
  - ETF의 순자산가치는 실시간으로 공시되며 환매를 신청하면 주식으로 교부받게 됨
- 도입 효과
  - 개인투자자는 순자산가치와 지수가 실시간으로 공시되므로 투자 판단이 쉽고 적은 자금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얻게 됨
  - 기관투자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1)

○ 증권사 하이닉스채 만기 연장 제동

– 최근 일부 증권사는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투신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채권은행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이닉스 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음

- 이들 증권사는 투신사가 채권은행의 요구대로 하이닉스 회사채를 연 6.25%의 금리로 3년간 만기 연장할 경우 수익증권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음
- 이러한 경우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환매가 일시에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지급 책임은 판매사인 증권사가 지게 돼 자금 부담이 심해진다고 언급
- 현재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1차적인 지급 책임은 판매사인 증권사가 지게 돼 있음

– 한편, 하이닉스 회사채는 연 13% 수준으로 수익증권 수익률에 반영되고 있으나, 은행의 요구대로 연 6.25%로 만기 연장할 경우 하이닉스 회사채가 많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음

○ 증권·투신 구조조정 지지부진

– 9월 1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28.1%가 인가 취소, 합병, 해산, 파산, 영업이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조사됨

- 총 2,101개 금융회사 중 해산, 파산, 영업이전 등으로 퇴출된 금융회사가 무려 59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합병은 141개사, 인가취소는 121개사임

– 그러나, 은행, 보험, 종금, 리스, 상호신용금고 등은 평균 이상의 구조조정 실적을 보인 반면, 증권, 투신 및 투신운용, 신용협동조합은 평균치를 밑돌았음

- 가장 극심한 구조조정을 거친 업종은 종금 업종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90%가 퇴출 또는 합병 등으로 사라졌음
- 상호신용금고와 리스사도 각각 51.1%와 40%가 감소했으며, 은행과 보험도 각각 33.3%, 30%가 감소하여 평균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음
- 이에 반해 증권업종은 19.4%로 구조조정 실적이 가장 미진했으며 투신 및 투신운용사도 23.3%로 평균치보다 낮았음

♣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2)

○ 투기등급 회사채 만기 오는 11월과 12월 사이 집중

– 금감원은 9월 11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11월과 12월에 BB 등급 이하 투기등급 채권의 만기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최근 하이닉스반도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래가 끊긴 투기등급 채권의 경우 이 기간에 무려 약 4조원 가량이 만기가 돌아와 이들 채권의 차환 문제가 자금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BBB 등급 이하 회사채 등급별 만기 도래 규모 (단위: 10억원)

운용 등급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BBB+	320	900	1,360	1,090	3,670
BBB0	240	660	380	505	1,785
BBB-	323	155	690	1,010	2,178
BB+	160		99	637	896
BB0		95	95	475	665
BB-			80	413.4	493.4
B			37	49.9	86.9
CCC				12	12
C				8	8
총 계	1,043	1,810	2,741	4,200.3	9,794.3

- 시장 관계자들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영난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BBB 등급 이하 회사채의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년 9월 13일 목요일 (1)

○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 현대투신증권 매각에 적신호**

– 미국 테러사건으로 현대투신 매각 협상에 비상이 걸렸음

- 테러로 전세계 보험, 재보험사에 수백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인수 인수 여력이 있을 것인지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임

– 현대투신증권 인수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한 AIG컨소시엄에는 AIG를 비롯해 GE캐피털, WL로스, 캐나다 연기금, CalPERS, 위스콘신 주정부기금, 트랜스아메리카와 최근들어 다이와증권이 참여하고 있음

- 이 중 AIG의 투자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50% 이상이라는 관측이 유력함

– 금감위 관계자는 만약 AIG측이 지급 여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투신증권 인수 협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이번 협상이 깨진다면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증권사 관계자는 AIG의 손실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1위의 보험사이기 때문에 지급여력 문제로 파산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아울러 이번 사태로 현대증권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7,000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임

– 미국 GM과의 대우차 매각 협상도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임

- 이번 사태로 미국의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돼 GM의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대우차 협상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하이닉스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전망임

-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 방어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자로 내정된 미국 AIG사에에 따라 대규모 컴퓨터시스템 교체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2001년 9월 13일 목요일 (2)

○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 비상

– 미국 테러 대참사로 해외 뮤추얼펀드가 급격히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국내 전체 투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도 줄어들 전망

- 해외 뮤추얼펀드는 미국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4분기부터 환매가 계속되고 있었음
- 미국 테러 대참사는 이런 뮤추얼펀드 환매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이 당장은 금융시스템 마비로 환매를 못하고 있지만 정상화되면 뮤추얼펀드를 현금화하려 할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시티은행 등 유력 투자은행의 펀드매니저들이 사망하여 운용 주체가 없어진 것도 환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당장 해외 뮤추얼펀드의 환매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때는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다소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뮤추얼펀드의 환매가 시작된다면 순매도로 돌어설 것이라고 지적
- 특히, 투자은행 등의 뮤추얼펀드 환매가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 펀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반해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른 투자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과 이미 평균 28% 이상 수익률이 하락한 상태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임

♣ 2001년 9월 14일 금요일 (1)

○ 현대증권 이사회 우선주 7,000원으로 의결

- 현대증권은 9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우선주 발행가를 7,000원으로 의결했음
  -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정부와 AIG간 현대투신증권 매각과 관련한 본계약 초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하여 협상이 급격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관계자는 AIG컨소시엄이 9월 12일 미 테러 대참사로 큰 피해를 당해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염려에 대해 큰 피해는 없으며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말까지 AIG컨소시엄과 현대투신증권 매각과 관련한 본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임
  - 한편, 정부는 이날 미국 뉴욕 소재 Mcdermott 법률회사를 우리측 변호사로 선임했으며, 이 법률회사는 국내 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AIG측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본계약 초안 작업을 가질 예정임

○ 은행 신탁상품 만기 폐지 추진

- 현행 6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은행신탁 상품의 만기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물도록 돼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도 은행 자율에 맡겨질 전망
  - 금감원은 9월 13일 은행신탁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금감원은 우선 은행신탁의 만기가 규정돼 다른 금융권역과의 경쟁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임
  - 은행신탁 만기가 없어질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은행 쪽으로 몰릴 뿐 아니라 은행 내에서도 6개월 미만의 저축성 상품이 신탁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됨
- 그러나, 투신과 증권 등이 은행신탁의 만기가 없어질 경우 고객 이탈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됨
-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서는 은행신탁에서 신탁자금을 운용시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공사채 인수, 특정 유가증권 인수 및 매입 등에만 운용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투자로 인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2001년 9월 14일 금요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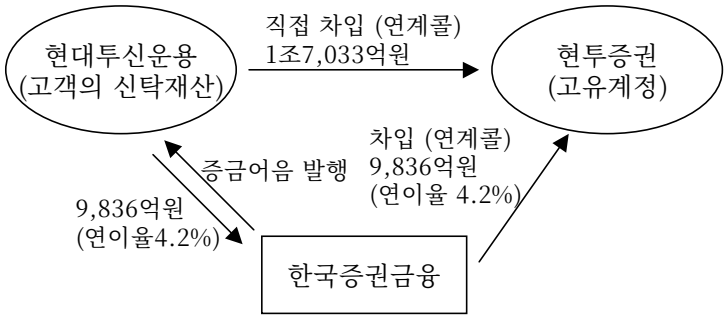
○ 2조6,869억원의 연계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현투증권

– 현투증권이 부족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객 펀드를 편법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 현투증권은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 (펀드)에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증금어음을 편입하는 대가로 증권금융으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고객 자금을 차입해 왔음

– 9월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 의원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투증권이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에서 빌려쓰고 있는 연계콜 규모가 6월 말 현재 2조6,8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1조7,033억원은 현투증권이 신탁재산에서 직접 차입한 연계콜이며, 증금어음 편입 관련 연계콜도 무려 9,836억원이나 됐음
- 현대투신 연계콜 구조



– 9월 초 현재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에서 편입하고 있는 증금어음은 총 1조136억원으로 다른 대형 투신사인 한국투신이나 대한투신에 비해 3배가량 많은 편임

- 이 중 연계콜과 관련 없는 일반 증금어음은 약 300억원에 불과함
- 현투증권은 연계콜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증금어음을 펀드에 편입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것임
- 현대투신운용은 인수한 증금어음을 24개 MMF는 물론이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포함하여 총 293개 펀드에 골고루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 현대투신운용은 9월 초 현재 1조136억원의 증금어음을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상태이며, MMF 설정액 약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무려 8,3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입하고 있음

- 증금어음의 발행금리가 9월 현재 4.2%에 불과해 금융기관간 콜 금리 4.5~4.55%와 비교해도 고객들은 연간 약 25억원 가량을 손해 본 셈이며 현투증권은 그 만큼의 이자비용을 줄이는 셈임

– 조재환 의원은 정부와의 양해각서상 현투증권은 9월 말까지 1조7,033억원에 해당하는 연계콜을 해소해야 하며, 증권금융을 통한 연계콜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

♣ 2001년 9월 15일 토요일 (1)

○ 하이닉스 신규지원 보류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지원이 일단 무산됐음

– 18개 채권은행들은 9월 14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5,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제외하고 3조원 출자전환과 여신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에 대해서만 합의했음

  • 김경림 외환은행장은 미국 테러사건으로 반도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진 만큼 신규 자금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힘

– 당초 산업 (채권비율 16.4%), 한빛 (15.4%), 외환 (15.3%), 조흥 (12.9%), 국민 (6.4%), 주택은행 (2.9%) 등이 모두 찬성하면 동의율이 75%를 넘어 정상화 방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음

  • 그러나, 국민과 주택은행은 막판에 출자전환 등 기존 채무조정에는 동의하지만 신규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음

○ 증권사나 은행의 미매각 수익증권 5조6,952억원

– 9월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 의원 (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나 은행들이 미매각으로 떠안고 있는 수익증권의 규모는 7월 말 현재 총 5조6,952억원에 달한다고 밝힘

  • 증권사들은 현금 등 유동성으로 수익증권을 사고 팔기 때문에 미매각 수익증권에 잠기는 돈이 많을수록 고객이 펀드 헤지 요구시 환매해 주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

– 수익증권 판매량이 많은 대형증권사와 수익증권 판매가 주요 수익원인 전환증권사가 미매각 규모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삼성과 대우증권이 8,000억원대, 현대증권 6,000억원대, 한투증권, 대투증권, 현투증권 등이 4,000억원대의 미매각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의원은 미매각의 경우 해당펀드에 부실채나 투기채 비중이 높아 편입채권이 부도라도 나면 대규모 평가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

  • 아울러 증권사들이 미매각으로 떠안은 채권을 팔기 위해 투신운용사에 새로운 펀드를 만들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덧붙임

♣ 2001년 9월 15일 토요일 (2)

○ 서울보증채 처리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 서울보증채를 보유한 9개 투신사 (2개의 전환증권사 포함)들은 9월 14일 회의를 갖고 전일 재경부가 제시한 서울보증채 장기 분할 상환에 대해 협의했음

-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삼성자동차 5,756억원과 대우계열사 5,489억원 등 1조 1,245억원을 금리 4.5%로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하자는 재경부의 안에 대해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그러나, 투신권은 해당 펀드를 판매사가 미매각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금리 및 신용등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한 상태임

- 이는 해당 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가 돌아올 경우 판매사가 미매각으로 떠안고 있어야 하는데 1조원 이상의 채권을 증권사가 떠안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투신사들은 이와 함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펀드에 편입할 해당 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는 서울보증보험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임을 감안해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을 예보채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제시했음

- 재경부는 보증채 연장이 해결되면 예보채를 발행해 총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해 한 달 이내에 투신사에 대지급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오는 9월 17일 24개 전체 투신사들의 동의 절차도 남겨놓고 있으나 이 날 참석한 9개사가 서울보증채의 91%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채 연장 문제는 큰 무리없이 합의될 전망임

○ 연기금 주식투자 수익률 저조

– 기획예산처가 9월 14일 민주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99년 주식 직접투자를 통해 137.28%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 해에는 52.11%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힘

- 올해는 7월 말까지 6.2%의 수익을 올려 추가 투입된 자금을 포함한 주식투자 자금 잔액이 2조2,955억원을 기록

– 공무원연금도 99년 125.6%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 해 -51.5%, 올해 7월 말까지 15.4%의 수익을 올리며 잔액 1,536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학연금은 99년 97.7%에서 지난 해 -47.9%, 올해 7월 말까지 17.8%의 수익을 올리며 966억원의 잔고를 기록
- 반면 간접투자만 하고 있는 우체국보험기금은 99년 37.4%, 지난 해 -18.9%, 올해 7월 말까지 21.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조2,277억원의 잔고를 기록

♣ 2001년 9월 15일 토요일 (3)

○ 국민연금 손절매 유예 요청

– 갑작스런 미국 대형 테러 참사로 인해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12% 이상 폭락하면서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들은 하루 동안 평균 9~10%의 손실을 기록했음

- 특히 지난 해와 올해 550선 이상에서 설정된 연기금 펀드들은 10~15%의 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 대부분 연기금 펀드가 취득가격의 30% 이상 손실을 보았고, 종합주가지수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을 내다 팔아야 하는 손절매 규정에 걸렸음

- 이에 따라 9월 13일 국민연금은 각 투신운용사에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손절매 규정을 유예한다는 공고를 내려보냈음
-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설정된 75개 성장형 펀드 중 6개를 제외한 69개 펀드가 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2001년 9월 17일 월요일

○ 증시안정펀드 긴급 조성

–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긴급 조성하기로 했음

-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9월 16일 과거 증권안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이번 주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 이 펀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 각종 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임

○ 연기금펀드 33개 원금 손실

– 오는 10월부터 연기금 전용펀드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최근 주가 급락으로 대부분 펀드가 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기금 전용펀드는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70% 이상인 성장형 펀드로 종합주가지수 500~550 선에서 설정된 이들 펀드는 최근 주가가 48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손실폭이 확대됐음

–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설정된 39개 연기금펀드 중 6개 펀드를 제외한 33개 펀드가 9월 13일 현재 모두 원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해 증시 안정을 위해 설정된 연기금 전용펀드 규모는 10월 2,200억원, 11월 3,575억원, 12월 1조1,625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에 이름

♣ 2001년 9월 18일 화요일 (1)

○ **서울보증채 대지급 타결**

– 투신권 최대 현안이었던 서울보증보험 보증채 대지급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음

- 9월 17일 보증채 보유 24개 투신사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재경부의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정했음

– 삼성차 5,756억원어치와 대우계열사 5,489억원 등 1조1,245억원의 보증채를 금리 4.5%에 5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임

- 재경부는 모두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해 한달 내에 투신사들에게 대지급할 방침임
- 그러나, 현가로 계산하면 3,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안게 되는 장기 저리 분할방식에 따른 각 투신사 및 판매사별 손실 분담 방안과 손실 이연 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신사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짐

– 투신사들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4조6,000억원대 자금을 하루 빨리 대지급받는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규정 어긴 투신사 펀드 8,894개**

–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동일종목 투자 한도 (10% 규정)를 어겨 문책이나 주의 등 조치를 받은 국내 투신사 펀드가 8,894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감원 9월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 이후 19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동일종목 투자 한도 위반 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것임
- 이 중 서울투신운용이 투자 한도를 85억원 초과한 상태에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신규로 7조5,910억원 규모의 대우채를 편입해 운용한 것이 유일한 대우채 과다 매입 적발 사건임

– 그러나, 금감원은 고객의 환매 요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기업의 채권 비중이 높아진 경우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 10% 규정이란 펀드에 1개 기업의 회사채나 주식을 10% 이상 편입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2001년 9월 18일 화요일 (2)

○ **펀드 기준가 산정 주체 놓고 투신사와 사무수탁회사간 논쟁**

- 투신운용사 펀드 기준가 산정을 누가 맡을지를 둘러싸고 투자신탁운용사와 사무수탁회사가 격론을 벌이고 있음
  - 금감원과 사무수탁회사들이 펀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펀드의 기준가 산정 업무를 제3자인 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해야 된다는 문제를 최근 제기하자 그간 자체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해 오던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나섬
- 투신사들은 그간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과 자체 인력을 통해 기준가를 산정해 온 관행을 깨고 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해 펀드 수익률을 떨어뜨려 결국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사무수탁회사들은 투신사 수익증권과 유사한 간접투자 상품인 증권투자회사의 기준가격 계산 업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위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나, 투신사 수익증권 기준가 산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
- 금감원은 최근 판매에 들어간 투신사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사무수탁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등 기준가 산정을 투신사에서 분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 2001년 9월 19일 수요일 (1)

○ 우리사주신탁 (ESOP) 제도 내년 도입

– 재경부는 9월 18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신탁 (이하 ESOP)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ESOP는 기업이 종업원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업원 마음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제도라고 함
- ESOP는 종업원은 물로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사준다는 점에서 배정된 자사주를 종업원이 자기 돈으로 취득토록 하는 현행 우리사주조합 제도와 다름

– ESOP의 특징 및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차이점

구분		우리사주조합제도	우리사주신탁제도 (ESOP)
취득 절차		.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때 주식 우선배정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	. 기업, 종업원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해 자사주 매입
취득 재원		. 종업원 자금	. 종업원 출연금과 기업 출연금
취득 방법		. 종업원이 직접 매입	. 기업이 성과금 대신 지급
인출 가능 시기		. 취득 후 1년 이후	. 종업원 출연분은 배정 뒤 1년 후 인출 가능 . 기업 출연분은 3~7년 안에 개인에게 배정하고 그로부터 1년 뒤 인출 가능
과세 방법	취득	. 소득공제 없음	. 종업원 출연금 연 24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인출	. 비과세	. 종업원 출연분 중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과 기업 출연금만큼 취득가격으로 환산해 과세 . 배정 후 3년 이내 인출시 정상과세, 배정 후 3년 뒤 인출 땐 저율 분리과세 (9%)

○ 현대유화 구조조정법 첫 적용

– 현대석유화학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음 적용됨

-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9월 18일 현대유화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투신권과 계속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힘
- 관계자는 9월 안에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촉진법 적용 통과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 결의 요건인 지지율 75%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추정

– 촉진법이 적용되면 투신권은 보유 회사채를 시가인 헐값에 넘겨야 돼 손실이 막대해지기 때문에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9월 19일 수요일 (2)

○ 9월 18일 정부 증시대책 발표

– 정부는 9월 18일 정부 증시대책에 대해서 발표했음

- 증시대책 내용은 기관투자가의 자기계열 주식 투자와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식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증시 안전판 기능을 회복시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정부 증시대책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시행시기
자사주 매입절차 대폭 완화	. 동시호가주문 . 총 발행주식 1%로 하루 취득 제한	. 장중 주문 가능 . 폐지	. 9월 21일경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주식운용 규제완화	. 투신사 (신탁재산의 7%) . 보험사 (운용자산의 2%)	. 신탁재산의 10%로 확대 . 운용자산의 3%로 확대	.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
연기금 관련	. 4대 연기금 주식 투자 예정액 (연말까지 2조2,000억원) . 소규모 연기금 인베스트먼트풀	. 조기 집행 협조 요청 . 10월 초까지 구성	
기 타	. 예보채 4조6,000억원 발행 . 코스닥 대책	. 서울보증보험 통해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 . 수급 안정책 마련	

- 시장에서는 보험사나 투신운용사 입장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무작정 공격적으로 주식 매수에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주식 매수에 얼마나 기여를 할 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순매수 약속 어긴 기관에 불이익 주기로 한 정부

–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약속하고도 팔거나 선물을 순매도한 기관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임

- 정부 관계자는 9월 18일 어려운 시기에 증시 안정을 위해 기관들이 약속을 한 뒤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를 어긴 기관에 대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투신사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조성될 연기금 투자풀이나 증시안정펀드의 운용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임

- 은행의 경우 정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총액 한도 대출을 결정할 때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증권사의 경우 이들 투자풀이나 펀드의 자금으로 주식이나 선물, 채권을 사고 파는 주문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

♣ 2001년 9월 20일 목요일 (1)

○ MMF 수익률 3%대로 추락할 듯

– 콜금리 인하 여파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MMF와 채권형 펀드의 목표수익률 인하가 검토되고 있음

- MMF 목표수익률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0.3~0.5% 가량 낮춰지고 5%대 전후하던 3개월짜리 단기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4%대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신규 투자분은 사상 처음으로 수익률이 3%대까지 하락하는 MMF도 나올 것으로 예상됨
- 한 채권 매니저는 단순하게 4.5%인 통안채 1년물로 MMF를 모두 채운다 할지라도 1% 가량의 보수를 떼고 나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신규 자금이나 만기에 따른 재투자 자금의 경우 수익률이 3%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

– 콜금리 인하와 동시에 MMF에 10%씩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증권금융어음 금리도 현행 4.2%에서 3.8~3.9%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MF 수익률 인하를 더욱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구조조정촉진법 면책 범위 놓고 투신사 사장단 전전긍긍

–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사장단은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특정 기업의 채무재조정 작업에 동참하되 이와 관련 투자자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곧바로 위헌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이는 구조조정촉진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투신사가 금융기관간 채무재조정 작업에 동참하더라도 선관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자문 법률회사의 해석에 따른 것임

– 최근 투신업계는 정부 정책대로 집행했으나 펀드당 동일종목 10% 이상 편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신사에 대한 배상판결 및 대우채 편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나온 이후 밀려드는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임

-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선관주의 의무조항에서 자유롭지만 채무재조정 이후 대상 법인의 미래 상황까지 예측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음

♣ 2001년 9월 20일 목요일 (2)

○ 공적자금 4조6,000억원 서울보증보험에 투입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이른 시일 내에 투입하기로 의결했음

-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9월 19일 서울보증보험과 채권금융기관간 잠정 합의된 보증채무 지급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4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힘
- 미집행분 4조원을 포함해 나머지 6,000억원은 출자 형식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회사채 대지급용으로 쓰이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박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간 1조506억원의 채무조정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 방안을 수용하는 투신사에 한해서만 보증채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

-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들이 잠정 합의한 채무지급 방안은 대지급금 상환기간을 7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금리는 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공적자금 지급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예보는 9월 20일 1조3,000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할 계획임

♣ 2001년 9월 21일 금요일

○ **국민연금 자산운용 논란**

– 국민연금이 내년도 자산운용 계획을 짜면서 주식에 2조원만 투자하는 반면, 국채를 사는데 10조원을 쓸 계획을 내놓아 자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음
- 이 계획안은 재경부로부터 주식투자 규모가 너무 작고 운용 방법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 국민연금은 내년도 신규 주식 투자분으로 직접투자에 6,000억원, 투신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에 1조4,000억원 등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국채 투자용으로 10조원을 배정했음

- 재경부가 내년도 국채 발행분을 잠정적으로 24조원어치로 잡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한 곳에서 전체 발행 국채의 41.2%를 소화하는 셈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트폴리오 구성은 주식 투자분에서 모두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 수익률이 3%를 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짜여진 것이라고 지적

- 경제 부처에서는 주식투자 규모를 3조3,0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식투자 위험이 너무 크다며 반대해 2조원 선으로 결론을 냈다고 언급

○ **하이닉스 지원 변수로 작용될 투신권 매수청구권 행사**

– 투신권의 하이닉스반도체 지원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구조조정촉진법의 매수청구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음

- 은행을 비롯한 주채권단이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투신사의 강제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인데 반해 투신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 매수청구권은 채권단 동의로 강제 지원이 결정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기관이 참여 채권단에 보유 유가증권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될 때 명문화됐음

- 만약 투신사가 하이닉스 차환채권 인수를 거부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유 중인 하이닉스 채권을 처분할 수 있게 됨
- 이렇게 되면 부담은 지원을 결정한 채권은행단에 넘겨지게 됨

–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단 사전조율을 통해 투신사의 자율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협의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투신사의 지원 없이는 은행의 출자전환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음

♣ 2001년 9월 22일 토요일

○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 급증

– 미국 뮤추얼펀드 환매가 테러 발생 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 매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보임

- AMG 데이터에 따르면 테러사태 후 국제 정세 불안과 기업실적 악화, 경기회복 지연이 맞물리면서 지난 9월 7일부터 19일까지 장이 열렸던 6일간 주식형 펀드에서 총 $59억의 자금이 유출됐음
- 이는 3주 전 환매 규모 ($17억)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 주간 단위 환매 규모로는 지난 3월 말 이후 최대 규모임

– 해외 뮤추얼펀드의 경우 보통 현금 비중을 10%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음

- 이로 인해 무작정 주식을 다 매각할 수 없어 일단 미 시장 내 주식 편입비를 소폭 줄이는 대신 투자 위험이 훨씬 큰 신흥시장에 대한 주식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임
- 해외 펀드들이 신흥시장 내 주식 편입비를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환매까지 본격화되면 외국인 매물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임 (자료: 매일경제)

○ 미국 하이닉스 지원 WTO 제소 검토

– 미국이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음

- 바버라 와이젤 미국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보는 9월 21일 (미국 현지 시각) 제2차 한·미 통상현안 정례 점검 회의에서 미국 업계와 의회 등의 압력을 내세워 하이닉스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회의 소식통들이 전했음
- 하이닉스의 미국 경쟁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출신의 로런스 크레이그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등은 하이닉스가 자연 도태되도록 한국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며 WTO 제소 등 미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음

○ 서울보증보험 관련 보증사채 손실분담 합의한 투신권

–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들이 대우채를 비롯한 보증사채에 대한 손실 분담안에 대해 9월 21일 합의했음

- 서울보증은 아직 못 갚은 보증사채 원리금 6조2,063억원 중 공적자금 4조6,000억원과 차환발행 5,557억원을 통해 5조1,557억원을 처리

– 나머지 1조506억원은 채권단인 투신사와 은행에 8~12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될 예정임

- 이 중 분할 상환하는 대우계열사 채권 5,489억원은 5년 거치 후 8년 동안 나눠 지급하며 연 2%의 금리를 적용함
- 삼성차 채권 분할 상환분 5,017억원은 연 5%의 금리로 8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게 될 예정임

♣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기관 강제매수 부작용 심해**

–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순매수 결의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위험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임
-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음

– 지난 주 서울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총 2.07% 하락했음

- 한국의 주가지수 하락률은 대만 (4.84%), 싱가포르 (11.36%), 홍콩 (7.4%), 일본 (4.5%), 미국 (14.3%, 다우지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을 받치기 위한 정부의 종용과 이에 따른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 때문임

- 시장 관계자들은 하락장에서 주식을 보유하려면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줄여야 하지만, 선물 매도조차도 막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보유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기관투자가들은 당연히 손절매를 해야 하지만 이도 역시 막고 있다고 언급

–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이 아직도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서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

- 가령, 주가가 하락했을 때 돈을 벌게 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순매수 결의'가 손해로 직결돼 담합행위라는 지적임

– 시장 관계자는 다른 나라 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 서울 증시만 하락폭이 작다면 외국인에게는 좋은 매도 기회이며, 이는 서울 증시가 다른 시장만큼 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투신사 허용에 대해 자산운용사 집단 반발**

– 정부가 최근 자산운용사의 독점 상품으로 여겨져 왔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를 투신운용사에도 허용하자 자산운용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들은 투신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에게도 투신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투신사는 29개사에 달하는데 비해 자산운용사는 9개사에 불과해 규모와 인력, 노하우면에서 앞선 투신사 쪽으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그 동안 자산운용사 활성화 차원에서 자산운용사에만 허용돼 왔음

♣ 2001년 9월 25일 화요일

○ 9월 25일 38개 증권사 사장단 회의

–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9월 24일 국내 38개사 증권사 사장단이 9월 25일 오전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 증권사 사장단들은 이 회의에서 최근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업계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 증권사 사장단은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에 1인 1통장 갖기 캠페인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신운용사가 '주식갖기 운용' 차원의 주식형 펀드를 내놓을 경우 증권사가 적극 판매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임

○ 정부의 증시대책 오히려 시장 왜곡 우려

– 정부가 미국 테러사태 이후 잇따라 내놓은 증시대책이 주식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정부측은 외부 쇼크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고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증시 개입에 따른 관치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음

–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주요 증시대책

- '주식모으기 운동' 펀드 설정: 시장 논리 대신 애국심과 감성에 호소하는 관치 발상
- 기관투자가 주식 순매수 자율 결의: 자율을 가장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으로 거래 위축 가능성
- 제 2 증시안정기금 추진: 금융기관 등을 동원한 주식시장 떠받치기로 주가 폭락시 책임소재 논란
- 연기금 주식투자 조기 집행: 자산운용의 독립성 침해 및 관치에 따른 부작용 심화
- 주식가격 제한폭 축소 추진: 가격 제한폭을 없애는 선진국 증시와 상충
- 보험 및 투신사 자기계열사 투자 확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 우려
-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 완화: 자사주 취득을 이용해 주가조작 가능성

– 정부가 마련한 비상조치들이 주식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국 증권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투자 기법도 다양화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증시에서의 국내 기관투자가 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현실에서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만만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손발만 묶는다면 투자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외국인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
- 한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므로 단기 수급 조절보다는 거시경제 정책을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2001년 9월 26일 수요일

○ 투신 사모펀드 기관들에게 인기

- 투신사의 사모펀드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음
- 9월 25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29개 펀드에 3조8,358억원에 이르던 사모펀드 (증권투자회사 제외)는 9월 24일 현재 78개 펀드에 6조5,591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됐음
  - 9개월만에 펀드 수는 49개, 수탁 규모는 2조7,233억원이 증가된 것임
  - 투신협회는 사실상 사모펀드처럼 운영되고 있는 단독펀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펀드)까지 감안할 경우 사모펀드 규모는 이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함
-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되는 제도 내용
  - 전체 펀드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20% 초과 투자 금지 조항 적용 배제
  - 각 펀드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투자 금지 조항 적용 배제
  -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5% 초과 투자 금지 조항 규제 적용 배제
- 한 투신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동일종목 투자 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활용해 계열사 우회지원이나 경영권 방어용으로까지 사모펀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 하이일드펀드 '흥창' 부도로 타격

- 투신권 하이일드펀드가 지난 6일 인천정유 부도에 이어 지난 주 통신장비 제조업체 흥창의 부도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채권가격이 초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이일드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도 흥창 부도로 편입 회사채에서 대규모 상각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임
  - 하이일드펀드는 성격상 채권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일반 채권형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만 편입채권의 부도 발생시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있음
- 하이일드펀드는 지난 9월 24일 현재 최근 1주일 동안 평균 약 0.10%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음
  - 같은 기간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0.33%에 달했으며, 하이일드와 비슷하게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CBO펀드는 0.21%의 수익을 냈음
- 한 펀드평가사 관계자는 투기등급 채권이 부도 처리되면서 일부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하는 경우가 잦다고 언급
  - 이 경우 기관투자가들은 편입채권의 부도 발생 전에 자금을 빼거나 해당 회사채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음

♣ 2001년 9월 27일 목요일 (1)

○ 일부 투신 MMF 비중 위험 수위

– 초단기 상품인 MMF 수탁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일부 투신사의 MMF 비중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칫 금리 급등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할 경우 지난 4월 발생한 환매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주요 투신운용사별 MMF 비중 현황 (9월 24일 기준, 단위; 10억원, %)

투신사 명	MMF 잔액	총 수탁고	MMF 비중
대신	1,580	3,453	45.75
동부	275	561	48.91
세종	219	366	59.66
템플턴	1,105	2,241	49.29
한빛	1,965	3,887	50.54
제일	4,910	11,556	42.49

- 한 투신관계자는 요즘은 올초와 같은 금리 급등 가능성은 훨씬 적으나 0.5~1.0% 정도의 상승 충격에도 MMF 비중이 높은 투신운용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지난 4월 수탁고에 비해 MMF 비중이 높고 보유 채권의 현금성이 떨어졌던 외환, 동부투신운용 등 투신운용사들이 금리가 크게 뜨자 환매사태에 직면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MOU 협상 10월 중순 본격 수정 작업

– 7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증권, 대투증권과 예금보험공사간의 경영개선계획 (MOU) 수정 협상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임

-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지난 8월 말부터 MOU 수정안 작업을 벌여 수정안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수정 협상에 나설 계획임
- 예보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안진, 삼정회계법인의 실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부터 협상에 들어갈 방침임

– 이번 MOU 수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금감위에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지분을 각각 86%, 86.32%를 보유하여 실질적인 대주주로 떠오른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됨

- 그러나, 이번 MOU 수정 협상을 놓고 가시적인 경영정상화 실적을 요구하는 예보와 침체일로의 시장 상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투신증권사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됨
- 한편, 지난 해 9월 25일 금감위와 투신증권사간에 맺은 MOU는 종합주가지수가 매년 15%씩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 틀이 짜여져 있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2001년 9월 27일 목요일 (2)

○ 증권사들 '주식모으기 펀드' 발매 시작

–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주식갖기 운동' 성격의 펀드가 증권사별로 발매가 되기 시작했음

• 지난 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식모으기 펀드'로 증시를 살릴 때라고 발언한 이후 증권가에서 펀드를 발매하게 된 것임

– 주식 모으기 운동 펀드와 기존 주식형 펀드의 비교

항목	주식 모으기 펀드	기존 주식형 펀드	주식 모으기 펀드의 특징
신탁보수	· 기본적으로 무보수 · 수익률 20% 내외 달성시에만 보수를 받음	· 신탁자산의 2% 내외	· 무보수로 수익률 제고 효과
환매수수료	· 수수료 없이 아무 때나 환매 가능	· 수익금의 70~90%	· 장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판매기간	· 연말 한정 판매	· 수시 판매	
추가 납입	· 일부 증권사 추가 납입 불허	· 추가 납입 가능	
운용전략	· 지수 대형주 위주로 운용 · 지수 상승폭만큼 수익을 내는 인덱스펀드의 성격이 강함	· 펀드 성격에 따라 다양함	· 운용전략에서는 기존 펀드와 큰 차이가 없음

• 주식 모으기 펀드의 특징은 증권사가 신탁보수 등을 포기하고 그 만큼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것임

– 하지만, 증시가 침체 상태인 데다 위험자산인 주식을 기피하는 투자 성향이 여전해 이 정도 혜택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우려

♣ 2001년 9월 28일 금요일 (1)

○ 금감위 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6개월 유예

– 금감위는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9월 말로 끝나는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현투증권은 내년 3월 31일 이후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됨

- 금감위는 현투운용의 연계대출금 축소 시한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연계대출금 규모를 내년 3월 말까지 1998년 6월 30일 현재 연계대출 잔액의 31% 이내로 축소해야 됨

– 금감위는 정부와 AIG컨소시엄이 현투증권에 대한 공동출자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및 연계대출금 축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힘

○ 스팟펀드 존폐 기로

– 한 때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투신운용사의 스팟펀드가 주식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존폐의 기로에 몰렸음

- 스팟펀드란 일정한 목표수익률을 미리 정해 놓고 이 목표만 달성되면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펀드를 조기에 해지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으로 주식형 펀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스팟펀드는 대개 만기 1년 단위형으로 설정되는게 보통이며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설정하여 주가가 올라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처분하는 게 특징임
- 9월 27일 현재 29개 투신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7,000여개 펀드 가운데 스팟펀드는 19개이며, 최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설정된 스팟펀드는 3개에 불과한 실정임

– 스팟펀드가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단기매매에 치중하였고 주식시장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익률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임

-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경우도 스팟펀드가 수익률을 달성하면 곧바로 편입주식과 채권을 시장에 환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교란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부각된 후 투신사들의 신규 설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

○ 한투증권 현물출자받은 담배인삼공사 주식 모두 처분

– 한투증권이 지난 해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담배인삼공사 주식 190만주를 9월 17일모두 처분했음

- 한투증권 관계자는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추가 손실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처분해 왔다고 밝힘
-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에 상각을 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 주식 처분으로 인한 추가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2001년 9월 28일 금요일 (2)

○ 확정금리 상품인 신탁형 저축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투신사들

– 최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탁형 저축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대한·동양 3개 투신사는 1998년부터 2001년 8월 말까지 모두 1,79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투신사별 신탁형 저축 손익 (단위: 억원)

투신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8월	계
한국	-67	-328	-896	116	-1,177
대한	163	-318	-1,173	720	-608
동양	-2	-57	71	-2	10

- 지난 9월 25일 현재 한투 3조6,842억원, 대투 3조2,303억원, 동투 7,839억원 등 모두 7조6,984억원으로 이는 투신권 전체 주식형 펀드 (5조2,184억원)보다 많은 수치임

– 신탁형 저축의 손실 규모가 큰 것은 편입 자산 중 대우채 등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해 편입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각 규모가 컸기 때문임

- 고객에게 이들 상품은 평균 6.5~7%대의 확정금리를 적용한 반면, 최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4%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일부 투신사에서는 역마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금감원은 지난 해 한국·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해마다 일정 규모로 신탁형 저축 수신 규모를 축소하고 2003년 5월에는 상품을 폐지하도록 MOU를 체결했음

- 그러나, 지난 3월 말 MOU 점검 결과 대투는 간신히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 한투는 목표치인 3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3조9,300억원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됨
- 이들 투신사는 내년 3월 말까지 1조~1조5,000억원씩을 더 줄여야 하지만 최근 5개월 동안 회사별로 2,000~3,000억원을 줄이는데 그치고 있음

○ 공적자금 140조원 넘어서

– 정부가 지난 97년 11월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40조원을 넘어섰음

- 재경부가 9월 27일 발표한 '8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총액은 전달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141조2,000억원으로 조사됨
-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전월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35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공적자금 회수율은 25.4%에 그쳤음

– 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실 책임자 1,198명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부실 관련자 2,912명을 상대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9월 28일 금요일 (3)

○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선 본격화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용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기금 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가동키로 했다고 9월 27일 밝혔음

- 기금운용 관리체계, 중장기 투자정책, 중장기 자산배분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이 위원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학계, 연구소, 민간기업 등의 자산운용 전문가 2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이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여부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인적 재구성, 기금운용본부 재편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함께 민간의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별도의 '자문회의'를 구성해 위원회의 의견을 검증토록 할 방침임
-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위원회와 자문회의 검토작업을 마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경 기금의 중장기 투자정책을 발표할 계획임

– 국민연금기금은 올 8월 현재 70조원에 이르며 2003년 7월경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적립금이 계속 불어날 전망임

○ MMF 수익률 3%대로 밀려

– CP 등 단기채권 금리 뿐만 아니라 국고채 3년물 금리도 4%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연초 5% 후반~6% 중반이던 MMF 수익률이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떨어졌음

- 이 같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투신권 MMF 수탁액은 9월 27일 현재 46조2,970억원으로 월초에 비해 약 5조6,000억원이 증가했음
- 한 투신권 관계자는 기존 MMF는 금리 하락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지만, 신규자금이나 재투자 자금은 수익률이 3%대 초반으로 하락했다고 밝힘

– 한투운용의 경우 하루짜리 MMF 목표수익률을 4.1~4.2%, 일주일 이상 운용되는 MMF는 4.2~4.3%, 한 달짜리는 4.3~4.5%로 내렸음

- 대투운용의 경우도 4.3~4.4%이던 하루짜리 MMF를 4%로 낮췄으며 일주일 이상 운용되는 MMF도 4.5~4.6%대에서 4.1~4.2%대, 한 달 이상 운용되는 MMF는 4.7~4.8%에서 4.5~4.7%로 각각 내렸음

– 그러나 금리가 급반등세로 돌아설 경우 MMF 비중을 늘려 온 일부 투신사의 경우 MMF 환매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 9월 29일 토요일

○ **회사채 금리 첫 5%대**

– 9월 28일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회사채 (AA- 등급 기준) 수익률은 전날보다 0.10% 떨어진 연 5.95%에 마감돼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저인 연 6.05%를 또 경신했음

- 만기 3년 국고채 수익률도 전날보다 0.12% 떨어진 연 4.45%로 4.5%대를 하향 돌파하면서 4일 연속 사상 최저를 경신했음
- 이는 오는 10월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와 투자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임

– 그러나,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음

- 지난 7월까지 25.2%였던 국고채 거래 비중은 9월 들어 46%까지 급증했으며, 예보채 거래 비중도 1~7월 평균 17.8%이던 것이 최근 25%까지 급상승했음

– 이에 반해 회사채 거래 비중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지난 1~7월 평균 11.4%이던 회사채 거래 비중은 9월 중순 이후 한자릿대로 낮아졌으며, 9월 25일 현재 거래 비중이 5%대에 불과한 실정임

○ **현투증권 소액주주 감자 AIG와 협의**

– 이근영 금감위위원장은 9월 28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에 대한 감자 정책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자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AIG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AIG컨소시엄이 지난 9월 27일부터 현대증권을 비롯해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에 대해 영업·전산부문을 시작으로 실사에 돌입했다고 언급

– AIG컨소시엄은 특히 이번 실사를 토대로 고객이자 주주인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가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측에 감자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 현투증권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 정책은 AIG컨소시엄의 실사와 정부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

10월 October

10대 주요 기사

1. 투신 펀드 회계감사 미흡
   (8일)
2. 채권 자전거래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 논란
   (10일)
3. 5조원 규모의 연기금풀 운영 체계
   (11일)
4. 장기증권저축의 특징 및 문제점
   (13일, 19일, 31일)
5. 투신평가 전문회사 4개사 선정
   (13일, 31일)
6. 국민 돈으로 생색내며 투자 유혹
   (18일)
7. AIG 현대증권에 대해 원금보장 요구 철회
   (23일, 31일)
8. '해외 워런트'의 유권해석을 재경부에 요청
   (24일)
9. 펀드 운용보수 하향 평준화 논란
   (25일)
10. MMF 환매 손실 책임 법정 비화
    (30일)

◈ 10월 목차 (10/1-10/10)

10/1 (월)	추 석
10/2 (화)	추 석 연 휴
10/3 (수)	개 천 절
10/4 (목)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부실 여신 10조7,000억원 ○ 홍콩거래소 국내 주식 선물·옵션 거래 시작
10/5 (금)	○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 수익률 급등 ○ 외국계 은행들 구조조정촉진법 허점 악용
10/6 (토)	○ 하이닉스 추가 지원 가닥 ○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 진정 ○ 경로연금 수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10/7 (일)	
10/8 (월)	○ 투신 펀드 회계감사 미흡 ○ 대형 투신사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10/9 (화)	○ 연기금 통합펀드 11월 가동 ○ 회사채 시장 BBB 등급 매기 실종
10/10 (수)	○ 4대 연기금 올해 미집행분 2조2천억원 증시 참여 유도 ○ 채권 자전거래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 논란

◈ 10월 목차 (10/11-10/20)

10/11 (목)	○ 연기금 연내 7,000억원 증시 투입 ○ 투신사 상품 개발 제약 너무 많다 ○ 5조원 규모의 연기금풀 운영 체계 ○ 투신 수탁고 170조원 넘어 ○ 부실기업 채권 20% 이상 상각
10/12 (금)	○ 새로운 주식투자 상품인 '국민주식저축' 문제점 많아 논란 ○ 투기등급 회사채 사줄 곳 없다
10/13 (토)	○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 내년 3월까지 판매 ○ 투신 평가 전문 3개사 지정 ○ MMF 환매사태 재현 우려
10/14 (일)	
10/15 (월)	○ 거래소 및 증협에도 준조사권 부여 ○ 회사채 단수평가제에 반발하는 투신권
10/16 (화)	○ 투신권 자금흐름 채권형 펀드 및 MMF에 집중 ○ 리퍼코리아 금주내 펀드평가사 선정
10/17 (수)	○ 펀드 평가작업 정상 궤도에 오를 듯 ○ 10억원 미만 펀드 전체 펀드의 약 39%
10/18 (목)	○ 해외투자펀드 수익률 저조 ○ 국민연금 운용 부실 ○ 국민 돈으로 생색내며 투자 유혹 ○ 은행 수익증권 판매 급속 증가 ○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채권 상각 기준 만든다
10/19 (금)	○ 투신권도 휴면계좌 주인 찾기 ○ 타금융사 신상품 못 베낀다 ○ 하이닉스 무보증사채의 정부 보증 기피에 따른 투신권 반발 ○ 장기증권저축 회전율 400%로 제한 ○ '주식모으기 운동 펀드' 보름만에 사실상 판매 중단 ○ 국민연금 운용 수익 운용사별 최고 10% 차이 발생
10/20 (토)	○ 6,000억원대 국민연금 운용사 선정 본격화 ○ 장기증권저축 유입액 1조 못 미칠 듯

◈ 10월 목차 (10/21-10/31)

10/21 (일)	
10/22 (월)	○ 제 3자 교차투자 금지 모든 투신에 확대 적용 ○ 은행신탁 시가평가 내년 1월 시행
10/23 (화)	○ 새 협상조건을 제시한 AIG ○ 제2 증안기금 전면 백지화 ○ 벤처투자 이익 공유제 내년 도입 ○ 장기증권저축 첫 날 71억원 판매 그쳐 ○ 연기금 투자풀 평가사 제로인 선정
10/24 (수)	○ 도이체방크 국내 투신운용업 진출 ○ 해외워런트의 유권 해석을 위해 재경부에 요청 ○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CBO 보증재원 바닥 ○ S&P 펀드평가 시장 진출 ○ 국민연금 편법 운용으로 575억원 투자 손실낸 사실 1년 반만에 적발
10/25 (목)	○ 국민연금 수익증권 매입 중단할 듯 ○ 펀드 운용보수 하향 평준화 논란 ○ 증권사들 장기주식저축 간접투자 유도 ○ 연기금 투자풀 노마진 수주전 ○ 푸르덴셜 내년 10월 이후 제일투신증권에 추가 출자 계획
10/26 (금)	○ 투신 대차거래 활용 펀드 발매 ○ 한신평 신용평가사 평가 1위 기록 ○ 금융 공적자금 150조원 육박
10/27 (토)	○ 투기채 편입 비실명펀드 도입 고려 안해 ○ 4개 은행만 하이닉스 지원
10/28 (일)	
10/29 (월)	○ 부진한 판매고를 기록한 장기증권저축 ○ MMF 잔고 급감 ○ 국민·주택·신한은행 하이닉스 채권 70% 포기
10/30 (화)	○ 투신권 상반기 순이익 9.4% 감소 ○ 연기금 펀드 운용 3개 후보사 선정 ○ MMF 환매 손실 책임 법정 비화
10/31 (수)	○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장기증권저축 조건 완화 건의 ○ 4번째 투신평가 전문사로 선정된 리퍼코리아 ○ AIG 현대증권에 대해 원금보장 요구 철회 ○ 증권거래소 등 4개 증권 유관기관 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중단키로 결정

♣ 2001년 10월 4일 목요일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부실 여신 10조7,000억원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한빛은행 등 11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난 6월 말 현재 총 여신 120조4,667억원 중 무수익여신이 10조7,858억원으로 8.95%를 차지

- 무수익여신은 부도 등으로 회수 조치 등이 필요한 고정여신에다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무수익여신을 많이 보유하면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져 해당 금융기관의 수지를 압박하게 됨

– 이들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지난 99년 17.51%였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지난 해 13.13%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음

- 총 여신 가운데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실 종금사를 합쳐 만든 하나로종금이 75.57%로 가장 높았고, 서울보증보험 23.7%, 평화은행 14.82%, 서울은행 8.63%, 광주은행 3.44% 순임

○ 홍콩거래소 국내 주식 선물·옵션 거래 시작

– 10월 4일부터 미국·일본·대만 증시의 15개 종목과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의 국내 상위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개별주식 선물·옵션이 홍콩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됨

- 주식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는 홍콩거래소에서 국내 주식의 파생상품이 거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투기 세력 등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 중 특히 투기 성향의 펀드들이 홍콩의 개별주식 선물·옵션거래로 국내 현물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음

- 투기성 펀드를 비롯한 작전세력 등에 의해 국내 현물시장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사실상 주가조작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

♣ 2001년 10월 5일 금요일

○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 수익률 급등

- 채권 금리가 미 테러 사태 영향으로 초강세 행진을 보이면서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급상승하고 있음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9월 25일 4.6%에서 5일 연속 사상 최저치를 갈아 치우면서 단숨에 4.3%대까지 내려갔음
  - 이에 따라 채권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이 급증하면서 최근 1개월 동안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1.08%로 연평균 12.96%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 지난 3분기 수익률도 2.66%로 연평균 10.64%의 수익률을 올렸음
  - 이는 하반기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5.93% (6월 말 기준)에서 무려 1.6% 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회사채 3년물 AA- 등급 금리도 7.10%에서 5.87%까지 하락한데 힘입은 것임
  - 같은 기간 하이일드펀드 (1.83%)와 후순위채펀드 (2.20%) 등 고수익펀드를 훨씬 웃도는 수익을 거둔 셈임

○ 외국계 은행들 구조조정촉진법 허점 악용

- 하이닉스반도체의 외국 채권 금융사 중 소시에떼제네랄 등 8개 은행이 채권 보유 점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촉진법의 법망을 피하고 있음
- 이들 외국계 금융사들은 총 $4,670만 (약 600억원) 규모의 협조 융자에 대해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조기상환을 요구했음
  - 이는 9월 15일부터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로 추정됨
  -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채권행사가 유예될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수용이 되지 않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무조정 대상을 국내 지점 보유 채권으로 한정한 점을 이용하여 자사의 하이닉스 채권의 보유 지점을 외국으로 이관하는 편법을 사용했음
  - 이로 인해 국내외 채권단간 형평성 시비가 야기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한편, 외국계 금융사의 채권 해외 이관은 한국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권해석을 해주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료들의 '외국은행 봐주기' 관행이 지적되고 있음

♣ 2001년 10월 6일 토요일 (1)

○ 하이닉스 추가 지원 가닥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10월 5일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은행권에서 75% 이상 동의를 얻은 통일된 방침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해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현재 채권단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

– 한편,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가 자회사인 맥스터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밝혔음

- 채권단에 따르면 맥스터 지분 매각 대금은 $1억1,300만 정도이며, 10월 안으로 매각 대금이 들어 올 예정임
- 하이닉스는 미국 현지법인 HSA를 통해 맥스터의 전체 지분 중 17%를 보유하고 있었음

–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따르면 7개 주요 채권은행 임원들은 10월 6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1조원대 신규자금 지원 등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 진정

– 테러 발생 후 가장 염려됐던 해외 뮤추얼펀드의 대규모 환매가 진정되고 있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 AM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 (9월 26일~10월 4일) 미 주식형 뮤추얼펀드로 $15억6,000만이 순유입됐음
- 이는 지난 8월 셋째 주 (16~22일) 이후 6주만에 다시 뮤추얼펀드로 자금이 흘러들어 온 셈임
- 지난 주 (9.26~10.4) 동안 미국 뮤추얼펀드 자금 동향 (단위: $)

전체 뮤추얼펀드	15억5,000만
아시아퍼시픽	-5,000만
이머징마켓	-7,000만
글로벌	-3,000만
인터내셔널	-2억
공격형 성장형	7.9억
대형주 성장형	4억
소형주 성장형	1.2억
기술주	-2,000만

– 시장 관계자는 테러 사태 이후 급증한 환매로 인해 위축됐던 수급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고 밝힘

-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이 자금 이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함
- 환매 축소에 따른 외국인 매물 압박 약화는 국내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10월 6일 토요일 (2)

○ 경로연금 수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이르면 2003년부터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고, 경로연금 지급액도 최대 6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해 11월 현재 3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는 10월 6일 노인 보건복지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 소득 보장, 노인 건강 보장, 노인 교육 및 문화 활성화, 실버산업 등 4개 분야 45개 과제를 선정했음
-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종합 대책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음

– 정부는 우선 올해 3월 기준으로 58만3천명인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과 재산 규모를 고려해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돼 온 차상위 계층 42만5천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음

- 현재 3~5만원 수준인 경로연금도 특례노령연금 지급액 한도인 최대 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정부는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기피함으로써 방치할 경우 국가가 우선 노부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 후 사후에 자녀들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음
- '노인인력뱅크'와 '고령자 창업 지원단 (가칭)'을 설치하고, 취업 능력과 자본금 여하에 따라 고령자들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임
-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재정비하여 법 적용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고 고령자 의무 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며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노인 부양의 전통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3세대 동거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현행 주택 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 3세대 동거주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임

♣ 2001년 10월 8일 월요일

○ 투신 펀드 회계감사 미흡

– 투신운용사 펀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펀드 잔존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국내 투신시장의 특성과 형식적으로 전락한 외부감사 등으로 펀드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계법인 수입만 늘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투신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은 펀드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 수준이 낮다는 핑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회계사를 파견해 엄정해야 될 펀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

-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투신사의 100억원 이상 펀드에 대해 설정 후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사로부터 운용 중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수수료는 100억원 펀드 기준으로 통상 150만원 수준임
- 7월 말 기준 국내 투신사 펀드 수는 7,168개, 펀드당 평균 설정액은 217억원 규모이며 29개 국내 투신사들이 통상 연간 5~6억원씩 각각 지불하고 있다고 추정됨

– 국내 투신시장의 특성상 투자자가 한 펀드에 1년 이상 자금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 펀드에 대한 회계감사의 혜택이 정작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고 함

- 투신업계는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대형 투신사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이 오는 11월 WTO 가입을 앞두고 그 동안 금지해 오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투신업계도 현지 법인 설립 검토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

- 특히, 투신업계는 경제 전망이 가장 유망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계기로 수익성 확보와 브랜드 네임을 알리는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임
- 투신사 중 한투와 대투는 이미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내부 검토 단계를 거쳐 중국에 펀드 설립과 현지법인 설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음
-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 코메르쯔자산운용이 중국의 남방증권과 합작 투신사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진출 기업에 대한 적격 여부의 평가와 엄격한 내부 관리 운영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은 외국기업의 자국 내 투신사 지분 한도를 33%로 하되 향후 3년 동안 49%까지만 허용함으로써 경영권을 외국에 넘기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0월 9일 화요일 (1)

○ 연기금 통합펀드 11월 가동

– 5조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이 15개 개별 펀드로 구성돼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 기획예산처는 10월 8일 기금통합펀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풀 자산운용 지침과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했음
- 10월 9일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풀 참여 제안 요청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18일부터 10일간 제안서를 접수한 뒤 11월 초 15개 운용기관을 선정할 방침임
- 통합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1곳과 개별펀드 운용사 15곳, 일반사무수탁사, 보관수탁사, 펀드평가사, 판매증권사 각각 1곳 등 모두 20곳의 운영기관이 선정될 예정임

– 운용 펀드별 자산운용 기준

운용 펀드 명	MMF	MMF	채권혼합형
구분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운용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1년형	1년 이상
펀드 수	4	6	5
	운용 방법		
현금성 자산[1]	5% 이상	5% 이상	5% 이상
유동성 자산[2]	30% 이상		
채권	비율 제한 없음	70% 이상	50% 이상
상장·등록 주식	–	–	40% 이하[3]

1) 현금, 예금, 콜 등
2) CD, CP, RP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만 가능) 등
3) 채권혼합형 펀드의 주식 회전율은 주식 편입액의 400% 이내로 제한

♣ 2001년 10월 9일 화요일 (2)

○ 회사채 시장 BBB 등급 매기 실종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회사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삼성전자 등 우량 회사채의 경우 발행 때마다 사상 최저 금리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반해 투자적격 최하위 등급인 BBB 등급은 매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도 낮게 매겨지거나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 10월 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회사채 거래 규모는 17조5,100억원으로 국고채를 포함한 전체 채권 거래액 265조7,900억원의 6.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회사채 거래 비중은 전체 채권 거래액의 10% 이상을 유지했으나 8월 (8.41%)부터는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올 들어 인기가 급상승했던 BBB 등급의 위축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회사채 거래액 중 BBB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말에 41.1%에 달했으나, 10월 들어서 6.9%로 급감했음
- 반면, 우량 등급인 A 등급 이상 회사채의 거래 비중은 최근 90%를 웃도는 등 회사채 매기가 우량 등급에만 몰리고 있는 실정임

– 한 시장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중견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정부가 프라이머리 CBO의 보증 한도를 높이는 등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 2001년 10월 10일 수요일

○ 4대 연기금 올해 미집행분 2조2천억원 증시 참여 유도

- 재경부는 미국의 보복 조치 이후 대응 방향을 보고한 국무회의에서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 투자 미집행분 2조2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당초 올해 안에 3조5천억원을 증시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말까지 1조3천억원만 투자했음
  -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 통합펀드 (최대 5조원)도 조기에 구성토록 해 증시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음
- 한편, 정부는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경기 진작 및 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 경제 대응 계획을 동원키로 했음

○ 채권 자전거래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 논란

-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투신사들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가 13조 8,8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시장수익률과 동떨어진 가격에 채권을 자전거래한 경우 6조4,283억원이며, 평균 수익률에 가까운 채권부터 팔지 않은 경우도 6조8,028억원에 이름
  - 이로 인해 펀드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금감원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르면 투자신탁 상호간에 동일종목을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인 자전거래를 하도록 수탁회사에 운용 및 지시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음
  - 투신권은 이러한 자전거래의 명문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테이블이 실제 채권 거래가격과 최고 2%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정확한 시장수익률로 거래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
- 감독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매각 대상 유가증권이 채권일 경우 전체 채권의 매각일 직전일의 가중평균 회계적 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수익률의 채권이 매각되도록 명시돼 있음
  - 하지만, 투신권은 장부가 평가 당시 제정된 법 규정으로 현재 시가평가제가 보편적인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 법 조항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
  - 장부가로 평가하던 때에는 높은 수익이 나는 채권을 매입 당시 싼 가격으로 특정 펀드에 몰아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채권이 시가로 옮겨지는 만큼 평균수익률과 가까운 채권부터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신사들이 거액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10월 11일 목요일 (1)

○ 연기금 연내 7,000억원 증시 투입

– 국민·사학·공무원 연금 등 3대 주요 연금의 주식투자가 연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경기와 기업 실적 등 증시 안팎의 여건이 워낙 불투명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임

– 3대 연금 주식투자 현황

	주식 투자 금액 (8월 말 현재)	올해 투자 예정액	올해 신규 투자 금액	주요 투자 종목	투자 계획
국민연금	3조9천억원 (주식: 2조2천억원, 간접투자: 1조7천억원)	1조7천억원 (주식: 5천억원, 간접투자: 1조2천억원)	1조1천억원 (주식: 5천억원, 간접투자: 6천억원)	불루칩 포함한 대형 우량주, 실적 호전 저평가주	간접투자 6천억원 연말까지 추가 집행, 코스닥 (1천억원) 및 파생상품 투자 착수
사학연금	2,574억원 (주식: 950억원, 간접투자: 1,614억원)	2,400억원	20억원	배당 관련주, 실적 호전 저평가주	저평가 종목 장기 정석 투자
공무원연금	1,400억원 (주식)	정하지 않았음	-300억원 (주식)	불루칩 포함한 업종 대표주	시장 상황에 따른 신축적 운용

– 이들 연금들은 장기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운용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그 동안 외부에 의존해 오던 기업분석, 종목 발굴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으며 간접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팀과 아웃소싱팀을 신설했음
- 이 밖에 투자 결과를 분석하는데 머무르던 성과분석팀을 리스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22명인 투자전문가를 연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음

○ 투신사 상품 개발 제약 너무 많다

– 투신권은 취급 가능한 상품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국한돼 있으며, 파생상품 등에 대한 취급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금융상품 개발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지적

- 투신권은 주식이나 채권 외에 신종 채권과 주식 및 주식연계 파생상품, 보험기능 통합상품 등의 펀드 편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증권거래법은 투신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개발 소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
- 가령, 원금보전형 펀드처럼 국공채 등에 투자한 이익금을 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파생상품들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한 투신 관계자는 현 증권거래법상의 취급 상품 범위를 포괄주의로 바꿔 영역을 넓혀 주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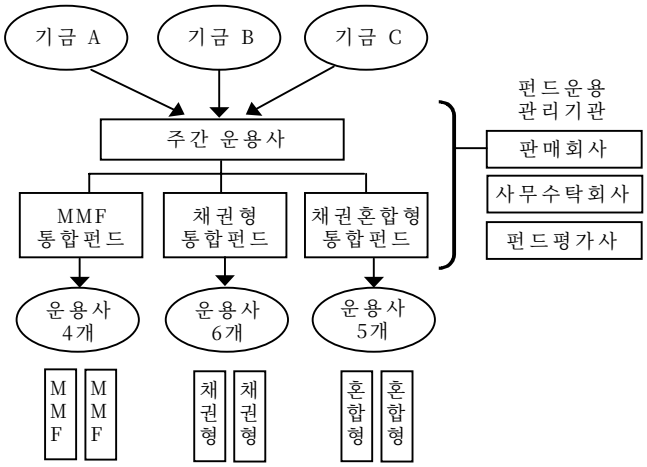
♣ 2001년 10월 11일 목요일 (2)

○ 5조원 규모의 연기금풀 운영 체계

– 증시 부양을 위해 11월부터 진행될 5조원 규모의 연기금풀 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번 연기금 통합펀드는 상위 펀드와 15개 하위 펀드로 나뉘어 모자펀드 형태로 운용됨

- 이를 위해 15개 투신운용사에 대해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자금을 관리할 주간 운용사와 판매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될 예정임
- 투자풀 운영 체계



– 연기금 투자풀 문제점

문제점	내용
주간 운용사 월권 가능성	· 하위 펀드 운용사의 운용 전략 노출
전문인력 부족	· 투자운용팀 내 전문인력 선정 기준 불분명
환매를 위한 판매사 1곳만 선정	· 대량 환매시 판매사가 미매각으로 환매분을 떠안을 위험
수수료 덤핑	· 운용사 평가 항목에 수수료율 점수화
책임 소재 불분명	· 리스크 관리 기관이 분산돼 있음

○ 투신 수탁고 170조원 넘어

– 투신협회는 10월 8일 현재 투신운용사 전체 수탁고가 170조3,050억원을 기록하여 투신권 수탁고가 약 2년만에 170조원대를 넘어섰다고 밝힘

–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와 MMF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의 매수 기반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 전체 170조원 중 채권형 펀드는 74조2,359억원, MMF는 47조4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32%, 76% 늘어났음

♣ 2001년 10월 11일 목요일 (3)

○ 부실기업 채권 20% 이상 상각

–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협회를 통해 각 투신운용사에게 부실 기업의 채권을 20% 이상 상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발행한 부실 채권을 보유한 투신운용사는 의무적으로 20% 이상의 손실을 상각해야 함

–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하여 쌍용양회, 현대석유화학 3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 중 투신권은 하이닉스의 채권 1조2,000억원을 포함하여 쌍용양회 4,000억원, 현대석유화학 3,7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 투신권이 각종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부실채권을 20% 이상 상각할 경우 펀드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채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상각을 해도 전체 펀드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1)

○ 새로운 주식투자 상품인 '국민주식저축' 문제점 많아 논란

-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이르면 10월 중 도입될 새로운 세제혜택 주식투자 상품인 '국민주식저축'에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을 전망
  - 재경부는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상품은 매년 (2년간)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을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이런 두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있지만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상품임
  - 만약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 펀드 가입자들이 대부분 손해가 날 경우 이미 거둔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난을 물리칠 수 없게 됨
  - 세액공제의 경우도 저축 금액의 5% 정도를 돌려받게 되므로 은행이자 수준을 넘는 것으로 주식 투자자와 일반 저축자들이 세제 형평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증시를 띄우려고 이런 세제혜택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

♣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2)

○ **투기등급 회사채 사줄 곳 없다**

–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현격히 둔화되면서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투기등급 회사채의 매수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지난 9월 이후 투기등급 회사채의 주요 매수 기반인 CBO, 하이일드, 뉴하이일드 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음

– 10월 11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 9일까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은 5,090억원에 그치고 있음

- 8월 14일부터 판매된 이 상품은 8월 한 달에만 1조6,677억원을 모았을 뿐 9월 이후 자금 유입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하이일드펀드에서 4,069억원, CBO펀드에서 4,189억원, 뉴하이일드펀드에서 1,886억원이 순유출됐음
- 이들 세 가지 펀드에서의 자금 순유출 규모가 1조14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

–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 (flight to quality) 현상이 심화되면서 BBB 등급 회사채마저 거래가 끊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투기등급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겠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여건 변화 없이는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1)

○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 내년 3월까지 판매

– 정부는 10월 12일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상품 도입 방안을 발표했음

- 이 상품의 주식 편입비율은 70%이며, 2년 동안 가입 금액의 5%를 매년 공제받는 사전 공제형과 2년 후 투자 손실이 생겼을 경우 납부 세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손실액을 보전받는 사후 정산형의 두가지로 분리 판매될 예정임
- 기존 주식저축과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 비교

구분	근로자 주식저축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
가입 대상	근로자 (1인 1통장)	제한 없음
가입 한도	1인당 3,000만원	1인당 5,000만원
상품 선택권	없음	사전 공제형과 사후 정산형 중 선택
세제 지원	5% 세액 공제 및 이자·배당 비과세	5% (또는 투자손실) 세액 공제 및 이자·배당 비과세
주식투자 비율	직접투자: 30% 간접투자: 50%	간접투자: 70%
가입 기간	1~3년	원칙적으로 2년
투자 손실 보전	없음	사후 정산형 선택시 가능
가입 기한	올 연말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상품 구성	직접투자 (주식), 간접투자 (주식형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은행 신탁)	간접투자 (주식형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은행 신탁)

–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증시 부양에 대한 다급함이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아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이같은 상품 구조가 유지될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손실보전 부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투신 평가 전문 3개사 지정

– 투자신탁협회는 10월 12일 한국펀드평가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등 3개사를 투자신탁 평가 전문회사로 지정했음

- 이들은 투신협회를 통해 제공받는 펀드 운용 정보를 바탕으로 펀드를 평가하게 될 예정

♣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2)

○ MMF 환매사태 재현 우려

– 지표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최근 사흘 동안 0.45%나 폭등하는 등 크게 출렁거리면서 지난 4월 자금시장 대혼란을 가져왔던 MMF 환매사태 재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 MMF로 유입된 자금이 초단기 자금인데다 금리 급등세가 지속되면 원금 손실 불안을 느낀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자금 환매가 일거에 몰리게 되며 이로 인해 투신사들에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사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

– 투신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총 528개 MMF의 10월 11일 현재 기준가를 분석한 결과 이 날 하루 동안 총 28개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했음

• 이 중 26개 펀드는 최근 이틀 연속 기준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MMF는 이미 원금 손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 시장 관계자들은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인하가 무산된 데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곧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 대다수 MMF는 추가적인 금리 급등만 없다면 장부가격이 시가보다 0.75% 이상 하락해 시가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 거래소 및 증협에도 준조사권 부여

–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주식 불공정 행위와 관련 증권사 임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준조사권'이 부여될 예정임

- 그러나, 금감원이 현재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사권이 남발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개정안에 거래소와 협회에 주식 불공정 거래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현재 거래소는 증권사 출장 감리를 통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금감원이 실질적인 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임

– 재경부는 거래소와 협회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1차로 조사를 벌일 경우 금감원 조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음

-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금감원이 갖고 있는 조사 권한이 일부 중복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조사를 한 차례 더 받게 되는 셈이라고 반박

○ 회사채 단수평가제에 반발하는 투신권

– 최근 금감원이 회사채 발행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급 단수평가제에 대해 투신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

- 더구나 작년 단수평가제에서 복수평가제로 바뀐 지 1년도 안돼 또 다시 바꾸는 것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투신사 관계자는 복수에서 단수로 변경하게 되면 발행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와 계약을 체결할 공산이 커 회사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

- 신평사의 등급을 투자의 잣대로 사용하는 투자기관들은 투자위험 판별시 신평사들의 의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신평사들은 가급적 신용등급을 좀 더 우호적으로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고, 관련 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단수평가제는 신평사 수준의 저하와 신용위험 상승으로 투자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떨어뜨려 투자자는 물론, 신용기관들도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임

♣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 **투신권 자금흐름 채권형 펀드 및 MMF에 집중**

– 미국 테러 사건 발생 이후 투신권 자금 편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주식형 펀드에는 자금 유입이 미미한 반면, 채권형 펀드와 MMF에는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고 있음

– 투신협회에 따르면 미국 테러 발생 이후 1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12일 현재 투신권 수탁고는 총 169조8,300억원으로 6조7,000억원이 증가했음

- MMF로 3조2,447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으며, 단기 채권형 펀드도 2조7,532억원이 증가하여 이들 두 상품에 90% 이상이 집중돼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주식시장이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 단계에 접어든 이달 들어서도 주식형 펀드에는 이렇다할 자금 유입이 없는 형편임

- 주식형 펀드의 경우 5,39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은행이 자회사인 주은투신운용에 위탁한 5,00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 유입 규모가 미미한 편임

○ **리퍼코리아 금주내 펀드평가사 선정**

–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에 이어 리퍼코리아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투자신탁협회가 선정하는 펀드평가 전문회사로 가세할 예정임

- 투신협회 관계자는 리퍼측에서 제출한 서류 중 협회에서 요구된 자료 몇 가지가 빠져 있었다며 요구 자료 보완시 재심을 거쳐 펀드평가 전문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리퍼코리아 실무자도 이번 주 중 필요 자료를 준비해 협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

♣ 2001년 10월 17일 수요일

○ 펀드평가 작업 정상 궤도에 오를 듯

–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5조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을 계기로 펀드평가 작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임

- 연기금 펀드가 업계 처음으로 펀드평가 수수료를 펀드 내부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
- 펀드평가사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풀을 계기로 펀드평가 작업도 운용이나 판매처럼 정당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수수료 역시 체계화될 것이라고 주장

– 펀드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교원공제회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음

- 교원공제회가 지난 해 10월 일임투자자문 자산에 대해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게 유료로 펀드평가를 처음 의뢰하며 펀드평가 작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다는 것임
-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평가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통합적인 운용 감시를 위해 사무수탁사도 처음으로 일원화했다고 언급
- 간접투자도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펀드평가사, 사무수탁사 등을 통한 이중·삼중의 감시 장치는 그 자체로 펀드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

○ 10억원 미만 펀드 전체 펀드의 약 39%

–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7,023개 펀드 가운데 10억원 미만 펀드가 전체의 38.6%인 2,708개에 이른다고 밝힘

- 반면 이들의 설정액은 모두 7,070억원으로 전체 펀드 규모 170조원의 0.4%이며, 펀드당 평균 수탁액 역시 2억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유형별로는 주식형 897개, 채권형 1,653개, MMF도 158개의 자투리 펀드가 남아 있음

– 이렇게 1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가 많은 것은 대우사태와 세금우대형 장부가 펀드 때문임

- 1999년 대우사태 이후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주식형으로 전환한 펀드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다보니 펀드를 크게 만들 수 없었음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10.5%만 내는 세금우대형 장부가 펀드들은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고객들로 인해 해지를 하지 않고 있음

– 투신사들은 지난 해부터 대대적인 자투리 펀드 통폐합에 나섰지만 세금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음

- 국세청은 통폐합되는 펀드의 가입자는 기존 펀드를 해지한 뒤 신규 가입하는 것이어서 통폐합 뒤 1년 이상 경과해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임
- 투신사들은 재경부와 금감원의 지원 아래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므로 관계 법령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음

♣ 2001년 10월 18일 목요일 (1)

○ **해외투자 펀드 수익률 저조**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나스닥시장은 예전의 주가를 회복했지만, 해외투자 펀드의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펀드평가사인 리퍼코리아는 10월 17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해외투자 펀드 14개의 지난 10월 16일 기준 평균 손실률이 5.39%에 달한다고 분석
- 특히, 지난 해 초 미국 나스닥시장에 투자전문 펀드로 판매된 상품들은 나스닥시장의 폭락으로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민연금 운용 부실**

– 2003년 운용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자산운용부터 관리감독 체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막대한 국민재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 체제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21명이나 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소집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21명의 위원은 정부부처 차관 5명,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 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으로 구성돼 있음
- 차관들의 경우 바빠서 회의에 거의 참석치 못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까지 구성원으로 지정돼 있어 전문적인 연금 운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임
- 이 회의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과반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가 연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

– 장기적인 기금정책이 없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정부부처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은 최근 내년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10조원, 금융부문에서 7조원 등 총 17조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음
- 이는 내년도에 잡혀 있는 전체 국채 발행 물량 25조원의 70%에 해당되는 규모로 채권시장이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예상됨
- 재경부 관계자는 2010년이면 250조원으로 연금 규모가 성장하게 되는데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국채는 매년 25조원선에서 발행될 것이어서 향후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

– 시장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불신을 씻으려면 기금운용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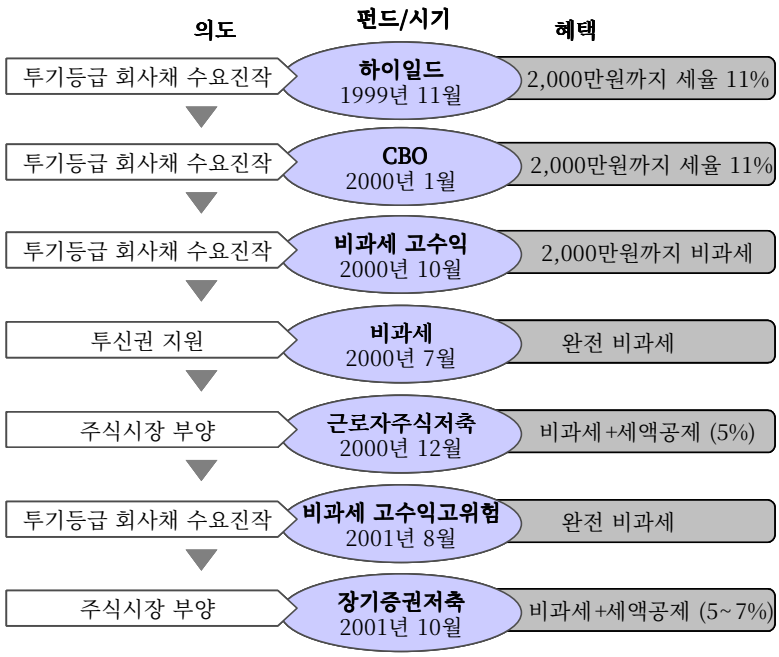
♣ 2001년 10월 18일 목요일 (2)

○ 국민 돈으로 생색내며 투자 유혹

– 현 정부 들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이 장기주식저축 (일명 밸류코리아)을 포함해 7개에 이름

- 정부는 이 상품에 비과세나 세금우대 및 세액공제 등의 당근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등 국민의 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조세권을 휘둘렀음

– 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절세형 간접투자 상품 (펀드)



– 정책적 펀드는 1999년 12월 하이일드펀드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했음

- 투기등급 회사채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자 관련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어 정부가 세금우대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았음
- 이후 2000년 2월에는 투기등급 회사채를 소화시키기 위해 자산유동화 증권을 활성화시켜 이를 흡수하는 CBO펀드를 설립했음
- 2000년 7월에는 영업기반이 허약해진 투신권을 살리기 위해 비과세펀드를 설립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은행과 자산운용사에는 이 펀드를 허용하지 않았음
- 2000년 10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다시 이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비과세고수익펀드를 설립했음
- 올해 들어 투기등급 회사채 시장이 침체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를 설립했음
- 지난 해 말에는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주는 근로자주식저축을 내놓았음

♣ 2001년 10월 18일 목요일 (3)

○ 은행 수익증권 판매 급속 증가

– 은행의 투신권 수익증권 판매 비중이 판매 개시 3년만에 10%에 육박했음

- 금감원과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잔액은 증권사 137조4,000억원, 은행권 12조8,000억원으로 총수익증권 판매 잔액 중 은행권 비중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은행권 판매 비중은 99년 1.16% (2조8,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13% (8조8,000억원)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은행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경쟁에 가세하게 된 것은 주택, 국민, 하나은행 등 투신사를 계열사로 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은행은 전국에 산재한 지점과 방대한 인력을 바탕으로 저인망식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투신업계는 은행권 판매 비중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은행 판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유도 장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음

○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 상각 기준 만든다

– 금감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상각 기준을 마련 중임

-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중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회사 발행분이 상당수 있어 이들 채권에 대한 상각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금감원이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음
- 투신사들의 경우 적용 대상 채권에 대해 과거 상각 기준으로 평균 20%씩 상각해 왔지만 투신사별로 상각 기준이나 상각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시키자는 입장이 반영됐다는 설명
- 이는 과거 부도 기업이나 법정관리 기업에 적용되었던 상각 기준을 보완하는 의미 외에도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 마련이라는 차원인 것으로 보여짐

– 투신협회는 금감원의 상각 기준 근거 마련과 맞물려 업계 차원에서도 상각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주부터 유가증권 평가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킬 계획임

♣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1)

○ 투신권도 휴면계좌 주인 찾기

–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18일 투신사들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펀드 통폐합에 앞서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 보험권이나 은행권에서 부정기적으로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 적은 있지만, 투신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지난 74년에 국내에 투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임
- 투신권은 한국·대한·현대·삼성·제일 등 5대 투신의 경우 소규모 펀드에 남아 있는 휴면잔고가 회사당 최소 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금감원은 투신권 휴면계좌의 정의 (규모나 휴면기간 등)는 수익증권 판매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뒤 우편물, 전화, 광고 형식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계획임

- 투신권은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작업이 끝난 후 소규모 펀드 통합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방침임

○ 타금융사 신상품 못 베낀다

– 오는 12월부터 신상품을 개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이 주어지며, 이 기간 중 신상품을 베낀 금융사에 대해선 최장 3년 동안 독점 판매권 신청자격이 박탈됨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투신협회 등 금융관련 4개 단체는 10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상품 개발 이익에 관한 협정안'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했음
- 협정안은 11월 말까지 협회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업종별로 시행될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업계에서 상품 베끼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나, 이번 자율협정이 시행되면 베끼기 관행 근절과 동시에 신상품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

- 투신권 신상품 독점 판매권 보호 방안

실시 시기	12월 중순
보호 기간	1~6개월
보호 대상	① 독창성·유용성·진보성있는 금융상품 ② 선진 금융기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상품 ③ 상품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7~10명의 학계·업계·법률 전문가 (월 1회)
의결 정족수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위반시 제재 내용	① 판매 금지 조치 ② 위약제재금 부과 및 3년간 독점 판매권 신청자격 박탈 ③ 해당 회사 임직원 제재

- 협회들은 독점 판매권을 받은 후 3개월 동안 상품 판매를 하지 않으면 독점 판매권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힘

♣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2)

○ **하이닉스 무보증사채의 정부 보증 기피에 따른 투신권 반발**

– 오는 11월부터 하이닉스반도체 무보증채권 (1조2,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차환발행의 보증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투신권이 반발하고 있음

- 서울보증보험에서 약속한 지급보증 제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신권이 차환발행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 현재 투신운용사들은 1조2,000억원의 하이닉스 무보증채에 대해 대략 20% 안팎을 상각했지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 90% 손해를 보게 됨

- 구조조정촉진법이 채권 정산가격에 기업의 청산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금융권은 기업가치를 감안해 하이닉스의 채권을 평가할 경우 잔존가치가 기껏 발행가액의 10~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결국 투신사로서는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으면서 보유 채권을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떠넘기던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차환발행을 허용하던지 등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음

○ **장기증권저축 회전율 400%로 제한**

–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증권저축'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 뿐만 아니라 투신사 등에 맡겨 간접투자할 때도 연간 매매 회전율이 400% 이내로 제한될 예정임

- 국회 재경위는 10월 18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초 정부안대로 장기증권저축을 도입하되 주식 단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음
- 장기증권저축은 펀드 형태의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도 허용될 예정이며, 이 때 저축금액 평잔의 70%를 주식에 투자해야 됨
- 세액공제 비율은 원안대로 첫 해 5.5%, 둘째 해 7.7%로 했으며, 저축 원금의 7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하는 내용도 확정했음

– 시장 관계자들은 5~7%의 세액공제 때문에 1년에 4번밖에 거래를 못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음

- 동시에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인 펀드 운용에까지 회전율 제한을 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회전율은 월 100%, 연 1,2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거의 모든 주식이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거래돼 주인이 바뀌는 셈임

–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주식 수요 확충을 위해 공들였던 상품이 정치권의 비현실적인 명분 쌓기에 희생돼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음

♣ 2001년 10월 19일 금요일 (3)

○ '주식모으기 운동 펀드' 보름만에 사실상 판매 중단

– '주식모으기 운동 펀드'가 발매된 지 보름도 안돼 사실상 판매 중단 상태에 빠졌음

- 이점이 별로 없어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데다 증권사들도 판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10월 18일 현재 증권사들 전체 판매액이 1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장기주식저축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매가 두절됐으며, 증시가 침체 상태인 현재 시점에서 수수료 면제만으로 주식투자 위험을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국민연금 운용 수익 운용사별 최고 10% 차이 발생

– 투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9,400억원을 각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에 위탁했으나 투신운용사별 운용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민연금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억원, %)

- 1차 (2000년 10월 27일~11월 2일 설정)

운용사	펀드명	설정액	누적수익률
삼성	팀파워주식1	500	6.57
제일	VISION2010주식1	600	0.96
조흥	조흥BESTGUIDE주식T-1	500	-0.08
대신	대신BULL에이스주식E-1	600	-0.12
교보	VISION21C피크닉주식J-1	400	-1.21

- 2차 (2000년 12월 1일 설정)

운용사	펀드명	설정액	누적수익률
LG	LG시그마1주식1	600	10.36
한일	한일WITH KOREA주식1	475	5.93
대한	인베스트러셀주식E-1	350	4.50
신영	신영오딧세이주식3	475	3.00
제일	VISION2010주식2	475	2.69
대신	대신BULL에이스주식E-2	600	2.15
주은	주은포커스주식101	350	0.58
조흥	조흥BESTGUIDE주식J-1	475	-1.79

- 3차 (2000년 12월 21일 설정)

운용사	펀드명	설정액	누적수익률
삼성	팀파워주식2	350	7.16
LG	LG시그마1주식2	350	5.55
신한	씨에스주식1	250	3.80
동원	네오주식1	250	2.41
한일	한일WITH KOREA주식2	350	1.34
SK	OK!SK성공주식	250	0.39
대신	대신BULL에이스주식E-3	350	-0.52
신영	신영오딧세이주식3-2	350	-1.04
한화	한화장기주식1	250	-3.40
조흥	조흥BESTGUIDE주식T-2	250	-3.40

-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설정된 펀드조차도 크게는 10%의 수익률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운용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2001년 10월 20일 토요일

○ 6,000억원대 국민연금 운용사 선정 본격화

- 국민연금이 하반기 투신사를 통해 성장주식형 3,000억원, 자산배분형 1,200억원, 중소형주형 1,8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을 투자할 운용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음
  - 국민연금은 11월 31일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뒤 자금을 집행할 계획임
  - 국민연금은 10월 18일 투신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대상으로 6,000억원 운용을 위해 상품을 복수로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운용제안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음
- 국민연금은 6,000억원 투자상품 관련 적극적인 주식형 펀드 운용 8개사, 자산배분형 펀드 운용 3개사, 중소형 주형 펀드 운용 5개사 등 총 16개사를 선정할 예정임
  - 적극적 운용 펀드는 증권거래소 주식에 90% 이상 투자하며 파생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상품임
  - 자산배분형은 현물과 선물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자산의 20% 이내에서 헤지거래가 가능한 펀드임
  - 중소형주형은 거래소 중소형주에 90% 이상을 투자하며 코스피200 지수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국민연금은 각 펀드의 벤치마크가 되는 지수 대비 5% 이내에서 손실을 제한할 예정임
- 국민연금은 각 운용사들이 오는 10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11월 1일 1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발할 방침임

○ 장기증권저축 유입액 1조원 못 미칠 듯

-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장기증권저축' (일명 밸류코리아펀드)에 직접투자 형식으로 들어 올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
- 최근 확정된 장기증권저축이 회전율을 연간 400%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주식 편입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어 개인들이 이 규정을 지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연간 회전율 제한이 없는데다 주식의무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유인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장기증권저축에 들어올 자금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2~3조원보다 훨씬 적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 2001년 10월 22일 월요일

○ 제 3자 교차투자 금지 모든 투신에 확대 적용

- 재경부 관계자는 제 3자 교차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차투자 금지를 전 투신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탁재산의 손실이 명백할 경우 30대 계열 투신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음
- 현행 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대규모 30대 계열 투신사들의 경우에 한해서 교차투자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30대 계열 외의 투신사들은 교차투자 금지 적용에 제한이 없음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2의 제3항에서는 30대 계열 투신사의 제한적인 의결권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신탁 재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항이 요구돼 왔음

○ 은행신탁 시가평가 내년 1월 시행

- 은행신탁에 대한 시가평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미 은행권은 시가평가를 위해 채권평가사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내부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채권평가사를 잠정 결정한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부 은행들은 신탁계정의 시가평가를 계기로 고유계정도 시가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고유계정은 시가평가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자산 클린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평가 수수료는 현행 투신권 시가평가 수수료인 0.2bp와 동일하게 책정할 예정이며, 고유계정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신탁보다 할인된 정액제를 적용시킬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신탁까지 시가평가 대상이 확대될 경우 투신권 평가대상 채권 102조원에서 40~50조원이 더 추가돼 채권 평가사들의 수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여기에 은행 전체 고유계정 160조원까지 확대될 경우 관련 시장의 급팽창도 예상해 볼 수 있어 채권 시가평가 시장의 양적·질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추정
- 채권평가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가평가와 연계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임
  - 시가평가와 관련된 리서치 자료 제공 등 관련 업무를 수익과 연결시켜 수지 개선을 적극 도모한다는 입장임

♣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1)

○ 새 협상 조건을 제시한 AIG

– 현대증권은 미국 AIG가 현대증권 출자 협상을 벌이면서 5가지 조건을 새로 제시했다며, 이 조건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며 최근 AIG측을 상대로 한 기업 설명회가 연기되었다고 언급

- AIG 컨소시엄은 지난 8월 현대증권에 4,000억원을 출자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현대증권, 현투증권, 현투운용 3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정부와 MOU를 체결했음

– AIG 컨소시엄은 현대증권측에 최근 출자 주식에 대한 고율 배당, 보통주 전환 기간 단축, 5년 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 보전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대증권에 따르면 AIG가 주당 출자액 (7,000원)의 7% (주당 490원)를 현금으로 배당할 것과 우선주를 1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AIG는 출자 5년 이후에 출자 금액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금감위는 AIG가 현대증권에 새로운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미국 테러 사건 때문에 늦었지만 협상이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

- 정부와 AIG 컨소시엄이 맺은 MOU는 올해 12월 말까지 유효함

○ 제 2 증안기금 전면 백지화

– 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증시 비상대책으로 추진해 온 제 2 증시안정기금 설립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음

- 재경부 관계자는 10월 22일 미국 테러 사건 직후 증시 붕락을 막기 위해 증안기금 설립을 비상대책에 포함시켰으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재경부는 증안기금 백지화 이유로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아 굳이 비상대책을 쓸 만큼 긴급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손실보전 주식저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증안기금 설립이 백지화된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이와 함께 정부가 증안기금 설립 계획을 밝힌 뒤 증안기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돈을 대줄 기관투자가들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설명
- 재경부 담당자는 증권사와 상장회사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던 증안기금이 이미 해체된데다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 수단을 다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일어 원점에서 재검토됐다고 덧붙임

–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 2 증안기금 설립을 백지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무리한 정책을 불쑥 내놓았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증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고 지적

♣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2)

○ 벤처투자 이익공유제 내년 도입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투자금액의 50%를 손실 분담하는 벤처투자 이익공유제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벤처캐피털과 개인·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 프라이머리 CBO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중간 단계의 벤처기업과 달리 초기 벤처기업들은 벤처투자 이익공유제도 통한 자금 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기술신보는 올해 벤처기업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총 1조5,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 벤처 투자 자금을 집행한 상태임

-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술신보는 중간 단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예정임
- 동시에 초기 단계 우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가 중심인 벤처투자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초·중기 벤처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음

– 기업이 도산할 경우 기술신보가 50%를 손실 분담하는 만큼 투자 성공시에는 투자자와 벤처기업 모두 일정 수준의 수수료와 출연금을 내게 돼 있음

- 창투사, 개인 등 투자자는 자본이득이 투자 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의 20~30%를 성과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신보는 자본이득의 몇 %를 초과금액으로 잡을 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임
-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경우 공유 약정금액의 3~5%를 성과 출연금으로 내야 함
- 투자 주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개인 등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벤처캐피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증권저축 첫 날 71억원 판매 그쳐

– 10월 22일부터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에 들어간 장기증권저축 첫 날 판매액이 71억원에 그쳤음

- 증권업계에 따르면 26개 증권사에서 장기증권저축 판매를 시작한 결과 직접투자분이 63억3,500만원, 간접투자분이 7억9,100만원 등 총 71억2,600만원으로 저조한 결과를 기록했음
- 당초 예상과 달리 간접투자 상품 판매액이 직접투자분보다 저조한 이유는 금감원의 상품 인가가 오후 늦게 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3)

○ **연기금 투자풀 평가사 제로인 선정**

– 30여개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펀드평가사로 (주)제로인이 선정됐음

- 기획예산처는 투자풀 펀드평가사로 참여를 신청한 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리퍼코리아, 모닝스타 등 4개사 중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주)제로인을 선정했다고 10월 22일 발표했음
- 제로인은 그 동안 증권사의 펀드평가 시스템을 대행하거나 국민연금, 교원공제회 등에 펀드평가 컨설팅을 해 주는 등 펀드평가 분야에 노하우를 쌓아왔음
- 지난 96년 5월에 설립된 펀드평가사로 자본금은 48억원임

♣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1)

○ 도이체방크 국내 투신운용업 진출

– 운용자산 규모 세계 4위인 대형 종합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국내에 '도이체투자신탁운용'을 설립하여 투신운용업에 진출할 예정임

- 금감원은 10월 23일 도이체방크의 자산관리 지주회사인 도이체에셋매니지먼트그룹이 100% 출자한 '도이체투신운용' (자본금 100억원)이 투신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 도이체투신운용은 오는 12월 중에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신운용업을 벌일 예정임

- 도이체투신운용은 지난 9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슈로더투신운용에 이어 두 번째 100% 외국계 투신운용사로 등장할 전망임
- 도이체방크는 현재 국내에 도이체증권과 도이체방크 서울지점, 도이체투자자문 등 증권, 은행, 투자자문업에 진출한 상태임
- 투신운용 업계에서는 슈로더투신운용에 이어 순수 외국계 투신사가 몰려옴에 따라 국내 투신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해외 워런트'의 유권 해석을 재경부에 요청

– 금감원은 일부 원금보전형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투신운용사들이 편입했던 '해외 워런트'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재경부로 넘겼음

-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23일 재경부에 해외 워런트가 유가증권인지 파생상품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 한국은행은 이 상품을 '파생상품'이라며 투신사들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온 반면, 금감원은 유가증권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음

– 만약 재경부가 해외 워런트를 파생상품으로 해석할 경우 투신사 원금보전형 펀드의 해체나 약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임

- 동시에 이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상품인가를 내준 금감원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투신업계는 법이 앞서가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긴 사건이라고 평가

- 재경부가 해외 워런트를 일단 유가증권으로 해석해 충격을 최소화한 후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2)

○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CBO 보증재원 바닥

- 재경부와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보)에 따르면 올 들어 신보의 보증을 받아 발행된 프라이머리 CBO 중 부도난 금액은 2,5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보가 대지급 책임을 져야하는 금액은 1,000억원에 이름
  - 이로 인해 신보의 프라이머리 CBO 보증용 재원은 당초의 7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줄어들었음
- 통상 신보는 보증 재원의 10배까지 보증을 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 가능한 프라이머리 CBO 규모도 7조원에서 6조원으로 축소됐음
  - 현재까지 신보가 보증한 프라이머리 CBO는 5조5,000억원이므로 보증한도까지 고작 5,000억원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임
  - 연말까지 프라이머리 CBO로 소화해야 할 회사채 물량은 신속인수 대상 회사채까지 포함해 최대 4조~5조원으로 추산됨
- 재경부는 신보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일반 보증재원 가운데 보증배율이 낮은 쪽에서 최소 3천억원을 프라이머리 CBO 보증용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임

○ S&P 펀드평가 시장 진출

-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사가 한국펀드평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국의 펀드평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
  - 한국펀드평가는 10월 23일 S&P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두 회사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펀드평가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두 회사는 이에 따라 다양한 펀드 정보와 분석 자료, 펀드평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게 될 전망임
  - S&P사는 별도의 펀드평가 사업부를 두고 13개국에서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음
- 한국펀드평가 관계자는 두 회사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펀드에 대한 엄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

♣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3)

○ **국민연금 편법 운용으로 575억원 투자 손실낸 사실 1년 반만에 적발**

– 국민연금의 한 펀드매니저가 연금기금 운용 규정상 투자가 제한된 프리코스닥 (미등록 벤처기업)과 이들 업체의 해외 전환사채에 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실이 1년 반만에 넘어서야 적발되었음

- 펀드매니저들은 고수익을 좇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험이 커 투자하지 못하도록 된 주식을 매입한 것은 국민의 돈인 연금을 멋대로 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임

– 편법 운용한 펀드매니저 정씨가 작년 2월 코스닥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공단 투자위원회에 보고한 뒤, 실제로는 투자가 금지된 코스닥 미등록 주식 11개 종목에 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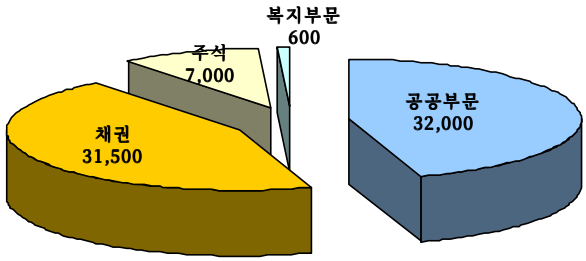
- 작년 6월 한미은행 특정금전신탁에 500억원을 투자한 뒤,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B사 등 코스닥 미등록 소규모 벤처기업 6곳에 편법으로 327억원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음
-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인 E사에서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 65억원을 사실상 직접 선정해 투자하고 해외 전환사채의 인수까지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공개됨

– 이번 사건은 자산운용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기금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으며, 그 동안 내부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정씨가 투자한 D사 등 미등록 벤처 3곳은 투자의 전제 조건인 최근 3년간의 당기 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회사여서 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해외 전환사채를 주식팀장이 임의로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분위기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또, 채권 펀드매니저 1명이 4조4,000억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통제나 감독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년 9월 말 현재, 단위: 10억원)

국민연금기금 적립 총액: 71,100



♣ 2001년 10월 25일 목요일 (1)

○ 국민연금 수익증권 매입 중단할 듯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10월 24일 대표적 주식 간접투자 방식인 수익증권 매입이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 매입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힘

- 대신 투자 대상 종목, 자금 회전율 등 구체적 자금운용 조건을 미리 정한 뒤 투신사, 수탁은행, 투자평가회사 등 3개 기능을 묶어 자금운용을 맡기는 선진형 맞춤위탁 형태의 간접투자 비중을 늘려갈 계획임
- 공단은 올해 주식 간접투자에 배정된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이미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템플턴투신운용 등 13개 투신사에 위탁했으며, 자금 입출금을 관리할 수탁은행으로 외환은행, 투자평가사로는 제로인을 각각 지정했음

○ 펀드 운용보수 하향 평준화 논란

– 기관들이 투신사에 기금운용을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최근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운용보수가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 적정 운용보수에 대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투신권은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들이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지만 적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가급적 싼 값에 운용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최근 국민연금 편법 운용 사실 밝혀짐에 따라 기관 내부 운용 규정의 강화는 물론 어설픈 아웃소싱보다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아웃소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시장 관계자들은 기관들의 아웃소싱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들의 천편일률적인 아웃소싱은 운용의 부실화를 동반하고 수익률 하락 등이 예상되어 펀드 형태에 따라 보수를 이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

- 외국의 경우 주식형과 같은 적극적 운용 펀드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0.5%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인덱스형 펀드들은 0.5%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수체계가 이원화돼 있음

– 투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내부에 자체 펀드매니저를 두고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만 전문운용사에 비해 운용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투신권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펀드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 보수를 지급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음

♣ 2001년 10월 25일 목요일 (2)

○ 증권사들 장기주식저축 간접투자 유도

- 10월 22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식저축에 대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직접투자보다는 투신사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직접투자의 경우 평잔 기준으로 주식 비중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다 주식 회전율도 연 400%로 제한하는 등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 특히, 매매회전율이 일년에 2번 사고 2번 팔 수 밖에 없어 약정 수수료가 투신상품의 판매수수료보다 훨씬 낮아 증권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 약정수수료는 1년에 기껏해야 0.4% 정도이나 펀드를 통한 판매수수료는 1% 이상으로 간접투자 상품의 판매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 한편, 작년에 나온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상품구조가 유사하지만 최소 주식 편입비가 30%인데다 매매회전에 제한이 없어 장기주식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연기금 투자풀 노마진 수주전

- 11월부터 운용될 5조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의 주간운용사가 되기 위해 투신권이 덤핑 수주전을 벌이고 있음
  -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개사를 선정하는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신청을 마감한 결과 7개 투신사가 접수를 한 상태임
- 7개사가 제시한 운용수수료는 평균 0.2% 안팎으로 통상 수수료 수준인 0.4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임
  - 0.2%면 최소 인건비만 겨우 충당할 수 있는 노마진 수준이며, 이 중 한투가 제시한 수수료는 0.1% 내외로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투신사들이 주간운용사가 되려고 이처럼 안감힘을 쏟는 것은 수탁고가 일시에 5조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회사 신인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반상품 판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
  - 한 투신 관계자는 상위 투신사 수탁고가 10~2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조원 수주 여부에 따라 투신권 순위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언급

♣ 2001년 10월 25일 목요일 (3)

○ **푸르덴셜 내년 10월 이후 제일투신증권에 추가 출자 계획**

- 스티븐 펠레티어 푸르덴셜 국제투자그룹 사장은 내년 10월 이후 추가 출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될 경우 회사명을 푸르덴셜-CJ투신증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동시에 미국 테러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일투신증권과의 전략적 제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언급
- 펠레티어 사장은 한국 시장은 특정된 소수가 아닌 중산층 위주로 부의 축적이 꾸준히 이뤄져 펀더멘털이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역설
  - 한국 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투자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한국푸르덴셜생명과 변액보험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푸르덴셜과 국제금융공사 (IFC)는 지난 3월 말 제일투신증권에 총 투자자금 $5억 3,300만 중에서 각각 $1억, $3,300만씩 납입한 바 있으며, 미집행된 자금은 1차 투입 이후 39개월 내에 모두 투입키로 약속한 바 있음

♣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 투신 대차거래 활용 펀드 발매

–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신사들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차거래를 이용한 펀드에 대한 발매가 화제가 되고 있음

- 굿모닝투신운용의 경우 배당주 펀드에 주식 대차거래를 혼합한 "굿모닝 베스트 리턴 혼합형 펀드"를 업계 최초 선보였음
- 펀드의 주식 대차거래는 주식 현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현물을 그대로 다시 받기 때문에 아무런 거래 위험 없이 대여수수료를 올려 펀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펀드 내 편입주식의 대여는 보통 1~3개월 정도의 기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
- 대여수수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개별 종목은 주식을 빌려가는 날 종가로 산출하여 전체 대여금액의 연 7% 수준임

– 최근 들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도차익거래 (현물매도, 선물매수) 기회가 크게 늘어난 점도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음

- 10월 25일 현재 프로그램 매도 차익거래 잔액이 3,200억원을 넘어섰으며, 펀드 내 편입주식의 대여가 활성화되면 매도 차익거래가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
- 투신권 판매 담당자에 따르면 펀드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이 많은 주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신탁주식 대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음

○ 한신평 신용평가사 평가 1위 기록

– 투신협회는 10월 25일 올 상반기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 1위에 한국신용평가가 선정됐으며, 2위는 한국기업평가, 3위는 한국신용정보 순이라고 밝혔음

- 신용평가기관 평가위원회 성금성 위원장은 신용등급 평가의 일관성, 조기 경보 능력, 투신사와의 정보 교류 정도 등 비계량적 요소를 신용등급 이용자인 투신사가 수치화해 순위를 매겼다고 언급

○ 금융 공적자금 150조원 육박

– 재경부는 10월 25일 97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48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음

- 지난 해 말 조성된 2차 공적자금 50조원도 9월 말까지 40조6,000억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회수한 공적자금은 36조7,000억원에 머물러 회수율은 24.7% 불과하다고 언급

–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 책임자 2,673명을 징계했다고 밝힘

-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별도로 부실 관련자 3,051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 투기채 편입 비실명 펀드 도입 고려 안해

- 진념 부총리는 10월 26일 최근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비실명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진 부총리는 이 날 대투증권 본사 영업점에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뒤 증권실무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음
- 진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중장기 자금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기투자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
  - 확보된 재원으로 중장기 수요를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임
- 갈수록 역할이 커지는 국민연금 역시 안전 위주보다는 다양한 수익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임을 내비쳤음

○ 4개 은행만 하이닉스 지원

- 국민, 주택, 신한 등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요 채권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외환, 산업, 한빛, 조흥 등 4개 은행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할 전망임
  - 이로 인해 산업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은행들의 여신을 대신 맡고 외환, 한빛, 조흥 등 3개 은행이 신규자금 1조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일부 은행만이 지원하는 방식은 하이닉스 지원을 반대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하이닉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금 지원안을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보유채권을 채권단에 시가로 팔 수 있는 권한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됨
  - 국민 (4,097억원), 주택 (1,721억원), 신한 (4,006억원) 등 3개 은행 여신액은 9,824억원이나 되지만 실사 결과 하이닉스의 청산가치가 산출되면 그 청산가치대로 산업은행이 매입해 출자전환하게 될 예정임
  - 가령, 그 청산가치가 장부가치의 30%라면 산업은행이 3,000억원에 매입하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기존의 방침이던 출자전환 4조원과 신규자금 1조원의 하이닉스 지원안은 변함이 없음
- 국민, 주택, 신한은행의 결정으로 보유 여신액이 적은 한미, 하나 등 나머지 은행들도 잇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10월 29일 월요일

○ 부진한 판매고를 기록한 장기증권저축

– 지난 10월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장기증권저축 상품은 10월 26일까지 30여개 증권사 창구와 일부 시중은행을 통해 총 780억원 남짓 팔려나가는 데 그쳤음

- 지난 해 12월부터 판매됐던 근로자주식저축이 판매 첫 주에 6,000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임
- 주식 의무 편입비율이 평균 잔고 기준 70%로 근로자주식저축 (30%)에 비해 부담스러운데다 매매회전율 역시 400%로 제한받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절름발이 상품 취급을 받고 있음

○ MMF 잔고 급감

– 투신협회가 집계한 MMF 잔고 현황을 보면 지난 24~26일 사흘간 2조1,638억원이 MMF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투신권 총수탁고 (신탁형 제외)도 168조2,993억원으로 사흘 동안 2조4,495억원이나 감소했음

– MMF에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시중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9%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임

- 투신권 관계자는 시중금리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투신권 수탁고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국민·주택·신한은행 하이닉스 채권 70% 포기

–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국민·주택·신한은행의 기존 대출금 70~80%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전환사채로 출자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국민·주택·신한은행도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아래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하이닉스 채권단은 이번 주 안에 채권단 회의를 이들 은행의 대출금 포기 및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금리 감면 등의 하이닉스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음

– 이들 3개 은행은 우량 은행이므로 대출금의 70~80%를 포기하더라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하이닉스가 회생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하이닉스와 인연을 끊으면서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에 반대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세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임
- 투신권 관계자는 대출금 포기 규모와 출자 전환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2001년 10월 30일 화요일 (1)

○ 투신권 상반기 순이익 9.4% 감소

– 투신협회에 따르면 10월 29일 올해 상반기 국내 30개 투신사의 세전순이익은 9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올 상반기 투신사들의 설정잔고는 전년 대비 17.2%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9.4% 줄어들어 투신사간 수탁고 늘리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추정됨
- 투신사별 상반기 (4~9월) 실적 (단위: 억원)

투신사 명	세전 순이익	설정잔고	회사명	세전 순이익	설정잔고
교보	41	32,741	아이	-4	3,560
국은	29	20,718	외환코메르쯔	3	12,592
굿모닝	-7	13,929	제일	34	111,778
대신	45	33,416	조흥	98	73,247
대한	19	191,866	주은	134	140,921
동부	6	5,203	태광	7	4,574
동양	4	42,902	템플턴	16	13,808
동원BNP	36	36,327	하나알리안츠	5	16,225
미래에셋	5	16,985	한국	11	185,026
삼성	88	213,970	한빛	39	36,654
서울	33	45,002	한일	84	68,146
세종	1	3,988	한화	29	38,318
슈로더	-7	100	현대	66	168,474
신영	40	27,219	LG	66	66,099
신한	29	34,106	SK	20	25,593
			합계	969	1,683,487

○ 연기금 펀드 운용 3개 후보사 선정

– 5조원 규모의 연기금 통합펀드 운용을 책임질 주간운용사 후보로 삼성투신, 한국투신, 현대투신 등 3개사가 1차 선정됐음

- 연기금 통합펀드 주간운용사는 각각 약 3,000억원 규모의 15개 단위 펀드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 회사로 투신사들은 주간운용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음
- 이날 선정된 3개사 외에 주간운용사에 응모한 대한, 주은, 제일, 신한투신 등은 탈락했음

– 이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들은 제로에 가까운 운용수수료를 제시하여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는 지적도 받아왔음

♣ 2001년 10월 30일 화요일 (2)

○ MMF 환매 손실 책임 법정 비화

- 지난 4월 말 발생한 MMF 환매사태 당시 MMF에 자금을 맡겼다 손실을 입은 "삼천리"는 10월 초 판매사인 교보증권과 교보투신운용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MMF 환매 지연에 따른 손실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음
- 삼천리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교보증권이 판매한 '교보신종MMF J-2호'에 500억원을 넣은 뒤 4월 26일 환매 청구를 신청했으나 교보증권이 당일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지급해 4억5,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 삼천리측은 교보증권과 교보투신이 4억5,800만원의 손실분과 이자까지 합쳐 약 4억7,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음
- 지난 9월초 금감원은 이 사건에 대해 펀드 약관에 따르면 판매사는 환매 신청 당일 기준가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
  - 환매 지연에 따른 손실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사인 교보증권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음
-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펀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환매 지연은 불가피했다고 주장
  - 금감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손해배상금을 내줘야 하는 근거 역시 회사 내규에 없다고 밝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

♣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 (1)

○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장기증권저축 조건 완화 건의**

– 10월 30일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연말까지 장기증권저축의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연 400%로 제한돼 있는 주식 투자 회전율을 연 600%로 완화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언급

- 동시에 직접투자시 적용되는 주식투자 의무 비율도 가입 금액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야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증권업협회장은 현행 회전율 제한은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며 장기증권저축 취지상 새로운 투자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부터 발매된 장기증권저축은 10월 30일 기준으로 879억원의 자금 모집에 머무르고 있음

○ **4번째 투신평가 전문회사로 선정된 리퍼코리아**

– 리퍼코리아는 10월 29일 투신협회로부터 투자신탁평가 전문회사로 지정받았음

- 투신협회는 리퍼코리아가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3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적정한 투자신탁평가시스템 보유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힘
- 투신협회가 투자신탁평가 전문회사로 지정한 회사는 한국펀드평가와 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를 포함하여 4개사가 됐음

○ **AIG 현대증권에 대해 원금보장 요구 철회**

– 미국 AIG 컨소시엄측이 현대증권 투자와 관련해 요구했던 투자 원금보장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음

- 정부 관계자는 10월 30일 AIG가 현대증권측에 비공식적으로 추가 요구해 왔던 5년 후 투자원금의 현금상환 부분을 사실상 철회해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

– 한편, 우선주 배당기준을 액면가 5천원이 아닌 발행가 7천원 기준 5%로 해주고 발행된 우선주도 당초 약속대로 5년 후가 아닌 1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의 추가 요구에 대한 논의는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음

- AIG가 뒤늦게 들고 나온 투자 원금보장 등의 요구는 현대투신이 향후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IG측은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이 제기돼 왔음

♣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 (2)

○ **증권거래소 등 4개 증권 유관기관 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중단키로 결정**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증권예탁원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수수료 징수를 중단키로 결의했음

-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거래소 156억원, 협회 74억원, 코스닥 67억원, 예탁원 93억원 등 총 39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99년 10조2,000억원에서 지난 해 6조8,000억원으로 33.2% 급감했음

- 증권사간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위탁수수료율도 평균 0.361%에서 0.243%로 32.7%나 낮아졌음

11월 November

10대 주요 기사

1. 12월 1일부터 독창적 투신상품에 독점 판매권 부여
   (2일, 21일, 30일)
2. 역외펀드 감독 대폭 강화
   (6일, 17일)
3. 내년 판매 상장지수펀드 상장 기준 마련
   (13일)
4.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겸업 곧 허용 예정
   (13일, 16일)
5. 채권 시가평가 내년 완전 민간 이관
   (19일)
6. 대재해펀드 출시 예정
   (20일)
7. 농협 12월부터 수익증권 본격적 판매
   (21일)
8. 투신·자산운용사 펀드 직판 내년 허용
   (22일)
9. 현대증권 주가 상승으로 AIG 매각 협상 탄력 가능성
   (28일)
10. '장기증권저축' 1조원 판매 편법 가입 극성
    (28일, 29일)

◈ 11월 목차 (11/1-11/10)

11/1 (목)	○ 세종증권·투신 외국사와 합작 추진 ○ 투신권 하이닉스 채권 만기 연장 승인 ○ 투신사 펀드 스왑거래 늘린다
11/2 (금)	○ 농협 MMF 환매손실 판매사서 보상 합의 ○ 국민연금 외부 위탁운용 개시 ○ 금융상품 개발업체에 '판매 우선권' 인정
11/3 (토)	○ AIG와 현대 투자 협상 고비 ○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심화
11/4 (일)	
11/5 (월)	○ 투신 펀드매니저 1인 평균 20개 펀드 4,700억원 관리로 부담 과중 ○ 펀드 사후감시 강화할 계획에 있는 재경부
11/6 (화)	○ 연기금풀 운용기관 선정 ○ 재간접투자 상품 (일명 Fund of Funds) 내년 도입 예정 ○ 금감원 역외펀드 감독 대폭 강화
11/7 (수)	○ 하이닉스 추가 상각 않기로 한 투신권 ○ 대우채 한도 초과 배상 권고
11/8 (목)	○ 증권선물조사심의위 발족 ○ 퇴직 생활자용 비과세펀드 연내 도입 예정 ○ 대투운용 '아르헨티나 관련 채권' 손실 비상
11/9 (금)	○ 주은·국은투신 진로 관심 ○ 삼성투신 MMF 대형화 ○ 장외파생상품 대형증권사만 허용 ○ 은행신탁 만기 규제 폐지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투신권 주식 보유 줄여
11/10 (토)	○ 투신사 상품에 '저축' 용어 남발 ○ AIG 곧 현투증권 인수 수정안 낼 것

◈ 11월 목차 (11/11-11/20)

11/11 (일)	
11/12 (월)	○ 벤처 투자 손실 보전 백지화 ○ 펀드 금리스왑 거래 분쟁 소지 많다
11/13 (화)	○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겸업 곧 허용 예정 ○ 장기 변동금리 예금 도입 ○ 금리스와프·FRN·외화표시채 활용 채권형 펀드 인기 ○ 내년에 판매될 상장지수펀드 상장 기준 마련
11/14 (수)	○ 공모가 결정기관 영향력 줄인다 ○ 구조조정법 적용 대상기업 선정에 속앓이하는 투신권
11/15 (목)	○ 투신권 고객 소송에 몸살 ○ 판매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삼성증권 ○ '주식모으기 펀드' 끝내 소멸 ○ 대우채 손실보전펀드 하이닉스 편입 후유증 일파만파
11/16 (금)	○ 자산운용사 투신 업무 허용 ○ 증권사에 장외 파생상품 허용 ○ 국민연금 위탁 운용기관 선정
11/17 (토)	○ 메릴린치 투신 서울사무소 폐쇄 결정 ○ 역외펀드 감독 대폭 강화
11/18 (일)	
11/19 (월)	○ 채권 시가평가 내년 완전 민간 이관 ○ 은행들도 외국펀드 판매 가세 ○ 투신협회 펀드 정보료 내년 7월 재조정
11/20 (화)	○ 투신사 중국 진출 신중론 ○ 대재해펀드 출시 예정

◈ 11월 목차 (11/21-11/30)

11/21 (수)	○ 12월 1일부터 독창적 투신상품에 독점 판매권 부여 ○ 농협 12월부터 수익증권 본격적 판매
11/22 (목)	○ 투신·자산운용사 펀드 직판 내년 허용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기관들의 무리한 MMF 조기 환매 ○ CBO펀드 원금보장 추진 논란
11/23 (금)	○ 금리·주가 급등, 환율 급락 ○ 부실채 펀드 환매 분쟁
11/24 (토)	○ 1조원 규모 연기금 통합펀드 12월초 운용 ○ 재벌계열 투신 및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11/25 (일)	
11/26 (월)	○ 공적자금 투입 150조원 넘어 ○ 내년 투신사 적기시정조치 발동 예정 ○ 12개 기금 자본잠식 47조원
11/27 (화)	○ 내년부터 무보증 회사채 '건별 평가제' 도입 방침 ○ 산업은행 대우증권 주식 39% 매각
11/28 (수)	○ 투신 펀드매니저 수난 시대 ○ 장기증권저축 1조원 돌파 ○ 현대증권 주가 상승으로 AIG 매각 협상 탄력 가능성 ○ 계열사 주식 보유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30%까지 행사
11/29 (목)	○ 비과세저축 중복 가입 가능 ○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무산 위기에 대한 논란 ○ '장기증권저축' 1조원 판매 편법 가입 극성 ○ MSCI 지수 한국 비중 증가
11/30 (금)	○ 배타적 우선 판매권 확보위해 금융권 신상품 경쟁 ○ 투신권 자금 이탈 본격화 ○ 한신평, 무디스에 매각

♣ 2001년 11월 1일 목요일 (1)

○ 세종증권·투신 외국사와 합작 추진

– 세종증권과 세종투신운용이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10월 31일 세종증권 관계자는 증권사는 물론 자회사인 세종투신운용에 외국 자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모건스탠리 등 외국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 이 관계자는 모건스탠리 등 몇몇 외국사와 합작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투신운용이나 증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 세종증권의 외국사 합작 모색은 그 동안 계속 추진돼 왔으나 아직 합작이 성사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자료: 한국경제)

○ 투신권 하이닉스 채권 만기 연장 승인

– 10월 31일 하이닉스 채권 약 1조2,500억원을 보유한 투신운용사들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지 않은 상황에서 차환발행에 동의함에 따라 투자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 날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현했음

– 투신권은 보유 중인 하이닉스 채권 중 무보증채인 6,000억원에 대해 서울보증의 지급보증이 없으면 차환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

  • 현재 각 투신사는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20% 안팎을 상각했으나, 실제 채권 가치는 액면금액의 20%에 불과함
  • 투신사들은 차환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 손실이 80%에 달해 만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

– 주요 투신운용사 하이닉스 채권 보유 현황 (단위: 억원)

투신운용사	보유 물량
한국	4,077
조흥	2,567
서울	1,183
대한	1,117
주은	1,150
현대	700

– 투신 고객들은 가입한 상품이 하이닉스 채권을 이미 편입한 경우 당장 손실은 보지 않더라도 하이닉스 경영의 정상화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 2001년 11월 1일 목요일 (2)

○ **투신사 펀드 스왑거래 늘린다**

– 투신사들이 올 7월에 허용된 펀드 스왑거래를 대폭 늘리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업계 전체적으로 스왑거래가 생소한데다 참여 주체도 극히 제한돼 있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
- 이미 스왑 펀드를 운용 중인 한일, 하나알리안츠, 굿모닝투신 등은 지금까지 1조 7,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비교적 성공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스왑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스왑거래의 판트너 기관은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두 군데에 불과한 실정임

- 이로 인해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펀드 운용의 비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통 스왑거래는 은행간 거래가 주종을 이루지만 투신사도 이번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기관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 2001년 11월 2일 금요일 (1)

○ 농협 MMF 환매손실 판매사서 보상 합의

– MMF 환매 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농협이 10억원에 달하는 손실분을 판매사로부터 보상받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파장이 판매사인 증권회사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임

- 지난 4월 말 발생한 MMF 환매사태 당시 MMF에 자금을 맡겼다 손실을 입은 농협은 최근 판매사인 SK증권과 동양투신증권으로부터 각각 7억원, 2억원의 손실분을 보상받기로 합의했음
- 국민은행과는 1억원의 배상금을 놓고 협의 중인 상태임

– 동양투신증권 한 관계자는 손실이 판매사의 책임만은 아니기 때문에 운용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음

- 농협이 위탁한 전체 1,500억원의 신탁재산은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사에서 운용을 맡았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농협이 MMF 환매 손해배상 분쟁 소송을 취하해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산됐다고 언급

- 금감원은 지난 6월 농협이 제기한 MMF 환매 손해배상 분쟁 조정건에 대해 10월 초 판매사가 약관을 위반했다며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 권고를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판매사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손실 배상을 회피해 왔음

○ 국민연금 외부 위탁운용 개시

– 국민연금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외부위탁 (아웃소싱) 운용에 들어갈 계획임

- 국민연금은 현행 1본부 6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아웃소싱팀과 리서치팀을 신설해 1본부 1실 8팀으로 개편하고 20명을 신규 채용해 운용역을 43명으로 확대했음

–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11월부터 아웃소싱팀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와 3,000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예정임

- 해외 투자는 외국 투자컨설팅사를 통해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한 후 주로 주식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
- 국내 거래소시장에 투입하는 2차 위탁투자분 6,000억원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쯤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여 중순 이후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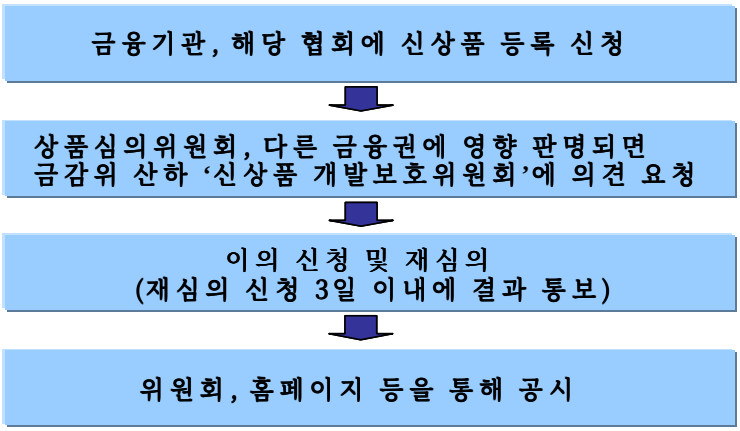
♣ 2001년 11월 2일 금요일 (2)

○ 금융상품 개발업체에 '판매 우선권' 인정

– 금융당국은 12월 초부터 금융상품의 '배타적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투신, 증권, 보험, 은행 등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음

• 독점권을 공식 인정받을 경우 상품 개발 경쟁력을 인정받는 만큼 자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해당 신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금융상품 배타적 우선권 허용 절차 (투신협회 기준)



– 금융권역별 배타적 우선 판매권 부여 조건 및 벌칙

	투신협회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평가 기준	신규성·용이성 및 투자비용 파급 효과	신규성·진보성 등	신규성·독창성·진보성	신규성·독창성 등
기간	1,3,6개월	2,4,6개월	3,5개월	3,6개월 (손보협회), 6개월 이내 (생보협회)
벌칙	3년간 우선 판매권 동결, 임원 징계, 3천만원 이하 벌과금, 사과문 신문 게재	벌금 등	판매 중지 및 6개월간 우선 판매권 신청 불허	판매 중지 (1차 위반), 3천만원 이하 벌금 (2차 위반), 6개월~1년 우선 판매권 동결

♣ 2001년 11월 3일 토요일 (1)

○ AIG와 현대 투자 협상 고비

– 올 8월 MOU가 체결됐던 AIG의 현대그룹 금융 3사에 대한 투자 협상이 AIG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당사자의 컨소시엄 이탈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음

- AIG-현대증권간 협상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11월 2일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당사자가 9·11 테러 사건 이후 투자 여건이 달라졌다며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이는 미국 시장의 불안 등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자의 투자 몫이 커지게 될 전망임

– 11월 2일 금감위는 테러 사태 여파로 10월 말 본계약 체결 11월 말 출자대금 납입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계약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정부는 AIG 외자유치 건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치적처럼 상징화됐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해 협상 타결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임
-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금융계 인사들은 협상이 낙관하기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정부-AIG간 현대금융 3사 인수 협상 일정

- 올 1월 초: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AIG와 협상한다고"고 발표
- 8월 23일: 금감위, "AIG가 현대증권에 4,000억원 등 1조1,000억원 투자한다"며 양해각서 발표,
  현대증권, "AIG가 인수할 신주 가격은 주당 8,940억원" 의결
- 8월 24일: AIG, "8,940원 수용 못한다"고 미국 불룸버그 통신과 인터뷰
- 9월 11일: 미국 테러 발생, AIG 등 보험업계 자금 부족 우려 확산
- 9월 13일: 현대증권, AIG 요구대로 신주 발행가 7,000원으로 수정 재의결
- 9월 말: AIG 컨소시엄 중 1곳, "테러 사태로 사정이 달라져 투자를 포기한다"며 컨소시엄 이탈
- 10월 중순: AIG, 투자원금 보장 등 4개 안전장치 추가 요구,
  현대증권, "수용 못한다"며 반발
- 10월 30일: 현대증권, "AIG측이 추가 요구 중 원금보장 요구는 철회했다"고 확인

♣ 2001년 11월 3일 토요일 (2)

○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심화

- LG경제연구원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회사채 유통시장 내 회사채 거래액 비중은 지난 4월 15.2%를 기록한 이후, 9월과 10월에는 각각 7%, 8.7%대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A 등급 이상 기업들의 발행은 8월 51.3%에서 9월과 10월 각각 72.6%와 84.3%로 증가했으나, BBB 등급 발행비중은 지난 8월 39.4%에 달했지만, 9월과 10월 각각 23.7%와 12.1%로 내려앉았음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신용평가에서 32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22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음
  - 투자등급 기업들의 하향조정 비율이 17%에서 38%로 증가한 것은 신용위험 증가가 투기등급뿐만 아니라 투자등급 기업들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LG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회사채 기피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원인을 자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단기 부동자금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 매수에 치중하게 됐다는 설명
- 올해 11월과 12월에만 각각 12조9,0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고, 내년 1사분기에 11조6,000억원이 만기 도래하게 됨
  - 채권시장에서 발행이 원활한 A 등급 이상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연말까지 4조9,000억원과 내년 1사분기에는 2조4,0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2001년 11월 5일 월요일 (1)

○ **투신 펀드매니저 1인 평균 20개 펀드 4,700억원 관리로 부담 과중**

– 서울경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30개 국내 투신운용사들이 펀드 운용에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는 352명이며,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 규모는 총 167조3,466억원으로 조사됨

• 1인당 평균 20개 펀드에 4,754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신 및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현황 (단위: 억원, 개)

	회사명	확보된 운용자 수	운용자 수	총수탁고	1인당 평균 운용 규모	펀드 수	1인당 평균 운용 펀드 수
투신운용사	한국	61	23	183,862	7,994	840	37
	대한	48	26	189,044	7,271	1,141	44
	현대	53	35	164,805	4,709	710	21
	제일	32	21	108,130	5,149	450	22
	동양	22	10	41,953	4,195	307	31
	대신	20	9	33,486	3,721	163	19
	동원BNP	18	11	33,250	3,023	154	14
	서울	15	8	42,674	5,334	325	41
	LG	23	15	67,378	4,492	168	12
	교보	26	20	32,490	1,625	254	13
	신영	15	11	26,851	2,441	161	15
	신한	14	10	36,569	3,657	158	16
	국은	15	4	20,860	5,215	30	8
	한화	17	11	39,580	3,598	154	14
	한일	14	11	70,285	6,390	252	23
	SK	11	8	26,851	3,356	138	18
	동부	11	8	5,802	725	68	9
	프랭클린	14	8	14,782	1,848	47	6
	삼성	39	21	214,543	10,216	564	27
	조흥	15	12	73,410	6,118	203	17
	한빛	18	8	34,828	4,354	187	24
	외환	11	5	13,082	2,616	57	12
	주은	19	13	137,627	10,587	146	12
	태광	14	6	5,149	858	18	3
	세종	7	4	4,237	1,059	23	6
	아이	11	9	3,488	388	28	4
	미래에셋	14	9	17,266	1,918	50	6
	하나	14	5	16,206	3,241	32	7
	굿모닝	10	7	14,019	2,003	93	14
	슈로더	9	4	959	240	3	1
	소계	**610**	**352**	**1,673,466**	**4,754**	**6,924**	**20**
자산운용사	미래에셋	13	12	5,028	559	20	2
	마이다스	12	9	7,373	1,229	12	2
	SEI에셋	8	6	14,272	2,379	15	3
	다임	10	6	5,555	463	9	2
	유리에셋	13	12	5,656	628	18	2
	KTB	11	9	3,357	560	12	2
	글로벌	7	6	716	143	7	2
	월드에셋	7	5	19	3	1	1
	마이에셋	7	7	678	75	4	1
	그린에셋	9	9	3,105	776	6	1
	맥쿼리IMM	7	4	3,032	606	8	2
	와이즈에셋	6	5	140	2	2	1
	소계	**110**	**90**	**48,931**	**544**	**114**	**2**
	합계	**720**	**442**	**1,722,397**	**5,298**	**7,038**	**22**

♣ 2001년 11월 5일 월요일 (2)

–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 펀드 수와 자산운용 규모가 크다는 것은 펀드 관리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 펀드매니저에 따르면 국내 투신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펀드매니저 1인당 적정한 관리 펀드 수는 10여개 정도이며, 채권형의 경우 5,000억~1조원, 주식형의 경우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언급

○ 펀드 사후감시 강화할 계획에 있는 재경부

– 재경부는 그 동안 펀드 감시 기능을 수행했던 수탁회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펀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재경부가 추진 중인 검토사항 중 업계에 알려진 내용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펀드 계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 감시 역할을 맡고 투신사의 펀드 계리업무 아웃소싱을 의무화한다는 것임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펀드 계리업무가 의무화돼 있고 펀드 자체에 감독이사를 두는 등 펀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익증권은 이 같은 기능이 없어 펀드 감시가 미흡한 상황임

– 펀드 계리업무를 일반사무수탁사에 아웃소싱할 경우 지금까지는 투신사가 비용을 자체 부담했지만 펀드에서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 관련 근거 마련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투신사들은 이 같은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모임을 통해 선택적 사항으로 이를 허용해 달라고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대형 투신사 12개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사무수탁사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투신사들의 반발이 교차하고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임

♣ 2001년 11월 6일 화요일 (1)

○ 연기금풀 운용기관 선정

– 5조원 규모의 연기금풀을 운용할 18개 기관이 11월 5일 최종 선정됨으로써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예정임

• 연기금풀 운용기관 및 운용 계획

운용 기관	투신사	운용 계획
주간 운용사	삼성투신운용	통합펀드 운용 (운용기준에 따른 자산 배분 수행,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판매회사	삼성증권	
일반사무수탁회사	에이엠텍코리아	
보관 수탁회사	조흥은행	
MMF 운용사	대한, 한국, 현대, LG 투신운용	현금성 자산 5% 이상, 유동성 자산 30% 이상
채권형 펀드 운용사	교보, 대한, 미래에셋, 주은, 한화, LG 투신운용	현금성 자산 5% 이상, 채권 70% 이상
채권혼합형 펀드 운용사	동원 BNP, 제일, 한국, 현대 투신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현금성 자산 5% 이상, 채권 50% 이상, 주식 40% 이하

– 이번 운용사 선정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투신운용사가 대거 탈락하고 대형 투신운용사가 대부분 선정돼 선정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운용보수율이 100점 만점 중 1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용사 자산운용 규모와 운용전문인력 수의 배점을 높임으로써 대형 투신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수수료 출혈 경쟁을 가져왔다는 후문임

•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한국투신운용의 경우 운용수수료로 초저가인 1.5bp (0.015%)를 써 내는 등 수수료 덤핑 논란이 일기도 했었음

♣ 2001년 11월 6일 화요일 (2)

○ 재간접투자 상품 (일명 Fund of Funds) 내년 도입 예정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대신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 상품이 내년 상반기 중 등장할 예정임
  - 재경부는 11월 5일 증권투자회사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현재 증권투자회사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자산의 5%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재간접투자 상품을 허용하기 위해 이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경부는 한 투신사가 자사 펀드끼리 서로 투자해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회사나 동일 계열의 펀드 상품에는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재경부는 이제까지 수익증권에만 허용돼 있던 금리스왑 거래를 수익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증권투자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사모 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는 2개 이상이 하나로 합치더라도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언급

○ 금감원 역외펀드 감독 대폭 강화

- 금감원은 11월 5일 재경부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 공시 및 감독 방식을 변경하여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모든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회사로 편입시켜 연말에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해야 함
  - 역외금융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변동금리부채권 (FRN) 등 부채성 증권 매입과 보증 및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회적 투자 행위도 해외 직접투자로 간주해 모두 공시 관련 대상이 됨
- 역외금융회사가 자회사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와 업종 제한 등 설립 규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및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됨
  -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 역외금융회사를 모금융회사에 연결해 감독하게 되며, 업무보고서 징구, 검사 시행 등으로 해외 점포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됨
-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거래를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위규 사실, 거래시의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구체적으로 고지해 거래를 자제토록 할 방침임
  - 다만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기존 역외펀드는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고해 역외금융회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음

♣ 2001년 11월 7일 수요일

○ 하이닉스 추가 상각 않기로 한 투신권

- 투신권은 지난 주 보유 하이닉스 채권에 대해 무보증으로 3년간 차환 발행키로 결정했으나 만기 연장에 따른 신용도 하락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상각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투신협회는 11월 5일 8개 투신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펀드 내에 편입된 하이닉스 채권을 추가로 얼마만큼 상각해야할 지를 결정하는 유가증권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
  - 그러나, 투신사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됐음
- 투신사의 하이닉스 채권 보유액 (단위: 백만원, %)

투신사	채권 금액	비중	회사명	채권 금액	비중
한투	407,675	34.0	한화	10,756	0.9
대투	63,866	5.3	한일	32,200	2.7
현투	70,000	5.8	SK	10,400	0.9
삼성	2,490	0.2	조흥	256,900	21.4
동원	20,000	1.7	한빛	20,329	1.7
서울	118,280	9.9	주은	112,500	9.4
교보	71,747	6.0	합계	1,198,143	100
신한	1,000	0.1			

- 투신사 관계자는 보증을 받지 못했지만 하이닉스가 이번 채무조정안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보유 하이닉스 채권을 추가 상각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음
  -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조차 형성되지 않는 하이닉스 채권이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상각 없이 시장에서 80%의 가격으로 매매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대우채 한도 초과 배상 권고

- 대한투신증권이 1999년 특정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제한한 규정을 어겨가며 대우중공업의 채권을 10% 이상 편입했다가 한도 초과분만큼을 고객에게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음
  - 대우채와 관련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 (10%)을 어겨 배상 권고를 받은 것은 한투증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임
- 금감원은 11월 6일 R모씨가 대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 조정건을 심의한 결과 지난 99년 대투증권이 R씨가 가입한 펀드에 대우중공업 채권을 15% 가량 편입하여 투자 한도를 위반했다고 인정
  - 대투증권으로 하여금 R씨 등 관련인에게 총 130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권고
- 대투증권은 이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해명

♣ 2001년 11월 8일 목요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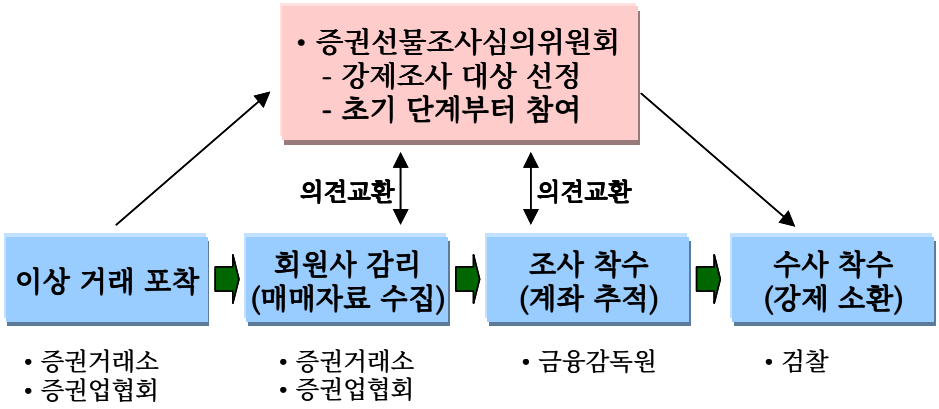
○ 증권선물조사심의위 발족

–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정부 및 증권 관련 기관 협의체인 '증권선물조사심의의원회'가 연내에 발족할 예정임

• 금감위는 11월 7일 증시의 불공정 거래 차단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증권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올해 중 운영키로 했다고 밝힘

– 증선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의장은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고, 금감위 조사정책조직 책임자, 금감원 조사1·2국장,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 임원이 위원으로 선임될 계획임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흐름도



• 강제 조사권 발동은 작전 혐의가 뚜렷한 불공정 거래로 제한키로 했음

○ 퇴직 생활자용 비과세펀드 연내 도입 예정

– 투신업계에 따르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 생활자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새로운 비과세펀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투신업계는 이미 신비과세펀드에 대한 필요성과 상품 구성안에 대한 검토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음

– 새로 도입될 비과세펀드는 고수익 창출을 위해 BBB 이하의 투기채가 편입되고 공모주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투신사들은 퇴직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시중금리의 2배인 8~10% 정도로 제시하고 1인당 가입한도는 1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임

– 세제혜택 등 신비과세펀드에 부여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무리없이 수용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 이전에 발매될 전망임

♣ 2001년 11월 8일 목요일 (2)

○ 대투운용 '아르헨티나 관련 채권' 손실 비상

- 대투운용이 아르헨티자 등 남미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가 아르헨티나가 사실상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바람에 손실을 볼 위험에 빠져있음
- 대투운용은 96년 12월 17일 대한글로벌공사채2호를 설정하고 JP모건사 중개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 등에 투자하는 브래디본드에 투자했음
  - 브래디본드란 89년 대외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진 남미 국가들이 채무구조 조정을 위해 신규로 발행한 채권임
  - 브래디본드는 뉴욕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며 전체 거래 규모는 $500억 수준이나 미국 정부가 지급보장한 것은 20~30%도 안되기 때문에 발행 당사국 대외 신뢰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됨
- 대한투신운용의 대한글로벌공사채2호는 국내 채권에 40% 가량 투자하고 JP모건이 발행한 외국증서 등에 60% 투자하는 구조로 돼 있음
  - JP모건측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서 발행된 브래디본드를 기초자산으로 외국증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함
  - 펀드 설정기간은 5년이며, 설정잔액은 666억원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환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고객 요구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해야하는 실정임
- 대투운용측은 JP모건측과 맺은 계약을 중도해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해약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1월 9일 금요일 (1)

○ 주은·국은투신 진로 관심

–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후 주은투신과 국은투신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투신업계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 주은투신 수탁고는 13조7,627억원, 국은투신은 2조86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친 수탁고는 총 15조8,487억원에 이름

- 이는 기존 투신사 순위를 뒤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수탁고 기준 4위인 현대투신(16조4,805억원)을 1조원 정도로 따라잡는 것은 물론이며, 6위인 제일투신 (10조8,130억원)과 5조원 이상 벌려놓게 됨
- 특히, 양사 통합 후 확보하게 될 펀드매니저 규모는 34명으로 삼성투신 39명에 육박하게 됨

– 최범수 국민은행 본부장은 창투, 리스, 투신 등 두 은행이 중복적으로 운영해 온 계열사 정리방향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

– 투신업계는 은행의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비중이 3년만에 10%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 된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두 투신사가 국내 투신업계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

○ 삼성투신 MMF 대형화

– 대형 펀드 육성이 각 투신사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투신운용이 각 펀드당 1조원이 넘는 MMF를 2개나 운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삼성투신이 운용하고 있는 '신종MMF23호'의 펀드 규모가 2조4,115억원이며, '신종MMF D-2호'도 1조9,895억원으로 운용되는 등 1조원이 넘는 펀드를 2개나 운용하고 있음

– 삼성투신이 이처럼 MMF를 대형화시킨 이유는 투자자들의 삼성투신에 대한 신뢰도가 한 몫 했기 때문임

- 삼성투신은 초단기 자금이 몰리는 MMF 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현재 5개 MMF만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정된 펀드를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추가 판매를 자제하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 대형증권사만 허용

– 금융감독 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을 자본금이 많고 위험관리 능력이 확실한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감독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장외파생상품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규모, 위험관리 수준, 내부통제시스템,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취급 능력을 갖춘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

♣ 2001년 11월 9일 금요일 (2)

○ 은행신탁 만기 규제 폐지

– 금감원은 11월 8일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힘

- 지금까지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경우 최소 만기가 6개월 (추가형은 3개월)로 운용하도록 제한돼 왔음

– 이 같은 만기 제한은 최근의 자금 단기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은행 신탁상품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음

- 금감원이 은행 신탁상품 만기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고객들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은행 신탁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음

–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확정배당신탁 8,900억원, 실적배당신탁 60조5,695억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투신권 주식 보유 줄여

– 주요 투신사들은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주식 편입비중을 급격히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제일투신은 테러 사태 이후 9월 말까지 주식 편입비중을 오히려 높였으며, 현투와 한투는 지난 10월 중 주식 편입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됨
- 11월 8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주요 투신사의 최대 주식 편입비중이 70% 이상인 성장형 펀드의 주식 편입비중은 미국 테러 사태가 터진 지난 9월 12일 이후 대부분 낮아졌음

– 주식 편입비중 추이 (단위: %, 억원)

투신사	9/12	9/29	10/31	수익률	설정잔고
현대	79.66	75.47	76.83	9.66	32,570
한국	63.64	61.52	62.01	7.27	22,357
대한	65.63	66.91	60.04	7.65	23,694
제일	67.90	76.21	73.24	8.71	12,432
삼성	72.48	73.69	72.94	10.21	5,187
동양	76.17	74.70	74.31	10.03	5,504
주가지수	475.60	479.68	537.81	12.11	

* 최대 편입비중 70% 이상인 펀드 기준이며, 수익률 산출 기간은 10월 한 달 동안임

♣ 2001년 11월 10일 토요일

○ 투신사 상품에 '저축' 용어 남발

– 정부가 실적배당형 상품만 취급하게 돼 있는 투신사 상품에 투자자가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저축형 상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후유증이 우려됨

-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투신,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증권 관계자들은 지난 99년 대우채 파동때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기관'으로 오인하게 했던 책임을 인정하며 투신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최고 대우채 원금의 95%를 보상해 준 사실을 지적

- 투신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AIG 곧 현투증권 인수 수정안 낼 것

– AIG 추가 특혜 요구로 현투증권 매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AIG가 조만간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증권 인수 관련 4개항의 추가 요구를 한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었으나, 수정 제안이 올 경우 제안 내용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고 언급

– 현재 AIG는 급격히 악화된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여 양보를 할지 아니면 지난 8월의 신주 인수가 인하 관철 때의 경험을 살려 밀어붙일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AIG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협상 중단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린 것으로 예상됨

- 인수가 하향 조정 때도 현대증권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인수가 하향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내에서도 AIG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매각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됨

♣ 2001년 11월 12일 월요일

○ 벤처 투자 손실 보전 백지화

- 재경부는 지난 11월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벤처 투자 손실보전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음
  - 재경부 관계자는 손실보전 제도는 수수료율과 손실보전 비율, 이익배분 비율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기술신보에도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금융 신상품이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가 많아 일단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언급
- 이 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기술신보가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법안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토록 했음

○ 펀드 금리스왑 거래 분쟁 소지 많다

-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리스왑 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 당사자간 분쟁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통 스왑거래는 투신사와 은행간 계약을 체결해 거래가 성사되지만 운용 주체가 불명확해 손실 발생시 손실 보전 주체를 둘러싸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증권투자회사와 달리 회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손실 책임 주체가 펀드인지 투신사인지 불명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됨
-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들의 손실 발생시 법적으로 펀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대우채 사태처럼 펀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투신사가 책임을 지는 관행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음

♣ 2001년 11월 13일 화요일 (1)

○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겸업 곧 허용 예정

-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사 겸업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법률 검토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음
  - 12개 자산운용사들 중 10개사는 증자 등을 통해 투신운용사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두 업계 장벽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임
-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경영 현황과 자본금, 운용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감위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현재로서는 허가 요건만 갖추면 겸업 허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임
- 10개사 중 미래에셋, 마이다스, KTB 등 자본금 100억원과 운용전문인력 7명 확보 등의 투신운용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5개사는 언제든지 투신운용업 겸업이 가능한 상황임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투신과 합병을 통해 투신업에 진출할 예정임
  - 나머지 5개사는 현재 70억원인 자본금에서 30억원의 증자만 하면 대체로 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신사와 동일한 자산운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을 취급하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겪어왔다고 불만을 토로

○ 장기 변동금리 예금 도입

- 금감원은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자금의 94%가 6개월 미만의 단기 상품에 집중돼 단기자금이 347조원에 달함에 따라 '장기 변동금리 예금제' 등 수신 구조 장기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음
  - 또, 금융기관의 수신 패턴 변화를 위해 장·단기간 신탁보수 요율 (은행신탁 수수료)과 펀드 운용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중장기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 억제 방안을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금감원의 파악 결과 지난 10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자금이 347조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한다고 밝힘
- 한국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금융시장의 단기 부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과 함께 재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단기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장기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1월 13일 화요일 (2)

○ **금리스와프·FRN·외화표시채 활용 채권형 펀드 인기**

– 금리스와프나 변동금리부 채권 (FRN), 외화표시 채권 등을 활용한 채권형 펀드에 시중 자금이 집중되고 있음

- 연말로 갈수록 금리 예측이 어렵고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들 채권형 펀드가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

–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의 '외환아비트라지채권형펀드'는 발매 일주일만에 1,200억원의 자금을 모아 지난 11월 9일부터 운용에 들어갔음

- 이 상품은 금리스와프와 FRN을 이용해 금리 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채권간, 채권과 파생상품간, 파생상품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함

○ **내년에 판매될 상장지수펀드 상장 기준 마련**

– 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판매되는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상장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음

– ETF 도입 기본 운영사항

-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형태의 주권 2가지가 허용되며,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의무화했음
- ETF는 기존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시장과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된 시장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ETF 펀드 대상이 되는 지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
- ETF의 공매도시 직전 체결가격 이하의 주문 (down-tick)을 허용하며, 시장거래에 필요한 NAV, 추적 대상 지수 등 공시사항은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실시간 30초 단위로 제공
- 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지정판매회사 (AP: Authorized Participant)를 2개 이상으로 결정했음

♣ 2001년 11월 14일 수요일

○ 공모가 결정기관 영향력 줄인다

– 내년부터 공모가격 결정 과정에서 3대 투신 등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임

-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기업이 공모가를 자율 결정하고 시장조성 등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한다는 취지임
- 그 동안 투신사가 배정물량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통해 기관의 횡포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주간사가 공모주식을 총액인수하고 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차별화된 가격에 배정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음

- 공모주식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종합주가지수 또는 업종지수 하락률 이상을 유지하면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

– 증권사들은 최근 이런 시장조성 의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 의견을 증협에 제출했음

- 시장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 구조조정법 적용 대상 기업 선정에 속앓이 하는 투신권

– 11월 13일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하반기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투신사들은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채권에 대해 부도 유가증권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20% 이상 수익률을 상각해야 함

– 투신권의 경우 지난 10월에만 하이닉스반도체 등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기업 회사채를 20%가량 상각한 상태인데, 또 추가 기업이 선정된다면 펀드 전체의 수익률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임

–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투신사들이 펀드 편입 채권을 시가 평가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힘

- 투신사 내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

♣ 2001년 11월 15일 목요일 (1)

○ 투신권 고객 소송에 몸살

– 투신사들이 고객과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 비용도 문제려니와 대부분 운용상의 손실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어서 영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투신사들은 명망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투신권 소송 진행 현황

회사명	소송인	소송 내용	재판 과정
한국투신증권	전기통신공사	99년 대우채 환매 연기 적법 여부	1심 패소, 항소 중
	개인 고객	대우채 10% 이상 편입 펀드 부당 여부	한투증권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중
삼성투신증권	현대정유	99년 대우채 환매 연기 적법 여부	1심 승소, 2심 진행 중
교보투신증권	삼천리	MMF 환매 연기로 손실 발생	12월 1심 예정
미래에셋자산운용	91명 개인고객	운용 미숙으로 펀드 수익률 -45% 발생	1심 계류 중

○ 판매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삼성증권

–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이 저마다 종합자산관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은행화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 판매사로서 삼성증권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삼성증권이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의 판매사로부터 선호되는 이유

-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조직이 주식 약정과 맞물려 관련 영업이 혼재돼 있는 반면, 삼성증권은 약정영업과 판매영업이 완벽하게 분리돼 있는데다 점포 역시 복층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판매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임
- 지난 해 말 수익증권 전문 판매 증권사였던 삼성투신증권을 합병해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상당수 확보해 판매조직으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운용사가 선호할 만한 제반 여건이 구비돼 있음
- 판매사의 오랜 관행이었던 펀드의 목표수익률 제시를 과감히 없애고 타 증권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장기적 플랜에 의해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평을 듣고 있음

– 한편, 업계에서는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판매 조직의 정비나 관련 직원들의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별로 판매력 차이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2001년 11월 15일 목요일 (2)

○ '주식모으기 펀드' 끝내 소멸

– 말도 많던 '주식모으기 펀드'가 발매 한 달여만에 사실상 소멸했음

- 이 펀드는 9·11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증시 부양책의 하나로 선보였음
- 그러나, 11월 14일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발매 보름 뒤 120억원이었던 '주식모으기운동 펀드'가 잇따라 환매되면서 수탁고가 10여억원 수준으로 급감했음

– 증시 관계자들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새로운 증권투자 상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장기증권저축을 허용하는 바람에 '주식모으기 운동 펀드'의 부진은 이미 예상됐다고 언급

- 변덕스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증권사와 투신사만 쓸데없이 힘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

○ 대우채 손실보전펀드 하이닉스 편입 후유증 일파만파

– 지난 99년 대우채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일반법인분을 제외하고 환매를 금지시켰던 수익증권의 손실 보전을 위해 다른 펀드로 전환돼 운용 중인 대우 손실보전펀드에 하이닉스가 편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증권사 지점을 중심으로 해당 금융기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등 파장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특히, 대우전환펀드의 만기가 11월 말부터 내년 봄까지 집중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채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투신사 관계자는 대우전환펀드는 대우채 편입 손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고 해당 금융기관들의 대량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

- 당시 투신사들은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이들 금융기관들의 자산을 옮겨 수익률을 보전해 준다는 이면 계약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

– 부실채권에 대해 20%씩 상각 작업을 통해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커지자 펀드 가입 금융기관들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

- 이로 인해 수익증권 환매 규모가 큰 몇몇 대형 투신사들은 이 같은 환매에 대비해 이를 재유치하기 위한 원금보장형 상품을 만들어 대체해 주겠다는 투신사도 등장하고 있음

–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잔고는 지난 99년 12월 29일 기준으로 금융기관분이 37조원이었으나, 그 후 2년 동안 환매를 해간 곳도 있어 현재 시점으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1년 11월 16일 금요일 (1)

○ 자산운용사 투신 업무 허용

- 국내 12개 자산운용사들에 투신업무가 허용돼 투신운용사로 변신이 가능해졌음
- 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11월 15일 금융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임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를 긍정적·발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자산운용사에도 투신운용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힘
  - 이 위원장은 제 1회 투신·자산운용회사 임원 모임에서 채권 시가평가제 시행, 환매제도 개선 등으로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언급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투신운용사 허가 요건인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갖춘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신운용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힘

○ 증권사에 장외 파생상품 허용

- 재경부는 11월 15일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에 다양한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
  -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회사들도 주식,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음
  - 이를 위해 11월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장외 파생상품은 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증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불허하고 있음
- 증권사 장외 파생상품 허용 방안

허용 상품	주식,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와프 ※ 신용파생은 불허
상품 취급 요건	· 자본금 500억원 이상 · 영업용 순자산비율을 일정 수준 (예: 300%) 이상 유지 ·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 규모 (예: 3,000억원) 이상 · 전문 인력,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구비 등

  - 거래 고객은 금융기관,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기관투자가로 제한되며,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됨
  -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규모 한도는 '보유 포지션을 시가로 평가해 산출되는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임

♣ 2001년 11월 16일 금요일 (2)

○ 국민연금 위탁 운용기관 선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월 15일 2차 위탁 투자분인 6,000억원을 운용할 회사로 19개사를 최종 선정·발표했음

	선정 운용사	펀드 특징
순수주식형	교보, 삼성, 템플턴, 하나알리안츠, 한국투신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밸런스, 코스모, 현대해상, CBF투자자문사	· 주식 90% 이상, · 3,000억원 배분
자산배분형	주은투신운용, 마이다스, KTB자산운용, 한셋투자자문	· 주식 60% 이상, · 1,200억원 배분
중소형주형	서울, 신영, 현대투신운용, 메리츠, 한가람투자자문	· 코스피 100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형 주식에 90% 이상, · 1,800억원 배분

- 이번 2차 선정시에도 대형 투신운용사들이 국민연금 1차 위탁투자에 이어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음
- 국민연금은 11월 16일 운용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장 상황을 보며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

♣ 2001년 11월 17일 토요일

○ 메릴린치 투신 서울사무소 폐쇄 결정

– 세계적 투자금융기관인 메릴린치 투자신탁의 서울 사무소가 폐쇄될 예정임

- 11월 16일 메릴린치 관계자는 메릴린치 본사에서 서울 사무소 폐쇄를 최근 통보해 왔다며 사무실은 연말까지 존속하고 내년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음
- 지난 95년 설립된 메릴린치 투신 서울 사무소는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해외 뮤추얼펀드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메릴린치 관계자는 서울 사무소의 역할은 홍콩 지사에서 대행할 방침이며 국내에서 판매한 400억원 규모의 해외 뮤추얼펀드 서비스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이로써 논의 중이었던 메릴린치 국내 투신사 설립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메릴린치 투신은 최근 미국 테러사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무소 형태로 남아 있는 한국 사무소를 폐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법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폴, 타이완, 태국, 인도 지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예정임
- 투신 부문과 증권 부문은 별개여서 국내에 있는 메릴린치 증권은 별도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해짐

○ 역외펀드 감독 대폭 강화

– 금감원이 해외 조세피난처 (tax-haven) 지역 금융감독 당국과 업무제휴 협정을 맺고 역외금융회사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임

-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16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 교류 등 업무제휴가 필요하다고 언급
- 우선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감독청 및 아일랜드 중앙은행 등 2개 조세 회피지역 감독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2개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활동 현황과 현지 당국의 감독 정책 및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임

-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수준을 금융회사의 자회사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금융회사 및 기업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실태를 일제히 보고토록 조치했음

–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라부안 (말레이시아령)에 20개, 아일랜드에 3개, 버진아일랜드 (영국령)에 2개, 케이만군도 (영국령)에 2개의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운용 중임

♣ 2001년 11월 19일 월요일 (1)

○ 채권 시가평가 내년 완전 민간 이관

– 채권 시가평가제 정착에 따라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이 내년부터 증권업협회에서 민간 채권평가사로 완전 이관될 예정임

- 지금까지는 투신권의 보유 채권 평가 기능만 민간이 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적용됨
-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 시가평가제 현실화 방안'을 오는 11월 21일 공식 발표할 계획임
- 투신권의 경우 채권 시가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증권업협회의 공시 채권수익률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민간 채권평가회사 2개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사용하도록 했음

–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1월 18일 투신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권에서는 현행 채권 시가평가제가 증권업협회의 고시가격을 그대로 준용하여 가격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언급

- 현재 비상장 채권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시장의 정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채권 시가평가제가 이처럼 완전 현실화됨에 따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신탁, 보험, 신용금고 등 금융권의 신탁상품 이자가 현행보다 최고 0.5% 정도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금융권 고유계정도 투자 중인 채권자산 금액이 줄어들어 투자한 자산에서 얻는 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

○ 은행들도 외국 펀드 판매 가세

– 은행들이 외국의 주식과 채권, 옵션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또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이 상품은 그 동안 투신 및 증권사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은행들이 이 시장에 가세한 것이어서 고객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외국계 투신사는 국내의 판매 및 영업망이 부족해 전국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판매 대행을 맡기고 있음

- 은행은 판매금액의 약 0.5%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2001년 11월 19일 월요일 (2)

○ **투신협회 펀드 정보료 내년 7월 재조정**

– 펀드내역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투신협회가 펀드 정보료를 내년 7월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투신협회는 지금까지 펀드 정보료는 정보의 판매 개념이 아닌 단순한 정보 공시의 차원에서 명목적으로 가격을 부과했음
- 앞으로는 제공 자료의 활용 목적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고 자료 활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임

– 투신협회 관계자는 펀드 정보 공개에 따라 협회 공시전산 시스템의 취급량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 관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포트폴리오 자료를 위한 신규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언급

- 회원사들로부터 신규 예산이 힘든 여건을 감안할 경우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제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11월 말부터 공개될 예정인 펀드내역 정보에 대한 현 가격 기준을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해당회사들의 수익과 매출에 비례해 가격을 책정할 방침임

- 투신협회는 공시 대상 펀드 중 장부가 펀드나 MMF, 미매각 펀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현재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

♣ 2001년 11월 20일 화요일 (1)

○ 투신사 중국 진출 신중론

– 대한투신증권, 한국투신증권 등 대형 전환 증권사들의 중국 진출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음

- 이들 투신사들은 최근 몇 달 전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서둘러 왔고, 지난 11월 11일 중국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이머징마켓에 따른 투자제한 등의 규정에다 이들 시장에 대한 투자 실패사례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신중세로 돌아선 상태임

- 투자제한 규정이란 금감원에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으나,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들 시장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공산이 커지자 신흥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공격적인 투자 추세가 한풀 꺾인 상태임

– 업계는 회사 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투증권의 경우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슈로더가 운용하는 차이나펀드를 이르면 12월말이나 내년 초부터 판매할 계획임

- 현재 대투증권은 슈로더와 펀드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외국계 자산운용사 상품의 추가 판매도 계획 중임
- 특히,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하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임

♣ 2001년 11월 20일 화요일 (2)

○ **대재해펀드 출시 예정**

– 오는 12월 중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인 '대재해 채권펀드' (일명 CAT Bond 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임

- 이 상품은 재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펀드를 조성하고 재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정부 또는 고수익을 노리는 투신사가 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대규모 테러나 홍수·가뭄·지진 등 큰 재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뮤추얼펀드에 접목한 것이며, 개인들은 투신사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이 펀드가 도입됐으며, 최근 세계무역센터 테러 여파로 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외 역외펀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기존 뮤추얼펀드에 적용하던 갖가지 제한을 과감히 풀기로 해 선진 금융상품 개발의 촉매제가 될 전망임

– 금감원은 11월 19일 대재해 채권펀드를 12월 중 도입키로 하고 현재 자산운용감독국과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등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상품 설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간접 부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힘

♣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

○ 12월 1일부터 독창적 투신상품에 독점 판매권 부여

- 12월 1일부터 독창적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선 최고 6개월 동안의 독점 판매권이 부여될 예정임
  - 투신협회 관계자는 11월 20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 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해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투신협회는 독창성 (40점), 투자 비용 (30점), 기여도 (30점) 등에 배점해 90점 이상이면 6개월, 75점 이상~90점 미만이면 3개월, 60점 이상~75점 미만이면 1개월 등의 독점적 판매권을 줄 예정임

○ 농협 12월부터 수익증권 본격적 판매

- 국내 최대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본격적인 수익증권 판매회사로 판매에 나섬에 따라 투신운용사마다 농협 잡기 경쟁이 불붙었음
  - 농협중앙회는 11월 21일까지 대한, 한국, 현대, 제일 등 15개 투신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상품 제안서를 받을 예정임
  - 농협은 11월 말까지 1~5개 상품을 선정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신권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시작할 방침임
- 농협 관계자는 그 동안 대우채 등 문제로 인해 투신상품을 취급해 오지 않았지만 초저금리 시대 간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
  - 전산 부담 때문에 초기에는 5개 이내 상품으로 제한해 판매할 계획이지만 향후 대상 운용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01년 11월 22일 목요일 (1)

○ **투신·자산운용사 펀드 직판 내년 허용**

–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직접 판매가 이르면 내년 초에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이는 지난 해부터 최악의 경영난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투신사들이 지속적으로 직접판매 허용을 건의한 데 따른 것임

– 11월 21일 금감원 관계자는 간접투자 상품 직접판매 허용에 대해 금감위 및 금감원 차원의 검토 작업을 마쳤다고 언급

- 현재 재경부와 협의 중이지만 제반 문제점이 쉽게 보완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 직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금감원은 방대한 영업망이 필요한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 상대로 MMF 등 대량 환매가 몰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유동성이 뛰어난 국공채형 상품만 직접 판매토록 할 것으로 알려짐

- 전산 투자를 줄이기 위해 은행 등 별도의 사무수탁회사에 계좌 관리 등을 맡기는 형태도 검토되고 있음

– 운용사 직판 문제는 최근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등에서 운용사가 직접 마케팅을 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커져왔음

- 최근까지 수익증권의 주된 판매 창구인 증권사들이 수익 잠식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기관들의 무리한 MMF 조기 환매**

– 최근 금리가 상승하자 은행,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투신권 MMF에 맡긴 자금을 무리하게 환매하는 바람에 투신사는 물론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 이들 대형 기관들은 최근 금리가 급등 양상을 보이자 펀드 만기가 되기도 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시한 수익률대로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투신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음

– MMF는 장부가 평가 방식을 사용하지만 엄연한 실적배당 상품으로 편입채권을 시장에 매도한 금액으로 환매해 주게 돼 있음

-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유동성 있는 채권을 우선 팔아 환매 자금을 마련하게 되므로 펀드 내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마저 떨어져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임

- 대부분 투신사 MMF는 11월 초만 해도 금리 하락으로 인해 편입 채권에서 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익을 거의 소진한 상태임

– 한 펀드평가사 관계자는 MMF의 편입채권을 제한하거나 듀레이션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금리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으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2001년 11월 22일 목요일 (2)

○ CBO펀드 원금보장 추진 논란

- 정부는 투신사 CBO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상품 약관 및 정관을 통해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 운용사인 투신사가 책임지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임
  - 이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신규 투자를 끌어들여 연말 자금시장 대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알려짐
- 이 같은 조치는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
  - 증권사, 은행 및 운용사들은 발행 당시 '상환보장 예치금' 등을 통해 손실을 부담했는데 추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문제가 된 CBO 채권은 지난 99년 8월 대우채 파동으로 투신사들의 대량 환매사태가 우려되자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 부실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것임
  - 만기는 최저 1년, 최장 10년으로 돼 있으며, 하이일드, CBO,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등 투신사가 운용하는 다양한 펀드에 분산 편입돼 있음
  - CBO 채권 발행잔액은 지난 해 말 현재 7조5,902억원임

♣ 2001년 11월 23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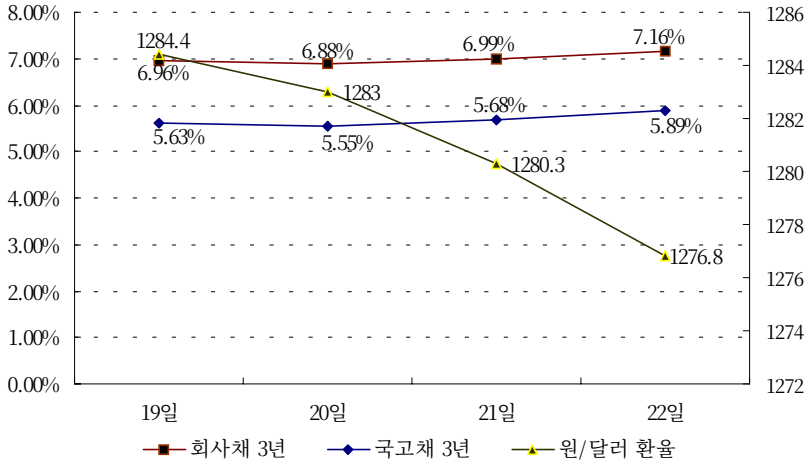
○ 금리·주가 급등, 환율 급락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대며 금리가 연일 크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1월 22일 채권시장에서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는 전일보다 0.21% 급등한 5.8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7월 5일 (5.9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3년 만기 AA- 회사채 금리는 0.17% 상승한 7.16%로 마감되어 7월 18일 이후 7%대 진입이 4개월만임
- 금리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국내·외 경기지표가 호전되며 바닥권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발언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짐

– 최근 환율 및 금리 동향 (단위: %, 원)



○ 부실채 펀드 환매 분쟁

– 대우증권은 서울투신과 조흥투신의 CBO 및 하이일드펀드 만기액 3,300억원 중 약 600억원을 가입자인 새마을금고에 돌려 주지 못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측이 실력 행사에 돌입했음

- 이는 새마을금고가 가입한 펀드에 편입된 하이닉스, 쌍용양회, 현대정유 채권과 서울보증채 등이 시장에서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임
- 새마을금고는 판매증권사와 투신사가 매각하지 못해 떠안은 손실을 즉각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감원은 판매증권사와 투신사가 나눠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의 원금을 보전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음

–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지난 해 대우채 편입 펀드를 95% 환매해 주고 그 돈을 다시 유치한 펀드 중 처음으로 만기가 된 펀드들이어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속출할 전망임

- 이처럼 대우채 펀드 환매자금을 재유치하면서 설정된 CBO 및 하이일드펀드는 약 6조원 규모로 내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예정임

♣ 2001년 11월 24일 토요일

○ 1조원 규모 연기금 통합펀드 12월초 운용

– 이르면 오는 12월초 5조원의 연기금풀 중 약 1조원 규모의 연기금 통합펀드가 위탁운용에 들어갈 전망임

- 기획예산처와 연기금 펀드 주간운용사인 삼성투신운용은 연기금 통합펀드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15개 개별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여 11월 중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 삼성투신의 한 관계자는 개별 펀드 운용성과를 3개월마다 평가하고 추가 자금을 집행할 때 차별화함으로써 펀드 운용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재벌계열 투신 및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정부는 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가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등록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정부는 11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합병·영업 양수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던 의결권 행사 가능 사례도 '합병·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 변경'으로 구체화 했음

– 정부는 당초 재벌 계열 여부의 구분 없이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음

♣ 2001년 11월 26일 월요일 (1)

○ 공적자금 투입 150조원 넘어

- 재경부가 11월 25일 발표한 공적자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50조6,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 지난 해 말 조성된 2차 공적자금 50조원 중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42조9,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10월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서울보증보험 출자 1조2,000억원, 대한생명 출연 9,000억원, 신용금고 및 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2,000억원 등임
  - 10월에 회수한 공적자금은 국민·주택은행 우선주 환매 2,000억원, 부실채권 매각 5,000억원, 파산 배당 2,000억원 등 약 9,000억원으로 총 37조7,000억원에 이름
  -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율은 전달 24.8%에서 25%로 소폭 상승했음
- 한편,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지금까지 부실 책임자 2,705명 (10월 3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1,229명 (10월 20명)에게 형사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됨
  -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와 보증인 3,263명에게 9,153억원 (10월 212명, 5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자료: 매일경제)

○ 내년 투신사 적기시정조치 발동 예정

-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전환 허용을 계기로 그 동안 유보해 왔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음
  - 아직 시행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징계 범위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자문사로 유도하여 투신사와 투자자문사로 재편하려는 게 금감원의 취지라고 언급
  - 금감원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려는 이유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여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
- 업계 전반적으로 자본잠식 등 회사의 자본구조보다는 펀드의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신사의 재정 상태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를 투자자문사로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투신사 관계자들은 이는 아직 '설'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다른 회사로 강제 전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

♣ 2001년 11월 26일 월요일 (2)

○ 12개 기금 자본잠식 47조원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관리 내역에 따르면, 231조에 달하는 57개 기금의 재무 현황이 국민연금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금융성 기금 (12개)은 전체적으로 47조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음
- 보훈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사업성 기금 (41개)은 부채 비율이 7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예산보다는 국민의 관심이 적은 기금을 재원 조달의 정책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종합관리부문, 사업운영 부문, 자산운용 부문 등으로 나눠 평가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60점에도 미치지 못한 기금이 무려 44개로 77.2%에 이름

- 주요 기금별 자산 규모 및 운용 실적 평가 (기준: 2000년 말)

기 금	자산 규모 (단위: 10억원)	평가 점수 (100점 만점)
국민연금기금	61,027.9	60.4
사립교직원연금기금	4,234.2	58.3
공무원연금기금	4,096.7	57.9
군인연금기금	340.1	49.8
군인복지기금	385.4	42.2
우체국보험기금	14,779.2	40.0
관광진흥개발기금	424.3	39.9
국민체육진흥기금	1,191.0	39.4
과학기술진흥기금	789.8	33.7
산업기반기금	1,554.4	33.1

- 이의원은 유사 기금의 통합 등 자구 노력은 물론이며, 상장법인 수준의 분기별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의

♣ 2001년 11월 27일 화요일

○ 내년부터 무보증 회사채 '건별 평가제' 도입 방침

- 금감원은 11월 26일 '기업 신용평가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이 시행하는 '건별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현행의 제도는 기업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한 번 평가를 받으면 이 기간 중에는 여러 차례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만약 내년에 '건별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은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매번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함
-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신용등급이 한 두 달만에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유효기간제는 기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
  - 이 같은 부작용으로 투자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 및 업계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 금감원은 '건별 평가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평가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산업은행 대우증권 주식 39% 매각

- 11월 26일 산은 관계자는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게속 둘 계획은 없으며, 가격만 맞으면 국내외에 상관없이 대우증권 지분 39%를 팔 방침이라고 밝혔음
- 산은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산은은 지난 해 말부터 은행을 축으로 증권 (대우증권), 투신 (산은투신), 캐피탈 (산은캐피탈)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미국계 PwC사에 컨설팅을 의뢰했음
  - PwC의 중간보고서 결과 산은의 지주회사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음
- 산은은 현재 대우증권 지분 39.09%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가가 주당 6,500원 안팎이지만 현 주가가 1만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할 때 산은은 약 3,000억원의 평가익을 내고 있음
  - 자본금 1조289억원 규모의 대형 증권사인 대우증권의 향방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1)

○ 투신 펀드매니저 수난 시대

–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투신업계 펀드매니저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등 수난 시대를 맞고 있음

-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신봉했던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그 동안 주식 편입비중을 너무 줄여 상대적으로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

– 종합주가지수는 10월 초 500.64에서 11월 26일 현재 674.56으로 두 달만에 무려 174포인트나 치솟았음

- 이처럼 지수가 급등하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펀드 운용으로 일관하던 투신권의 펀드 운용 행태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게다가 연기금이나 정통부 자금 등 기금들은 시스템 운용보다는 펀드를 담당할 개별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비중을 더 크게 두는 흐름이어서 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펀드매니저들은 옷을 벗을 공산이 더욱 커졌음

– 따라서, 투신업계 흐름이 횡보 장세나 침체장 때 강했던 보수적 펀드매니저 일변도에서 공격적인 펀드 운용의 장점을 지닌 펀드매니저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이 나오고 있음

- 투신권이 보수와 안정으로 대별되는 운용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장기증권저축 1조원 돌파

– 장기증권저축 판매 실적이 한 달만에 1조원을 돌파했음

- 증권업협회는 11월 27일 지난 10월 22일부터 증권사들이 판매해 온 장기증권저축 판매 실적이 1조56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힘
- 상품 형태별로는 직접투자형이 6,238억원으로 간접투자형 4,327억원보다 많았음
-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4,7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 (1,465억원), 현대 (848억원), LG투자 (778억원), 한투증권 (635억원) 순임

–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금 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상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

- 장기증권저축 하루 평균 판매액은 330억원이었으며, 최근 10일간은 하루 평균 635억원이 판매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2)

○ **현대증권 주가 상승으로 AIG 매각 협상 탄력 가능성**

– 현대증권 주가의 상승세로 인해 AIG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져 매각 협상을 앞당길 전망임

- AIG가 배정받을 현대증권 신주 인수가격이 7,000원이어서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AIG는 막대한 평가 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됨

– 최근 서울 증시가 달궈지면서 지난 11월 23일 9,950원에 장을 마친 현대증권 주가는 11월 27일 1만1,500원으로 마감해 AIG가 군침을 삼킬 만한 수준에 올라 왔음

- 현대증권 주가는 정부와 AIG가 MOU를 체결했던 지난 8월 23일 9,000원을 기록했으나, 미 테러가 발생한 9월 11일 8,100원, 12일 6,890원으로 감소했음

– AIG는 이를 빌미로 지난 10월 23일 5개 사항을 추가 요구하며 협상을 완전히 돌려놓았지만, 현대증권 주가가 급등하면서 추가로 내걸었던 요구 사항을 계속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됐음

- AIG는 지난 10월 23일 현대증권측에 배당률을 7%로 상향 조정,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전환시기를 1년으로 단축, 5년 뒤 투자원금 상환받을 권리 부여, 현대증권을 통한 현투증권 재출자금에 대한 콜옵션 부여, AIG 보유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의결권 부여 등 5개항을 요구해 왔음

○ **계열사 주식 보유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30%까지 행사**

–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들이 계열사 주식의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돈으로 계열사에 출자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공정거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월 27일 밝혔음
- 현행 규정으론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공정위는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에서 '계열사의 동일인측 총지분율 30% 미만인 경우'에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었음

- 그러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특수관계인과 합해 30%가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문구를 수정했음

– 당초 안으론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이 오너 등의 지분을 합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을 경우 30%가 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음

- 개정안에서는 오너 등과의 지분을 합해 30%까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짐

–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대형 우량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롯된 것임

♣ 2001년 11월 29일 목요일 (1)

○ 비과세저축 중복 가입 가능

– 11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저축 한도가 금융권 통합 한도로 개정됨

-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 전산망을 본격 가동하고 비과세 상품의 1인 1통장 제도를 폐지키로 했음
- 대신 은행, 투신사, 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비과세저축 상품의 통합 한도제를 실시할 예정임
- 비과세저축 통합 한도

비과세 상품	통합 한도 (단위: 만원)	판매 시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분기당 300	2003년 말
생계형저축	2,000	
근로자우대저축	분기당 150	2002년 말
연금저축	분기당 300	
근로자주식저축	3,000	2001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 120~144	2003년 말
조합예탁금	2,000	2003년 말
조합출자금	1,000	
고수익고위험신탁	3,000	2002년 말
장기증권저축	5,000	2002년 3월 말

– 만일 중복 가입 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때는 다른 비과세상품 가입이 제한되며 중복 계좌를 일반 과세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함

- 일반 과세상품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나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 일부만 전환할 수는 없고 계좌 전체를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함
-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과 장기증권저축은 1인 1 금융기관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무산 위기에 대한 논란

–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정부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염려가 높아지자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음

- 투신사 관계자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그 동안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것이 무산되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언급

–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 37%선으로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임

– 정부와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음

- 정부가 연초부터 연기금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고 투자 확대를 종용해 오다 정치권의 반대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 2001년 11월 29일 금요일 (2)

○ '장기증권저축' 1조원 판매 편법 가입 극성

-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한 '장기증권저축'이 증권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경쟁으로 편법 가입이 늘어나면서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오고 세금만 축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상품 발매 이후 가입 실적이 저조하자, 거래 기업체 임직원들의 우리사주를 상품에 편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장기 휴면계좌 및 기존 고객의 예탁금을 장기증권저축 계좌에 편입하는 편법을 동원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사주 보유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재매입 하기까지 2~3일간의 대금 결제기간 동안 주가 상승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파는 즉시 사들일 수 있도록 최고 100%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증권사는 실적을 올리고 우리사주 보유자는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음
-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식거래가 뜸한 장기 휴면계좌와 기존 고객의 계좌를 '장기증권저축' 계좌로 둔갑시키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증권저축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
  - 11월 26일 현재 34개 증권사의 장기증권저축 가입 실적은 1조565억원 (직접형: 6,238억원, 간접형: 4,327억원)으로 1개월여 만에 1조원을 넘어섰음

○ MSCI 지수 한국 비중 증가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 지수의 산정 방식이 12월 1일부터 바뀌게 됨
  - MSCI 지수는 산정 방식이 기존의 시가총액 방식에서 Free Floating 방식으로 전환돼 MSCI 지수의 한국 증시 비중이 확대되며, 이것이 한국 증시에 유리할 것임
  - Free Floating 방식이 적용될 경우 계열사 및 대주주 소유 주식 등 비유동적인 주식은 총 주식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유동 주식으로 지수가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기업의 편입비중은 커지게 됨
  - 다만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이번에는 유동성 기준을 50%만 반영하고 내년 5월에 완전히 반영할 것으로 알려짐
- 변경될 지수 산정 방식에 따르면 미국, 영국, 한국 증시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한국 증시의 경우 '신흥시장 지수' 기준으로 비중이 1.54% 포인트 늘어남
- 시장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3조 규모의 자금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수 개편은 일종의 지각 변동이이라고 언급
  - 전반적으로 신흥시장의 비중이 축소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 2001년 11월 30일 금요일

○ 배타적 우선 판매권 확보위해 금융권 신상품 경쟁

– 오는 12월 1일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베낄 수 없도록 규제됨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각 금융기관들이 '1호 상품'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배타적 이용권을 확보한 상품 1호는 각 금융권별로 상품 개발에 관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데다 마케팅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임
- 각 금융권 1호 상품은 각사가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도 매우 주목되는 상품임
- 특히, 상품 개발 주기가 짧고 신상품 개발이 영업 실적으로 직결되는 생명보험업계는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전까지 마다하지 않는 치열한 상품 개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임

○ 투신권 자금 이탈 본격화

– 11월 29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11월 27일 현재 투신권 수탁고는 159조8,700억원을 기록하여 지난 8월 11일 160조원을 돌파한 뒤 3개월여 만에 다시 160조원 밑으로 떨어졌음

- 투신권 수탁고는 지난 4월 'MMF 환매 대란'을 겪은 뒤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10월에는 170조원을 상회하기도 했음

– 11월 들어 투신권에서의 자금 이탈은 금리 급등 영향에 따라 MMF를 비롯한 채권형 펀드에 집중되고 있음

- 11월 27일 현재 MMF는 4조3,338억원, 장·단기 채권형 펀드는 2조5,322억원이 감소했음

– MMF는 시기적으로 연말을 맞으면 수탁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탈 속도가 더욱 확대되는 느낌을 주고 있음

- 일반적으로 MMF는 연말이 되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는 은행들과 회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이탈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지난 해의 경우도 12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약 7조원 정도의 MMF 자금이 빠져나간 적이 있어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MMF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신평, 무디스에 매각

– 한국신용평가가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에 매각될 예정임

- 한신평 관계자는 11월 29일 보유 중인 한신평 지분 40%+1주를 무디스에 넘기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공식 합의서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매각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현재 한신평 지분 10%를 보유한 무디스는 5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

12월 December

10대 주요 기사

1. 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및 투기채 펀드 현황
   (7일, 11일, 27일)
2. 동일종목 투자 한도를 위반한 투자 손실 펀드 투자자에게 일부 배상 판결 (11일)
3. 금감원 장기증권저축 편법 가입 조사
   (13일)
4. JP모건과 $1억의 분쟁에 휩싸인 대투
   (14일, 15일, 17일)
5.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유보
   (21일)
6. 자산운용사 투신사 전환 다각도 모색
   (24일)
7. 보험업법 시행으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기대 및 우려
   (24일, 31일)
8. 삼성생명 자산 4조원 삼성투신에 위탁 운용 추진
   (26일)
9. 외국인 펀드 일괄매매 허용
   (28일)
10. 일부 대형 투신사 스팟펀드 안판다
    (28일)

◈ 12월 목차 (12/1-12/10)

12/1 (토)	○ 한투·대투 정상화 청신호 ○ JP모건 채권지수에 한국국채 편입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12/2 (일)	
12/3 (월)	○ 한투운용 내년 UBS에 매각될 듯 ○ ECN 시장 개장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정 애로 ○ 펀드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 ○ 국민리스 손실 탕감 요구에 투신사 반발
12/4 (화)	○ 공적자금 국민부담 142조원 ○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출범
12/5 (수)	○ 조흥투신운용 연내 해외 매각 ○ 국민연금 투신서 2,725억원 회수 ○ 외국 수익증권 적격 기준 등 국내기관 투자 규제 풀린다 ○ 중국내 뮤추얼펀드회사들 외국계 파트너 구하기 분주 ○ 현투증권 매각 본 계약 12월내 체결될 듯 ○ 보험사 주식투자한도 폐지 현실성 없다는 지적 잇따라
12/6 (목)	○ 투신사 투기채 활성화 방안 건의
12/7 (금)	○ 금감원 투신사 후순위채 손실 보전 강구 지시
12/8 (토)	○ MMF 환매유예제 폐지 예정 ○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뮤추얼펀드 수익률 1위
12/9 (일)	
12/10 (월)	○ 자산운용 아웃소싱 시대 확산 ○ 예보 보험료율 차등화안 사실상 확정

◈ 12월 목차 (12/11-12/20)

12/11 (화)	○ 투기채 펀드 내년 상반기까지 8조원 만기 도래 ○ '제일투자신탁증권'사가 '제일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 동일종목 투자 한도 위반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 일부 배상 판결 ○ 금감원 신용평가 유효기간 폐지 추진 ○ 자금이 모이질 않는 연기금 투자풀
12/12 (수)	○ MMF의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 축소 계획 ○ 연기금풀 12월 5천억원 운용 계획
12/13 (목)	○ MMF 및 고수익 펀드 전면 검사 ○ 금감원 장기증권저축 편법 가입 조사 ○ 외수펀드 자금 유입 활기 ○ 세종투신 모건스탠리에 매각 예정
12/14 (금)	○ 대우증권 국내 업체와 매각 협상 ○ 은행신탁상품 시가평가 의무화 앞두고 채권평가사 수주 경쟁 치열 ○ JP모건과 $1억의 분쟁에 휩싸인 대투
12/15 (토)	○ 도이치신탁운용 예비 허가 ○ 재경부 이자·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비과세상품 줄이기로 ○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손실 및 분쟁 사례
12/16 (일)	
12/17 (월)	○ 장기증권저축 2조원 육박 ○ 대투운용 JP모건에 대해 소송 제기 ○ 펀드 회계처리 업무 관련 전문인력 확보 시급
12/18 (화)	○ 재벌 금융사에 계열사 의결권 30%까지 허용 ○ 차익거래펀드 옵션에서 손실
12/19 (수)	○ UBS운용 연내 한투운용 인수의향서 제출 ○ 금감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 ○ 내년부터 우리사주 성과급 허용
12/20 (목)	○ 금융 법안 무더기 표류 ○ '차이나펀드' 인기

◈ 12월 목차 (12/21-12/31)

12/21 (금)	○ 내년 세계 증시 대체로 상승 기대 ○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유보
12/22 (토)	○ 중국도 경제위기 가능성 ○ MMF 편입 증금어음 비율 내년 2월부터 6%로 인하 ○ AIG 현투매각 본 계약서 초안 전달
12/23 (일)	
12/24 (월)	○ 증권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2억원으로 하향 조정 ○ 자산운용사 투신 전환 합종연횡 ○ 변액보험 시장 내년 급팽창 예상
12/25 (화)	성 탄 절
12/26 (수)	○ 삼성생명 자산 4조원 삼성투신에 위탁 운용 추진 ○ 공적자금 남은 자금 4조8,000억원뿐
12/27 (목)	○ 우리금융지주회사 대우증권 인수 유력 ○ 증권 금융상품 국가표준 제정 ○ 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비상
12/28 (금)	○ 일부 대형 투신사 스팟펀드 안판다 ○ 200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관련 제도 ○ 하나·제일은행 내달 합병 ○ 장기증권저축 2조5천억원 돌파 ○ 외국인 펀드 일괄매매 허용
12/29 (토)	○ 투신권 주식 매집 본격화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운용사별 격차 심화
12/30 (일)	
12/31 (월)	○ 계열투신사에 자산운용 위탁 공정성 여부 논란 ○ 국민연금 벤처펀드 결성 각축전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기대 및 우려

♣ 2001년 12월 1일 토요일 (1)

○ 한투·대투 정상화 청신호

-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올 들어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돼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
- 한투증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순이익이 578억원으로 지난 해 회계연도 (2000.4.1~2001.3.31) 순이익 29억원보다 무려 1,893%나 증가했다고 밝힘
  - 하이닉스, 현대건설 채권 등 우발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유 주식 매각 등으로 이익을 극대화해 2003년 이후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한투증권은 11월 30일 보유 주식 매각과 미매각 수익증권 해지, 외자유치 등을 통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2003년까지 1조원 내로 축소하겠다며 자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밝혔음
- 대투증권의 경우 4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84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 해 회계연도 1억원 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음
  - 대투증권 한 관계자는 대우채를 조기 회수하고 운용사 지분 51%를 2,500억원에 매각하는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며, 자기자본 비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

○ JP모건 채권지수에 한국 국채 편입

- JP모건은 한국의 국채 지수를 오는 12월 3일부터 'JP모건 글로벌본드인덱스브로드(이하 GBIBroad)'에 편입시킨다고 11월 30일 발표
  - JP모건의 GBIBroad는 미국, 영국, 일본 등 13개 선진 채권시장 지수로 구성된 글로벌본드인덱스에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현재 선진화가 진행 중인 채권시장 국채지수를 포함한 것임
  - 주식시장에서의 MSCI지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전세계 채권 펀드 및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음
- 12월 3일 GBIBroad에 편입되는 한국 국채 지수에는 시장 유동성을 지닌 잔존만기 1년 이상의 국고채, 외평채 및 통안증권 등 17 종목이 포함되며 전체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6%임
  - 업계에서는 이번 편입을 계기로 국제 채권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01년 12월 1일 토요일 (2)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 (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음

- 무디스는 11월 30일 임시 신용등급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의 대외 부문 안정성이 높아지고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책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음
- 무디스는 한국의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을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음

–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무디스의 연례 협의 및 평가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현재의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아울러, 국가 신용등급 전망 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서울시, 대구시의 신용등급 전망도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

♣ 2001년 12월 3일 월요일 (1)

○ 한투운용 내년 UBS에 매각될 듯

– 한국투신운용이 이르면 내년 중에 UBS자산운용 그룹에 넘어갈 전망임

- 한투운용 관계자는 한투운용 지분 50% 가량을 UBS에 넘겨 3,00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한투증권이 한국투신운용 (자본금 300억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한 관계자는 한투운용의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정부 출자 주식과 수익증권 매각 등으로 1조4,714억원을 조달해 2조2,500억원에 달하는 한투증권의 차입금을 2004년까지 7,000억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

- 이렇게 되면 2002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어 4년 후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기업은행 주식은 주가가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일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ECN 시장 개장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정 애로

– 12월 27일 개장되는 ECN과 관련해 펀드 기준가 처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투신사의 관심이 몰리고 있음

- ECN 시장의 도입으로 정확한 펀드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ECN 시장에서 운용되는 펀드의 거래비용이 기준가 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 현재 오늘 ECN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다음날 기준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모래 기준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으며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

- ECN 시장에서의 펀드 거래는 기준가 산정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과 운용부담으로 펀드의 전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 2001년 12월 3일 월요일 (2)

○ **펀드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

– 수익증권 회계처리 기준이 새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실무상 적용 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업계 통일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

- 통일된 지침이 없다보니 투신사별로 회계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펀드 기간 손익 및 투자 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임
- 특히, 예상 배당률 산정의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해 배당률이 서로 상이하게 나오는 실정임
- 이와 함께 새로운 회계기준 및 해석의 불충분, 부적절한 계정과목 선정 등 회계처리 방법의 미숙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투신업계는 협회 주관하에 업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작업을 벌여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

– 이와 더불어 현행 증권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형태가 단순히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원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 상품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재무제표가 작성 및 공시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재무제표 양식을 일반회사의 재무제표 양식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국민리스 손실 탕감 요구에 투신사 반발**

– 지난 해 사적화의에 들어간 국민리스가 최근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39% 할인된 61%의 가격으로 되사겠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대해 투신권은 작년 국민리스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일부 채무에 대한 탕감과 채무 유예를 해 주었으며, 2007년까지 워크아웃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가 손실 탕감 요구는 곤란하다고 주장

– 업계는 국민리스가 이처럼 할인 가격을 제시하며 관련 채권을 재매입하겠다는 것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손실 폭을 최대한 줄여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국민리스의 이 같은 요구가 대주주인 국민은행의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단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은행측의 자회사 관리 방식과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추측됨

– 특히, 약 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투신은 국민리스의 손실 탕감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AIG측의 협상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국민리스의 원금 회수율을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결과 원금회수율이 87%로 나와 정부기관인 캠코와 예보가 이를 매입할 예정임
- 그러나, AIG측은 회수율을 40%로 추정해 정부가 추정한 회수율과의 갭을 나중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2001년 12월 4일 화요일

○ 공적자금 국민 부담 142조원

–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원금 손실과 이자비용 등을 합쳐 모두 142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 부담'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들어간 158조9,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원금 손실만 87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
-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주식들의 평균 주가가 3,000원으로 오르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원금손실 규모와 전체 국민 부담은 81조2,000억원과 135조9,0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분석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 부담 (단위: 조원)

기관	투입 형태		국민부담액
예금보험공사	원금 손실		58.4~63.7
	이자 지급		29.6
	기회비용		0.2
	추가 투입	원금 손실	12.5
		이자 지급	7.9
		회수자금 재투입	7.8
자산관리공사	원금 손실		2.5~3.5
	이자 지급		7.3
정부 및 한은	원금 회수 불능으로 인한 기회비용		9.7
합 계			135.9~142.2

○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출범

– 정부는 12월 3일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을 공식 출범시키고, 초대원장에 신동규 전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한 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하는 것이 임무
-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됨

– 금융기관들은 향후 자금세탁 혐의나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우리나라 원화 거래의 경우 건당 5,000만원, 외화 거래는 건당 $1만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음
- 아울러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게 됨
- 만약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자료를 통보 받은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면 범죄자의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

♣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1)

○ 조흥투신운용 연내 해외 매각

– 조흥은행 계열사인 조흥투신운용이 올해 안에 외국계 대형 보험사에 팔릴 전망임

- 조흥은행 관계자는 12월 4일 조흥투신 지분 49%를 외국계 회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거의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조흥투신 지분 매입을 원하는 기업은 세계적인 보험사인 것으로 알려졌음

– 조흥은행은 현재 조흥투신 지분 80%를 갖고 있으며, 조흥투신 지분 49%와 경영권을 모두 외국회사에 넘겨 매각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해짐

- 만약 매각이 성사될 시 조흥은행은 투신사 매각대금으로 400억원~50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알려짐

○ 국민연금 투신서 2,725억원 회수

–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1일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자금 3,800억원 중 2,725억원을 지난 12월 3일까지 환매한 것으로 확인됐음

- 이번에 국민연금이 환매한 자금을 투신사별로 보면 주은 350억원, 신영 475억원, 대한 350억원, 대신 600억원, 조흥 475억원, 제일투신 475억원 등임
- 작년 같은 날 투입한 LG투신 600억원과 한일투신 475억원의 자금은 아직 환매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은 작년 10월 말 투입했던 자금 2,600억원 중 삼성투신 500억원을 제외한 2,100억원도 환매했음

– 국민연금은 투신사 수익증권을 대부분 자문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어서 작년 12월 21일에 투입한 3,000억원도 만기가 되면 대부분 환매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외국 수익증권 적격 기준 등 국내기관 투자 규제 풀린다

– 금감원은 12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의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외국 수익증권 투자를 자유롭게 할 예정임

- 금감원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판매되는 외국 수익증권은 현재 외국에서 발행 규모의 25% 이상을 소화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는 적격 기준과 매매거래 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자기보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 보호 기준을 없앴으나, 일반인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수익증권을 판매하려면 금감원에 신고하고 수익증권의 적격 기준을 정해 투자자를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격 기준을 없애 기관투자가들의 외국 수익증권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의 등록처리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투자자문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금감위 승인 사항에서 금감원장 승인 사항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음

♣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2)

○ 중국내 뮤추얼펀드 회사들 외국계 파트너 구하기 분주

– 시장 자율화를 앞두고 중국내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외국계 파트너 구하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 중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뮤추얼펀드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2% 내외에 불과하나, 향후 그 비중은 크게 늘어나 중국 증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증권거래규제위원회는 선진 펀드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적극 권유하고 있음

– 외국계 파트너로는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회사들은 일본과 아시아계 회사들보다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

- 중국측의 이런 적극적 구애에 대해 미국과 유럽계 회사들은 한결같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도상으로 외국계 회사는 중국내 특정 뮤추얼펀드 1개사와만 제휴가 허용되므로 각사의 구애를 이리저리 재고 있기 때문임

– 중국계 주요 뮤추얼펀드의 외국계 파트너 확보 현황

중극측	외국계 파트너
중국남방 펀드매니지먼트	HSBC 에셋 매니지먼트
후안 펀드매니지먼트	JP모건체이스
펑후아 펀드매니지먼트	INVESCO
창셍 펀드매니지먼트	ABN암로에셋 매니지먼트
디쳉 펀드매니지먼트	도이체에셋 매니지먼트
풀골 펀드매니지먼트	뱅크오브몬트리얼
갤럭시 증권	슈로더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중국남방 증권	코메쩨트뱅크

○ 현투증권 매각 본 계약 12월내 체결될 듯

– 현대증권과 AIG 컨소시엄이 그 동안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을 모두 해소하고 정부와 AIG가 현대투신증권 매각을 위한 본 계약을 연내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대증권은 12월 4일 현대증권 인수를 위해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대신 보통주를 인수하고, 현대증권이 현대투신 출자분 4,000억원을 AIG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갖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AIG는 현대증권의 현대투신 출자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되 행사가격을 당초 AIG가 제시한 안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음
- 이로 인해 현대투신증권이 정상화될 경우 AIG는 콜옵션을 행사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고 현대투신증권의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현대증권은 풋옵션 행사로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임

–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증권과의 협상에서 AIG가 그 동안 요구해 온 다른 조건들을 철회했고 정부와 AIG간 협상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내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2001년 12월 5일 수요일 (3)

○ 보험사 주식투자 한도 폐지 현실성 없다는 지적 잇따라

– 정부가 지난 12월 3일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율은 9월 말 현재 3.7%에 불과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기존의 40% 주식투자 한도에서 무제한으로 한도를 늘린 것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 생보업계의 경우 총자산 129조4,554억원 중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4조4,584억원으로 3.4%이며, 손보업계는 총자산 30조9,117억원 중 5.0%인 1조5,463억원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 이처럼 보험사의 주식 투자액이 적은 것은 지난 해 모든 보험사들이 주식 투자로 거액의 평가손을 입어 지급여력 비율 등이 급락하자 올 들어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기 때문

- 더욱이 보험사들은 지난 해 주식투자 후유증에서 벗어나면서 자산운용 패턴을 이자수익 위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임

- 결국 재경부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임

–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관계없이 주식투자는 회사 내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총 자산 중 7%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 비율을 늘리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올 들어 보험사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개편이고 이 중 핵심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인데 정부가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임

♣ 2001년 12월 6일 목요일

○ 투신사 투기채 활성화 방안 건의

– 투신사들이 투자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고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와 CP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에 나섰음

- 이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라이머리CBO를 중심으로 투기채 풀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도가 소진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프라이머리CBO 한도 소진 기업을 중심으로 투기채 풀링을 실시하고 투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등급 ABS를 발행한 뒤 발행기업이 후순위채 일정 부분을 재인수하는 신용보강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ABS 형태의 풀링 방안 중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인수된 후순위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충당금 설정 및 손비 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임

– 투기채 모펀드를 설정할 경우 감독규정상 일부 자전거래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

- 투기채를 100% 편입하는 모펀드 설정시 일부 해지를 통한 자전거래 허용과 기존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돼 펀드 편출입이 제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채권의 예외적 편입도 허용할 것을 건의

♣ 2001년 12월 7일 금요일

○ 금감원 투신사 후순위채 손실 보전 강구 지시

– 금감원은 투신권 잠재 부실로 지목되고 있는 투기채펀드 편입 후순위채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투신사에 지시했음

-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7일 투기채펀드 편입 후순위채의 기초자산이 부실화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장부가로 평가되는 탓에 우려할 만한 잠재 부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부실 발생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잠재 부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돼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펀드에 편입된 6조원대 규모의 후순위채는 이미 현대건설 등 일부 기초자산이 부실화한데다 만기가 최장 10년에 달해 추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발행 후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면서 역마진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 금감원은 손실 책임 주체에 대해선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펀드는 가입자들이 아닌 판매사와 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후순위채의 만기를 재조정하고 발행 금리를 낮추는 등의 리스케줄링 및 SPC의 여유 자금으로 만기 도래 후순위채를 재매입하는 buy back 등의 손실 축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01년 12월 8일 토요일

○ MMF 환매 유예제 폐지 예정

– 투신권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의 15일간 환매 유예 제도가 이르면 12월 중순쯤 폐지될 예정임

- 금감위는 12월 7일 간담회를 갖고 환매 연기시 발생하는 환매 기준가격 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간의 환매 유예 기간을 없애고 채권형의 경우처럼 환매일의 기준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상품 약관을 개정할 계획임

– 현재 가입자가 MMF를 환매시 환매 신청일 기준가격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으나 투신사들이 신청 당일 금리가 급등해 편입한 채권 값이 하락하는 등 변화가 있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 때 지급하지 않곤 했음

- MMF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환매 요청시 즉시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15일 이내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과는 달리 환매 연기시 환매 유예 기간을 15일까지 주지만, 약관의 경우 기준가 산정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금감위는 다음 주 금감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확정·의결한 뒤 곧바로 시행하되 신규펀드부터 적용받도록 할 계획임

○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뮤추얼펀드 수익률 1위

–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 가운데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2월 6일 온라인 금융사이트 CBS 마켓워치와 펀드평가사인 리퍼에 따르면 한국 투자전문 펀드인 '매튜코리아'가 연초 대비 12월 6일까지 69.31%의 수익률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음
- 2위는 러시아 주식에 투자해 67.33%의 수익을 올린 필그림 러시아, 3위는 미국 등의 소형주에 투자하는 슈로더 캡울트라 (66.63%) 순임

– '매튜코리아'는 전체 자산의 65% 이상을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굿모닝증권, 하나은행, KTF 등 불루칩과 금융주를 주로 보유하고 있음

- '매튜코리아' 펀드는 1995년 1월 만들어진 $1억2,500만 규모의 뮤추얼펀드임

♣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 자산운용 아웃소싱 시대 확산

– 삼성생명이 자산운용 부문에 대해 아웃소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신업계의 판도 변화와 더불어 향후 운용전략 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향후 기관들의 자산운용의 방향이 삼성생명의 경우처럼 전문 운용사에게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발전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회사 형식의 운용조직으로 분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보험사들은 역마진을 뚫기 위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가 지상 과제로 돼 있지만 운용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인력의 충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 은행신탁 또한 향후 운용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신탁자산을 운용하게끔 돼 있지만 아직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은행 등 기관들은 자산운용까지 한 기관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기존의 마인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구현하자는 새로운 마인드로 변모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보험이나 은행들이 이처럼 자산운용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비용 절감 외에도 운용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언급

- 결국 투신사에게도 인력 확보와 시스템 등 운용 인프라 구축이 향후 과제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은 장기 자산에 대한 운용전략의 다각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투신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예보 보험료율 차등화안 사실상 확정

– 예보는 이미 예금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 도입과 관련 보험금 책정 기준 및 이를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실상 실무 작업에 착수했음

- 예보 관계자는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부보기관에 대한 보험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대비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줄이며 공적자금 회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예금 보험료율의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면 우량 금융기관과 부실 금융기관과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벌어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

– 이와 함께 재경부는 공적자금 손실 분담의 방안으로 특별보험료를 도입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적자금 손실 금액이 추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1)

○ 투기채 펀드 내년 상반기까지 8조원 만기 도래

–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 상품 규모는 모두 7조9,804억원에 이름

- 특히, 3월과 6월의 만기 규모는 각각 2조5,747억원과 1조7,520억원임
- 고수익 펀드 만기 도래 금액 (단위: 억원, 10월 말 기준)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뉴하이일드펀드	합 계
2001년 12월 말	3,705	486	3,749	7,940
2002년 1월 말	3,998	–	1,711	5,709
2월 말	1,757	565	3,789	6,111
3월 말	18,836	4,073	2,838	25,747
4월 말	5,067	197	2,870	8,134
5월 말	5,565	106	2,972	8,643
6월 말	382	49	17,089	17,520

– 증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채권형 고수익 상품의 이점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발행된 상품의 만기가 무더기로 돌아오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지난 해 최고 20%대에 육박했던 고수익 상품 수익률이 올 들어 최근 8%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음

– 향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수익 상품에 가입할 경우 판매 상품에 어떤 채권이 들어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시중에 잘 유통되지 않는 채권을 보유한 일부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채권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매 요청을 거절한 사례가 발생
- 이에 대해 정부측은 판매회사는 최선을 다해 상품 내에 편입된 부실채권을 팔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돌려 주어야 하지만 부득이 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임
-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 상품에 편입돼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는 지난 10월 말 현재 모두 9,821억원에 이름
- 여기에 쌍용양회, 현대상선, 현대석유화학, 현대건설 등 유통이 어려운 회사채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8,800억원임

○ '제일투자신탁증권'사가 '제일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2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제일투자증권'으로 변경했음

-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99년 1월 20일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제일투자신탁증권'이라는 사명을 사용해 왔음
-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3년 이후부터는 사명에 '투자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음

♣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2)

○ 동일종목 투자 한도 위반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 일부 배상 판결

- 지난 99년 대우채 관련 펀드에서 동일종목 투자 한도 (10% 규정)를 위반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신운용사가 손실분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12월 10일 부산지법 6민사부는 11월 16일 투신사의 펀드 종목당 편입 한도를 어겨 대우채 과다 편입에 따른 손실을 봤다며 D상호신용금고가 H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 2건의 분쟁조정 신청에서 모두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전례는 있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따라 99년 대우채 환매 연기 조치 당시 대우채 관련 펀드에서 규정을 넘어 대우 채권을 특정 펀드에 10% 이상 편입시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투신운용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약관에서 금지한 동일 종목인 대우전자 발행 채권을 투자한도 10%를 초과해 취득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당시 대우그룹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채권을 추가 또는 신규로 취득해 손실을 입힌 만큼 원고에게 6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적시했음
- 이에 대해 H투신운용은 당시 대규모 환매사태로 인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 금감원 신용평가 유효기간 폐지 추진

- 금감원은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신용평가 유효기간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은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새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할 전망
  -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한번 평가를 받은 뒤 평가 등급 유효기간 내에 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종전 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시장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금감원은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경우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의 평가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평가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가령, A기업이 1년에 회사채를 2회 이상 발행할 경우 2회분째 수수료는 전체의 30%까지 감면하여 부과함
  -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동시 발행할 때 기업어음 평가 수수료는 면제하고 기업의 유가증권 평가 수수료 한도를 6,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 경우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수수료 부담이 이전보다 약 15%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음

♣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3)

○ **자금이 모이질 않는 연기금 투자풀**

– 연기금 투자풀이 금감원의 상품약관 인가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연기금마다 자금 출연을 꺼리고 있어 집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음

- 금감원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기금 자금 통합펀드를 대상으로 한 MMF, 채권형 (채권 편입비율 60% 이상), 채권혼합형 (주식 40% 이하, 채권 50%이상) 등 3가지 상품의 약관 인가를 마친 상태임

–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품약관 승인이 난 만큼 이번 주부터 가동에 들어가지만 초기 자금 집행은 200억원~1,000억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밝힘

– 이 같이 60여개 소규모 연기금으로부터의 자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기획예산처는 당초 투자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에 대해 자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음

- 연기금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자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4대 연기금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강제 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언급
- 그는 또 MMF의 경우 투자목적이 아닌 대기성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현 운용시스템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음
-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거머쥐고 있는 만큼 각 연기금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금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2001년 12월 12일 수요일

○ MMF의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 축소 계획

– 금감위는 MMF의 한국증권금융 발행 어음 의무 편입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행 MMF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증금어음으로 운용토록 의무화돼 있는 것을 10% 범위 내에서 금감원이 정하도록 할 계획임

– 증금어음은 지난 98년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사의 자금 지원 차원으로 투신안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시행해 왔으나, 최근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너무 많아 MMF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받아 왔음

○ 연기금풀 12월 5천억원 운용 계획

– 기획예산처는 12월 11일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열어 투자풀 펀드 운용 약관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발표했음

- 이에 따라 연기금 투자풀은 12월 중 5천억원, 내년에 5조원 정도를 연기금에서 예탁받아 운용될 전망임
- 운용 약관에 따르면 주간 운용사인 삼성투신운용 등 투자풀 운용기관은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채권은 신용등급 A 이상, CP는 A2 이상에만 투자해야 함

– 기획예산처는 1년마다 운영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 2001년 12월 13일 목요일 (1)

○ MMF 및 고수익 펀드 전면 검사

– 금감원이 최근 자금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MMF와 CBO펀드 등 고수익 펀드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섰음

-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상품 약관에 위배되거나 방만하게 고객자산을 운용해 온 투신사들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 투신권에 비상이 걸렸음
-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MMF 수익률 조정 문제, 고객 환매 요구에 따른 분쟁 문제, CBO펀드의 의무 채권 편입비율 준수 여부, 상품약관 위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임

– MMF의 경우 고객 돈을 받아 운용한 후 원리금을 돌려주는 수시 입출식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신사들은 이 자산을 장기 채권에 투자해 자산 운용상 만기 불일치로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12월 들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기업들의 연말 자금 마련을 위해 MMF의 대규모 환매 사태도 예상되어 자금시장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금감원 장기증권저축 편법 가입 조사

– 금감원은 증권 위탁계좌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으로 편법 이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증권사에 관련 지침을 내렸으며 조만간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장기증권저축은 신규 증시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현금만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증권계좌의 주식을 곧바로 장기증권저축 계좌에 이체할 수 없도록 돼 있음
- 그런데, 증권회사가 현금을 잠시 빌려주는 방식 (신용공여)으로 장기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한 뒤 동시에 일반계좌의 주식을 팔고 장기증권저축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주식을 이체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

– 금감원은 최근 위탁계좌 주식이 장기증권저축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의 지침을 증권업협회를 통해 각 증권사에 전달했음

- 증권사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으며, 증권저축 계좌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와 친인척간 계좌 이동이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

♣ 2001년 12월 13일 목요일 (2)

○ 외수펀드 자금 유입 활기

– 한 동안 뜸했던 외수펀드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이들 펀드들은 우량주 중심의 공격적 투자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가 상승세에 일조할 전망
- 외수펀드란 외국인이 국내 투신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 한도에서 제외돼 한국통신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는 종목을 한도에 상관 없이 살 수 있음

–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접촉 중인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이 세계 신흥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외국인 직접투자의 종목당 투자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데다 증시가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외수펀드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번 외수펀드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우량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산의 90% 이상까지 주식을 편입하는 공격적인 운용을 할 것으로 알려졌음

○ 세종투신 모건스탠리에 매각 예정

– 세종증권의 자회사인 세종투신운용이 연내 외자 유치를 목표로 모건스탠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음

- 세종투신은 이번 주 중 모건스탠리와 외자 유치 협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투신운용 지분 80% 이상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 당초 세종증권은 모건스탠리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공동 경영을 희망했으나, 최근 모건스탠리측이 세종증권의 브랜드로는 투신 영업이 원할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단독 주주를 희망했다고 알려짐

- 이처럼 모건스탠리가 세종투신을 인수해 국내 투신 시장에 독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메릴린치 투신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감안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모건스탠리측은 투신운용 임원을 본사에서 1명만 파견시키고 나머지 임원은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국내 유수의 투신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작업에 돌입했음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1)

○ 대우증권 국내 업체와 매각 협상

- 정건용 산은 총재는 12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포기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우증권을 매각키로 했으며, 현재 국내 2~3개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
  - 정 총재는 산은이 보유 중인 대우증권 지분 39.09%를 전량 매각할 방침이며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대우증권에 대한 산은의 투자금액 (장부가액)은 총 4,700억원이며,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8,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
- 금융계에선 대우증권의 매각 협상자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동원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한빛증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우증권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은행신탁상품 시가평가 의무화 앞두고 채권평가사 수주 경쟁 치열

- 내년 1월 은행신탁상품의 시가평가 의무화를 앞두고 민간 채권평가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채권의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채권평가사는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키스채권평가 등 3곳임
  - 이들 민간 평가사들은 투신 수익증권에 이어 은행신탁상품의 수주 결과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 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은행들은 그 동안 은행신탁에 편입한 채권 가격을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기준수익률에 따라 산정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민간 채권평가사 중 2곳을 중복 선정해 신탁상품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함
  - 특히, BB 등급 이하 투기등급 채권에 대해서는 민간 평가사들의 가격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채권평가사들은 은행신탁상품의 시가평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가격 정보 이용료가 연간 평가 대상 채권 액면가액의 0.002%에 저렴한 수준이어서 신탁상품 내 편입채권 30조원 전부를 평가해도 일년간 매출액이 6억원에 불과함
  - 한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채권 보유기관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재 서비스 수준에서의 적정 수수료 수준은 0.003~0.004%는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고유계정 내 채권에 대해서도 시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수수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은행 고유계정 내 채권 규모는 대략 170조원 정도지만 이 중 장부가 평가 대상을 제외하면 80조원이 시가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신탁상품과는 달리 1조원당 1억원의 정액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2)

○ JP모건과 $1억의 분쟁에 휩싸인 대투

- 대한투신운용과 JP모건이 중남미 채권의 부도 처리를 놓고 $1억 (약 1,300억원) 규모의 분쟁에 휩싸였음
  - 대투운용은 12월 13일 중남미 지역 투자를 대행하는 JP모건이 최근 아르헨티나의 채무 재조정에 따라 보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음
- 대투운용은 1996년 $8,000만 (당시 환율로 약 667억원) 규모의 '대한 글로벌 공사채 2호' 펀드를 만들었음
  - 그 후 이 자금에다 해외에서 빌린 $5,600만을 더해 국내 채권에 $4,000만, 중남미 채권에 $9,600만을 투자해 왔음
- 양측의 분쟁은 지난 12월 7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 채무에 대해 채권단이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됨
  - 이에 대해 JP모건은 채권 발행국의 정부가 부도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아르헨티나의 채무 재조정은 사실상 부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 대투운용은 채무 재조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도로 볼 수 없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12월 17일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양측은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자발적 채무 재조정이 이뤄졌던 전례가 없어 이견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한편 양측의 분쟁으로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음
  - 이 펀드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83개 법인이 604억원, 개인투자자 145명이 63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있음
  - 이들은 그 동안 해마다 13%선의 현금 배당을 받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지만 만기인 오는 17일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전망임

♣ 2001년 12월 15일 토요일

○ 도이치신탁운용 예비 허가

– 금감위는 12월 14일 도이치투신운용의 투자신탁운용업 예비 허가를 의결했음

- 도이치투신운용은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도이치뱅크 그룹의 자산운용업무 부문 지주회사인 도이치자산운용 그룹이 100% 지분을 갖게 될 예정임

○ 재경부 이자·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비과세상품 줄이기로

– 내년 상반기부터 이자·배당소득세율이 현행 15% (주민세 포함 16.5%)에서 1~2% 정도 경감도는 대신 비과세나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재경부 관계자는 12월 13일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 조항은 축소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세율 인하 시점을 개정법이 발효될 2002년 상반기로 할지 2003년 1월로 할 지는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지금보다 1~2% 내리고 중산·서민층 지원 효과가 작은 일부 세금우대 상품을 없애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손실 및 분쟁 사례

–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인 위험분산 요건조차 지키지 못해 해외펀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실정임

- 펀드를 운용할 경우 투자 대상을 분산하거나 손실 발생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두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투자가 다반사인 실정임

– 주요 해외펀드 손실 및 분쟁 사례

회사명	펀드명 (규모)	분쟁 대상기관	손실 발생 이유	처리 결과
SK증권	다이아몬드 등 2개 해외 파생상품	JP모건	동남아 펀드에 투자한 후 바트화 폭락으로 $3억 손실 발생	JP모건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손실 보전 합의
한국투신	듀얼턴펀드 (1,700억원)		러시아국채 펀드에 투자 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1,500억원 손실 발생	투자원금의 20%를 투신사에서 변상
현대투신	하이일드펀드 등 3개 (총1,400억원)		러시아국채 펀드에 투자 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1,000억원 손실 발생	손실액에 대해 20% 투신사에서 변상
대한투신	대한 글로벌 공사채2호 ($1억3,000만)	JP모건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해 $8,000만 손실 발생	JP모건 상대로 소송 진행 예정
동양증권	아시안 스트레티직 캐피털 ($1,600만)		필리핀 장외주식에 투자	전액 손실

♣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

○ 장기증권저축 2조원 육박

– 증권업협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증권저축 판매 실적이 12월 14일까지 총 14조9,87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음

- 증권사들이 열띤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면서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 내년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판매액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임

– 장기증권저축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증시 고객예탁금도 최근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면서 지난 12월 14일 현재 총 10조5,728억원에 이름

- 그러나, 한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간 무리한 유치전이 전개되면서 증권회사가 일반 계좌의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장기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하면서 생기는 예탁금 증가 허수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 대투운용 JP모건에 대해 소송 제기

– 대투운용은 JP모건이 12월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투자펀드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JP모건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출했음

- JP모건이 디폴트를 선언한 금액은 해외 투자분 $9,600만과 1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이자 10.2%를 합한 $1억580억임
- 만기일인 12월 17일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일정 기간 유예될 예정
- 이와 별도로 대투 협상단은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 배상액 $3억 지급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JP모건 본사에 통보한 상태임

– 대투운용 관계자는 국가 부도, 개별 채권 부도, 정부 당국의 비자발적인 채무조정 등 세 가지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JP모건이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

- 세 가지 중 어떠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JP모건측이 일방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사채업자가 돈을 안갚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JP모건-체이스 관계자는 원리금을 갚지 못할 부도 사유가 발생했으며 12월 17일 그 근거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반박

– JP모건이 투자원금 $9,600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 받기는 커녕, 오히려 해외 차입금 $5,600만을 국내 채권 투자분 $4,000만으로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음

- 현재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개인이 145명 (63억원), 법인 83개 (604억원)임

♣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 (2)

○ **펀드 회계처리 업무 관련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자산운용업계의 펀드 회계 처리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업계 전체의 공통적인 적용 기준과 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임

- 지난 해 4월 금감원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업계 공통의 회계기준을 만들었지만 업계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회계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임
- 특히, 지금까지 회계 처리 업무에 관한 감사에서 한 번도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이 지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 더군다나 업계에서도 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만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 수박 겉핥기식의 회계 업무를 해오고 있어 잘못된 회계 처리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투신협회에서 이 같은 투신사 회계기준의 공동안을 마련해 놓고 업계의 통일적인 회계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내 투신협회도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회계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업계 통일안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임

–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기준의 정립과 세무회계 등에 관한 통일 기준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한 관계자는 투신사가 펀드평가사에 자료를 보낼 경우 회계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 자료 생산이 틀리고 이는 펀드산업의 질적인 저하 초래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특히, 수수료가 너무 저렴해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회사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임

- 외국의 경우 단순 펀드 계산 업무의 수수료만 해도 5bp에서 10bp이지만 국내는 계산 업무외에 회계 업무 등 온갖 업무를 다 해주는데도 수수료가 2bp 밖에 안돼 관련 업무에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 2001년 12월 18일 화요일

○ 재벌 금융사에 계열사 의결권 30%까지 허용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사,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 대기업 산하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같은 계열 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전망임
  -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지분 한도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동일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 국회 정무위는 12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음
- 국회 정무위는 의결권 행사의 시행 일자를 정부 원안의 내년 4월 1일에서 법안 공포일로 수정 의결해 내년 초 주주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임
  - 개정안은 자산 순위로 일괄 규제해 온 30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호출자 제한,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형태별로 규제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짐
- 국내 대기업들은 그 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동일 계열사 의결권 금지는 경영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음
  -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저축과 투자 자금이 재벌 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음

○ 차익거래펀드 옵션에서 손실

- 차익거래펀드들이 투기적인 옵션 거래에 치중하면서 손실을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정상적인 차익거래펀드라면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려야 하고 지수가 장중에 큰 폭으로 변하며 출렁거릴 때는 차익거래펀드 수익률이 더 커지는 게 정상임
  - 하지만, 거래수수료 부담이 없는 증권사 고유계정이 차익거래에 동참하면서 운용사 펀드들의 차익거래 참여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펀드 수익률이 계속 낮아졌음
  - 이에 따라 차익거래펀드들은 투자 위험이 높은 투기적 거래인 옵션 거래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펀드들 간에 수익률 경쟁이 불붙으면서 무위험 차익거래가 아닌 투기적인 차익거래에 치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주 초반 하루 변동폭이 50포인트까지 벌이지는 급락장에서 박스권 등락을 예측하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지수 하락폭을 잘못 예측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2월 19일 수요일 (1)

○ UBS운용 연내 한투운용 인수의향서 제출

- 한국투신증권과 한국투신운용사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UBS자산운용측이 12월 내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매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임
  - 홍성일 한투증권 사장은 12월 18일 UBS자산운용측이 한투운용 지분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곧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언급
  - 협상 시한인 내년 3월 말 이전에 한투운용 지분 매각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UBS자산운용측은 한투운용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측에선 한투운용과 한투증권 지분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홍 사장은 UBS 뜻대로 일단 자회사인 한투운용을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다음 한투증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
- 한투증권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당시 현물로 출자받은 기업은행 주식 7,600만주를 미국계와 유럽계 등 외국 기관들에게 교환사채 방식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홍 사장은 기업은행의 EPS가 1,500원으로, 적정 주가가 15,000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이익 실현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혔음

○ 금감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

- 금감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준사법적 강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음
  - 국회 재경위는 12월 18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음
  - 이로 인해 금감위가 증시 불공정 거래 혐의자 신문과 물건 압수 및 사업장 수색 등 강제 조사권을,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도 증시의 이상 매매 혐의에 대한 심리권과 이상 매매 혐의 관련 회원에 대한 감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음
- 소위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과 내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 국가 보증 동의안을 의결하여 12월 19일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음
  - 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법 제정안,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 발행 국가 보증 동의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 2001년 12월 19일 수요일 (2)

○ 내년부터 우리사주 성과급 허용

– 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 개선안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1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상장과 비상장기업 등 모든 기업이 자사주식을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살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무상으로 받은 자사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 아울러, 근로자들이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0.2~0.5%의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임

–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식이나 현금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이 산하 사주조합에 낸 주식과 현금은 모두 비용 처리됨

- 대주주나 다른 기업 등 제3자가 조합에 현금을 내면 개인은 10%, 법인은 5%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

– 사주조합은 기업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3년간 보관한 뒤 늦어도 7년 이내에 일시적 또는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음

- 주식을 받은 근로자는 1년간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사주조합은 기업이나 노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을 경우 다음 해 6월까지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주조합은 내년 6월까지는 이에 맞게 규약을 고쳐야 함

– 비상장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도록 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퇴직 등의 이유로 주식을 팔 경우 해당 비상장기업이 주가를 협의해 살 수 있게 했음

– 개선된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내용

항 목	세 부 항 목	현 행	내 년 이 후
취득과 보유	취득 방법	우선 배정	기업 출연 (성과급), 시장 매입, 우선 배정
	취득 자금	본인 부담	기업 출연, 노사 공동, 본인 부담 등
	자사주배정	즉시배정	기업 출연: 3~7년, 본인 부담: 즉시 배정
	배정 후 의무 보유	1년	1년
우리사주조합	법적 성격	불분명	사단법인화
	권한	관리자 기능	매입, 보유, 배정 권한, 의결권 행사
	업주 의견 반영	창구 없음	노사 동수 위원회 설립
비상장법인	법적 근거	없음	우선 배정 등 근거 마련
	환매수	불가능	허용

♣ 2001년 12월 20일 목요일

○ 금융 법안 무더기 표류

– 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입법이 무더기로 보류되어 정부 금융정책 운용은 물론이며, 개별 금융기관 구조조정 일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됨

- 국회 재경위는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음

– 보류된 주요 금융 법안 및 영향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신기술 산업금융지원법 개정안 심의는 보류됐으며, 예보채 만기 연장 동의안은 재심의하기로 했음
-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서울은행 매각 작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임
- 금융지주회사 내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보류되어 자회사간 기능 재편을 위해 카드, 전산 자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금융그룹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음
-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어 상장지수펀드 설정 및 간접투자신탁의 판매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신종상품 발매를 준비했던 금융회사들로서는 허탈한 상황임
-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도 내년 2월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음

– 한 시장 관계자는 금융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지적

○ '차이나펀드' 인기

–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차이나펀드'의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추가 판매가 줄을 잇고 있음

– 투신사의 '차이나펀드' 상품 소개

운용사	판매사	상품	가입기간	특징
슈로더 투신	씨티은행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12월 말까지 (12/19일 현재 775억원 판매)	한국 국공채 60%, 중국 및 대만 홍콩기업 주식 40%,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	한미은행, LG투자·현대·동양증권, 제일투신, 동양오리온투신	차이나 세이프 분리과세	2002년 1월 16일까지	한국 회사채 (AA- 등급 이상) 85%, 중국 주식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HSBC	HSBC 차이나펀드	판매 완료 (305억원 판매)	한국 국공채 85%, 중국 주식 15%
한국투신	한투증권	TAMS 차이나 골드 혼합펀드	–	채권 및 유동성 자산 70%, 중국 주식 30%, 세금우대 혜택

♣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1)

○ **내년 세계 증시 대체로 상승 기대**

– 미국의 메릴린치증권이 최근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의 주요 펀드매니저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8%의 펀드매니저들이 1년 후 주가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 메릴린치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주요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조사 대상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모두 $7,000억 (약 910조원)에 달함

– 향후 1년간 세계 실물경기와 관련해 응답자의 22%는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64%는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음

- 약간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이며, 현상 유지는 5%에 불과했음

– 펀드매니저 대부분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경기 관련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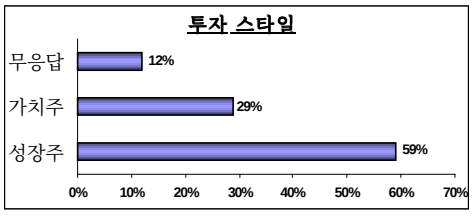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신, 기술, 언론, 철강, 항공, 해운 등을 중심으로 향후 3개월 이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반면, 그 동안 경기 방어주로 각광받았던 전기가스, 식품, 음료, 제약 등 내수 관련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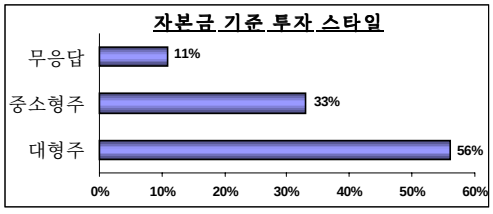
– 이와 함께 41%의 펀드매니저가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25%의 펀드매니저는 지금보다 채권 투자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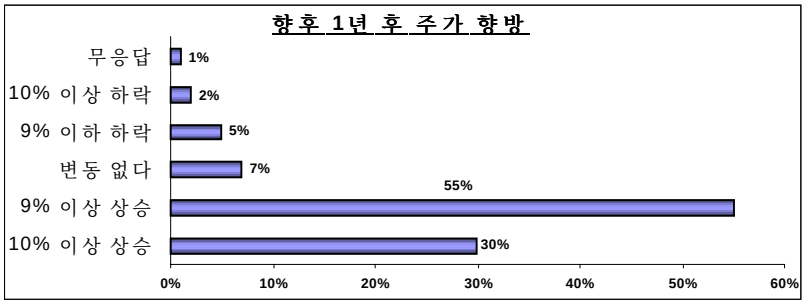
– 이번 설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 기피증'임

- 향후 12개월 동안 유로화를 매수하겠다는 펀드매니저가 52%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장 기피하는 통화는 일본 엔화라고 답한 비율이 78%를 기록했음
-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비중을 확대할 시장으로는 미국 (33%), 유로 역내 (24%), 신흥시장 (24%)을 꼽은 반면, 이 기간 동안 비중을 축소할 지역으로 일본이 무려 53%를 차지했음

– 설문 조사 내용







♣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2)

○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유보**

– 여야 총무와 정책위 의장은 12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 회담'을 열고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음

-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기금관리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정부측 요청에 따라 견해차가 큰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 조항 삭제 여부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고 설명
- 이에 따라 연기금은 당분간 현행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된 규모 만큼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음

♣ 2001년 12월 22일 토요일 (1)

○ 중국도 경제 위기 가능성

– 중국 경제의 생산성이 의외로 낮기 때문에 고도 지식정보 사회를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이 현 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향후 큰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지적했음

- 싱가포르의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2월 21일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내부 도전과 외부 환경의 소용돌이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쟁 체제 도입과 기술 상업화 등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고 전했음

–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53개 첨단 공업지구를 지정했지만 고용 인구는 220만명에 불과한 반면, 부실 투성이 국유기업들로부터 잘려 나온 직장인들 수만 해도 3,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음

- 중국의 첨단산업 센터들은 겉보기와 달리 중국이라는 거대 사회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임
- 세계은행은 산업·고용 불균형은 중국 정부가 환상에 사로잡혀 농업·제조업·서비스업 현대화를 목소리 높이 외쳤을 뿐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은 도외시했던 결과라고 언급
- 향후 10년 동안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첨단산업 분야의 수용 능력은 3,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세계은행은 관측했음

– 세계은행 Carl Dahlman 박사는 중국이 기술 개발과 기술 상업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며, 자유 경쟁 허용,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기술 특허와 첨단기술 수입 등을 통한 지적 기반 확보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음

○ MMF 편입 증금어음 비율 내년 2월부터 6%로 인하

– 금감원은 12월 21일 MMF에 대한 증금어음 의무 편입비율을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이 비율을 6%로 낮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국내 투신사들은 투신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증금어음을 MMF 수탁고의 10%까지 의무 편입하도록 돼 있으나 증금어음의 금리가 콜금리 수준이어서 MMF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해왔음
- 특히 올들어 MMF 수탁고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투신안정기금 지원용을 초과하는 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기도 했음
- 아울러 기금 조합원인 6개 투신사 중 삼성투신이 MMF에 운용 중이던 여유 자금의 수탁을 거부한데 이어 최근 조합원 탈퇴를 요구하는 등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음

– 이로 인해 MMF 수익률은 평균 0.05% 가량 상승하지만 이 자금을 운용 중인 5개 투신사들은 모두 1조4,000억원 가량을 곧 상환해야 돼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

- 현재 증금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은 모두 3조8,305억원으로 이 가운데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으로 사용된 1조2,179억원을 제외한 2조6,129억원이 여유 자금으로 5개 투신사 MMF에 예치돼 운용되고 있음

♣ 2001년 12월 22일 토요일 (2)

○ AIG 현투 매각 본 계약서 초안 전달

– 금감위는 12월 21일 AIG 컨소시엄측이 최근 현대투신 매각과 관련한 본 계약서 초안을 전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음

-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MOU 효력 시한 연장 여부는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대증권과 AIG간의 출자와 관련한 협상도 양측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MOU 효력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양측이 협상 타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음

♣ 2001년 12월 24일 월요일 (1)

○ 증권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2억원으로 하향 조정

–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내년 상반기 중 2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

- 재경부는 12월 23일 금융업 진입 및 겸업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음
- 이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

○ 자산운용사 투신 전환 다각도 모색

– 자산운용사들이 내년 투신사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합병과 외자 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에셋은 투신과의 합병을 전제로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인가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 중이며, SEI, 마이다스 등은 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후발 자산운용사 중 다임인베스트먼트는 아직까지는 투신사 전환에 적합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합작 방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대다수 운용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가운데, 아직까지 투신사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완비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대다수 운용사들이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신사 전환 요건인 납입자본금 100억원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가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본잠식분까지 해소한 후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하는 지도 모호한 상태임

– 금감원은 현재 운용사의 투신사 전환과 관련해 인가 신청 통보를 했지만, 운용사별로 내부 조건과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아직 혼선을 빚고 있음

- 한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잠식분에 대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내부 허용 지침이 아직 미흡해 이를 확정하는데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이라고 언급
-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투신사를 포함해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2001년 12월 24일 월요일 (2)

○ **변액보험 시장 내년 활성화 기대**

– 최근 보험사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액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감독규정에만 명시돼 있어 투신권 등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 삼성, 교보, 신한생명 등 이미 변액종신보험을 팔고 있는 생보사들은 저축성 기능을 가미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상품 개발에 들어갔음

• 보험업계는 내년 4월쯤 새로운 형태의 변액보험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01년 12월 26일 수요일 (1)

○ **삼성생명 자산 4조원 삼성투신에 위탁 운용 추진**

– 삼성생명은 동일 계열 투자신탁회사인 삼성투신운용에 1차로 4조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운용을 맡기고 위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생보사 자산을 계열 투신사에 집중 위탁할 경우 현행 투신업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시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삼성생명 관계자는 12월 25일 삼성생명의 운용자산 48조원 중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운용을 삼성투신에 아웃소싱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삼성생명측은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만큼 위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4조원의 유가증권을 삼성투신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는 위탁 규모를 20조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삼성생명의 운용인력을 삼성투신으로 보내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만약 삼성투신이 삼성생명 자산 20조원을 넘겨 받게되면 삼성투신의 운용자산은 40조원에 이르러 투신업계에서 최고 위상을 갖게 됨

–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투신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운용을 넘길 경우 투신업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 아웃소싱 계획을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며, 다만 이런 움직임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투신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우려도 있다고 밝힘
- 그는 또 투신사의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증권사와 인원, 전산 설비 등에 차단벽이 처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사로부터 운용 간섭을 받을 소지가 있는 투신사의 위탁 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2001년 12월 26일 수요일 (2)

○ **공적자금 남은 자금 4조8,000억원뿐**

– 재경부는 1997년 말부터 올해 11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2조9,000억원으로 10월 말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12월 25일 밝혔음

- 증가분은 서울보증보험에 2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대지급에 2,000억원이 사용됐음
- 금융기관별 투입 금액은 은행 85조원, 보험 20조6,000억원, 종금 19조6,000억원, 증권 및 투신 16조원, 금고 7조4,000억원, 신협 2조원, 기타 2조3,000억원임

– 회수액은 10월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37조9,500억원으로 회수율은 24.8%에 머물렀음

- 이에 따라 2차로 조성한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 45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남아 있는 자금은 4조8,000억원에 불과함

–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현황 (단위: 조원, %)

기관	투입	회수	회수율
예금보험공사	95.5	13.0	13.6
자산관리공사	38.4	24.9	64.8
정부 등	19.0	0.05	0.3
합계	152.9	37.95	24.8

♣ 2001년 12월 27일 목요일 (1)

○ 우리금융지주회사 대우증권 인수 유력

– 정건용 산은 총재는 12월 26일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 지분을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넘기는 대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일정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산은 보유의 대우증권 지분 (39.09%)과 우리금융의 지분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우증권 경영권이 우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음

– 우리금융 관계자도 내년 1/4분기 중 증권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증권사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산은과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경우 지분 맞교환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우리금융은 대우증권을 인수한 후 기존의 증권 부문 손자회사인 한빛증권과 합병해 증권부문 자회사로 승격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우리금융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국내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운데다 유력한 인수처인 국민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계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모두 정부인 만큼 양측의 지분 맞교환 협상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증권 금융상품 국가표준 제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증권분야 금융상품 분류코드 (이하 CFI: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에 관한 KS 규격안을 제정하여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월 26일 밝혔음

– CFI는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유가증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맞춰 제정됐으며, 등록기관인 증권거래소가 이를 부여할 예정임

- CFI는 알파벳 6자리로 이뤄지는데, 첫째 자리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권리, 옵션, 선물, 기타증권 등 범주를 나타냄
- 둘째 자리는 보통주, 우선주,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일반 채권, 전환 채권 등의 여부를 나타내며, 나머지 네 자리는 의결권이나 소유 및 양도 제한, 납입 상태, 증권발행 상태 등 각 그룹의 속성을 나타냄

–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12자리의 식별코드를 사용해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국제 표준인 CFI를 사용할 경우 유가증권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음

-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증권 거래량의 10% 안팎인 국가간 증권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2001년 12월 27일 목요일 (2)

○ **투신권 후순위채 손실 비상**

– 투신권이 보유한 후순위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후순위채를 주로 편입하고 있는 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 펀드에 비상이 걸렸음

- 이들 펀드의 경우 지난 2~4월 대부분 투신사들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으나, 내년 3월 이후 또 다시 대규모 만기가 돌아오는데다 펀드 수익률이 초기 펀드에 비해 크게 떨어져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12월 26일 한국펀드평가사에 따르면 투신권 CBO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8% 정도로 지난 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지난 해 15%에 비해 대폭 급락한 5%에 불과한 수준임

– 대부분 후순위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일시 상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돼 펀드에는 이자가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수익으로 계상되고 있음

-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투신사는 펀드의 유동성과 고유계정의 자체 자금으로 환매에 응해야 하는 입장임
- 펀드가 만기 연장될 경우 후순위채의 밀린 원금과 이자도 다음 펀드로 넘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장 운용사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투신사 입장에서 후순위채 부실이 투기채 펀드의 환매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이미 올해 흥창, KDS, 인천정유 등의 부도 여파로 펀드 수익률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하이닉스 등 아직 상각 처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음
- 아울러 금리가 완연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음

♣ 2001년 12월 28일 금요일 (1)

○ 일부 대형 투신사 스팟펀드 안판다

– 삼성투신과 현대투신 등 대형 투신사들이 내년부터 초단기 주식투자 간접상품인 스팟펀드와 3개월 만기 채권형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음

- 초단기 주식 및 채권 간접투자 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펀드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임

– 현대투신의 한 관계자는 스팟펀드는 고객에게 수익률만 제시했을 뿐 이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수익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상품이라며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스팟펀드를 개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아울러 3개월 만기 채권형 펀드의 경우도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너무 커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매하지 않을 방침임

– 한 투신권 관계자는 향후 투신권 상품은 장기 상품 위주로 개편돼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투신사가 판매하는 상품도 장기 상품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

- 금감원도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스팟펀드 판매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관련 제도

– 내년 1월 2일부터 MMF 내의 편입 채권 가격 조정 및 처분 의무화 기준인 시가와 장부가 허용 괴리율이 현행 0.75%에서 0.5%로 축소되며, 편입 가능 국채 및 통안증권의 잔존만기는 현행 1년 6개월 미만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임

- MMF에 자산의 10% 이상을 편입해 온 증금어음을 내년 2월 중 6%로 축소 조정할 예정임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운용 대상을 확대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스왑 거래가 1/4분기 중 허용될 전망

– 1/4분기 중 대규모 기업집단이 보유한 소속 위탁회사의 계열사 지분의 30%까지 그 계열사의 합병, 영업 양도, 임원 임면, 정관 변경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금감위 승인을 받던 증권투자신탁의 계약 해지는 펀드 청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펀드의 경우 승인 없이 해지할 수 있음

- 금감위가 갖고 있던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정 및 변경권은 2002년 상반기부터 투자신탁협회에 위탁될 방침임

– 내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채권의 평가 기준을 채권가격 평가회사의 제시 수익률로 일원화하여 그 동안 미뤄져 왔던 은행신탁 내의 비상장채권 평가 방법이 좀 더 정확한 채권가격 평가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됐음

- 기존 증권업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수익률 또는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채권가격을 평가하던 것을 2개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만을 기초로 평가해야 함

♣ 2001년 12월 28일 금요일 (2)

○ 하나·제일은행 내달 합병

–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이 이르면 내달 중순쯤 합병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

- 하나은행 관계자는 12월 27일 수개월간 진행돼 온 제일은행과의 합병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몇 가지 걸림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합병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이미 인력 및 조직 축소 방안 등 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측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답변이 오는대로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하나은행은 직원 1인당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일은행이 현재보다 30% 이상 인력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제일은행 노조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됨

○ 장기증권저축 2조5천억원 돌파

– 장기증권저축 판매액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섰음

- 12월 27일 증권업협회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판매가 시작된 증권사의 장기증권저축이 2개월만인 지난 12월 26일까지 2조5,898억원이 판매됐음

– 증권사별 판매 규모는 삼성증권이 9,348억원으로 수신액 1위를 기록 중이며, 대우 3,459억원, 현대 2,745억원, LG 2,285억원, 한국투신 1,747억원 순임

- 한편 수익률은 투신사 간접투자 상품인 장기증권저축 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 이후 평균 10%대를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인 펀드 일괄매매 허용

– 내년부터 투자 주체가 외국인인 해외 펀드들도 국내 투자신탁운용사나 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가처럼 운용 주체가 같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 주식을 산 뒤, 소속 펀드에 배분하는 일괄매매가 가능해 질 예정

- 금감원은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투자 주체인 해외 펀드들은 국내기관 투자가와 달리 각각 펀드별로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고 등록한 명의로 계좌를 각각 개설해 계좌별로 매매하도록 돼 있음

- 같은 날 주식을 사더라도 각각의 계좌 명의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과 매각 때 가격 차가 발생하여 펀드별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지적돼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련 규정 해소를 주문해 왔음

– 금감원은 일괄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배분 내역은 다음 날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투자자 집단은 대표 투자자를 지정해 사전 신고하도록 했음

♣ 2001년 12월 29일 토요일

○ 투신권 주식 매집 본격화

– 폐장을 앞두고 주가가 이틀째 급등한 가운데 투신권이 본격적인 주식 매수를 시작했음

- 투신권은 지난 12월 27일 649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데 이어 폐장일인 28일에도 1,867억원을 순매수하여 이틀 동안 2,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음

– 증권 전문가들은 투신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말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주식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투신권의 주식 편입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 장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선취매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음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운용사별 격차 심화

– 투신권이 지난 8월 이후 집중 판매한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가 운용사별로 판매 규모나 수익률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현황 (단위: 개, 10억원)

운용사	펀드 수	설정액	연환산 수익률 (%)
현대투신	5	1,006.3	7.90
한국투신	1	321.8	3.68
대한투신	3	136.5	6.96
제일투신	3	225.8	5.65
삼성투신	1	466.3	7.86
동양오리온투신	1	144.5	6.88
대신투신	1	4.4	4.93
동원투신	1	25.6	14.69
LG투신	2	159.5	4.18
교보투신	1	2.4	7.87
한화투신	2	64.3	6.52
SK투신	1	45.6	2.61
템플턴투신	1	5.0	0.93
조흥투신	3	52.1	6.45
한빛투신	1	0.4	14.13
주은투신	2	31.4	2.32
동양종금	1	48.9	7.88
합계 (평균)	30	2,740.7	6.73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투신사는 현투운용으로 12월 26일 현재 설정액 1조원을 넘어 전체 시장의 1/3 이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음

– 12월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전체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설정액은 12월 26일 현재 2조7,407억원으로 연말까지 3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주식시장 활황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완전 비과세라는 장점에다 경기 회복시 투기등급 채권의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전망으로 꾸준히 가입이 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12월 31일 월요일 (1)

○ **계열 투신사에 자산운용 위탁 공정성 여부 논란**

–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산운용 위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는 투신사 일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자산운용의 아웃소싱 방침을 정하고 계열사인 삼성투신운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20조~30조원의 자산을 위탁운용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임
-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기관이 계열 투신운용사를 통한 유가증권 위탁 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오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언급

– 문제는 투신운용사에 유가증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임

- 시장 관계자들은 국·공채 등 시장 가격이 투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가증권은 펀드 편입시 가격 설정이 쉽지 않아 유가증권 가치를 조작하여 계열사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주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

○ **국민연금 벤처펀드 결성 각축전**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총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 조합원과 유한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오는 2월 1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아 3월 5일 결성키로 했음

- 이에 따라 우량 창투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 벤처펀드 결성시 공공펀드라는 이유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업무집행 조합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업무집행 조합원 선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임

– 결성 조합 규모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출자비율은 50% 이하, 최소 출자 금액은 30억원, 업무집행 조합원 의무 출자 비율은 15%임

- 투자 대상 조합은 일반조합과 BT, IT 조합 등으로 구성될 전망임
- 관리보수는 총 출자금 중 벤처투자 원금의 2.5%, 성과보수는 복리로 연 10% 상회시 초과수익의 20%임
- 업무집행 조합원은 손실 발생시 조합 총 결성 금액 대비 출자 비율 (최저 15%)을 우선 충당하고 잔여 손실 발생시 조합원 출자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함
- 이에 대해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은 기존 조합에 비해 업무집행 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과 성과보수 등 조합 결성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12월 31일 월요일 (2)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기대 및 우려**

– 최근 보험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자 그 동안 변액종신보험만 판매를 해왔던 보험사들이 상품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변액연금과 양로보험 등을 취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 상품의 전면적인 판매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임

– 시장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현재 내부 준비가 미흡하고 자산운용의 전문화를 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액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운용 능력면에서 검증이 안된 보험사들이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변액보험 상품에 특별계정이 도입되는 만큼 이에 맞는 법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으면 향후 보험 가입자들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분쟁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생보협회가 변액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 판매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 실적배당 상품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 후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